

목 차

투자설명서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
【 본 문 】	3
요약정보	3
1. 핵심투자위험	3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2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5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5
1. 공모개요	15
2. 공모방법	19
3. 공모가격 결정방법	20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24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7
III. 투자위험요소	40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33
V. 자금의 사용목적	137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9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142
I. 회사의 개요	142
1. 회사의 개요	142
2. 회사의 연혁	149
3. 자본금 변동사항	151
4. 주식의 총수 등	153
5. 의결권 현황	155
6. 배당에 관한 사항	156
II. 사업의 내용	158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90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210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213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13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218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19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220
VI. 주주에 관한 사항	223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31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231
2. 임원의 보수 등	232
VI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236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37
X. 재무제표 등	253
XI. 부속명세서	284
【 전문가의 확인 】	292
1. 전문가의 확인	292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292

투자설명서

2014년 08월 29일

두산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주) 제8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금 이천억원정(W2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4년 08월 29일
2. 모집가액 : 금 20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2일
4. 납입기일 : 2014년 09월 04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두산건설(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신영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동양증권(주) - 서울 중구 을지로 76

다. 투자설명서 : NH농협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SK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KTB투자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4. 8 . 29 .

두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희 선 

신고업무담당자 송 정 호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	-----

<p>사업위험</p>	<p>가.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타산업의 경제 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와 건설 수주의 부진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설업황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나.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 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p> <p>라.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5.0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12년도에 2.0만호 대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2월 저점을 기록 후, 2014년 6월까지 약 4개월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물량이 2008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 미분양주택 물량은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미분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마. 2010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p>
-------------	--

2013년에도 652.1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증가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으나 해외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최근 해외 플랜트 사업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어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조정 및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 메카텍BG가 영위하는 화공기기 사업은 Oil & Gas를 원료로 하는 사업의 Process Equipment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Oil & Gas 관련 산업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주도되고 있어 **교섭력이 제한적이고 수요의 변동성**이 큼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가 영위하는 화공기기 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용이 크고 납기도 긴 특성을 지니므로 경기악화 등 **외부적 충격으로 발주가 감소**하거나 연기될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 업계 전반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영업 마진의 상승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 강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납기 맞춤과 공정상 불량률 측정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Project 관련 부품 조달에 따른 납품지연, 부품 조립에 따른 불량 발생 등 수주 받은 Project 이행시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석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해양구조물의 설치해역이 점차 심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해양모듈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양모듈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에너지의 가격변동이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전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양모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 당사 HRSG BG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핵심기기 중 하나인 배열회수보일러(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열회수보일러(HRSG) 제작 사업은 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 기술제휴를 통한 다수의 단순생산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에너지 정책 및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발전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LNG 복합화력발전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매출은 LNG 복합화력발전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당사 렉스콘 부문은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건설산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에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수요가 급락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산업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인 건설업체에 비하여 **가격교섭력이 열위**하여 덤핑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후방산업인 시멘트 산업에 비교하여도 열위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의 가격 및 공급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당사의 종속회사 두산큐백스(주)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및 관광산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타산업과 비교하여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해외 골프인구 증가, 스크린골프/실내연습장 등의 대체 여가활동 및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일부 **국내 잠재 고객들의 유출**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당사는 건설사업(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기자재 및 레미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속회사를 통해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건설(건축/주택, 토목/플랜트)부문이며, 2013년 별도 기준 72.9%, 연결(연결조정 전, 단순합계금액)기준 66.1%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별도기준으로 메카텍 사업부문이 21.1%, HRSG를 제조하는 HRSG사업부문이 5.7%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동일기간 연결 기준으로는, 메카텍(국내 플랜트/화공기기등, 해외 플랜트/화공기기등) 19.1%, HRSG(국내/해외 HRSG, HRSG(DVH)) 6.0%, 렉스콘 7.2%, 큐백스 1.3%의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중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및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전체 매출은 2011년 14.4% 증가하였으나, 이후 건설부문의 매출감소로 인해 감소하며 최근 3년(2011~2013년) 간 평균 -0.9%의 매출감소를, 2014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2.9%의 매출감소를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의 전체 기말 수주잔고는 2010년 9.7조원에서 2014년 5.8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메카텍 부문은 2010년 4,158억 원에서 2011년 5,230억 원으로 증가, 2014년 6월 말 3,392억 원의 기말 수주잔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HRSG는 당사 사업부문으로 편입된 시점인 2013년 4월 2,902억 원에서 2013년 말 4,285억 원으로 증가, 2014년 6월 말 4,349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토목/플랜트의 경우 최근 3년(2011~2014.6) 간 15.1%, -18.9%, 6.0%, 16.4%의 증감을 보였습니다. 건축/주택의 경우 최근 3년(2011~2014.6) 간 각각 -4.1%, -27.9%, -10.0%, -28.6%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메카텍의 경우 합병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당사 실적에 반영되어 2011년 409.1%, 2012년 34.0% 증가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6월 -11.3%, -16.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HRSG의 경우 2013년 당사로 편입되어 약 9개월 동안 1,253억 원을, 2014년 6월까지 988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최근 3년(2011~2014.6) 간 12.8%, -14.6%, -0.9%, -6.2%의 증감을 보였으며,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은 동일기간 연결매출 대비 평균 93.8%의 비중을 보여 연결기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적은 건축/주택사업 대형 사업장의 공사완료, 건설경기 부진 지속과 경쟁심화, 국내외 플랜트 발주부진 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별도기준으로 최근 4년(2010~2014.6)년 간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668억 원에서 2011년 및 2012년 각각 -3,096억 원과 -4,535억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2013년 556억 원 및 2014년 6월 55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건설부문 중 주택사업장에서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영업용유동자산의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부문 별로는 건축의 경우 2012년 -4,889억 원의 영업손실을, 메카텍 부문의 경우 2014년 6월 -55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습니다. 기타 부문의 경우 사업부서가 아닌 본사 지원부서 등에 대한 비용배분에 의한 공통부문의 손실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영업이익을 시

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부문 및 레미콘사업을 영위 중인 렉스콘부문의 경우 경쟁심화와 건설경기 부진 지속 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메카텍 및 HRSG의 경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수주 및 실적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은 별도기준 수익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연결기준 순이익은 관계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바 최근 3년(2011~2014.6) 간 지분법손실 -95억원, -494억원, -315억원, -21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별도기준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은 2010년 -5,785억원, 2011년 -1,571억원, 2012년 408억원, 2013년 -4,829억원, 2014년 6월 -687억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과 연도 별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은 2010년 두산메카텍(주) 합병과 2013년 HRSG 사업부 양수로, 2013년의 경우 본사사옥을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매각하여 이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여 해당년도의 전체 투자현금흐름이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 기간은 제외할 경우 전체 투자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재무현금흐름은 총차입금 순증가로 인해 2010년 8,981억원의 현금흐름을, 이후 총차입금 순감소로 인해 2011년~2014년 6월 간 1,450억원, -1,729억원, 792억원, 620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현금흐름 변동에 따라 **최근 4년(2010~2014.6) 간 당사의 순현금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을 보임으로써 기말현금은 2010년 5,177억원에서 2013년 1,107억원, 2014년 6월 88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현금흐름은 별도기준 현금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기말현금은 2010년 6,103억원에서 2014년 6월 1,38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현금흐름 변동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0년 2.2조원에서 2014년 6월 1.5조원으로 **총 0.7조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배수는 각각 2010년 33.21x, 22.19x, -3.83x에서 2013년 26.37x, 18.77, -3.04x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대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차입금이 과도한 수준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각각 2010년 0.73x, 1.09x에서 2014년 6월 0.87x, 1.09x로 유의미한 개선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익수준이 이자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결기준으로는, **총차입금이 2010년 2.4조원에서 2014년 6월 1.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의 경우 2014년 6월 32.5%, 154.7% 입니다.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은 2013년 26.86x, 18.03x, -3.07x 이었으며,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2014년 6월 0.86x, 1.11x으로 **연결기준으로도 차입금 및 이자부담이 이익 수준 대비 큰 편입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14년 7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총차입금의 비중이 7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해 만기연장 및 차환과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외환경 악

화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규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만으로는 차입상환이 어려우므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2014년 6월 별도기준으로 당사 **종속회사등의 장부금액은 3,053억원으로 동일시점 당사의 총자산 49,093억원 대비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종속회사등은 당사로의 피합병, 타 계정으로 재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금액의 변동이 없어 손상차손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연결기준으로는 2011년 -95억원, 2012년 -494억원, 2013년 -315억원, 2014년 6월 -210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종속회사 등은 지분법손실로 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키거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사의 별도 및 연결기준 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의 타법인주식 중 금액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투자건 및 손실금액은 **2011년 지케이해상도로에 대한 투자로부터 -116억원, 2013년 에콘힐자에 대한 투자로부터 -159억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 금액적 중요성이 낮으므로 당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타법인주식 취득의 경우 손상차손 등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켜 당시의 실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최근 4년(2010~2014.6) 간 본사사옥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을 처분한 2013년을 제외할 경우,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유무형자산순취득액 비율은 평균 -0.5%와 -0.1%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예정된 투자는 창원공장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및 기본설비 노후교체를 위해 9억원 및 DVH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등으로 43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당사는 CPE, HRSG의 수출과 각종 원자재 해외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헤지로서 사전에 환위험을 축소하고 그 외의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111억원, 59억원, 15억원, 52억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SOC 사업 관련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옵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파생상품평가손실(2014년 6월 518백만원, 전년 동기 잔액 없음)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SOC사업과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 모집을 위해 재무적투자자에게 풋옵션과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2014년 6월 말 현재 총 **74,255백만원의 재판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미지급금 등(4,975백만원)을 인식 중입니다. 또한 PF사업장과 관련하여 **4,086억원의 보증**을, 종속회사, 당사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 **1,794억원의 보증**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차입금 등에 대해 **8,791억원의 유형자산, 종속회사 등 주식, 투자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 중입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

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에는 매출 등 거래 각각 2,106억원, 1,606억원, 2,173억원, 948억원과 매입 등 거래 각각 1463억원, 1466억원, 1591억원, 5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들로 2014년 6월 말 현재 당사가 인식 중인 **매출채권, 기타채권, 대여금은 총 509억원** 입니다. 당해 채권의 경우 당사의 외형 대비 금액적 중요성은 낮으나, 회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2014년 4월 정기평정 결과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직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하락**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어음 역시 동일자로 **A3+에서 A30로 하락**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는 지난 7월 27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으며, **과징금 추정액인 144억원을 2014년 6월 기준 실적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2013년 7월 25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일)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1년 이내에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 두산메카텍(주)를 합병하였으며, 2013년 4월 HRSG 사업부를 양수, 2014년 1월 (주)렉스콘을 합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현재 **영업권 총 2,675억원을 인식** 중입니다. CPE와 HRSG부문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실적 감소 외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비용을 추가로 인식하게 되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당사가 속해있는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된 기업집단 중 하나로 2013년 12월말 기준 총 25개의 계열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 동사의 영업 불황이나 재무구조 악화 시에는 이러한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당사 자체적으로 재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본 전환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본 전환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전환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BBB0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84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4년 9월 4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전환사채는 각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월이 경과한날 (2014년 10월 4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p>자.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주관회사와 체결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여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p>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84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전환사채	모집(매출)방법	일반공모
권면총액	2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0
발행가액	200,000,000,000	권면이자율	4.0%
발행수익률	7.5%	상환기일	2017년 09월 04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동부증권(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평가(주) BBB0(2014년 08월 18일), NICE신용평가(주) BBB0(2014년 08월 18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공동	신영증권	-	3,000,000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	동양증권	-	3,000,000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	엔에이치농협증권	-	3,000,000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	유진투자증권	-	3,000,000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	에스케이증권	-	3,000,000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	2,000,000	2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	케이티비투자증권	-	2,000,000	2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	-	1,000,000	1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2일	2014년 09월 04일	2014년 09월 01일	2014년 09월 03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차환자금	35,000,000,000
운영자금	165,000,000,000
발행제비용	4,239,40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용	100.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11,700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14년 10월 04일 ~ 2017년 08월 04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같음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임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 수익율은 3개월 복리 연 7.5%로 함 ▶ 위의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전환가액임 ▶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참고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84]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 전환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권 면 총 액		2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7.5%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4.0% ("표면이자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14년 12월 04일,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12월 04일, 2016년 03월 04일, 2016년 06월 04일, 2016년 09월 04일, 2016년 12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2017년 06월 04일, 2017년 09월 04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14년 08월 18일 / 2014년 08월 18일
	평가결과등급	BBB0(안정적) / BBB0(안정적)
주관회사의 분석	공동대표주관회사명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
	분석일자	2014년 08월 18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9월 04일에 원금의 111.653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과 2.5년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 2016년 03월 04일 105.5023%

		<p>2017년 03월 04일 109.5264%</p> <p>다. 청구장소 : 두산건설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p> <p>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p> <p>마. 지급장소 :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p> <p>바. 지급일 : 2016년 03월 04일, 2017년 03월 04일</p>
	상 환 기 한	2017년 09월 04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액,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의 조건 요약

(1) 전환가액: 11,70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4년 08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전환가액의 조정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거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ii)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리자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p>"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2014년 12월 04일,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12월 04일, 2016년 03월 04일, 2016년 06월 04일, 2016년 09월 04일, 2016년 12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2017년 06월 04일</p> <p>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p> <p>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p>
납입기일		2014년 09월 04일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회사명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
지급대행기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타사항		<p>(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p> <p>(2)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3)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4)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4.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7.5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p> <p>(5)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7.50%로 합니다.</p> <p>(6)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2014년 09월 04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년 10월 04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7년 08월 04일까지로 합니다.</p> <p>(7)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p> <p>(8)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2014년 08월 27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p> <p>(9)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p>

	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KTB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청약처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 본 전환사채의 발행수익률 7.5%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하며, 연리이자율 4.0%는 표면이율을 의미함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08월 19일 일반공모 방식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공모절차	비고
2014년 08월 04일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14년 08월 19일	이사회결의	-
2014년 08월 19일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4년 08월 27일	확정 전환가액 산정 및 공시	청약일전 3거래일
2014년 09월 01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4년 09월 01일	일반공모 청약	2영업일
2014년 09월 02일		
2014년 09월 04일	환불 / 납입	-
2014년 09월 04일	채권 발행 및 상장	-

주)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8월 19일) 기준 일정으로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및 관계기관의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일반공모

[회차: 84]

(단위: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200,000,000,000	100	총액인수
주주배정	-	-	-
기타	-	-	-
합계	200,000,000,000	1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입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전환사채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를 비롯하여 인수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KTB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는 두산건설(주)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 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는 연 4.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연 7.5%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 합니다.

나. 전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과 전환권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전환권은 별도로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므로 전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 (3) 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 (4)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 (5)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투자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2,000억원으로 한다.
- (6)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14년 09월 0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4년 09월 04일에 반환한다.
- (8)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

인수단명	구분	가능여부				
		본/지정	HTS	홈페이지	유선	ARS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투자설명서교부	○	○	○	×	×

유진투자증권(주) NH농협증권(주)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청약가능방법	○	○	○	×	×
KTB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교부	○	○	○	×	×
	청약가능방법	○	○	○	○	×

나. 배정방법 : 본 전환사채 청약에 응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하며, 인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3)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사채의 권면총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배정금액"은, 각 인수단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각 "청약미달회사"("청약금액"이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 별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은 "미배정금액"을 "청약미달회사" 사이의 청약미달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각 "청약초과회사"("청약금액"이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을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은 0을 적용한다. 본 호의 청약미달비율이라 함은 각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에서 "청약금액"을 차감한 사채금액을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전체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즉, 각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 = 미배정금액 × 개별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 전체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합산

* 미배정금액 = 본사채의 권면총액 - 총청약금액

(4)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한다.

(5)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6)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설명하면, 상기 (1)호 내지 (4)호의 통합배정은 청약일 중에 접수된 청약금액의 배정에 관한 원칙이며, 상기 (1)호 내지 (4)호의 통합배정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청약 결과를 요하지 아니한다.

(7)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그 청약미달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과 "공동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을 비롯하여 "인수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KTB투자증권(주)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금액은 2014년 09월 04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안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인수단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단, 인수단 별 교부방법은 가. (8)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참조)

(3) 교부일시 : 2014년 09월 01일~02일(2영업일간)

(4) 기타사항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나.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라.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

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작일	2014년 09월 01일(월)
	종료일	2014년 09월 02일(화)

(1) 본 전환사채의 청약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6시 00분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KTB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및 HTS

바. 납입장소

- (1) 서울지역 청약분: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
- (2) 지방지역 청약분: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및 상장예정일

- (1) 상장신청예정일 : 2014년 08월 21일
- (2) 상장예정일 : 2014년 09월 04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 (2) 본 전환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두산건설(주)의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NH농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SK증권(주)(이상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 KTB투자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이상 "인수회사")를 인수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채의 인수]

[제84회]

(단위: 원)

인수인				인수내역		인수조건
구분	회사명	고유번호	주소	인수금액	수수료	
공동대표주관회사	신영증권(주)	0013672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동양증권(주)	00117601	서울 중구 을지로 76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NH농협증권(주)	0011686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001318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30,000,000,000	대표주관수수료: 120백만원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회사	한화투자증권(주)	001486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2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회사	KTB투자증권(주)	001568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2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인수회사	하이투자증권(주)	00148665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10,000,000,000	기본인수수료: 인수금액의 1.7% 성과인수수료: 모집금액의 2.6% 이내	총액인수

[사채의 관리]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관리내역		비고
회사명	고유번호	주소	관리금액	수수료	
동부증권(주)	0011569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200,000,000,000	5,000,000	

■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있는 경우 공시로 같음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을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 재평가 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본금의 300%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3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10. "본 사채"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억원)

회차	금액	연리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	2,000	4.0%	2017년 09월 04일	3. 사채의 기타 주요 권리내용 참조

주) 상기 연리이자율 4.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7.5%임

- 당사가 발행하는 제84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입니다.

2. 전환권의 내용 등

가. 전환권의 내용

(단위:원)

항목		내용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의 종류 및 내용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발행할 주식의 내용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전환비율(%)		100.00
전환가액	기준주가	11,675
	할인율(%)	0.00%
	전환가액	11,700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14년 08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 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1)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두산건설(주)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조정기준(사유)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ii)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리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p>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p> <p>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p> <p>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p>
조정방법		<p>가.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단, (ii)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p> <p>▶ 조정후전환가액 =</p> $\frac{\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 \text{시가}))}{\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p>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p> <p>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리자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p> <p>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p>

		- 아 래 -
		<p>2014년 12월 04일,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12월 04일, 2016년 03월 04일, 2016년 06월 04일, 2016년 09월 04일, 2016년 12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2017년 06월 04일</p> <p>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p> <p>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p>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기타 전환 조건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주1) 상기 전환가격은 확정 전환가격임

주2) 전환가격(예정)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금액	거래량
2014-08-18	12,474	104,409,250	8,370
2014-08-14	12,752	115,542,400	9,061
2014-08-13	12,586	90,534,650	7,193
2014-08-12	12,530	449,986,750	35,912
2014-08-11	12,888	288,837,050	22,411
2014-08-08	12,960	238,217,700	18,381
2014-08-07	13,252	214,495,250	16,186
2014-08-06	13,458	195,869,600	14,554
2014-08-05	13,716	188,084,800	13,713
2014-08-04	13,705	178,505,100	13,025
2014-08-01	13,847	246,469,200	17,800
2014-07-31	13,992	240,898,450	17,217
2014-07-30	14,105	599,051,700	42,472
2014-07-29	15,068	569,381,550	37,787
2014-07-28	15,072	651,838,050	43,249
2014-07-25	14,679	286,218,800	19,499
2014-07-24	14,532	284,907,150	19,605
2014-07-23	14,618	368,209,650	25,189
2014-07-22	13,908	255,438,400	18,366
2014-07-21	13,733	152,619,000	11,113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3,913	5,719,514,500	411,103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2,562	760,473,050	60,53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474	104,409,250	8,370
A, B, C의 산술평균 (D=(A+B+C)/3)	12,983	-	-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11,675	181,117,550	15,513
기준주가 (F = MIN[C,D,E])	11,675	-	
액면가 (G)	5,000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액면가액	
전환가액 (H = MAX[F, G])	11,700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호가 미만 단위 절상)	

나. 전환청구절차 등

항 목		내용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0월 04일
	종료일	2017년 08월 04일
전환청구장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사채권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 및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두산건설(주)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 할 수 없다.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다. 기타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상기 "나. 전환청구절차 등"에 따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채권등록필증 및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집니다.

(3) 배정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전환권이 분리된 "채권"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증권으로 유통되므로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전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전환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만을 배정받습니다.

(4) 상장

본 전환사채는 2014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정관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900,000,000주로 한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전환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한다.

(9) 기타사항: 전 각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사채의 기타 주요 권리내용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차지급기일과 2.5년이 되는 날의 이차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	표면이자율 4.0%, YTM 7.5%
2016년 03월 04일	105.5023%
2017년 03월 04일	109.5264%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장소 : 두산건설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다.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라. 지급장소 :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

마. 지급일 : 2016년 03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4.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와 동부증권(주) 간 체결한 사채관리계약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동부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자)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차)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카) 기타 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자기자본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잔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이익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 및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같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5.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동부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위탁조건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관리내역		비고
회사명	고유번호	주소	관리금액	수수료	
동부증권(주)	0011569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200,000,000,000	5,000,000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담당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 (2014년 08월 28일 현재 잔존한 회사채 기준)

구분	실적		
	2013년	2014년	계
계약체결 건수	5건	4건	9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3,740억원	2,950억원	6,69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동부증권(주)	IB사업부 Coverage 1팀	02-369-330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21항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 ②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 ③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 ④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⑥.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 ⑦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⑧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 ⑨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 ⑩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 ① 본 사채의 발행조건인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발행회사"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첨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3.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당사와 동부증권(주) 간 체결한 사채관리계약 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동부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1.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21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할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1.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7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부채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해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자산(고유영업을 위해 매입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자산 포함)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 ②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 ③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 ④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1,000%를 넘지 않는 경우
- ⑤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기준으로 한다.)
- ⑥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⑦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⑧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유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 ⑨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및 지급보증 또는 이들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 및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⑩ 회사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을"과 "담보권" 설정 7일전에 상호 협의한 경우

3.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갑"은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기자본'의 10배(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구조조정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

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②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1.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1.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사채관리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와 건설 수주의 부진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설업황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① 토목부문	도로, 지하철, 하안,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 경제추이 및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② 건축부문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주택부문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④ 환경/ 플랜트 부문	<p>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p>
-----------------	---

2011년 하반기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이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종료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경기 부양을 위해 2012년 중국 및 호주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졌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는 2012년 7월과 10월 및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한 이후 줄곧 동결해오다, 2014년 8월 14일 25bp 추가 인하하는 등 국내 경제 역시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 유로지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재정 취약국의 실질 채무부담 증가와 은행의 디레버리징 지속 등이 이러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하반기 중 민간소비가 소득여건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은 민간 소비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단위: 억원, %)

년 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05년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303,964	-5.7	689,876	10.6
2006년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283,825	-6.6	789,359	14.4
2007년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361,927	27.5	917,191	16.2
2008년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412,579	14.0	788,272	-14.1
2009년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541,485	31.2	645,657	-18.1
2010년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413,807	-23.5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356,831	-8.1%	658,231	-8.4%
2013년	913,069	-10.0%	361,702	25.3%	551,367	-18.2%	299,041	-16.2%	614,030	-6.7%
2014년 5월	314,793	3.8%	112,255	55.0%	164,614	-11.3%	131,993	11.5%	182,8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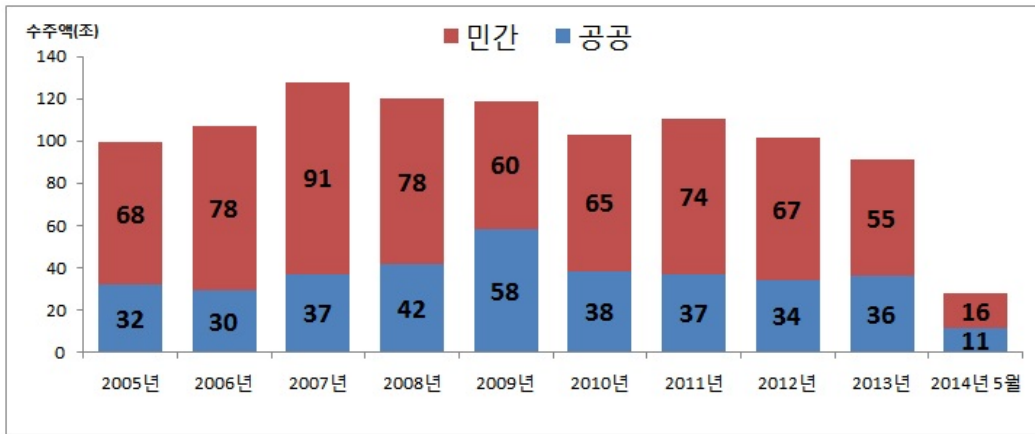
주: 2014년 5월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4년 상반기 주요건설통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2012년까지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민간수주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하여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25.3% 상승하였으나,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하여 총 수주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91.3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5월 누적기준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8% 상승한 31.5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조 원)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4년 상반기 주요건설통계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SOC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SOC투자규모는 2013년도 대비 7.05% 감소한 23.3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부문에 대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 방향에 있어 그간 축적된 발주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용성,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 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OC부문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안)	증감률
도로	95,850	80,038	74,487	77,614	91,667	83,708	-8.68%

철도	63,552	53,512	54,055	61,141	69,141	65,913	-4.67%
해운/항만	21,298	18,617	16,333	16,358	15,242	14,891	-2.30%
항공/공항	592	666	679	698	830	1,004	20.96%
교통 SOC 계	181,292	152,833	145,555	155,811	176,880	165,516	-6.42%
물류 등 기타	22,264	22,386	22,434	18,945	19,496	19,802	1.57%
수자원	28,434	51,076	50,182	29,020	27,694	23,512	-15.10%
지역개발	14,047	15,919	16,424	16,845	16,449	14,827	-9.86%
산업단지	8,808	8,893	9,811	10,305	9,742	8,964	-7.99%
기타 SOC 계	73,553	98,274	98,851	75,115	73,381	67,105	-8.55%
총계	254,845	251,106	244,406	230,926	250,261	232,621	-7.05%

출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2013.11)

이와 더불어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2011년 한 해동안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65~75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2012년 CBSI 지수 또한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 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상반기의 상승세가 하반기에 주춤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하면서 2012년 12월(68.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 폭 완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2014년 5월 CBSI 지수는 77.2까지 상승하는 등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4년 6월 74.5p로 전월 대비 하락하여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CBSI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도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08년 9월	50.1	57.8	38.3	66.7	44.4	37.1
2008년 10월	31.1	33.6	26.7	44.4	17.9	30.6
2008년 11월	14.6	9.8	22.3	7.7	17.2	19.7
2008년 12월	37.3	41.0	31.6	46.2	35.7	28.8
2009년 1월	48.9	49.2	48.4	53.8	42.9	50.0
2009년 2월	50.0	50.9	48.5	58.3	40.6	50.8
2009년 3월	72.3	78.0	63.8	84.6	66.7	64.4
2009년 4월	80.0	89.7	65.0	83.3	91.9	62.5
2009년 5월	86.6	97.5	66.5	100.0	78.1	80.5
2009년 6월	92.2	93.9	83.6	92.3	97.2	86.4
2009년 7월	99.3	114.6	69.8	114.3	105.9	74.2
2009년 8월	87.2	102.7	64.2	107.1	100.0	49.3
2009년 9월	96.1	103.0	71.1	114.3	110.0	59.0

2009년 10월	86.4	102.2	64.6	100.0	103.4	50.9
2009년 11월	79.3	85.7	69.5	84.6	88.5	62.7
2009년 12월	82.5	90.6	70.2	100.0	77.8	67.2
2010년 1월	76.3	85.9	61.2	93.3	76.9	55.6
2010년 2월	77.6	90.1	59.6	92.9	80.0	56.9
2010년 3월	71.7	73.8	68.4	78.6	70.4	65.0
2010년 4월	70.5	74.6	64.4	80.0	63.0	67.9
2010년 5월	59.5	63.5	53.9	64.3	63.0	50.0
2010년 6월	60.1	63.5	56.9	69.2	57.1	52.6
2010년 7월	51.9	54.0	48.8	50.0	57.1	48.3
2010년 8월	50.1	41.0	48.8	50.0	57.1	48.3
2010년 9월	62.6	69.6	51.7	71.4	69.2	44.8
2010년 10월	68.5	84.4	45.1	91.7	69.2	40.4
2010년 11월	73.7	91.2	46.6	91.7	80.8	44.6
2010년 12월	67.9	75.3	56.7	76.9	70.4	54.4
2011년 01월	73.7	90.5	46.2	92.9	79.2	40.7
2011년 02월	68.1	79.1	51.2	78.6	73.1	50.0
2011년 03월	69.0	82.0	49.7	92.3	76.9	32.7
2011년 04월	73.8	87.9	53.3	107.7	58.3	51.8
2011년 05월	66.3	68.6	62.9	76.9	66.7	53.6
2011년 06월	74.1	77.4	71.2	83.3	73.9	63.6
2011년 07월	71.1	80.2	57.2	84.6	72.0	54.4
2011년 08월	68.9	78.4	54.6	76.9	75.0	52.6
2011년 09월	73.8	91.6	47.5	100.0	73.1	43.9
2011년 10월	65.4	74.1	52.7	84.6	68.0	40.0
2011년 11월	66.0	73.9	53.8	84.6	64.0	46.4
2011년 12월	71.6	72.5	70.1	83.3	68.0	61.8
2012년 1월	62.3	73.7	47.5	76.9	69.6	36.8
2012년 2월	66.7	81.4	46.5	92.9	58.3	45.6
2012년 3월	69.9	74.7	62.5	85.7	68.0	53.4
2012년 4월	66.4	74.1	54.9	71.4	72.0	54.1
2012년 5월	65.4	74.9	53.6	92.3	58.3	41.8
2012년 6월	63.8	72.1	51.0	92.9	50.0	45.6
2012년 7월	65.7	79.4	45.2	92.9	56.0	44.8
2012년 8월	59.0	63.8	51.6	80.0	46.2	49.1
2012년 9월	70.6	80.5	56.5	91.7	61.5	56.4
2012년 10월	58.9	69.9	43.2	76.9	57.7	39.3
2012년 11월	58.7	42.5	42.5	78.6	55.6	38.9
2012년 12월	68.9	79.3	52.1	92.9	64.0	46.3
2013년 1월	65.4	76.2	49	85.7	66.7	40.0
2013년 2월	54.3	63.6	41.8	72.7	48.0	40.0
2013년 3월	60.3	64.8	53.6	69.2	66.7	42.6
2013년 4월	62.8	66.9	58.7	71.4	66.7	48.1
2013년 5월	66.1	68.6	62.2	78.6	66.7	50.9

2013년 6월	62.4	71.6	52.6	78.6	64.3	41.2
2013년 7월	62.1	68.7	51.9	85.7	50.0	48.1
2013년 8월	64.0	70.9	53.3	92.9	48.1	48.1
2013년 9월	61.2	73.1	39.3	85.7	50.0	45.3
2013년 10월	62.3	71.2	49.0	84.6	51.9	48.1
2013년 11월	60.9	74.2	41.1	85.7	60.7	32.0
2013년 12월	64.5	73.2	51.6	92.9	50.0	47.9
2014년 1월	64.3	71.6	52.8	78.6	67.9	43.4
2014년 2월	68.9	73.8	61.7	84.6	66.7	52.9
2014년 3월	67.9	70.4	64.3	84.6	60.7	56.6
2014년 4월	76.5	87.5	66.0	92.3	75.9	58.8
2014년 5월	77.2	85.1	65.7	92.9	74.1	62.5
2014년 6월	74.5	83.7	60.8	92.3	73.3	55.1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업체 규모별,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경우 중동지역, 플랜트공사를 중심으로 해외수주가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공사 및 주택사업 매출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 부진,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분양실적 저조 등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준선(10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CBSI가 기준선인 100에 근접하기 위해선 주택분양시장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는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경기의 성장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감소 및 하반기 중 분양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중 건설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면 건설투자는 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

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국내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토건	전년대비 증감	토목	전년대비 증감	건축	전년대비 증감	산업환경	전년대비 증감	조경	전년대비 증감
20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20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20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20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20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20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20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20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20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2014.06	12,888	-255	3,392	-139	2,619	-130	5,011	40	371	-7	1,495	-19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 2014.06 전년대비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합계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	
2005	54,254	13,202	35,547	5,505	-	6,714
20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20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2008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20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20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20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2012	59,877	11,304	37,605	6,463	4,505	5,214

2013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2014.06	59,614	10,962	37,164	6,699	4,789	5,168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5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분 사업 확장과 세제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 하였으나, 근본적인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있지 않는한 수도권 이외의 미분양물량 역시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 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4·1부동산 정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구분	대책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종과 한시적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최대 1%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 기획재정부

한편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내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축소	
--	----	--

출처 :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에도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용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주택전매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출처 : 국토교통부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문제와 주택 경기 침체는 2014년에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 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힘들고,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그 변동성의 정도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 문제 지속,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 업체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5.0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12년도에 2.0만호 대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2월 저점을 기록 후, 2014년 6월까지 약 4개월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물량이 2008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 미분양주택 물량은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미분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등 거시경제 악화와 맞물려 미분양 물량의 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졌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0,257호로서, 2013년도 61,091호 대비 17.7%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분양주택 감소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 및 기존 미분양의 감소와 함께 전체 분양물량 감소에 따라 신규 미분양이 줄어든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2013년도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2014년도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2012년도에 2.0만호 대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2월 저점을 기록 후, 2014년 6월까지 약 4개월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물량이 2008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 미분양주택 물량은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미분양의 경우 택지 확보에 대한 비용(금융비용 포함)만 발생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금융비용 포함)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분	'14년 6월	'14년 5월	'14년 4월	'14년 3월	'14년 2월	'14년 1월	'13년 12월	'12년 12월	'11년 12월	'10년 12월	'09년 12월	'08년 12월	'07년 12월
미분양주택	50,257	49,026	45,573	48,167	52,391	58,576	61,091	74,835	69,807	88,706	123,297	165,599	112,254
민간부문	50,257	49,026	45,573	48,167	52,391	58,576	61,091	74,835	69,807	88,706	122,962	164,293	110,715
공공부문	0	0	0	0	0	0	0	0	0	0	335	1,306	1,539
준공후 미분양	20,869	20,908	20,323	20,758	20,193	20,566	21,751	28,778	30,881	42,655	50,087	46,476	17,395
수도권 미분양	30,212	29,046	24,292	26,082	29,278	32,697	33,192	32,547	27,881	29,412	25,667	26,928	14,624
지방 미분양	20,045	19,980	21,281	22,085	23,113	25,879	27,899	42,288	41,926	59,294	97,630	138,671	97,630

출처 : 국토교통부

주요 주택 시장인 수도권을 보면, 여전히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어 2014년도에도 주택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아파트 외 물량 인허가 추이와 미분양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2014년도 수도권 주택 공급은 22만호 내외로 추정됩니다. 가구수 증가와 멸실 주택 수로 추산한 신규 주택 수요는 약 17만호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 효과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가격이 여전히 소득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어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주택 가격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시에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미분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2010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652.1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증가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으나 해외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최근 해외 플랜트 사업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어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건설 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상반기 수주가 급감하였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유가가 회복되자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2010년에 반영되면서 2010년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1년 들어 북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및 민주화 시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591.3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수주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증가한 648.8억달러의 신규수주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였고, 2013년에도 소폭 상승한 652.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수주금액은 375.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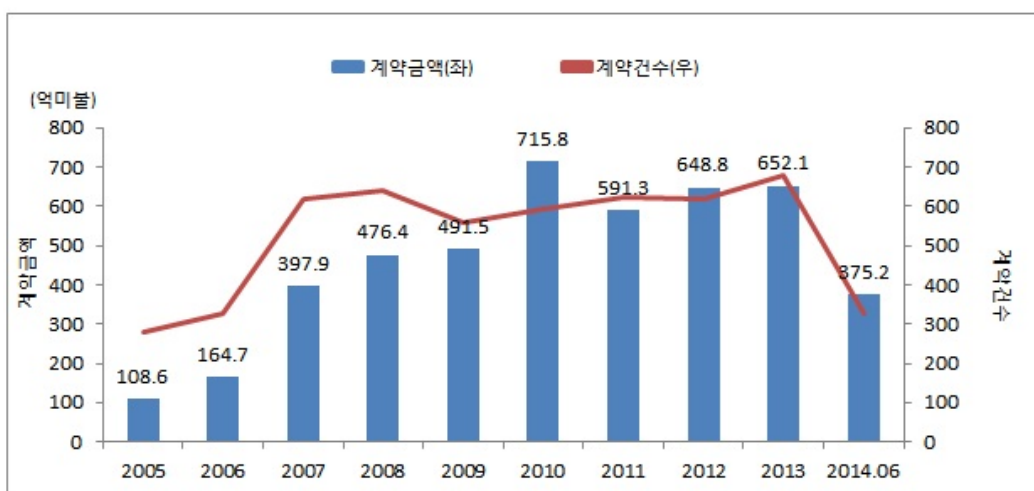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현황]

(단위 : 억 USD)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6
수주금액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3	648.8	652.1	375.2
수주건수	281	326	619	642	559	593	624	620	681	326
진출국가	50	49	76	87	81	91	94	95	104	76
진출업체	114	134	201	269	288	261	249	250	270	178

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 총괄 계약현황]



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08년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중동 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 지역의 발전설비 등의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도 등의 아시아 개발 도상국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중동 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 현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단위 : 억 USD)

구분	1965~2013.12.31		12.1.1~12.12.31		13.1.1~13.12.31		14.1.1~14.6.30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지역	6,101	100.0	648.8	100.0	652.1	100.0	375.2	100.0
중동	3,503	57.4	368.8	56.9	261.4	40.1	247.4	65.9
아시아	1,833	30.0	194.3	29.9	275.7	42.3	62.1	16.6
북미.태평양	218	3.6	2.3	0.4	63.6	9.7	1.2	0.3
유럽	108	1.8	5.3	0.8	7.3	1.1	4.6	1.2
아프리카	184	3.0	16.2	2.5	10.8	1.7	4.9	1.3
중남미	255	4.2	61.9	9.5	33.3	5.1	54.9	14.6

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1년 하반기 중동 지역 전반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사 및 발주가 재개되었고,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석유화학플랜트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2011년 이후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각종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관련 발주가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외 수주의 상당부분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종교갈등, 민주화 운동,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은 향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활동에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활동 관련 유의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쟁과열에 따른 저가수주와 이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2013년도 하반기 대부분 국내 대형 건설업체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향후에도 경쟁과열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영업환경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수건설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쟁과열, 수익성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 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

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조정 및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2009년 건설 1차 (11)	(주)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주)신일건설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주)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동문건설(주)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월드건설(주)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풍림산업(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우림건설(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경남기업(주)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삼능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2009년 건설 2차 (13)	(주)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주)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주)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주)화성개발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주)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주)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늘푸른오스카빌	9.28 워크아웃 확정
	송촌종합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주)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주)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주)태왕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2009.09.17	(주)현진건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2010.4.13	금호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주)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2010.4.15	성원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4.20	금광기업(주)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5.11	풍성주택(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년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주)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주)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주)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주)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주)금광건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금광기업(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진성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주)풍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대신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성지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2010.12.31	동일토건(주)	워크아웃 결정
2011.02.08	월드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주)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01	(주)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5.30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27	이수건설(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08.05	(주)신일건업	워크아웃 신청

2011.10.20	범양건영(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22	(주)현진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1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결정
2012.01.19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30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2012.02.12	영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24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08	(주)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3.19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02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1.01	(주)신일건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1.17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2.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1	(주)동보주택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04.04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4.26	STX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10.29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4.01.09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출처: 금융감독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 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회수 지연으로 많은 시행사는 부도를 맞이하였고, 이는 시공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업체 부실 우려로 인하여 투자자심리가 위축되어 PF 대출금리는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자 PF 대출 Refinancing은 대부분 단기기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조달자금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단기자금 차입 비중 증가로 인하여 일부 건설업체들은 단기적인 상환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착공 PF사업장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말 기준 10대 대형 건설업체의 미착공 PF현황을 근거로 미착공 PF대출의 잠재손실은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착공 PF사업의 평균 잠재손실율은 2012년 3월 32%에서 2013년 12월 48%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미착공 PF사업장의 손실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물량이 증가하였고, 수 년간 부담한 금융비용이 커진 탓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설업황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여력이 저하되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 메카텍BG가 영위하는 화공기기 사업은 Oil & Gas를 원료로 하는 사업의 Process Equipment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Oil & Gas 관련 산업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주도되고 있어 교섭력이 제한적이고 수요의 변동성이 큼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메카텍BG가 영위하는 화공기기 사업은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에 열교환기(Heat Exchanger), 압력용기(Pressure Vessel), 타워기(Column & Tower), 반응기(Reactor) 설비 등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대부분 국내외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체들로부터 수주가 이루어지고 납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주처에 대한 교섭력이 제한적이고 수요의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형 EPC 업체의 내역 및 요약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요 EPC 업체 내역 및 요약 재무 정보]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현대중공업	541,881	8,020	1,463	532,050	341,754	190,296
두산중공업	192,082	9,581	187	277,255	198,137	79,118
삼성중공업	153,053	4,409	2,419	184,889	137,095	47,794
대우조선해양	148,345	9,142	6,322	174,271	115,814	58,458
삼성엔지니어링	98,063	-10,280	-7,087	59,288	50,231	9,057
GS건설	95,658	-9,355	-8,273	124,273	92,680	31,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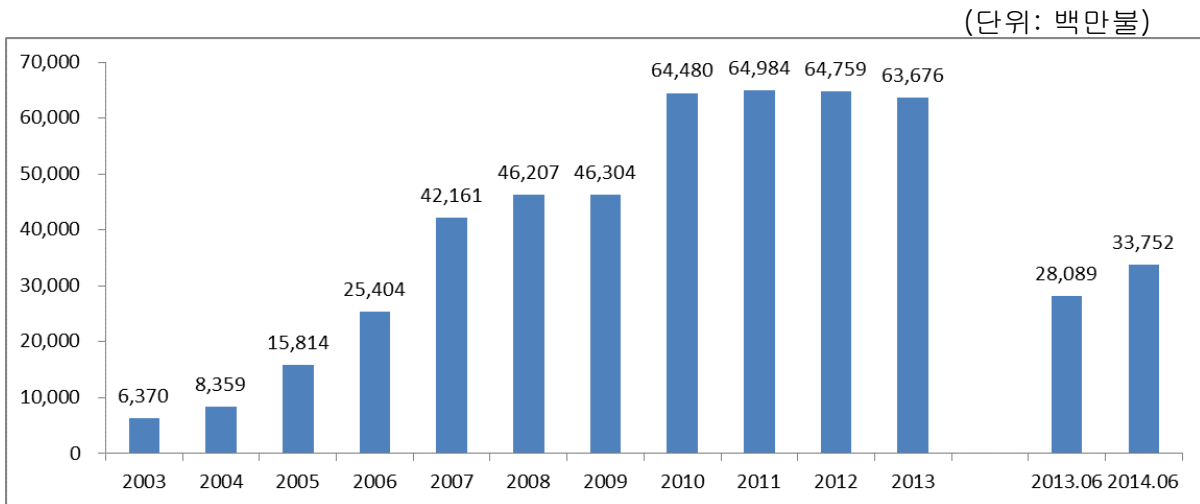
주1) 재무수치는 2013년 연결기준

전방산업인 석유화학플랜트 산업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동지역의 대규모 설비증설,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증가 및 시베리아 등의 석유개발, 석유화학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의 산유국들이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진행하여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랜트 발주 호조세에 힘입어 국내 업체의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은 '04년 약 84억불에서 '08년 약 462억불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주처들이 프로젝트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신규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기존에 계획된

프로젝트 또한 지연되면서 그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였던 발주 수주 성장율이 최근 들어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09년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은 약 463억불로 '08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0년 일시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개되는 등의 요인으로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이 약 645억불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성장이 정체되며 '13년 약 637억불로 전년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들어서 수주회복세를 나타내며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미주 시장과 석유/가스, 석유화학 플랜트가 수주 증가세를 견인하였습니다.

[해외플랜트 수주실적(국내업체 기준)]



플랜트 수주금액

출처: 한국플랜트 산업 협회

[분야별 해외플랜트 수주실적(2012, 2013)]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년(누계)		2013년(누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64,759	100.00%	63,676	100.00%	-1.67%
발전, 담수	19,367	29.90%	17,504	27.49%	-9.62%
해양	21,785	33.60%	18,166	28.53%	-16.61%
석유, 가스	10,196	15.70%	18,263	28.68%	79.12%
석유화학	8,161	12.60%	5,191	8.15%	-36.39%
산업시설	4,932	7.60%	4,184	6.57%	-15.16%
기자재	318	0.50%	368	0.58%	15.81%

출처: 한국플랜트 산업 협회

[분야별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불, %)

구분	2013년 6월(누계)		2014년 6월(누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28,089	100.00%	33,752	100.00%	20.16%
발전, 담수	4,945	17.60%	5,184	15.36%	4.84%
해양	10,818	38.51%	2,740	8.12%	-74.67%
석유, 가스	7,403	26.36%	22,450	66.52%	203.27%
석유화학	1,271	4.52%	1,745	5.17%	37.32%
산업시설	3,303	11.76%	1,533	4.54%	-53.60%
기자재	350	1.24%	99	0.29%	-71.59%

출처: 한국플랜트 산업 협회

[지역별 해외플랜트 수주실적(2012,2013)]

(단위: 백만불,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감률
총 수주액	64,480	64,984	64,759	63,676	-1.67%
아시아(중동제외)	12,168	15,010	17,697	24,842	40.37%
중동	38,122	24,664	20,926	14,017	-33.02%
아프리카	4,151	4,101	5,416	6,912	27.62%
미주	3,778	12,515	11,216	9,778	-12.82%
기타	6,261	8,694	9,504	8,127	-14.49%

출처: 한국플랜트 산업 협회

[지역별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불, %)

구분	2013년 6월(누계)		2014년 6월(누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28,089	100.00%	33,752	100.00%	20.16%
아시아(중동제외)	9,610	34.21%	5,477	16.23%	-43.01%
중동	5,549	19.76%	17,378	51.49%	213.17%
아시아	2,215	7.89%	5,664	16.78%	155.67%
아프리카	8,863	31.55%	72	0.21%	-99.18%
유럽	1,850	6.59%	5,160	15.29%	178.87%
미주	28,089	100.00%	33,752	100.00%	20.16%

출처: 한국플랜트 산업 협회

향후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과 가스전 개발이 진행중인 동남아, 중남미등지에

서 대규모 증설을 통해 플랜트 산업 수주 증가세가 단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유가하락 가능성, 최근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신규 발주물량 감소 우려 등이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당분간은 글로벌 경기 변동과 금융여건에 따른 사업 가변성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공기기 플랜트 사업은 세분화 되어있고 제한된 수의 대형EPC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EPC업체들은 지금까지 계속 외부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세계 플랜트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EPC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납품가격 합리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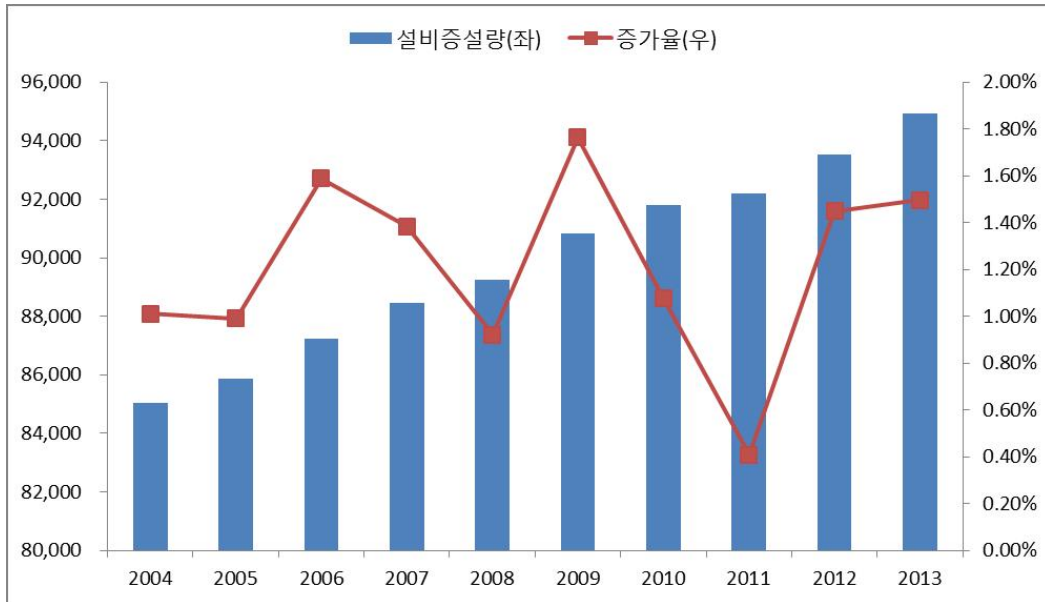
차. 당사가 영위하는 화공기기 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용이 크고 납기도 긴 특성을 지니므로 경기악화 등 외부적 충격으로 발주가 감소하거나 연기될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공업장치(화공장치) 설비는 최초 원료 및 기초유분이 액체 또는 기체이기 때문에 항만, 탱크, 파이프라인 등 저장 및 운반설비가 필요하고, 주제품 제조시설외에 전력, 가스, 증기 등 유틸리티 생산설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기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으로 공장이 대형화 될수록 경제성이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합니다.

화공기기 장치사업은 원유 탐사에서부터 정유, 납사분해공장을 모체로 기초유분과 관련된 유도품 공장이 계열화 되어 있는 장치산업으로 전형적인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발전, 연료,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정밀화학 등 관련산업과 연관이 깊은 기간 산업이며 대규모 생산능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산업입니다.

[전세계 정유설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배럴/일)



글로벌 정유설비 규모 추이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년6월)

카.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 업계 전반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영업 마진의 상승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 강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은 2007~2008년의 호황을 기반으로 공장확장, 설비증설 등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으나,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수주 부진의 여파로 인해 향상된 생산 능력의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수주 및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상승에 따른 전방산업 업황 회복에 힘입어 수주여건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업계 생산 능력 향상에 따른 높은 경쟁으로 인해 과거 호황기 대비 프로젝트 단위당 마진은 크게 축소되어 2011년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 현재에도 플랜트 기자재 업체별 수익성의 급격한 회복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수급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당사의 영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타.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납기 맞춤과 공정상 불량률 측정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Project 관련 부품 조달에 따른 납품지연, 부품 조립에따른 불량 발생 등 수주 받은 Project 이행시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정확한 납기와 불량품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수

주산업은 일련의 세부 요소들의 완성품이 모여 하나의 최종 구축물을 완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지연이 될 경우 전체 공정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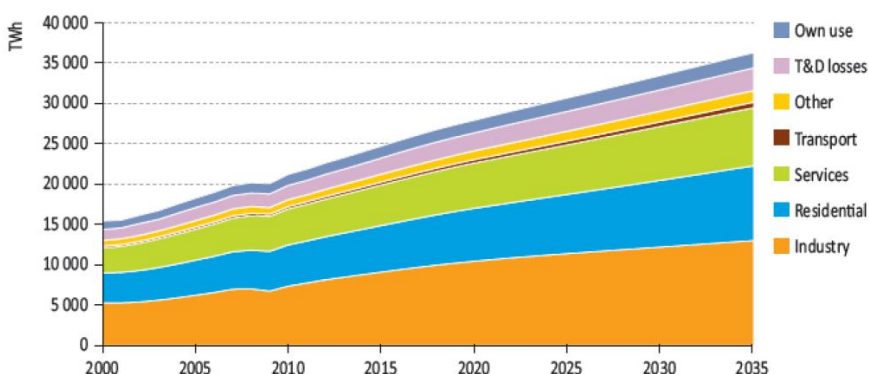
복합 산업용 플랜트 단지를 구축하는 Project의 경우 각 구성요소들을 일본, 중국, 한국 등지에서 조달받아 실제 시공처로 이동하게 되는데, 당사의 납기가 지연되면 이들 부분품을 한번에 이동시키는 선적선의 지연을 포함하여 차례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당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혹은 최종 검사 단계에서 불량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실제로 기대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당사는 작업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의 검사는 물론 최종 검사단계에서도 전수검사를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련공들의 이탈, 원자재 조달의 실패,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의 불량 발생 등이 일어날 경우 수주받은 project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전체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고려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석유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해양구조물의 설치해역이 점차 심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해양모듈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양모듈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에너지의 가격변동이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전세계 경제 위기의 지속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양모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소비 증가로 인해, 육상유전 및 깊이 200m 정도의 대륙붕 개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심해유전 개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EA의 리포트에 따르면 2008년 8,570만 배럴/일 이던 석유 소비량은 2035년 11,220만 배럴/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의 고유가는 향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유가로 인하여 메이저 석유사업자들이 심해유전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하루 700만 배럴 수준이었던 심해유전으로부터의 원유생산량은 향후 10년간 CAGR 5.5% 성장하여 2020년에는 1,190만 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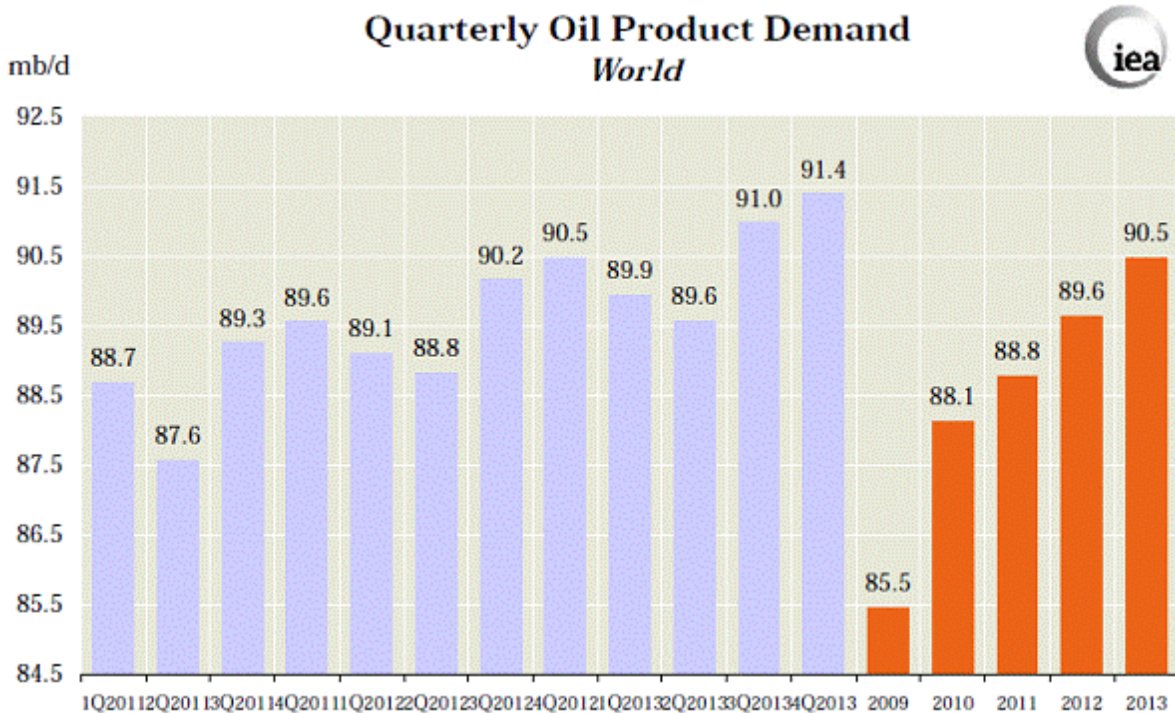
세계 용도별 전력수요 전망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1년 이후 해양시추 및 생산설비 발주는 용선료(Day-rates) 상승과 글로벌 E&P(Exploration & Production)업체들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장기공급계약의 수혜를 입어 Drillship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고유가 추세와 천연 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요 에너지 E&P(Exploration & Production) 업체들의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추가적 유가 상승이 있을 경우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LNG, Drillship, 해양플랫폼(FPSO, FSRU 등), 해양생산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에너지의 가격변동이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전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고려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수요 및 수요예측]



석유수요 및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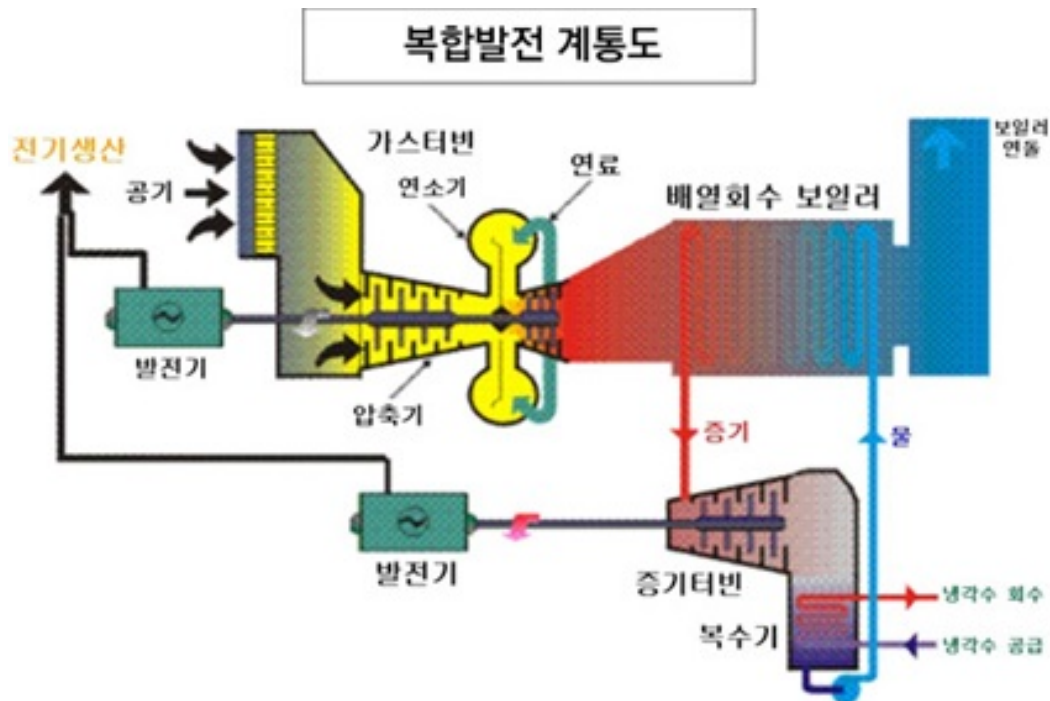
출처: IEA(Interantional Energy Agency)(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연평균 수치)

하. 당사 HRSG BG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핵심기기 중 하나인 배열회수보일러(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열회수보일러(HRSG) 제작 사업은 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 기술제휴를 통한 다수의 단순생산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에너지 정책 및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발전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LNG 복합화력발전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

따라서 당사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매출은 LNG 복합화력발전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핵심기기 중 하나인 배열회수보일러(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열회수보일러란, LNG를 원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의 가스터빈을 통해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해 내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수요처인 복합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의 신증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발전방식은 석탄을 중심으로한 화력발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CO₂ 방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점차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NG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은 높은 유가에 비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며, 화석연료 대비 청정에너지로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기간이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짧고, 발전용량이 대형보다는 중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빠른 전력공급이 필요한 아시아 및 중동국가 위주로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화력발전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이에 필수적인 설비인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생산하는 당사의 매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한편, 주요 EPC업체들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발주 시 동일용량(증발량, 온도 및 압력)의 발주는 거의 없으므로 사용자의 경제적 사용목적에 따른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을 자체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설계능력이 공급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계의 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풍부한 실적을 기록하여 2013년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 단계 내용]

구분	내용
성능계산	연료 분석, 연소 및 효율 계산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보일러에서 요구하는 증발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열면의 최적배치, 재질의 선정, 열평형 등을 계산하고 보일러 최적 화로를 설계하는데 사용함.
순환계산/압력손실 계산	유로망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면 흐름 정체 등으로 인한 전열관 과열 파손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보일러에 발생하므로 전열관 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전열관의 과열에 의한 파손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전열이 일어나도록 함.
구조해석	전열관의 배치군에 따른 유속으로 진동이 발생하며, 이 진동은 압력관의 Crack으로 연결되어 보일러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해석하여 진동을 상쇄시키는 장치를 엔지니어링하여 진동을 방지함.
Metal 온도 계산	고온의 열가스는 복사열과 대류열을 발산케 되며, 이러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재질을 선정하여 열기계를 장시간 운전 가능하도록 금속온도를 결정함.
환경항목 계산	환경항목 중 대기부분의 NOx를 저감시키는 기술로서, 연소 시스템을 변화시켜 고온공기에 의한 질소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기술

당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효율성을 고려한 고효율의 모델 설계 및 제조기술을 꾸준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원가 절감형 New D-Top 모델과 Crude, Heavy Fuel Oil, 초대형 Gas Turbine 모델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주력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고객을 다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화공기자재 제작 사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LNG 에너지 자원개발과 미국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당사는 향후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을 강화하여 플랜트 중심 회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향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LNG 복합화력발전이 대체안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북미의 셰일가스 생산의 본격화됨에 따라 상용화가 앞당겨져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LNG를 원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이 활발하게 건설될 것이며, 당사는 그에 대응하여 현지 자회사를 통한 개발 및 영업망을 구축하여 세계1위 시장인 북미시장에 재진입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중동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 노후 설비에 대한 대체수요를 공략하여 수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HRSG 제작 사업은 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 유럽 및 일본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턴키베이스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수의 단순 생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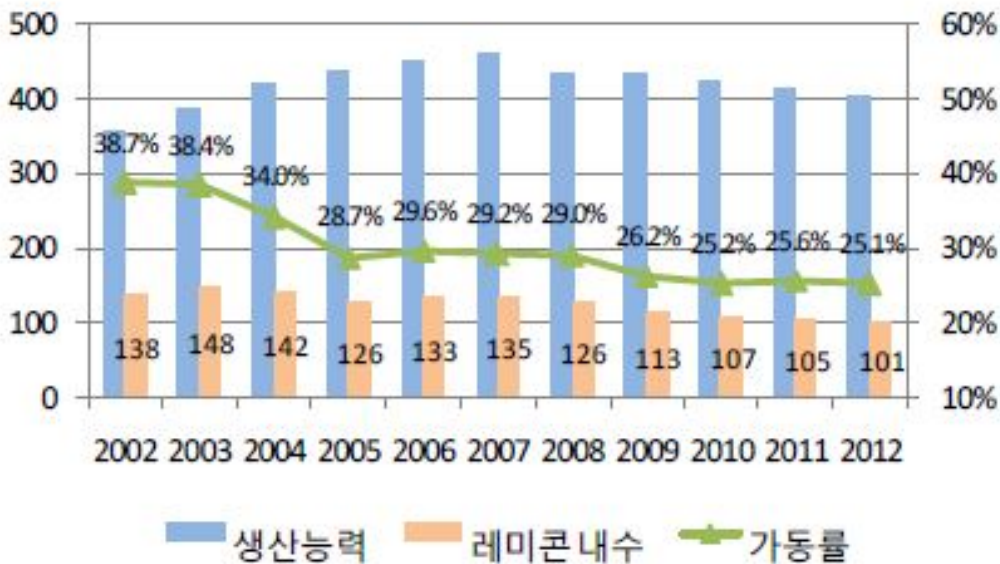
하며 저가수주로 인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에너지 정책 및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발전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LNG 복합화력발전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HRSG 매출은 LNG 복합화력발전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당사 렉스콘 부문은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건설산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에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수요가 급락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산업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인 건설업체에 비하여 가격교섭력이 열위하여 덤핑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후방산업인 시멘트 산업에 비교하여도 열위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의 가격 및 공급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렉스콘 부문은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운송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품 특성 상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가동률이 저조한 편이며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비탄력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운송 시간과 사용 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업권이 국한되어 제품 생산 이후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본 제품의 시장 권역을 형성하므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미콘산업 가동률 추이]

(단위:백만 m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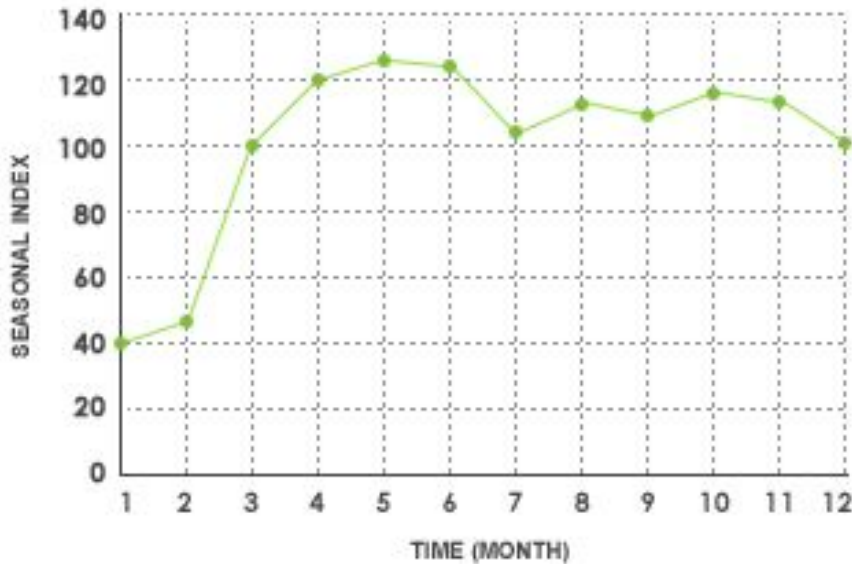


출처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신용평가 재인용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공정을 거친 후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 시간 내에 건설현장에 운송하므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원가 중에서 운송비용이 10-15%를 차지하므로 R/T 수송능력의 효율적인 관

리가 매우 중요하며, 성수기에 운송능력의 한계로 인해 적기 공급의 문제가 상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믹서 트럭이 공장 건설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소유 운영에 따른 자금소요가 많으며, 도시권의 교통 환경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낮아지고 물적 유통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미콘소비의 계절지수]



출처: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 산업은 건설산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에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수요가 급락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산업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인 건설업체에 비하여 가격 교섭력이 열위하여 덤핑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후방산업인 시멘트 산업에 비교하여도 열위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의 가격 및 공급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당사의 종속회사 두산큐백스(주)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및 관광산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타산업과 비교하여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해외 골프인구 증가, 스크린골프/실내연습장 등의 대체 여가활동 및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일부 국내 잠재 고객들의 유출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두산큐백스(주)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및 관광산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클럽의 경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 등을 기반으로 레저관련 지출이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1994년에 휴양콘도분양 및 회원 모집에 대한 기준이 완화(종합휴양업 2종신설, 콘도의 건설공정 30%전에 보증보험 가입시 분양 및 회

원모집 허용) 됨에 따라 이후 지속적인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연간)]

(단위 : 십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총처분가능소득	906,279	973,520	1,033,947	1,069,157	1,171,213	1,235,533	1,276,429
증가율	-	7.42%	6.21%	3.41%	9.55%	5.49%	3.31%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스포츠 및 레저산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문화를 즐기려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하락시 급격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콘도 및 리조트들은 과거 스키장 위주에서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추가하여 대형화, 복합화 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조트들이 워터파크를 추가하면서 비수기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골프장, 미술관 등이 리조트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중심적 여가를 지향하는 최근 트렌드로 인해 복합형 리조트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은 높은 투자비와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부의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골프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골프장 수의 증가로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프장매출액 추이]

(단위:억원)



출처: 레저백서 2013,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골프장 매출액은 다소 정체되어 회원제골프장은 지난 2009년 2조 3,203억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2조 2,628억원으로 줄곧 감소하였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매출이 꾸준히 신장되고 있지만 골프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골프장 과잉 공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매출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골프인구 증가, 스크린골프/실내연습장 등의 대체 여가활동 및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일부 국내 잠재 고객들의 유출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건설사업(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기자재 및 레미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를 통해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건설(건축/주택, 토목/플랜트)부문이며, 2013년 별도기준 72.9%, 연결(연결조정 전, 단순합계금액)기준 66.1%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별도기준으로 메카텍 사업부문이 21.1%, HRSG를 제조하는 HRSG사업부문이 5.7%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동일기간 연결기준으로는, 메카텍(국내 플랜트/화공기기등, 해외 플랜트/화공기기등) 19.1%, HRSG(국내/해외 HRSG, HRSG(DVH)) 6.0%, 렉스콘 7.2%, 큐빅스 1.3%의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중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및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국토해양부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1위의 종합건설업체 이며, 건설사업(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기자재(CPE(Chemical Process Equipment, 화공 플랜트 기자재),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를 제작하는 플랜트 기자

재 제조사업 및 레미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두산큐백스(주)와 HRSG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이하 "DVH"라 한다)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11월 두산메카텍(주)(화공/해양플랜트 기자재 제작)을 합병하고, 2013년 4월 HRSG사업부를 양수하고 종속회사인 DVH의 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 1월 (주)렉스콘(레미콘 제조)을 합병하였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 및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사업부문 및 주요제품]

구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주요제품명
건설사업	인프라	공공 및 민자 토목 환경 플랜트	도로, 철도, 지하철 등 신분당선 철도 건설 및 운영 하수처리시설 및 토양정화
	건축	건축, 주택	APT, 상가, 주상복합, 병원, 오피스 빌딩, 교육시설 등
플랜트 기자재 제조사업	메카텍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제작 해양 플랜트 기자재 제작	Reactor, Pressure Vessel, Tower, Heat Exchanger 강교, 해양 구조물
	HRSG	발전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설치	HRSG
레미콘 제조사업	렉스콘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레미콘 기술 용역	레미콘
기타	기타	임대업 등	-

[종속기업의 사업부문 및 주요제품]

기업명	사업내용	주요제품명
두산큐백스 (주)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운영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과 총 125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운영 17타석 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콘도내 수상 레저시설과 야외수영장, 풀사이드 바베큐 뷔페식당 등 운영
DVH	HRSG제조	HRSG/보일러 비압력품

주) DVH는 당사가 2013년 4월 두산중공업(주)로부터 HRSG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취득한 해외 생산법인입니다. 당사는 두산중공업(주) 90% 자회사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HRSG 및 보일러 비압력품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HRSG 30기(1기당 매출액 약 100~200억원 수준)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순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소재지	순위			2014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2012	2013	2014	
삼성물산(주)	서울	2	2	1	13,120,838
현대건설(주)	서울	1	1	2	12,566,600
(주)포스코건설	경북	5	5	3	9,002,243
대림산업(주)	서울	6	4	4	8,331,586
(주)대우건설	서울	3	3	5	7,490,077

지에스건설(주)	서울	4	6	6	6,443,170
롯데건설(주)	서울	7	7	7	4,940,288
에스케이건설(주)	서울	9	8	8	4,615,010
(주)한화건설	경기	11	10	9	3,966,928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	48	54	10	3,213,851
두산건설(주)	서울	12	14	11	2,772,882
두산중공업(주)	경남	10	12	12	2,756,270
현대산업개발(주)	서울	8	9	13	2,660,696
(주)태영건설	경기	18	17	14	2,050,917
(주)호반건설	광주	32	24	15	2,034,737

한편,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사업부문 별 매출 및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축/주택	16,518	71.7%	15,846	60.2%	11,430	51.3%	10,288	47.0%	5,877	53.1%	4,198	39.0%
토목/플랜트	5,727	24.9%	6,591	25.0%	5,345	24.0%	5,666	25.9%	2,680	24.2%	3,119	29.0%
CPE/광고	762	3.3%	3,881	14.7%	5,201	23.3%	4,613	21.1%	2,200	19.9%	1,831	17.0%
HRSG	0	0.0%	0	0.0%	0	0.0%	1,253	5.7%	291	2.6%	988	9.2%
분양매출	0	0.0%	0	0.0%	78	0.3%	0	0.0%	0	0.0%	0	0.0%
기타	21	0.1%	23	0.1%	238	1.1%	62	0.3%	28	0.3%	624	5.8%
합계	23,028	100.0%	26,340	100.0%	22,291	100.0%	21,882	100.0%	11,076	100.0%	10,759	100.0%

[연결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등 (두산건설)	국내	건축/주택	16,485	65.1%	15,382	54.4%	11,306	46.4%	10,287	42.6%	5,876	53.1%	4,198	39.0%
		토목	5,283	20.9%	6,020	21.3%	4,764	19.6%	5,460	22.6%	2,493	22.5%	2,935	27.3%
		플랜트	230	0.9%	459	1.6%	533	2.2%	200	0.8%	179	1.6%	184	1.7%
		화공기기 등	179	0.7%	348	1.2%	514	2.1%	446	1.8%	170	1.5%	156	1.4%
		HRSG	0	0.0%	0	0.0%	0	0.0%	178	0.7%	43	0.4%	87	0.8%
	해외	플랜트	0	0.0%	0	0.0%	0	0.0%	7	0.0%	8	0.1%	0	0.0%
		화공기기 등	769	3.0%	3,604	12.8%	4,858	19.9%	4,167	17.3%	2,031	18.3%	1,675	15.6%
		HRSG	0	0.0%	0	0.0%	0	0.0%	1,074	4.5%	248	2.2%	901	8.4%
	자체사업		120	0.5%	152	0.5%	78	0.3%	0	0.0%	0	0.0%	0	0.0%
	기타		110	0.4%	375	1.3%	238	1.0%	62	0.3%	28	0.3%	35	0.3%
별도기준 합계		23,176		26,340		22,291		21,881		11,076		10,760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두산큐백스)		285	1.1%	288	1.0%	301	1.2%	306	1.3%	137	1.1%	160	1.4%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 등 (렉스콘)		1,857	7.3%	1,635	5.8%	1,769	7.3%	1,739	7.2%	800	6.6%	54	0.5%	
HRSG (DVH)		0	0.0%	0	0.0%	0	0.0%	204	0.8%	62	0.5%	235	2.1%	
단순 합계		25,318	100.0%	28,263	100.0%	24,361	100.0%	24,130	100.0%	12,075	100.0%	11,209	100.0%	

연결조정	643		430		589		579		218		89
연결기준 합계	24,675		27,833		23,772		23,551		11,857		11,120

주1) 2010년은 K-GAAP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주)렉스콘은 2014년 1월을 합병기일로 하여 당사에 피합병되었으므로 2013년 매출현황에는 별도법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건설(건축/주택, 토목/플랜트)부문이며, 2013년 별도기준 72.9%, 연결(연결조정 전, 단순합계금액)기준 66.1%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다만 2010년 11월 이후 합병 등을 통해 건설부문 외 사업 부문을 추가하는 전략적 사업재편 노력과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해당 부문의 매출감소로 건설부문의 매출비중은 2010년 별도기준 96.6%, 연결기준 86.9%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부문의 경우, 2013년 별도기준으로, CPE 및 광고 등을 제작하는 메카텍 사업부문이 21.1%, HRSG를 제조하는 HRSG사업부문이 5.7%의 매출비중을 보였습니다. 동일기간 연결기준으로는, 메카텍(국내 플랜트/화공기기등, 해외 플랜트/화공기기등) 19.1%, HRSG(국내/해외 HRSG, HRSG(DVH)) 6.0%, 렉스콘 7.2%, 큐백스 1.3%의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사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건설부문이며, 건설부문 중 토목/플랜트 매출비중은 별도기준 2010년 24.9%에서 2013년 25.9%로 큰 변동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 사업부문은 2010년 71.7%에서 47.0%으로 낮아졌으나 지속적으로 부문 내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위 이내의 상위 주요 건설사의 건축/주택사업비중 중간값인 30.6%대비로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외에도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전체 매출은 2011년 14.4% 증가하였으나, 이후 건설부문의 매출감소로 인해 감소하며 최근 3년(2011~2013년) 간 평균 -0.9%의 매출감소를, 2014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2.9%의 매출감소를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의 전체 기말 수주잔고는 2010년 9.7조원에서 2014년 5.8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메카텍 부문은 2010년 4,158억원에서 2011년 5,230억원으로 증가, 2014년 6월 말 3,392억원의 기말 수주잔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HRSG는 당사 사업부문으로 편입된 시점인 2013년 4월 2,902억원에서 2013년 말 4,285억원으로 증가, 2014년 6월 말 4,349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토목/플랜트의 경우 최근 3년(2011~2014.6) 간 15.1%, -18.9%, 6.0%, 16.4%의 증감을 보였습니다. 건축/주택의 경우 최근 3년(2011~2014.6) 간 각각 -4.1%, -27.9%, -10.0%, -28.6%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메카텍의 경우 합병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당사 실적에 반영되어 2011년 409.1%, 2012년 34.0% 증가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6월 -11.3%, -16.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HRSG의 경우 2013년 당사로 편입되어 약 9개월 동안 1,253억원을, 2014년 6월까지 98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최근 3년(2011~2014.6) 간 12.8%, -14.6%, -0.9%, -6.2%의 증감을 보였으며,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은 동일기간 연결매출 대비 평균 93.8%의 비중을 보여 연결기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적은 건축/주택사업 대형 사업장의 공사완료, 건설경기 부진 지속과 경쟁심화, 국내외 플랜트 발주부진 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전체 매출은 2011년 두산메카텍(주)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이 14.4% 증가하였으나, 이후 건설부문의 매출감소로 인해 감소하며 최근 3년(2011~2013년) 간 평균 -0.9%의 매출감소를, 2014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2.9%의 매출감소를 보였습니다.

건설부문 실적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부문의 전체 기말 수주잔고는 2010년 9.7조원에서 2014년 5.8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건설부문 중 건축/주택 부문은 동일기간 7.3조원에서 4.1조원으로, 토목/플랜트 부문은 2.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건축/주택 부문의 감소폭이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토목/플랜트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대규모 건설투자정책 부재 및 4대강 사업 등 정부주도 대규모 발주 완료의 영향으로 국내 전체 토목부문의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 1. 사업위험 참조), 2011년 기초 수주잔고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주증가(신규수주+ 계약금액 변동)를 보였으나, 이후 업황 부진과 경쟁심화로 인해 2012~2013년 간 기초 수주잔고 대비 6.3% 및 9.7%로 수주증가율이 둔화되며, 기말 수주잔고(기초 수주잔고 + 수주증가(감소) - 매출인식)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말 수주잔고 감소로 인해, 매출 대비 기말 수주잔고 배수는 2010년 4.3x에서 2013년 3.2x로 낮아졌습니다. 기말 수주잔고/매출 배수는 당해년도 매출과 당해년도 말 수주잔고를 비교함으로써, 당해년도 매출 대비 향후 매출의 수준 및 안정적 매출 달성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통상 해당 배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경우, 향후 현재 수준의 매출 달성 가능성이 높거나 매출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수주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주 이후 매출인식이 본격화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토목/플랜트 부문 매출은 2010년 기 수주분 매출인식이 본격화되며 2011년 전년 대비 15.1%의 매출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2011년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따른 영향과 이후 수주증가 둔화로 인해, 최근 3년(2011~2014.6) 간 최근 3년(2011~2014.6) 간 15.1%, -18.9%, 6.0%, 16.4%의 증감을 보이며, 평균 4.6%의 매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축/주택 부문의 경우, 2011~2012년 간 기초 수주잔고 대비 약 13% 수준에 해당하는 수주증가가 있었으나, 국내 주택분양사업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기말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건설경기 장기간 미회복에 따른 위험관리차원에서 각종 개발형 사업 계약(용산복합, 판교복합 등)이 수주잔고에서 제외됨으로써 0.9조원의 수주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기말 수주잔고/매출 배수는 2010년 4.4x에서 2012년 5.7x로 높아졌다가 2013년 4.4x로 낮아졌으며, 이중 2012년의 경우 2012년 중 수주잔고 감소보다 매출감소폭이 더 컸던 탓에 배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매출은 최근 3년(2011~2014.6) 간 각각 -4.1%, -27.9%, -10.0%, -28.6%의 감소를 보였으며, 기말 수주잔고 감소로 전반적인 감소를 보인 가운데, 2012년의 경우 전년도 수주잔고 감소로 인해, 2013년의 경우 상반기 중 일산 제니스 등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완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기타 사업부분 중 건설부문에 이어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메카텍 부문은 2010년 11월 합병으로 이듬해인 2011년부터 당사 실적에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메카텍 부문에서는 석유화학플랜트에 사용되는 기자재인 CPE, 해양/해저플랜트 관련 기자재(OSS, Offshore Structure & Subsea, 해양구조물/모듈/해저시추설비), 강교 등을 제조하며, 당사는 주요제품인 CPE에 대해 당사는 중/대형 및 Mid-end 제품에 있어 시장 수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CPE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83.7%, 2013년 89.6%, 2014년 6월 83.9%로 CPE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기간 OSS가 11.1%, 6.1%, 6.9%를, 강교 등 기타제품이 5.2%, 4.2%,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PE는 국내외 상위 건설사 또는 EPC업체(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플랜트 등 건설공사의 최상위 업체를 의미)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제품의 수주는 국내외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는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발주처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2010년 이후 설비투자가 감소 또는 지연되었으며, 2014년 들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 1. 사업위험 참조) 한편, CPE는 통상 플랜트 설비 투자 결정 이후 수 개월 경과 이후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메카텍 부문 기말 수주잔고는 2010년 4,158억원에서 2011년 5,2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년 6월 말 3,39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기말 수주잔고/매출 배수는 합병 이후 실적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1년 1.3x에서 2013년 0.8x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CPE의 경우 수주 이후 초기 원자재 구매 및 설계 등을 거쳐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어, 일반적인 수주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주시점과 매출인식 시점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출은 합병 이후 2011년부터 메카텍 부문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당사 실적에 반영되어 2011년 전년 대비 409.1%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수주분의 매출인식이 본격화되며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11.3%, -16.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OSS는 당사가 국내 강교사업의 업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나 2013년 및 2014년 6월 기준 매출이 300억원과 142억원으로 아직 매출규모 및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제품의 특성 상 공정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사업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기타 강교 및 소규모 플랜트 사업은 공공발주 감소 등으로 매출비중이 지속 감소 하여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당사가 두산중공업(주)로부터 2013년 4월 양수한 HRSG사업은 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에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인 HRSG를 제조하여 국내외 EPC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제품에 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포함하여 과거 10년(2004~2013년) 간 수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던 2007~2008년 이후 시장경쟁이 심화되며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국내외 EPC업체의 플랜트 저가수주로 필수 기자재 역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기자재 업체 간 저가수주 경쟁으로 당사의 점유율 및 신규수주 실적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2013년 들어 저가수주 경쟁이 완화되며 시장이 정상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당사의 점유율 역시 회복되었습니다. HRSG 수주잔고는 당사 사업부문으로 편입된 시점인 2013년 4월 2,902억원에서 2013년 말 4,28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6월 말 현재 4,349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RSG 역시 CPE와 마찬가지로 수주 후 일정기간 경과 이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며, 매출은 2013년 당사로 편입된 시점 이후인 약 9개월 동안 1,253억원을, 2014년 6월까지 98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별도기준 사업부문에 대해, 건설경기 부진 지속으로 인한 실적변동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비건설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구조 변화를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부문의 경우 분양형 주택사업의 수주확대를 과거 대비 축소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토목사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민자사업 비중을 지속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메카텍 사업부문의 경우, 기존의 중/대형 및 Mid-end CPE 시장 내 강점을 유지하되, 가스 관련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북미 등지로 매출지역 확대 및 제품군을 High-end 제품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며, HRSG의 경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다변화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부문에서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사업에서 대형 사

업장의 공사완료로 단기적으로 실적개선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매출비중이 높은 건설부문에서 경기부진 지속과 경쟁심화로 인해 계획 중인 선별적 사업구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건설부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주 및 매출 감소로 실적 악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E와 HRSG의 경우 금융여건 악화 및 국내외 플랜트 발주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자재 업체간 경쟁심화 및 저가수주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주사업의 특성 상 재무구조 악화 시 수주경쟁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전술한 부문 별 매출비중, 과거 실적 변동원인과 위험요인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사업부문 별 수주잔고 변동]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기초	증감액	매출인식	기말	기초	증감액	매출인식	기말
건축/주택	72,566	9,879	15,392	67,052	67,052	9,140	11,430	64,762
토목/플랜트	24,649	7,429	6,575	25,503	25,503	1,614	5,345	21,772
CPE/강교	4,158	4,917	3,846	5,230	5,230	4,485	5,201	4,514
HRSG	0	0	0	0	0	0	0	0
계	101,372	22,226	25,813	97,785	97,785	15,238	21,975	91,048

구분	2013				2014.6			
	기초	증감액	매출인식	기말	기초	증감액	매출인식	기말
건축/주택	64,762	(9,038)	10,288	45,437	45,437	(206)	4,198	41,032
토목/플랜트	21,772	2,108	5,666	18,214	18,214	1,433	3,119	16,528
CPE/강교	4,514	3,989	4,613	3,890	3,890	1,333	1,831	3,392
HRSG	2,902	2,636	1,253	4,285	4,285	1,052	988	4,349
계	93,949	(305)	21,819	71,825	71,825	3,611	10,136	65,301

[별도기준 매출 대비 수주잔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건축/주택	4.4x	4.1x	5.7x	4.4x	4.8x
토목/플랜트	4.3x	3.9x	4.1x	3.2x	2.7x
CPE/강교	nm	1.3x	0.9x	0.8x	0.8x

주) HRSG를 제외한 사업부문의 2014년 6월 수치의 경우, 6월 말 수주잔고와 해당월 기준 최근 12개월의 실적(2013년 연간 실적 - 2013년 1~6월 간 실적 + 2014년 1~6월 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HRSG 사업부문은 2013년 4월부터 당사 실적에 포함되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기준 부문 별 매출증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건축/주택	-4.1%	-27.9%	-10.0%	-28.6%
토목/플랜트	15.1%	-18.9%	6.0%	16.4%
CPE/강교	409.1%	34.0%	-11.3%	-16.8%
HRSG	na	na	na	239.8%
분양매출	na	na	-100.0%	na
기타	7.4%	957.6%	-73.9%	2143.8%
합계	14.4%	-15.4%	-1.8%	-2.9%

한편, 당사는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레미콘 및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주)렉스콘을 흡수합병하여 합병 시점 이후로부터 당사 실적에 반영 중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레미콘 사업은 건설경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및 최종 제품인 레미콘 단가 및 단가 변동 시점에 의해서도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내 레미콘 출하량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레미콘 출하량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레미콘 업계는 전방산업인 건설 업계 대비 협상력이 약해 그 동안 시멘트 업계 및 건설 업계와의 가격협상력에 따라 시멘트 및 레미콘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보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멘트 매입가격 변동과 1~2년의 시차를 두고 레미콘 가격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인 가운데, 특히 시멘트 매입가격의 상승은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후행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2011년 4월, 2012년 3월, 2013년 6월 세 차례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 졌으나, 레미콘의 경우 가격 인상효과가 2012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 피합병 전 레미콘 부문의 매출은 2011년 1,635억원에서 2012년 1,76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경기 부진과 시멘트 및 건설업체와의 가격교섭력에 따라 실적 부진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렉스콘 요약재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렉스콘	총자산	221,458	201,638	240,297
	총부채	103,028	78,099	92,574
	매출	163,468	176,917	173,947
	순이익	6,867	4,697	3,241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최근 3년(2011~2014.6) 간 12.8%, -14.6%, -0.9%, -6.2%의 증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4년(2010~2013년) 간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은 당사와 종속기업 간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기 전 단순합계 금액의 평균 91.7%, 내부거래 등을 조정한 연결매출 대비로는 평균 93.8%의 비중을 보여 연결기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 도입 이후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긴 하나, 당사의 별도기준 실적으로 연결기준 실적변동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므로, 연결기준 실적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준 부문 별 매출증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건축/주택	-6.7%	-26.5%	-9.0%	-28.6%
토목/플랜트	17.5%	-18.2%	7.0%	16.4%
CPE/강교	316.9%	35.9%	-14.1%	-16.8%
HRSG	na	na	na	239.5%
렉스콘	-12.0%	8.2%	-1.7%	-19.6%
두산큐백스	1.1%	4.5%	1.7%	16.8%
DVH	na	na	na	279.0%
합계	12.8%	-14.6%	-0.9%	-6.2%

주1) 상기 증감율은 앞서 기재한 [연결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금액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당사의 자체사업, 기타사업, 연결조정 분의 부문 별 매출증감은 생략하였으며, 합계 증감율은 연결조정 후 연결매출의 증감율입니다.

다. 별도기준으로 최근 4년(2010~2014.6)년 간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668억원에서 2011년 및 2012년 각각 -3,096억원과 -4,535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2013년 556억원 및 2014년 6월 55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건설부문 중 주택사업장에서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영업용유동자산의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부문 별로는 건축의 경우 2012년 -4,889억원의 영업손실을, 메카텍 부문의 경우 2014년 6월 -55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습니다. 기타 부문의 경우 사업부서가 아닌 본사 지원부서 등에 대한 비용배분에 의한 공통부문의 손실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부문 및 레미콘사업을 영위 중인 렉스콘부문의 경우 경쟁심화와 건설경기 부진 지속 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메카텍 및 HRSG의 경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수주 및 실적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은 별도기준 수익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연결기준 순이익은 관계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바 최근 3년(2011~2014.6) 간 지분법손실 -95억원, -494억원, -315억원, -21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으로 최근 4년(2010~2014.6)년 간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668억원에서 2011년 및 2012년 각각 -3,096억원과 -4,535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2013년 556억원 및 2014년 6월 55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BITDA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99억원에서 -2,889억원과 -4,349억원으로 감소, 이후 781억원과 69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BITDA는 영업이익에서 현금유출이 없는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으로, 회계기준이 상이하거나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영업이익 대비 실제 현금흐름에 근사한 지표로서 사용됩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2010년 23억원을 시현한 이후, 2011년 -2,935억원, 2012년 -6,148억원, 2013년 -337억원, 2014년 -294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4년 간 영업이익 및 EBITDA 기준으로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부문 중 주택사업장에서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영업용유동자산의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였으며, 당사 역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주택 사업장의 분양이 지체되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지출과 공사수익 인식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이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분양 외에도 공사 관련 승인지연, 기타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 사업비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대출 등으로 인해 대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미분양으로 지연된 대금 회수를 위해 할인분양을 실시하였거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 관측비용의 발생 또는 할인분양을 예상한 사업장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대여금 등 채권 총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상계 전으로 아래 [별도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의 "당기설정"금액에 해당)는 2011~2012년 간 총 1.2조원이며, 연도 별로는 2011년 4,194억원, 2012년 7,620억원, 2013년 111억원, 2014년 6월까지 79억원입니다.

상기 외 당사의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비용은 퇴직급여, 이자비용,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과징금 선반영분입니다. 당사는 2013년 하반기고정비 감축과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직급여와 같은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퇴직급여는 2012년 70억원에서 2013년 219억원으로 1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당사는 최근 수년 간 당사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부문의 실적부진으로 공사수익 회수 지연됨으로써, 총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 규모 대비 과도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2010년 1,088억원에서 2012년 2,0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1,708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이익 대비와 절대 규모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의 경우 203억원의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건설 및 장기간 관리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투자한 개발사업의 출자주식 손실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중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144억원을 선반영 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택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장 별로 현재 인근 시세와 분양 또는 분양가하락 가능성, 향후 회수가능성과 추가비용 지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1.2조원의 대규모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잠재적 부실을 선반영하였으며(아래 [2014년 6월 말 기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사업장 내역] 참조), 기 인식한 대손충당금으로부터 2012년~2014년 6월 간 각각 409억원, 163억원, 131억원의 대손충당금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대형 주택사업장의 완공으로 향후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위험이 경감되었으며, 완공된 사업장 및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90% 이상의 분양율(아래 [2014년 6월 말 기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사업장 내역] 참조)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였으며, 차입금 축소에 의해 2013년 및 2014년 6월 이자비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 6월 당사의 영업이익과 EBITDA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5.6%와 19.4%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순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본사사옥 등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선반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당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장 중 일부 분양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건설사업 관

런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차손과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써 차입금 감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이 다시 증가하여 당사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매출	2,302,809	2,633,993	2,229,066	2,188,154	1,107,560	1,075,945
매출원가	(1,982,108)	(2,365,883)	(1,976,842)	(1,952,055)	(980,269)	(959,643)
매출총이익	320,701	268,110	252,224	236,099	127,291	116,302
판관비	(253,910)	(577,691)	(705,745)	(180,515)	(79,151)	(60,669)
퇴직급여	(3,899)	(5,025)	(6,975)	(21,884)	(2,543)	(2,792)
대손상각비	(110,632)	(389,353)	(555,705)	12,888	7,090	12,159
영업이익	66,791	(309,581)	(453,521)	55,584	48,140	55,633
영업이익률	2.9%	-11.8%	-20.3%	2.5%	4.3%	5.2%
EBITDA	99,992	(287,954)	(434,851)	78,103	58,452	69,782
EBITDA마진	4.3%	-10.9%	-19.5%	3.6%	5.3%	6.5%
이자수익	16,750	53,391	48,409	16,220	9,830	2,930
이자비용	(108,775)	(163,045)	(209,931)	(170,810)	(88,087)	(66,806)
유형자산처분이익	59	1,073	1,473	41,313	41,296	11
투자부동산처분이익	76	806	0	18,038	18,038	0
기타의대손상각비	(16,006)	(30,084)	(165,363)	(7,728)	(739)	(6,89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0	0	(8,055)	(20,264)	(18,958)	(1,393)
잡손실	(11,547)	(14,832)	(13,943)	(24,050)	(11,616)	(26,710)
순이익	2,283	(293,452)	(614,847)	(33,676)	3,327	(29,397)
순이익률	0.1%	-11.1%	-27.6%	-1.5%	0.3%	-2.7%

주1) 판관비, 금융수익/비용, 기타영업외수익/비용은 하위 계정 중 금액적으로 중요한 계정만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대손상각비 및 기타의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의 "당기설정"과 "충당금환입"의 합계입니다.

[별도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당기 설정	사업결합	제각	충당금환입	기타증감액	당기말
매출채권(비유동포함)	991,553	961	863	(119)	(12,829)	(4,023)	976,406
미청구공사	3,798	0	0	(771)	(291)	0	2,737
미수금	29,611	5,158	0	0	(0)	4,023	38,792
선급금	2,046	0	0	0	0	0	2,046
단기대여금	0	0	3	0	(3)	0	0
장기대여금	209,889	641	0	0	0	0	210,530

기타	17,047	1,108	0	0	(4)	0	18,151
합 계	1,253,945	7,868	867	(889)	(13,128)	0	1,248,663

- 2013년 말 기준 -

계정과목	기초금액	당기 설정	사업결합	제각	총당금환입	기타증감액	당기말
매출채권(비유동포함)	1,088,991	0	524	(87,240)	(10,721)	0	991,553
미청구공사	8,885	0	0	(2,920)	(2,167)	0	3,798
미수금	23,632	8,618	0	(2,638)	0	0	29,611
선급금	2,046	0	0	0	0	0	2,046
단기대여금	211,012	2,030	0	(1,207)	(3,366)	(208,468)	-
장기대여금	1,421	0	0	0	0	208,468	209,889
기타	16,601	447	0	0	0	0	17,047
합 계	1,352,587	11,094	524	(94,006)	(16,254)	0	1,253,945

- 2012년 말 기준 -

계정과목	기초금액	당기 설정	사업결합	제각	총당금환입	기타증감액	당기말
매출채권(비유동포함)	555,785	589,347	0	(19,841)	(39,527)	3,228	1,088,991
미청구공사	6,228	5,885	0	0	0	(3,228)	8,885
미수금	18,539	5,093	0	0	0	0	23,632
선급금	350	1,699	0	0	(3)	0	2,046
단기대여금	59,113	159,268	0	(6,349)	0	(1,021)	211,012
장기대여금	0	400	0	0	0	1,021	1,421
기타	19,010	295	0	(1,316)	(1,388)	0	16,601
합 계	659,025	761,986	0	(27,506)	(40,918)	0	1,352,587

- 2011년 말 기준 -

계정과목	기초금액	당기 설정	사업결합	제각	총당금환입	기타증감액	당기말
매출채권(비유동포함)	202,356	386,267	0	(32,838)	0	0	555,785
미청구공사	3,142	3,086	0	0	0	0	6,228
미수금	12,464	6,075	0	0	0	0	18,539
선급금	347	10,918	0	(10,915)	0	0	350
단기대여금	48,531	10,583	0	0	0	0	59,113
기타	16,502	2,508	0	0	0	0	19,010
합 계	283,341	419,437	0	(43,753)	0	0	659,025

[2014년 7월 말 기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사업장 내역]

- 진행 중인 사업장 -

(단위 : 억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분양대상		실제분양금액		분양률	입주	공정율	착공일	준공일	공사 미수금	미청구 공사	대여금	대손 총당금
		세대수	예정금액	세대수	분양된 금액									

부산시	해운건축	1,066	5,055	846	4,011	79.4%	0.00%	99%	2010-01-29	2014-09-30	50	1,987	0	-179
서울시 성동구	담십리16	660	2,131	650	2,099	98.5%	0.00%	93%	2011-11-08	2014-08-31	0	0	352	0
충북 청주시	청주지웰2차	1,956	5,836	1,956	5,836	100.0%	0.00%	58%	2012-03-30	2015-06-30	7	0	0	0
충북 오송	오송센티	1,515	1,492	1,374	1,353	90.7%	0.00%	98%	2012-07-04	2014-07-31		417	7	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센텀워브	531	1,492	525	1,475	98.9%	0.00%	79%	2012-05-01	2014-10-31		8	1	0
경기도 안산시	초지APT	695	1,408	664	1,345	95.5%	0.00%	54%	2012-12-31	2015-07-11	0	0	96	0
경기 판교	판교복합개발(APT)	931	1,520	931	1,520	100.0%	0.00%	31%	2013-05-15	2015-11-30	98	0	10	0
합계		7,354	18,934	6,946	17,640	93.2%	0.00%				155	2,412	467	-179

- 준공 사업장 -
(단위 : 억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분양대상		실제분양금액		분양률	입주	공정율	착공일	준공일	공사 미수금	미청구 공사	대여금	대손 총당금
		세대수	예정 금액	세대수	분양된 금액									
경기도 일산시	일산제니스	2,700	20,369	2,438	18,392	90.3%	83.4%	100%	2009-10-05	2013-05-01	3,570	211	2,870	-3,520
울산광역시	산호APT	369	1,479	366	1,467	99.2%	99.2%	100%	2010-12-31	2013-09-03	80	0	0	0
서울시 양천구	신정1-2구역	296	634	296	634	100.0%	100.0%	100%	2009-10-16	2012-05-15	15	0	9	-29
서울시 성동구	행당-4	351	602	351	602	100.0%	99.4%	100%	2006-12-31	2009-11-30	4	0	0	0
서울시 성북구	길음-7	444	1,145	444	1,145	100.0%	100.0%	100%	2007-10-01	2010-07-31		0	0	0
경기도 안양시	석수APT	676	1,402	676	1,402	100.0%	100.0%	100%	2008-08-13	2010-10-12	27	0	0	-27
서울시 동작구	영아APT	428	1,020	428	1,020	100.0%	100.0%	100%	2009-03-13	2011-11-12		0	6	-6
인천광역시	인천혁의APT	432	1,984	170	781	39.4%	38.7%	100%	2008-10-01	2011-09-30	780	14	38	-263
충북 청주시	청주지웰시티	2,380	13,100	2,344	12,902	98.5%	98.7%	100%	2007-03-05	2010-06-30	335	0	0	0
경북 포항	포항장성APT	1,713	4,939	1,713	4,939	100.0%	100.0%	100%	2007-06-08	2010-12-31	1,164	0	0	-1,257
대구광역시	범어동복합	1,494	11,974	1,491	11,950	99.8%	99.5%	100%	2005-12-07	2010-03-31	2,315	24	301	-1,879
울산광역시	울산신정복합	330	1,492	330	1,492	100.0%	100.0%	100%	2006-05-25	2010-02-28		0	0	0
충남 천안시	천안쌍용APT	99	234	99	234	100.0%	100.0%	100%	2008-05-21	2010-03-26	2	0	0	-2
대구광역시	달서APT	690	1,230	690	1,230	100.0%	100.0%	100%	2006-02-01	2008-11-06		0	0	0
울산광역시	울산연양APT	451	1,267	451	1,267	100.0%	100.0%	100%	2007-05-01	2009-06-15		0	0	0
경남 진주시	진주금산APT	970	2,288	970	2,288	100.0%	100.0%	100%	2006-06-30	2009-01-31	86	0	0	-101
대구광역시	대구신천APT	294	994	294	994	100.0%	100.0%	100%	2006-02-10	2008-09-30	177	0	0	-185

경기도 의왕시	의왕포일APT	450	1,544	450	1,544	100.0%	100.0%	100%	2006-07-30	2009-07-13	9	0	0	-9
충북 청주시	청주사직APT-외주	576	2,406	576	2,406	100.0%	100.0%	100%	2006-02-17	2009-07-29		0	0	0
서울시 강북구	미아-8	1,136	2,411	1,089	2,311	95.9%	95.2%	100%	2008-11-13	2011-10-31	0	0	88	0
경기도 부천시	약대-1	514	1,947	492	1,864	95.7%	95.7%	100%	2008-10-31	2011-10-30	59	0	67	-64
경기도 부천시	약대-2	1,013	3,677	967	3,510	95.5%	95.6%	100%	2008-10-31	2011-10-31	29	0	41	-64
서울시 은평구	신사2구역	139	415	139	415	100.0%	100.0%	100%	2008-09-15	2011-10-31	45	0	8	-52
경남 창원	명곡APT	1,522	6,021	1,520	6,014	99.9%	99.9%	100%	2007-10-31	2011-07-31	1,141	0	0	-1,141
부산시	해운대제니스	1,788	15,280	1,760	15,041	98.4%	98.3%	100%	2007-11-27	2012-01-30	1,345	331	0	0
부산시	명지포세이돈	1,256	3,461	1,256	3,461	100.0%	100.0%	100%	2011-01-20	2013-03-19		0	0	0
서울시 마포구	상암워브센티움	325	620	325	620	100.0%	100.0%	100%	2011-05-19	2013-04-18		0	0	0
합계		22,836	103,934	22,125	99,923	96.1%	92.9%				11,183	580	3,427	-8,598

주) 일산제니스의 분양율은 전세임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편, 별도기준 부문 별로는 전술한 원인으로 인해 건축부문의 영업이익이 2012년 -4,889억원의 손실을 보였으며, 메카텍 부문의 경우 이전까지 수주환경 악화로 인해 수주잔고 확보가 부진한 탓으로 2014년 6월 -55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습니다. 기타 부문의 경우 사업부서가 아닌 본사 지원부서 등에 대한 비용배분에 의한 공통부문의 손실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부문 및 레미콘사업을 영위 중인 렉스콘부문의 경우 경쟁심화와 건설경기 부진 지속 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메카텍 및 HRSG의 경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수주 및 실적 변동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부문 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6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건축	1,171,356	(488,947)	1,030,629	23,856	420,902	28,143
인프라	505,694	23,851	547,052	23,370	293,894	26,464
메카텍	577,953	1,839	489,807	7,798	203,657	(5,492)
HRSG	0	0	125,321	15,423	98,797	6,365
렉스콘	0	0	0	0	64,935	3,884
공통	(25,936)	9,737	(4,655)	(14,863)	(6,240)	(3,731)
합계	2,229,066	(453,521)	2,188,154	55,584	1,075,945	55,633

[별도기준 부문 별 영업이익율]

구분	2012	2013	2014.6
건축	-41.7%	2.3%	6.7%
인프라	4.7%	4.3%	9.0%
메카텍	0.3%	1.6%	-2.7%
HRSG	na	12.3%	6.4%
렉스콘	na	na	6.0%
공통	-37.5%	319.3%	59.8%
합계	-20.3%	2.5%	5.2%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은 별도기준 영업수익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기준의 손익계산서 상에는 관계기업의 순이익 변동에 대해 지분율을 적용한 만큼의 금액을 관계기업을 보유 중인 기업의 순이익에 반영하는 지분법회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손익에는 당사의 영업손익과 종속기업의 영업손익만이 반영되지만, 순손익에는 지분법손익 금액만큼의 차이가 추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사의 연결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매출	2,453,110	2,783,315	2,377,208	2,355,215	1,185,580	1,111,970
매출원가	(2,114,587)	(2,508,006)	(2,112,459)	(2,107,411)	(1,052,259)	(992,793)
매출총이익	338,523	275,309	264,749	247,804	133,321	119,177
영업이익	78,554	(308,698)	(449,136)	57,370	49,890	55,781
영업이익율	3.2%	-11.1%	-18.9%	2.4%	4.2%	5.0%
EBITDA	115,362	(283,044)	(426,187)	85,500	62,917	72,149
EBITDA마진	4.7%	-10.2%	-17.9%	3.6%	5.3%	6.5%
지분법손익	10,074	(6,203)	(51,672)	(31,467)	(13,535)	(20,984)
순이익	14,483	(294,202)	(654,077)	(60,325)	(6,817)	(48,667)
순이익율	0.6%	-10.6%	-27.5%	-2.6%	-0.6%	-4.4%

주) 금융수익/비용, 기타영업외수익/비용 중 별도기준 요약손익 수치와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분법손익 계정만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관계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회사 내역]

구분	2011	2012	2013	2014.6
----	------	------	------	--------

관계기업	Doosan Vina, Doosan doBPL, 신분당선, 경기 남부도로,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 경기철도	Doosan Vina, Doosan doBPL, 신분당선, 경기 철도, 네오트랜스, 함안 산업단지	Doosan Vina, Doosan doBPL, 신분당선, 경기 철도, 네오트랜스, 함안 산업단지, 새서울철도	Doosan Vina, Doosan do BPL, 경기철도, 신분당선, 네오트랜스, 함안 산업단지, 새서울철도
------	---	--	---	---

2014년 6월 기준 당사의 관계회사 중 지분법손익을 통해 당사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Doosan Vina와 신분당선입니다. Doosan Vina는 발전설비 및 화공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사의 생산성이 두산중공업(주)의 창원공장 수준으로 올라와 제조과정에서는 2012년부터 턴어라운드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은, EPC 프로젝트(화력발전소)의 현지 건설(전체 금액의 26% 수준)을 초도 프로젝트로써 수행하고 있는 바, 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초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동사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당선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시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로, 실제 이용수요가 예상 대비 미달하여 손실이 발생 중입니다. 당사는 동사에 대해 약 29%의 지분율을 보유함으로써, 동사의 손실이 당사에 미치는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운임료가 증가하여 손실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이 지속될 경우 지분법손실로 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이 지속되어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사의 별도및 연결기준 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의 관계회사의 경우 순이익이 발생 중이거나, 당사의 규모 대비 금액적 중요성이 낮아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전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회사투자 변동]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말
Doosan Vina	18,049	0	(10,093)	(368)	7,588
Doosan do BPL	0	0	0	0	0
신분당선(주)	67,785	0	(11,297)	0	56,488
경기철도(주)	4,946	0	(419)	0	4,527
네오트랜스(주)	10,745	0	1,446	0	12,191
함안산업단지(주)	798	0	(454)	0	344
새서울철도(주)	776	90	(168)	(0)	698
합 계	103,099	90	(20,984)	(369)	81,837

주) Doosan do BPL은 CPE사업의 남미 지역 수주확보를 위해 브라질에 2011년에 세운 법인으로서, 출자금액이 3억 미만으로 제조활동 없이 영업을 위한 3명이 상주하는 소규모 해외 법인(지분율 100%)이며, 현재 해당 법인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청산 완료 예정입니다.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0,020	0	(11,933)	(38)	0	18,049

Doosan do BPL	44	0	(44)	0	0	0
신분당선(주)	91,769	0	(23,984)	0	0	67,785
경기철도(주)	5,803	0	(856)	0	0	4,946
네오트랜스(주)	5,846	0	4,899	0	0	10,745
함안산업단지(주)	0	0	798	0	0	798
새서울철도(주)	0	298	(347)	0	825	776
합 계	133,481	298	(31,467)	(38)	825	103,099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7,407	(5,068)	(2,417)	98	30,020
Doosan do BPL	218	(166)	(8)	0	44
신분당선(주)	142,120	(48,006)	0	(2,345)	91,769
경기철도(주)	6,591	(788)	0	0	5,803
네오트랜스(주)	0	5,803	0	43	5,846
함안산업단지(주)	0	(1,200)	0	1,200	
합 계	186,335	(49,425)	(2,425)	(1,004)	133,481

- 2011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9,985	0	(2,859)	281	0	37,407
Doosan do BPL	0	218	0	0	0	218
신분당선(주)	148,080	0	(5,960)	0	0	142,120
경기철도(주)	4,196	2,853	(442)	(16)	0	6,591
경기남부도로(주)	2,652	0	(63)	0	(2,589)	0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3,432	0	(184)	0	(3,248)	0
합 계	198,345	3,070	(9,509)	265	(5,836)	186,335

[관계회사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Doosan Vina	총자산	321,379	398,504	441,289	412,745
	총부채	171,335	277,064	367,337	381,120
	매출	78,759	217,886	269,374	73,566
	순이익	(10,156)	(20,422)	(49,091)	(40,840)
Doosan do BPL	총자산	490	342	50	50
	총부채	416	313	258	258
	매출	399	1,252	809	0

	순이익	(128)	9	(266)	0
신분당선	총자산	1,220,357	1,143,790	1,082,671	1,065,721
	총부채	745,041	827,673	849,172	871,135
	매출	108,896	42,279	49,321	26,126
	순이익	(19,935)	(115,085)	(82,617)	(38,913)
경기철도	총자산	21,391	65,684	66,939	60,575
	총부채	352	47,162	51,150	46,123
	매출	0	0	0	0
	순이익	(1,319)	(2,517)	(2,693)	(1,348)
네오트랜스	총자산	5,284	21,015	30,069	32,850
	총부채	4,034	7,376	5,000	4,407
	매출	22,666	52,195	52,557	23,058
	순이익	1,145	12,742	11,430	3,375
함안산업단지	총자산	96,597	91,103	58,747	51,399
	총부채	100,212	90,631	54,313	50,108
	매출	75,363	56,972	26,046	0
	순이익	(6,634)	4,087	3,883	(642)
새서울철도	총자산	nm	nm	5,338	5,354
	총부채	nm	nm	3,167	3,486
	매출	nm	nm	0	0
	순이익	nm	nm	(1,169)	(560)

라. 별도기준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은 2010년 -5,785억원, 2011년 -1,571억원, 2012년 408억원, 2013년 -4,829억원, 2014년 6월 -687억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과 연도 별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은 2010년 두산메카텍(주) 합병과 2013년 HRSG 사업부 양수로, 2013년의 경우 본사사옥을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매각하여 이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투자현금흐름이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 기간은 제외할 경우 전체 투자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재무현금흐름은 총차입금 순증가로 인해 2010년 8,981억원의 현금흐름을, 이후 총차입금 순감소로 인해 2011년~2014년 6월 간 1,450억원, -1,729억원, 792억원, 620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현금흐름 변동에 따라 최근 4년 (2010~2014.6) 간 당사의 순현금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을 보임으로써 기말현금은 2010년 5,177억원에서 2013년 1,107억원, 2014년 6월 88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은 별도기준 현금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기말현금은 2010년 6,103억원에서 2014년 6월 1,38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현금흐름 변동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은 2010년 -5,785억원, 2011년 -1,571억원, 2012년 408억원, 2013년 -4,829억원, 2014년 6월 -687억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과 연도 별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업현금흐름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원인

은 세부적으로, 최근 4년(2010~2014.6) 간 2010년을 제외하고 순이익이 적자를 보였으며,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 가산 및 현금지출이 없는 수익 차감의 비현금조정을 감안할 경우 순이익과 비현금조정의 합계액이 2010년 2,311억원에서 2013년 781억원으로 지속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관련자산부채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앞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듯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영업관련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과 대여금 및 미수금을 포함한 기타수취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매입채무와 같은 영업관련부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출 및 매출채권 인식시점과 실제 현금회수 시점 간 차이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증가는 현금흐름 산정 시 현금유출로 인식되는데, 2010년 이후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은 매출감소 및 할인분양을 통한 채권회수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이 총 1,908억원의 감소를 보여 현금유입을 보인 2012년을 제외하고, 2010~2014년 6월 간 지속 증가하여 현금유출을 보였습니다. 한편, 매출채권 등과 반대로 매입채무와 같은 영업관련부채는 증가 시 현금흐름 산정 시 현금유입으로 인식되는데, 2010년 이후 매입채무와 기타부채의 합계가 지속 감소하여 현금유출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차입조달로 인해 순이익, 비현금조정, 영업관련자산부채 변동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순이자비용 지급 역시 (-)영업현금흐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업종의 특성 상 영업관련 설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조업과 달리 유무형자산과 관련한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 상 진행 중인 사업장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자금대여와 업황 부진에 따른 회수 지연으로 장단기대여금의 증가로 인한 현금유출을 보여 왔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두산메카텍(주) 합병과 2013년 HRSG 사업부 양수로 사업결합/합병과, 2013년의 경우 본사사옥을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매각하여 이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여 해당년도의 전체 투자현금흐름이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 기간은 제외할 경우 전체 투자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당사는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의 합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차입조달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9,083억원의 총차입금 순증가(차입-상환)를 보였으나, 2011년과 2013년에는 보통주 유상증자와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해 총 1.1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2011~2013년 간 9,891억원의 총차입금 순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재무현금흐름은 2010년 8,981억원의 현금흐름을, 이후 총차입금 순감소로 인해 2011년~2014년 6월 간 1,450억원, -1,729억원, 792억원, 620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무현금흐름 및 전술한 현금흐름 변동에 따라 최근 4년(2010~2014.6) 간 당사의 순현금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을 보임으로써 기말현금은 2010년 5,177억원에서 2013년 1,107억원, 2014년 6월 88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현금흐름 변동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영업현금흐름	(578,521)	(157,122)	40,839	(482,900)	(392,221)	(68,657)
순이익	2,283	(293,452)	(614,847)	(33,676)	3,327	(29,397)
비현금조정	228,786	443,592	782,979	111,792	55,640	84,302
영업관련자산부채변동	(690,374)	(152,797)	60,348	(405,511)	(377,687)	(58,15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95,338)	(447,511)	304,871	26,548	(176,872)	31,887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208)	201,368	(114,032)	(293,669)	(36,081)	(62,395)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05,742)	(8,371)	(25,122)	(55,657)	(135,300)	(4,180)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24,107	(55,248)	(25,960)	(130,390)	(10,897)	(11,283)
순이자지급	(104,600)	(135,275)	(175,141)	(155,954)	(75,521)	(63,807)
법인세지급	(14,617)	(19,190)	(12,500)	(203)	2,019	(1,595)
투자현금흐름	38,468	(76,361)	(164,355)	381,586	430,625	(15,496)
단기금융상품(순증가)/순감소	(44,178)	45,178	(70,658)	70,658	44,387	310
단기투자증권(순증가)/순감소	0	105,936	653	215	0	28,434
단기대여금(순증가)/순감소	(263,276)	(218,971)	(72,518)	(260,961)	(144,382)	(31,226)
장기금융상품(순증가)/순감소	0	0	0	4	4	3
장기투자증권(순증가)/순감소	23,014	(13,816)	(23,109)	72,404	483	(5,525)
장기대여금(순증가)/순감소	(5,542)	(13,380)	0	(18,227)	(2,976)	11
관계회사투자주식(순증가)/순감소	(4,182)	(3,070)	0	(298)	0	0
유형자산(순증가)/순감소	(8,073)	(5,799)	(13,647)	67,999	87,772	(5,290)
무형자산(순증가)/순감소	(2,026)	352	(909)	(774)	(164)	(3,109)
투자부동산(순증가)/순감소	(3,854)	27,663	0	56,028	56,028	0
사업결합/합병으로 인한 (증가)/감소	346,815	0	0	397,681	397,338	2,524
기타(순증가)/순감소	(230)	(454)	15,833	(3,143)	(7,865)	(1,628)
재무현금흐름	898,077	145,047	(172,905)	79,178	27,637	61,965
유상증자	0	295,458	0	768,089	378,339	0
총차입순증가/(순감소)	908,292	(139,065)	(172,904)	(677,142)	(338,933)	60,418
단기차입순증가	675,643	(405,192)	34,364	(219,657)	(166,105)	80,987
유동화채무순증가	224,438	86,525	(15,478)	(75,336)	12,882	87,189
유동성사채순증가	(315,000)	(335,000)	(468,421)	(581,321)	(183,860)	(194,094)
유동성장기부채순증가	(1,825)	(73,159)	(43,394)	(61,670)	(61,670)	(1,474)
사채순증가	313,239	487,761	270,025	135,776	29,970	17,810
장기차입순증가	11,797	100,000	50,000	125,066	29,850	0
자기주식순감소	0	0	0	(11,768)	(11,768)	1,547
배당금지급	(10,216)	(11,345)	0	0	0	0
환율변동효과	31	191	(168)	(19)	137	(86)
기초현금	159,627	517,682	429,436	132,848	132,848	110,694
순현금흐름	358,055	(88,245)	(296,589)	(22,155)	66,178	(22,274)
기말현금	517,682	429,437	132,847	110,693	199,026	88,420

당사의 연결기준 현금흐름은 당사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4년(2010~2014.6) 간 순현금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고 (-)현금흐름을 보였으며, 기말현금은 2010년 6,103억원에서 2014년 6월 1,38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연결기준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영업현금흐름	(582,684)	(128,296)	31,023	(501,750)	(392,411)	(79,539)
순이익	14,483	(294,202)	(654,077)	(60,325)	(6,817)	(48,667)

비현금조정	233,318	450,801	833,059	147,932	70,937	105,484
영업관련자산부채변동	(703,058)	(127,342)	45,856	(433,505)	(380,595)	(65,820)
순이자지급	(109,693)	(136,208)	(175,049)	(156,050)	(76,629)	(68,910)
법인세지급	(17,733)	(21,345)	(18,766)	199	692	(1,624)
투자현금흐름	32,709	(33,610)	(190,959)	400,687	460,131	(28,073)
단기금융상품(순증가)/순감소	(44,021)	45,178	(87,566)	70,575	44,465	304
단기투자증권(순증가)/순감소	0	105,936	653	7,317	16,735	10,682
단기대여금(순증가)/순감소	(263,317)	(218,946)	(72,448)	(260,828)	(144,374)	(31,227)
장기금융상품(순증가)/순감소	0	0	0	4	4	3
장기투자증권(순증가)/순감소	22,964	(9,826)	(23,109)	72,404	483	(5,525)
장기대여금(순증가)/순감소	(5,542)	(13,380)	0	(18,350)	(2,976)	11
관계회사투자주식(순증가)/순감소	(4,182)	(3,070)	0	(298)	0	(90)
유형자산(순증가)/순감소	(10,814)	33,608	(23,996)	66,075	86,277	2,415
무형자산(순증가)/순감소	(2,028)	65	(696)	(777)	(167)	(3,109)
투자부동산(순증가)/순감소	(6,707)	27,543	665	56,099	56,099	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	0	0	12,500	0	0	0
사업결합/합병으로 인한 (증가)/감소	346,815	0	0	411,727	411,385	0
기타(순증가)/순감소	(459)	(718)	3,038	(3,261)	(7,800)	(1,537)
재무현금흐름	983,088	55,782	(208,464)	123,372	89,233	88,362
유상증자	0	295,458	0	768,089	378,339	0
총차입순증가/(순감소)	993,303	(228,332)	(208,463)	(632,948)	(277,337)	86,816
단기차입순증가	675,092	(401,977)	41,886	(213,999)	(172,627)	101,574
유동화사채순증가	0	0	158,945	117,000	115,500	30,000
유동화채무순증가	310,000	44,043	(58,559)	(36,800)	81,000	93,000
유동성사채순증가	(315,000)	(385,000)	(468,421)	(698,321)	(387,653)	(224,094)
유동성장기부채순증가	(1,825)	(73,159)	(43,394)	(61,670)	(61,670)	(1,474)
사채순증가	313,239	487,761	111,080	135,776	118,263	17,810
장기차입순증가	11,797	100,000	50,000	125,066	29,850	0
장기유동화채무순증가	0	0	0	0	0	70,000
자기주식순감소	0	0	0	(11,768)	(11,768)	1,547
배당금지급	(10,216)	(11,345)	0	0	0	0
환율변동효과	31	191	(168)	(19)	370	(86)
기초현금	177,189	610,333	504,400	135,832	135,832	158,121
순현금흐름	433,144	(105,933)	(368,568)	22,290	157,323	(19,336)
기말현금	610,333	504,400	135,832	158,122	293,155	138,785

일반적으로 주요 영업관련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잔액의 변동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채권은 2009년 이후 대형분양사업의 준공과 분양 부진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1~2012년 할인분양에 따른 대규모 채권회수 및 대손설정으로 2011년 매출 대비 2010~2011년 간 평균매출채권의 비율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가장 근래 완공된 대형 분양사업장인 일산제니스 이후 대형분양사업이 없으므로 매출채권 감소세가 유지되어 매출 대비 평균매출채권의 비율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 상 재고자산의

비중이 낮으며, 건설 외 사업부문으로 인해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매출액 대비 평균재고자산의 비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3년 1.4% 수준으로 낮아져 재고자산 적체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매입채무의 경우, 어음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외주비의 경우 60일 결제, 재료비의 경우 30~150일 경과 후 결제하고 있어 어음만기일에 따라 평균매입채무의 잔액 비율이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매출 대비 평균매입채무 비율은 2011년 27.3%를 제외하고 2010~2013년 간 31% 내외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매출채권 등의 연령 별 분포를 보면, 주택사업장의 미분양 등으로 최근 3년(2011~2014.6) 간 1년 초과 분의 비중이 2011년 47.2%에서 2014년 6월 말 88.4%로 매출채권의 연령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6	2014.6
매출	2,302,809	2,633,993	2,229,066	2,188,154	1,107,560	1,075,945
[매출채권]						
매출채권	1,364,576	1,427,609	564,903	560,651	760,949	576,141
평균매출채권	1,086,847	1,396,093	996,256	562,777		
평균매출채권/매출	47.2%	53.0%	44.7%	25.7%		
[재고자산]						
재고자산	88,169	65,759	36,706	22,955	34,443	30,202
평균재고자산	63,879	76,964	51,233	29,831		
평균재고자산/매출	2.8%	2.9%	2.3%	1.4%		
[매입채무]						
매입채무	722,833	714,663	688,118	639,433	553,329	668,181
평균매입채무	720,964	718,748	701,390	663,775		
평균매입채무/매출	31.3%	27.3%	31.5%	30.3%		

[매출채권 등 연령별 분포]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108,727	41,219	29,926	1,372,595	1,552,467
단기대여금	29,414	20,580	95,395	431,666	577,055
미수금	55,812	7,516	20,798	112,419	196,544
장기대여금	133,223	9,417	15,789	540,813	699,242
장기매출채권	0	0	0	80	80
합계	327,177	78,732	161,907	2,457,573	3,025,388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82,373	33,703	255,637	1,180,464	1,552,177
단기대여금	67,730	29,675	117,324	377,055	591,784
미수금	50,332	20,109	11,478	112,938	194,857
장기대여금	107,771	5,118	38,642	501,596	653,127
장기매출채권	0	0	0	27	27
합계	308,206	88,605	423,081	2,172,080	2,991,972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200,743	120,371	115,704	1,217,049	1,653,867
단기대여금	101,675	29,604	145,776	657,463	934,518
미수금	44,127	7,338	9,842	89,833	151,139
장기대여금	302	751	3,182	28,160	32,395
장기매출채권	0	0	0	27	27
합계	346,847	158,065	274,503	1,992,532	2,771,947

- 2011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514,522	466,507	66,996	935,341	1,983,366
단기대여금	266,051	62,608	84,417	459,649	872,725
미수금	69,299	20,219	9,960	83,080	182,558
장기대여금	1,203	99	1,582	25,135	28,019
장기매출채권	0	0	0	27	27
합계	851,074	549,433	162,956	1,503,233	3,066,696

[매출채권의 연령별 비중 추이]

구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2011	25.9%	23.5%	3.4%	47.2%	100.0%
2012	12.1%	7.3%	7.0%	73.6%	100.0%
2013	5.3%	2.2%	16.5%	76.1%	100.0%
2014.6	7.0%	2.7%	1.9%	88.4%	100.0%

마.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0년 2.2조원에서 2014년 6월 1.5조원으로 총 0.7조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배수는 각각 2010년 33.21x, 22.19x, -3.83x에서 2013년 26.37x, 18.77, -3.04x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대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차입금이 과도한 수준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각각 2010년 0.73x, 1.09x에서 2014년 6월 0.87x, 1.09x로 유의미한 개선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익수준이 이자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결기준으로는, 총차입금이 2010년 2.4조원에서 2014년 6월 1.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의 경우 2014년 6월 32.5%, 154.7%입니다.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은 2013년 26.86x, 18.03x, -3.07x 이었으며,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2014년 6월 0.86x, 1.11x 으로 연결기준으로도 차입금 및 이자부담이 이익 수준 대비 큰 편입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14년 7월 별도기준으로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총차입금의 비중이 7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해 만기연장 및 차환과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규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만으로는 차입상황이 어려우므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두산메카텍(주) 합병, 2013년 HRSG사업부문 양수, 2011년과 2013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0년 2.2조원에서 2014년 6월 1.5조원으로 총 0.7조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자산 중에서 차입조달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는 동일기간 44%에서 31.5%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부채비율 역시 전술한 자기자본 확충 결과 2010년 289.8%에서 2014년 6월 143.5%로 하락하여,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동비율이 2010년 128.1%에서 2014년 6월 106.9%로 하락하였는바, 유동비율은 1년 내 회수가 가능한 유동자산과 1년 내 상환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를 비교하여 단기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통상 100%를 상회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0~2011년의 경우 합병 및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유입이 이루어지며 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이 감소됨으로써 유동자산 및 유동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배수는 각각 2010년 33.21x, 22.19x, -3.83x에서 2013년 26.37x, 18.77, -3.04x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대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차입금이 과도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배수는 연간 기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총차입금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이익 또는 현금흐름 대비 차입금 수준이 안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익 등 개선은 부진한 편이었지만 총차입금 감소로 인해 해당 배수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각각 2010년 0.73x, 1.09x에서 2014년 6월 0.87x, 1.09x로 유의미한 개선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익수준이 이자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차입금 배수가 원금 상환여력을 나타낸다면, 이자비용 대비 이익 배수는 만기 전 이익을 통한 이자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 이상인 경우 이익만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통상 해당배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전술한 제반 안

정성 관련 지표를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총자산	5,040,352	4,831,264	3,909,840	4,745,786	4,909,290
유동자산	3,696,383	3,472,648	2,369,704	2,421,651	2,518,967
비유동자산	1,343,969	1,358,616	1,540,136	2,324,135	2,390,323
총부채	3,747,131	3,610,334	3,304,796	2,736,410	2,893,283
유동부채	2,885,334	2,454,114	2,726,129	2,201,433	2,357,292
비유동부채	861,797	1,156,220	578,667	534,977	535,991
총차입금	2,218,366	2,088,433	1,932,687	1,465,608	1,546,020
자기자본	1,293,221	1,220,930	605,044	2,009,376	2,016,007
영업이익	66,791	(309,581)	(453,521)	55,584	55,633
EBITDA	99,992	(287,954)	(434,851)	78,103	69,782
영업현금흐름	(578,521)	(157,122)	40,839	(482,900)	(68,657)
순이자비용	92,026	109,654	161,522	154,590	63,876
이자비용	108,775	163,045	209,931	170,810	66,806
이자수익	16,750	53,391	48,409	16,220	2,930
유동비율	128.1%	141.5%	86.9%	110.0%	106.9%
부채비율	289.8%	295.7%	546.2%	136.2%	143.5%
단기총차입금비중	69.7%	53.5%	79.8%	73.5%	76.1%
차입금의존도	44.0%	43.2%	49.4%	30.9%	31.5%
총차입금/영업이익	33.21x	-6.75x	-4.26x	26.37x	24.51x
총차입금/EBITDA	22.19x	-7.25x	-4.44x	18.77x	17.29x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3.83x	-13.29x	47.32x	-3.04x	-9.70x
영업이익/순이자비용	0.73x	-2.82x	-2.81x	0.36x	0.87x
EBITDA/순이자비용	1.09x	-2.63x	-2.69x	0.51x	1.09x

주) 2014년 6월의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배수에 적용된 영업이익, EBITDA, 영업현금흐름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결기준으로는, 총차입금이 2010년 2.4조원에서 2014년 6월 1.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10년 44.1%에서 2014년 6월 32.5%로, 부채비율의 경우 동일기간 301.7%에서 154.7%로 하락하여, 당사 대비 재무적으로 열위한 종속기업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별도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연간 추이 기준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10년 124.8%에서 2014년 6월 106.4%로 낮아졌습니다.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은 2010년 30.2x, 20.57x, -4.07x에서 2013년 26.86x, 18.03x, -3.07x로 개선되었지만 연결기준으로도 여전히 총차입금이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순이자비용, EBITDA/순이자비용은 2010년 0.81x, 1.19x,에서 2014년 6월 0.86x, 1.11x로 유의미한 개선이 없으며, 연결기준으로도 여전히 이

익수준이 이자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전술한 제반 안정성 관련 지표를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총자산	5,378,174	5,088,198	4,065,743	4,950,416	5,008,330
유동자산	3,840,450	3,592,796	2,427,888	2,534,636	2,597,993
비유동자산	1,537,724	1,495,402	1,637,855	2,415,780	2,410,337
총부채	4,039,255	3,822,017	3,457,955	2,934,973	3,042,100
유동부채	3,078,365	2,581,406	2,795,129	2,308,227	2,441,354
비유동부채	960,890	1,240,611	662,826	626,746	600,746
총차입금	2,372,713	2,153,514	1,962,209	1,541,211	1,627,461
자기자본	1,338,919	1,266,181	607,788	2,015,443	1,966,230
영업이익	78,555	(308,698)	(449,136)	57,370	55,781
EBITDA	115,363	(283,057)	(426,187)	85,500	72,149
영업현금흐름	(582,684)	(128,296)	31,023	(501,750)	(79,539)
순이자비용	97,156	112,033	161,401	154,629	64,836
이자비용	114,895	166,501	211,880	172,065	67,980
이자수익	17,739	54,468	50,479	17,436	3,144
유동비율	124.8%	139.2%	86.9%	109.8%	106.4%
부채비율	301.7%	301.9%	568.9%	145.6%	154.7%
단기총차입금비중	71.6%	54.9%	80.1%	74.8%	77.3%
차입금의존도	44.1%	42.3%	48.3%	31.1%	32.5%
총차입금/영업이익	30.20x	-6.98x	-4.37x	26.86x	25.73x
총차입금/EBITDA	20.57x	-7.61x	-4.60x	18.03x	17.18x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4.07x	-16.79x	63.25x	-3.07x	-8.62x
영업이익/순이자비용	0.81x	-2.76x	-2.78x	0.37x	0.86x
EBITDA/순이자비용	1.19x	-2.53x	-2.64x	0.55x	1.11x

주) 2014년 6월의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금/EBITDA, 총차입금/영업현금흐름 배수에 적용된 영업이익, EBITDA, 영업현금흐름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

한편, 2014년 7월 기준으로는 당사의 총차입금은 15,519억원이며, 이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총차입금의 비중이 7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세부 기간 별로는 2014년 8월부터 12월 간 만기도래하는 금액이 5,164억원이며, 2015년은 9,163억원, 2016년은 1,114억원으로 이상의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해 만기연장으로 대응하고, 유동화채무의 경우 분할상환과 동일한 금액 또는 증액된 금액으로의 차환을 추진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상환 계획 및 상환/차환 내역은 아래 관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총차입규모는 당사의 이익수준 대비 과도하며,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규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만으로는 차입상황이 어려우므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과 목	차 입 내 용		2014년	2014년	상환계획	비고
	차 입 일	만기일	6월	7월		
당좌대	14-05-24	14-11-24	100	100		
	14-05-04	15-05-04	19	1		
	13-09-28	14-09-28	0	0		
	14-04-21	15-04-21	53	53		
	-	-	5	10		
소계			177	164		
한도대	14-02-21	15-02-17	1,050	1,050	만기연장	
	14-02-21	15-02-17	250	250	만기연장	
	13-07-02	14-07-02	200	0	만기연장	일반대로 200억 전환 (만기 14/11/02)
	14-05-24	14-11-24	120	120	만기연장	
	13-07-27	14-07-27	300	300	만기연장	연장 완료 (만기 15/07/27)
	14-05-29	15-05-29	89	89	만기연장	
	14-04-21	15-04-21	173	173	만기연장	
	14-04-21	15-04-21	200	200	만기연장	
	14-04-21	15-04-21	200	200	만기연장	
	14-04-21	15-04-21	100	100	만기연장	
소계			2,682	2,482		
일반대	13-11-08	14-11-08	100	100	만기연장	
	14-06-20	15-06-20	400	400	만기연장	
	13-07-02	14-07-02	100	0	만기상환	상환 완료
	93-02-08	18-02-08	5	5	분할상환 진행중	
	14-02-28	15-02-27	970	970	만기연장	
	14-01-24	15-01-24	200	200	만기연장	
	14-06-27	14-12-31	500	500	분할상환	
	14-02-26	14-08-26	70	70	만기연장	
	14-04-02	14-10-02	50	50	만기연장	
	14-04-16	14-10-16	24	24	만기연장	
	14-02-28	14-08-28	70	70	만기연장	
	14-01-02	14-07-02	14	14	만기연장	연장 완료 (만기 15/01/02)
	14-04-25	14-10-25	51	51	만기연장	
	14-06-16	14-12-16	21	21	만기연장	
	14-01-24	14-07-24	100	0	분할상환 진행중	상환 완료
	14-06-13	14-12-13	81	81	분할상환 진행중	
	10-02-25	15-02-13	19	19	분할상환 진행중	
	14-07-02	14-11-02	0	200	만기연장	한도대에서 200억 전환
	14-07-30	15-01-30	0	100	분할상환 진행중	신규차입
	소계			2,775	2,875	
USANCE	14-02-28	15-02-28	310	250		
기업어음	14-05-29	14-08-28	60	60	만기연장	
	14-06-30	14-07-31	300	300	만기연장	연장 완료(14/08/29), 만기 시 추가 연장 예정
소계			360	360		
운영자금대출	14-07-17	15-07-17	242	242	만기연장	연장 완료 (만기 15/07/17)

	00-04-25	21-04-26	73	73	만기연장	
	12-03-30	15-03-30	350	350	만기도래시 상환/연장 추가검토(그룹 P-CLO)	
	13-12-23	15-12-23	1,100	1,100	만기연장	
소계			1,765	1,765		
회사채	공모 72-3회	12-09-21	14-09-21	350	350	차환발행 예정
	공모 74회	13-03-12	15-03-12	638	638	차환발행 예정
	공모 77-2회	13-05-24	15-05-24	200	200	차환발행 예정
	공모 78회	13-07-23	15-07-23	600	600	차환발행 예정
	공모 80회	13-09-16	15-09-16	450	450	차환발행 예정
	공모 79회	13-10-21	15-03-04	300	300	만기연장(사모사채)
	외화사모	13-10-25	15-10-26	274	277	만기상환
	사모 81회	14-05-08	16-05-15	500	500	만기연장 (그룹 P-CBO)
	사모 82회	14-05-29	14-08-29	100	100	만기상환
사모 83회	14-05-29	15-05-29	100	100	만기상환	
소계			3,512	3,515		
자산유동화			3,887	4,105	공사채권 대상 사업장 수금일정 연계하여 분할상환	아래 [2014년 6월 말 기준 유동화 현황] 참조
기타의 차입금			4	3		
총계			15,472	15,519		

- 주1) 외화사모사채의 금액 변동은 환율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2) 기타의 차입금은 받을어음 등에 대해 당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부분입니다.
주3) 상기 차입금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기준입니다.

[총차입금의 만기 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8~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당좌대	110	54	0	0	0	0	0	0	164
유산스	0	250	0	0	0	0	0	0	250
기업어음	360	0	0	0	0	0	0	0	360
운영자금대출	0	1,692	0	0	0	0	0	73	1,765
한도대	120	2,362	0	0	0	0	0	0	2,482
일반대	1,167	1,703	0	0	5	0	0	0	2,875
회사채	450	2,565	500	0	0	0	0	0	3,515
자산유동화	2,954	537	614	0	0	0	0	0	4,105
기타	3	0	0	0	0	0	0	0	3
계	5,164	9,163	1,114	0	5	0	0	73	15,519

[총차입금의 상환방법 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8~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당좌대	110	54	0	0	0	0	0	0	164
유산스	0	250	0	0	0	0	0	0	250
만기연장	1,614	5,040	500	0	0	0	0	73	7,227
차환발행	350	1,888	0	0	0	0	0	0	2,238
소계	2,074	7,232	500	0	0	0	0	73	9,879
분할상환(자산유동화)	2,954	537	614	0	0	0	0	0	4,105
기타분할상환	581	119	0	0	5	0	0	0	705
미정(상환 또는연장 검토 중)	0	350	0	0	0	0	0	0	350

만기상환	103	377	0	0	0	0	0	0	480
소계	3,638	1,383	614	0	5	0	0	0	5,640
총계	5,712	8,615	1,114	0	5	0	0	73	15,519

[2014년 6월 말 기준 유동화 현황]
(단위 : 억원)

구조화기업명	신탁원본액	잔액(억원)	기간	할인율(%)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900	900	2014.04.28 ~ 2016.04.26	7.5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400	200	2014.03.31 ~ 2014.09.30	8.97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630	191	2014.04.09 ~ 2014.07.08	9.59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800	795	2014.01.27 ~ 2014.07.25	8.21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	1,000	1,000	2014.05.28 ~ 2014.07.08	7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800	800	2014.06.30 ~ 2015.03.30	8.99
합계	4,530	3,886		

- 주1) 상기 신탁원본액은 유동화채무 최초 발생액을 의미합니다.
주2)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와 관련한 유동화 건은 2014년 7월 중 50억원 상환되었습니다.
주3)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와 관련한 유동화 건은 만기에 960억원으로 차환되었으며, 만기는 2014년 10월 07일 입니다.
주4)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와 관련한 유동화 건은 만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차환되었으며, 만기는 2014년 10월 23일 입니다.
주5)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와 관련한 유동화 건은 만기에 5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여 500억원은 동일한 금액으로 차환되었습니다. 연장된 만기는 2014년 10월 08일 입니다.
주6)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는 지배회사가 보유하는 연결대상종속회사(두산큐백스(주)) 지분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주7)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SOC사업의 미래 공사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주8)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청주지웰2차의 미래 공사채권 지분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디에스솔밭제일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유형 자산 일부 및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주9)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해운대 AID 재건축 사업의 미래 공사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주10)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창원1, 2공장 후순위, 청주2차 유동화 2중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일부 및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주11)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답십리16, 해운대센텀, 오송센티움 사업의 미래 공사채권 및 해운대AID 유동화 2중 수익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바. 2014년 6월 별도기준으로 당사 종속회사등의 장부금액은 3,053억원으로 동일시점 당사의 총자산 49,093억원 대비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별도기준으로 당사의 종속회사 등은 당사로의 피합병, 타 계정으로 재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금액의 변동이 없어 손상차손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연결기준으로는 2011년 -95억원, 2012년 -494억원, 2013년 -315억원, 2014년 6월 -210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종속회사 등은 지분법손실로 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키거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사의 별도 및 연결기준 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의 타법인주식 중 금액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투자건 및 손실금액은 2011년 지케이해상도로에 대한 투자로부터 -116억원, 2013년 에콘힐자에 대한 투자로부터 -159억원 입니다. 그 밖의 경우 금액적 중요성이 낮으므로 당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타법인주식 취득의 경우 손상차손 등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켜 당시의 실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6월 두산큐백스(주)와 DVH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며, Doosan Vina 외 6개사를 관계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종속회사 등 내역]

구분	2011	2012	2013	2014.6
종속회사	(주)렉스콘, 두산큐백스(주)	(주)렉스콘, 두산큐백스(주)	(주)렉스콘, 두산큐백스(주), DVH	두산큐백스(주), DVH
관계회사	Doosan Vina, 두산doBPL, 신분당선, 경기남부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경기철도	Doosan Vina, 두산doBPL, 신분당선,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함안산업단지	Doosan Vina, 두산doBPL, 신분당선,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함안산업단지, 새서울철도	Doosan Vina, Doosan doBPL, 경기철도(주), 신분당선(주), 네오트랜스(주), 함안산업단지(주), 새서울철도(주)

2014년 6월 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종속회사등의 장부금액은 3,053억원으로 동일시점 당사의 총자산 49,093억원 대비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FRS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기준의 경우 이들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실적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하회하는 등 손상의 징후가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연결기준으로는 당사와 종속회사의 실적이 합쳐지며 관계회사의 순이익 변동 또는 순자산의 변동은 지분법적용을 통해 당사의 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반영됩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의 종속회사 등은 당사로의 피합병, 중요한 영향력 상실 등으로 인

한 타 계정으로 재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금액의 변동이 없어 손상차손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한편, 연결기준으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 변동이 당사의 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반영됩니다. 2014년 6월 기준 당사의 관계회사 중 지분법손익을 통해 당사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Doosan Vina와 신분당선입니다. Doosan Vina는 발전설비 및 화공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사의 생산성이 두산중공업(주)의 창원공장 수준으로 올라와 제조과정에서는 2012년부터 턴어라운드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은, EPC 프로젝트(화력발전소)의 현지 건설(전체 금액의 26% 수준)을 초도 프로젝트로써 수행하고 있는바, 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초도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동사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당선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시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로, 실제 이용수요가 예상 대비 미달하여 손실이 발생 중입니다. 당사는 동사에 대해 약 29%의 지분율을 보유함으로써, 동사의 손실이 당사에 미치는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운임료가 증가하여 손실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이 지속될 경우 지분법손실로 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이 지속되어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사의 별도 및 연결기준 기준 순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의 관계회사의 경우 순이익이 발생 중이거나, 당사의 규모 대비 금액적 중요성이 낮아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별도기준 종속회사등 장부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렉스콘	111,969	111,969	111,969	0
큐백스	158,881	158,881	158,881	158,881
DVH	0	0	27,333	27,333
Doosan Vina	47,039	47,039	47,039	47,039
Doosan do BPL	218	218	0	0
신분당선	62,552	62,552	62,552	62,552
경기철도	7,049	7,049	7,049	7,049
네오트랜스	0	43	43	43
함안산업단지	0	1,200	1,200	1,200
새서울철도	0	0	1,123	1,213
합계	397,318	388,951	417,189	305,308

[관계회사투자 변동]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말
Doosan Vina	18,049	0	(10,093)	(368)	7,588
Doosan do BPL	0	0	0	0	0

신분당선(주)	67,785	0	(11,297)	0	56,488
경기철도(주)	4,946	0	(419)	0	4,527
네오트랜스(주)	10,745	0	1,446	0	12,191
함안산업단지(주)	798	0	(454)	0	344
새서울철도(주)	776	90	(168)	(0)	698
합 계	103,099	90	(20,984)	(369)	81,837

주) Doosan do BPL은 CPE사업의 남미 지역 수주확보를 위해 브라질에 2011년에 세운 법인으로서, 출자금액이 3억 미만으로 제조활동 없이 영업을 위한 3명이 상주하는 소규모 해외 법인(지분율 100%)이며, 현재 해당 법인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청산 완료 예정입니다.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0,020	0	(11,933)	(38)	0	18,049
Doosan do BPL	44	0	(44)	0	0	0
신분당선(주)	91,769	0	(23,984)	0	0	67,785
경기철도(주)	5,803	0	(856)	0	0	4,946
네오트랜스(주)	5,846	0	4,899	0	0	10,745
함안산업단지(주)	0	0	798	0	0	798
새서울철도(주)	0	298	(347)	0	825	776
합 계	133,481	298	(31,467)	(38)	825	103,099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7,407	(5,068)	(2,417)	98	30,020
Doosan do BPL	218	(166)	(8)	0	44
신분당선(주)	142,120	(48,006)	0	(2,345)	91,769
경기철도(주)	6,591	(788)	0	0	5,803
네오트랜스(주)	0	5,803	0	43	5,846
함안산업단지(주)	0	(1,200)	0	1,200	
합 계	186,335	(49,425)	(2,425)	(1,004)	133,481

- 2011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
Doosan Vina	39,985	0	(2,859)	281	0	37,407
Doosan do BPL	0	218	0	0	0	218
신분당선(주)	148,080	0	(5,960)	0	0	142,120
경기철도(주)	4,196	2,853	(442)	(16)	0	6,591

경기남부도로(주)	2,652	0	(63)	0	(2,589)	0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3,432	0	(184)	0	(3,248)	0
합 계	198,345	3,070	(9,509)	265	(5,836)	186,335

[중속회사등 요약재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큐백스	총자산	231,457	237,392	247,246	234,562
	총부채	95,247	103,328	104,423	92,350
	매출	28,777	30,104	30,577	15,968
	순이익	(2,272)	(1,485)	(1,694)	(611)
DVH	총자산	37,347	30,021	40,744	48,085
	총부채	9,580	3,948	17,121	24,677
	매출	50,950	27,356	20,448	23,467
	순이익	2,979	1,292	(851)	734
Doosan Vina	총자산	321,379	398,504	441,289	412,745
	총부채	171,335	277,064	367,337	381,120
	매출	78,759	217,886	269,374	73,566
	순이익	(10,156)	(20,422)	(49,091)	(40,840)
Doosan do BPL	총자산	490	342	50	50
	총부채	416	313	258	258
	매출	399	1,252	809	0
	순이익	(128)	9	(266)	0
신분당선	총자산	1,220,357	1,143,790	1,082,671	1,065,721
	총부채	745,041	827,673	849,172	871,135
	매출	108,896	42,279	49,321	26,126
	순이익	(19,935)	(115,085)	(82,617)	(38,913)
경기철도	총자산	21,391	65,684	66,939	60,575
	총부채	352	47,162	51,150	46,123
	매출	0	0	0	0
	순이익	(1,319)	(2,517)	(2,693)	(1,348)
네오트랜스	총자산	5,284	21,015	30,069	32,850
	총부채	4,034	7,376	5,000	4,407
	매출	22,666	52,195	52,557	23,058
	순이익	1,145	12,742	11,430	3,375
함안산업단지	총자산	96,597	91,103	58,747	51,399
	총부채	100,212	90,631	54,313	50,108
	매출	75,363	56,972	26,046	0

	순이익	(6,634)	4,087	3,883	(642)
새서울철도	총자산	nm	nm	5,338	5,354
	총부채	nm	nm	3,167	3,486
	매출	nm	nm	0	0
	순이익	nm	nm	(1,169)	(560)

당사의 타법인주식 취득은 출자목적 별로 SOC사업 투자,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투자, 기타 투자로 구분되며, 기타 투자를 제외한 SOC사업 투자 및 PFV투자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입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의 타법인주식 취득내역과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투자건 및 손실금액은 2011년 지케이해상도로에 대한 투자로부터 -116억원, 2013년 에콘힐자에 대한 투자로부터 -159억원입니다. 지케이해상도로는 2011년 비상장주식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11월 지분매각 완료되었습니다. 에콘힐에 대한 투자의 경우, 당사가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건설 및 장기간 관리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투자한 경기도 광고 개발사업이 무산되며, 해당 PFV에 대한 출자주식 손실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경우 금액적 중요성이 낮으므로 당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타법인주식 취득의 경우 손상차손 등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켜 당사의 실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주식 변동내역(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제외) - 2014년 6월 말 잔액금액 순]
(단위 : 백만원)

법인명	출자목적	2010	2011			2012		
		장부가액	취득(처분) 금액	평가손익	장부가액	취득(처분) 금액	평가손익	장부가액
㈜알파동시티 (비상장)	PFV	na	na	na	19,668	0	(3,261)	16,407
인천김포고속도로㈜ (비상장)	SOC	1,576	(9)	0	1,567	3,266	0	4,833
영천상주고속도로㈜ (비상장)	SOC	191	105	0	296	6,878	0	7,174
대한주택보증㈜ (비상장)	투자	0	0	0	0	0	0	0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비상장)	SOC	1,425	4,901	0	6,327	1,269	0	7,595
포항영일신항만㈜ (비상장)	SOC	8,143	0	(1,183)	6,961	0	487	7,447
㈜우이트랜스 (비상장)	SOC	1,312	440	0	1,751	3,096	0	4,848
강남순환도로㈜ (비상장)	SOC	5,166	0	835	6,001	0	(540)	5,461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비상장)	SOC	969	0	0	969	3,033	0	4,002
대구남부순환도로㈜ (비상장)	SOC	3,083	0	(20)	3,063	0	(25)	3,038
마산아랫물길㈜ (비상장)	SOC	971	133	0	1,105	0	0	1,105
부산물류터미널㈜ (비상장)	투자	1,503	0	45	1,548	0	97	1,645
한국경우에이엠씨㈜ (비상장)	PFV	1,000	0	0	1,000	0	(93)	907
서울문산고속도로㈜ (비상장)	SOC	397	294	0	690	144	0	834
청정파주㈜ (비상장)	SOC	496	0	0	496	188	0	685
서울라이트타워㈜ (비상장)	PFV	4,620	2,700	0	7,320	0	(2,500)	4,820
푸른김포㈜ (비상장)	SOC	512	34	0	546	0	0	546
청주친환경㈜ (비상장)	SOC	240	0	0	240	73	0	312
쌍용자동차 (상장)	투자	na	na	na	164	0	7	171
하나금융지주 (상장)	투자	na	na	na	140	0	(3)	137
양천고양통일동산㈜ (비상장)	SOC	0	0	0	0	113	0	113
가평양주강군㈜ (비상장)	SOC	0	0	0	0	0	0	0

에스피피주 (비상장)	SOC	25	0	0	25	0	0	25
장흥친환경주 (비상장)	SOC	999	0	0	999	0	0	999
㈜국민씨아이 (비상장)	투자	695	0	0	695	0	0	695
㈜삼우엔앤에스 (비상장)	투자	na	na	na	290	0	0	290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비상장)	PFV	na	na	na	4,111	0	(870)	3,241
청라국제업무타운주 (비상장)	PFV	2,046	0	0	2,046	0	(2,046)	0
엘시티피에프브이주 (비상장)	PFV	na	na	na	1,050	0	0	1,050
천안헤르메카개발주 (비상장)	PFV	3,000	0	0	3,000	0	(3,000)	0
에콘힐주 (비상장)	PFV	9,557	0	5,025	14,582	0	1,333	15,915
에콘힐자산관리주 (비상장)	PFV	79	0	0	79	0	0	79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 (비상장)	SOC	0	0	0	0	0	0	0
지케이해상도로주 (비상장)	SOC	94,024	0	(11,579)	82,445	0	70	82,515
트란스루트두산운영주 (비상장)	SOC	50	0	0	50	(50)	0	0
노벨리스코리아주 (비상장)	투자	na	na	na	551	(551)	0	0
원능에스티피주	SOC	682	0	(682)	0	0	0	0
평택크린에너지주	SOC	41	(41)	0	0	0	0	0

법인명	출자목적	2013			2014.6		
		취득(처분) 금액	평가손익	장부가액	취득(처분) 금액	평가손익	장부가액
㈜알파돔시티 (비상장)	PFV	0	(653)	15,754	0	0	15,754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비상장)	SOC	7,740	0	12,573	3,068	0	15,641
영천상주고속도로주 (비상장)	SOC	5,767	0	12,941	1,392	0	14,333
대한주택보증주 (비상장)	투자	9,295	0	9,295	0	0	9,295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비상장)	SOC	1,579	0	9,174	0	0	9,174
포항영일신항만주 (비상장)	SOC	0	(110)	7,337	0	0	7,337
㈜우이트랜스 (비상장)	SOC	539	0	5,387	0	0	5,387
강남순환도로주 (비상장)	SOC	0	(228)	5,232	0	0	5,232
부산신항제1배후도로주 (비상장)	SOC	529	0	4,532	0	0	4,532
대구남부순환도로주 (비상장)	SOC	976	0	4,013	0	0	4,013
마산아랫물길주 (비상장)	SOC	0	0	1,105	0	0	1,105
부산물류터미널주 (비상장)	투자	0	(685)	960	0	0	960
한국경우에이엠씨주 (비상장)	PFV	0	27	934	0	0	934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비상장)	SOC	0	0	834	0	0	834
청정파주주 (비상장)	SOC	0	0	685	0	0	685
서울라이트타워주 (비상장)	PFV	(4,246)	0	574	0	0	574
푸른김포주 (비상장)	SOC	0	0	546	0	0	546
청주친환경주 (비상장)	SOC	0	0	312	0	0	312
쌍용자동차 (상장)	투자	0	72	243	0	39	282
하나금융지주 (상장)	투자	0	36	173	0	(25)	148
양천고양통일동산주 (비상장)	SOC	0	0	113	(20)	0	94
가평양주강군주 (비상장)	SOC	0	0	0	63	0	63
에스피피주 (비상장)	SOC	0	0	25	0	0	25
장흥친환경주 (비상장)	SOC	0	0	999	(999)	0	0
㈜국민씨아이 (비상장)	투자	0	0	695	0	(695)	0
㈜삼우엔앤에스 (비상장)	투자	0	(290)	0	0	0	0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비상장)	PFV	0	(3,241)	0	0	0	0
청라국제업무타운주(비상장)	PFV	0	0	0	0	0	0
엘시티피에프비이주(비상장)	PFV	(1,050)	0	0	0	0	0
천안헤르메카개발주(비상장)	PFV	0	0	0	0	0	0
에콘힐주(비상장)	PFV	0	(15,915)	0	0	0	0
에콘힐자산관리주(비상장)	PFV	0	(79)	0	0	0	0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비상장)	SOC	0	0	0	0	0	0
지케이해상도로주(비상장)	SOC	(82,515)	0	0	0	0	0
트란스루트두산운영주(비상장)	SOC	0	0	0	0	0	0
노벨리스코리아주(비상장)	투자	0	0	0	0	0	0
원능에스티피주	SOC	0	0	0	0	0	0
평택크린에너지주	SOC	0	0	0	0	0	0

주) 상기 중 2011년 취득(처분)금액, 평가손익, 기말장부금액을 "알수 없음"("na", not available)으로 표기한 경우는,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의 회계처리를 2011년 3분기보고서부터 변경(담보부차입거래→과생금융상품)함에 따라, 이전에 보고된 수치와 상이하므로 그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사. 당사는 최근 4년(2010~2014.6) 간 본사사옥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을 처분한 2013년을 제외할 경우,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유무형자산순취득액 비율은 평균 -0.5%와 -0.1%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예정된 투자는 창원공장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및 기본설비 노후교체를 위해 9억원 및 DVH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등으로 43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업종의 특성 상 영업관련 설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조업과 달리 유무형자산과 관련한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10~2014.6) 간 본사사옥 판매후리스 방식으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을 처분한 2013년을 제외할 경우,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유무형자산순취득액 비율은 평균 -0.5%와 -0.1%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예정된 투자는 창원공장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및 기본설비 노후교체를 위해 9억원 및 DVH 내 환경이슈 해결 목적 등으로 43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유무형자산순취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매출	2,302,809	2,633,993	2,229,066	2,188,154	1,075,945
영업이익	66,791	(309,581)	(453,521)	55,584	55,633
EBITDA	99,992	(287,954)	(434,851)	78,103	69,782
영업현금흐름	(578,521)	(157,122)	40,839	(482,900)	(68,657)
유무형자산순취득	(10,099)	(5,447)	(14,556)	67,225	(8,399)
유형자산순취득	(8,073)	(5,799)	(13,647)	67,999	(5,290)
무형자산순취득	(2,026)	352	(909)	(774)	(3,109)

유무형자산순취득/매출	-0.4%	-0.2%	-0.7%	3.1%	-0.8%
-------------	-------	-------	-------	------	-------

[연결기준 유무형자산순취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매출	2,453,110	2,783,315	2,377,208	2,355,215	1,111,970
영업이익	78,555	(308,698)	(449,136)	57,370	55,781
EBITDA	115,363	(283,057)	(426,187)	85,500	72,149
영업현금흐름	(582,684)	(128,296)	31,023	(501,750)	(79,539)
유무형자산순취득	(12,842)	33,673	(24,692)	65,298	(694)
유형자산순취득	(10,814)	33,608	(23,996)	66,075	2,415
무형자산순취득	(2,028)	65	(696)	(777)	(3,109)
유무형자산순취득/매출	-0.5%	1.2%	-1.0%	2.8%	-0.1%

아. 당사는 CPE, HRSG의 수출과 각종 원자재 해외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헤지로서 사전에 환위험을 축소하고 그 외의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111억원, 59억원, 15억원, 52억원 입니다. 한편, 당사는 SOC 사업 관련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옵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파생상품평가손실(2014년 6월 518백만원, 전년 동기 잔액 없음)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SOC사업과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 모집을 위해 재무적투자자에게 풋옵션과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CPE, HRSG의 수출과 각종 원자재 해외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출/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매도수요와 매입수요가 자연적으로 상응하게끔 하는 자연헤지로서 사전에 환위험을 축소하고 그 외의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환관리 정책을 두어 헤지비율과 헤지수단을 정하고 있으며, 헤지수단은 단순 선물환 매도, 매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외 상품의 사용이력은 없습니다. 선물환 계약 체결은 영업 거래 상대방의 등급에 따라 우량등급의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는 공사수주 계약서 체결일 기준으로 비우량 등급의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는 선수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의 파생상품 관련 자산/부채 및 평가손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당사의 외형 대비 금액적 중요성이 낮아 당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내역]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USD천, EUR천, JPY천, 백만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419,374	USD	390,746	17,987	7,307	0	(6,802)
	KRW	51,027	EUR	34,770	2,472	2,472	0	(1,134)
	USD	55,968	KRW	59,554	(2,237)	(2,237)	(1,229)	0
	EUR	30,317	KRW	33,226	(1,729)	(1,729)	(2)	0
	JPY	393,300	KRW	4,557	(597)	(597)	(157)	0
	합계					15,897	5,216	(1,388)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USD천, EUR천, JPY천, 백만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287,242	USD	257,910	11,350	2,870	0	(3,592)
	KRW	44,626	EUR	30,510	(307)	(307)	0	78
	USD	37,003	KRW	40,590	(666)	(666)	(134)	0
	EUR	2,080	KRW	3,045	0	0	(1)	0
	JPY	314,640	KRW	3,646	(435)	(435)	(200)	0
	합계					9,942	1,462	(335)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USD천, 백만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227,593	USD	199,028	11,589	5,875	0	(4,700)

- 2011년 말 기준 -

(단위 : USD천, EUR천, 백만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270,076	USD	233,866	(1,719)	(11,670)	(134)	909
	KRW	23,040	EUR	14,866	696	598	0	(62)
합계					(1,023)	(11,072)	(134)	847

당사는 SOC 사업인 신분당선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출자자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옵션계약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옵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파생상품 평가손실(2014년 6월 518백만원, 전년 동기 잔액 없음)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주식매도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현금유출 총금액은 57억(주식54억 + 관련이자비용 3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4년 8월부터 신분당선의 요금이 인상되고 MRG 재협약이 이루어져 향후 주식매도선택권 행사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금유출 총금액이 당사 외형 대비 금액적 중요성이 낮으므로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적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프로젝트명	옵션종류	행사권자	행사가능기간	행사가격
신분당민간투자사업	풋옵션	① 한국산업은행 ② 농협 ③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2014.06.28 ~ 2015.06.27	주식매입단가+약정금액

한편 당사가 지분출자 후 건설(시공) 및 관리운영(30~50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한 SOC사업과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의 풋옵션과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중 당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계약은 풋옵션(재무적투자자가 당사에 지분매수를 요청)으로 당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재무적투자자의 지분매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주관사)를 제외한 사업장은 당사가 비주관사로 참여 중이며,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현장은 콜옵션(재무적투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므로 당사의 현금유출 없음)이고, 신분당선 외 다른 현장은 꾸준히 수입이 나고 있으며, 별다른 이슈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 현금유출(Put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계약]
(단위 : 억원)

사업명	SPC 법인	시공사	당사 출자지분	재무적투자자(FI)			FI에 부여한 옵션			옵션 조건 및 내용
				FI 명	출자지분	출자금	종류	시작일 (약정체결일)	만료일 (운영완료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 로	경기남부도로㈜	두산건설 외	8.70%	KIF II	70.00%	467	콜옵션	2009-09-29	2041-12-31	○ 아래 조건 해당시 FI에게 주식양도 - 운영개시 10년후 2년 연속 통행료수입이 360억(불변가) 초과시 - 매매가 : 360억 초과시 5,000원/주, 365억 초과시 6,000원/주, 370억 초과시 6,500원/주
마산하수관거 BTL	마산아랫물길㈜	두산건설 외	8.10%	한반도BTL 사모 특별 자산투자신탁제1호	39.70%	54	풋옵션	2006-11-20	2031-03-20	○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연 5%(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주주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 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 재무출자자들이 재무출자자의 지위를 유 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MKIF	26.40%	36				
				계	66.10%	90				
대구4차순환 선 (상인-범 물) 도로	대구남부순환도로㈜	두산건설 외	5.50%	한국BTL인프라투융	37%	262	풋옵션	2007-09-19	2017-12-24 (운영개시 5년 후)	○ 운영개시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느 해 실제통행량이 협약교통량 대비 50% 미만인 경우 FI는 CI에 전체지분 액면가 매수청구 가 능
				대구은행	14%	98				
				부산은행	9%	66				
				산업은행	9%	66				
				계	70%	491				
강남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두산건설 외	2.90%	KIF II	76.50%	1,346	콜옵션	2008-09-18	2016-05-20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 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료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산업은행	13.50%	237				
				계	90.00%	1,583				
신분당선연장	경기철도㈜	두산건설 외	공사중:	산업은행	57.80%	650	풋옵션	2010-12-23	2014-03-08	○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정자-광고)			6.28% → 준공후: 31.41%	정책금융공사	22.20%	250			(최초인출)	- 정기대출 최종인출일 예 F1 보유 수익증권 CI 의무인수 * 실시협약 해지시 F1보유 주식 전액 인수
				계	80.00%	900				
수원-광명도 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두산건설 외	공사중: 3.88% → 준공후: 7.52%	산업은행	31.50%	768	꽃음선	2010-12-15	2016-04-30 (최종기성일)	○ 준공전 F1 보유주식 액면가로 매수 - 6개월전 or 기성율 85%시 40% 매수 - 기성율 90%시 40% 매수 - 3개월전 or 기성율 100%시 20% 매수 * 조건 없음

자.당사는 2014년 6월 말 현재 총 74,255백만원의 재판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미지급금 등(4,975백만원)을 인식 중입니다. 또한 PF사업장과 관련하여 4,086억원의 보증을, 종속회사, 당사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 1,794억원의 보증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차입금 등에 대해 8,791억원의 유형자산, 종속회사 등 주식, 투자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 중입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6월 말 현재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는 분양대금관련 28,261백만원, 공사대금관련 4,400백만원 및 하자보수관련 19,545백만원 등 총 74,255백만원의 재판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으며, 현재 동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으나, 장기미지급금 등(4,975백만원)으로 채무제표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동 소송으로부터 중요한 추가적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당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어음 26매가 신분당선(주)등에, 백지수표 16매가 대한주택보증(주)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관련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 후 인식한 금융부채는 323백만원입니다.

(4) 당사는 2013년 상반기 중 본사사옥을 매각한 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기간은 15년입니다. 리스료는 매 60개월 마다 해당 리스기간 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을 누적연복리로 적용하여 증액되며, 당사가 2014년 상반기에 인식한리스료는 4,802,400천원(전반기 : 2,598,312천원)입니다.

2014년 6월 말 당사의 운용리스계약의 미래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6월	2013년
-----	----------	-------

1년 미만	9,604,800	9,604,800
1년 이상~5년 이하	40,102,066	39,470,991
5년 초과	101,320,262	106,753,737
합 계	151,027,128	155,829,528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로부터 84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리스자산을 직접 혹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 의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 보증금액은 2013년 말 28,689억원에서 2014년 29,209억원으로 52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내 용	2014년 6월		2013년		지급보증처
		보증건수	보증액	보증건수	보증액	
시행사 등	PF관련보증 주2)	4	397,150,000	5	408,590,000	국민은행 등
	담보대출	1	10,000,000	1	9,500,000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 등 주1)	15	1,129,088,629	16	896,019,889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비대출 보증 등 주1)	6	180,948,224	6	137,560,092	
SOC 사업	PF관련보증 주2)	2	11,434,000	2	15,614,000	
	자금보증의무 주1)	12	239,793,700	12	233,493,700	
동부건설(주) 등	공사이행 상호보증	6	751,093,665	6	752,141,587	건설공제조합 등
강남순환도로(주) 등	사업이행 보증	17	201,371,824	8	415,964,555	
합계		63	2,920,880,042	56	2,868,883,823	

주1)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2,799,838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상기의 보증 내역 중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시행사 등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사업지역	채권기관 종류	대출잔액	보증한도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비고
울산광역시	KTB증권	32,000,000	41,600,000	연대보증	2014.04.10~2014.07.10	전기단기사채	울산대현동
충청남도	신영증권 외	50,000,000	65,000,000	연대보증	2014.06.20~2014.09.19	전기단기사채	천안청당동
경기도	우리은행 외	123,500,000	160,550,000	연대보증	2008.03.31~2014.11.30	기타 Loan	화성반월
경기도	메리츠증권증권	100,000,000	130,000,000	연대보증	2014.06.30~2014.09.30	전기단기사채	용인삼가
포항시	신한은행 외	7,447,000	7,447,000	연대보증	2010.03.26~2025.12.31	기타 Loan	포항신항
대전시	하나은행	3,987,000	3,987,000	연대보증	2004.05.06~2024.05.06	기타 Loan	대전천변

합 계	316,934,000	408,584,000			
-----	-------------	-------------	--	--	--

[2014년 7월 말 기준 주요 PF 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1. 울산대현 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울산대현아파트 프로젝트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한유주택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존 승인완료된 806세대에 대해 세대수 변경하여 773세대로 사업승인 변경을 완료하였고 분양 추진 예정이며, 분양 및 착공은 2014년 하반기 검토 중 입니다. 토지는 약 1,260억원에 100% 매입 완료하였으며, 공시지가는 약 490억입니다.

구분		내용
시공개요	프로젝트명	울산대현 APT
	발주처(시행사)	코람코자산신탁(한유주택)
	대지면적	32,902.00 m ²
	건물연면적	121,554.541 m ²
	용도	아파트
	규모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773세대
	계약금액	133,616백만원
	공사기간	미정
현황	인허가	사업계획변경 승인 완료(12년 3월)
	시공 및 공정율	2014년 하반기 착공 검토 중
진행 예정 사항		2014년 하반기 분양 검토 중
지분현황		한유주택 100%
Project Financing 관련	PF 승인금액	121,500백만원
	PF 잔액	121,500백만원
	PF 기준금리	6.00%
	PF 만기	2016년 04월 28일
	상환방법	분할상환
	대주단	우리은행 외

주) 상기 PF잔액 중 당사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320억원 입니다.

2. 천안청당 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천안청당 아파트 프로젝트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 내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법인 청암프로젝트(주)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완료한 상태이나, 현지 분양경기 침체 지속으로 착공 및 분양 유보 중이며, 중소형평형으로 설계변경 계획 중이며 2014년 12월 주택건설사업변경사업승인을 득하였고, 분양성 검토하여 사업진행 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토지는 826억원에 매입계약을 하여 기지급하였으며, 잔여 미매입부지 5필지 (1,573평)는 도시개발법에의거 토지수용이 가능한바, 수용예상가는 약 40억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30억원 수준입니다.

구분		내용
시공개요	프로젝트명	천안청당APT
	발주처(시행사)	청암프로젝트(주)
	대지면적	88,914㎡ (26,920평)
	건물연면적	176,863㎡ (53,548평)
	용도	아파트
	규모	지하2층~지상23층(아파트 17개동 1,1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계약금액	160,300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2개월
현황	인허가	사업승인 득('08.12)
	시공 및 공정율	분양성 검토 중
진행 예정 사항		분양성 검토 중
		설계변경 진행 중
지분현황		청암프로젝트(주) 100%
Project Financing 관련	PF 승인금액	150,000백만원
	PF 잔액	150,000백만원
	PF 기준금리	7.69%
	PF 만기	2014년 09월 30일
	상환방법	만기일시
	대주단	신영증권 외

3. 화성반월1차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화성반월1차APT 프로젝트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중으로 시행법인은 (주)포유젠입니다. 2011년 7월 사업승인완료 및 2012년 7월 26일 변경사업승인 완료 하였으며, 2014년 분양 및 공사착공 검토 중 입니다. 토지는 830억원에 매입계약을 하였으며, 토지매입대금 기지금액은 809억원, 미지금액은 21억원입니다. 830억원에 매입 계약한 토지의 감정가(탁상)는 568억원입니다.

구분		내용
시공개요	프로젝트명	화성반월1차APT
	발주처(시행사)	(주)포유젠
	대지면적	54,249㎡
	건물연면적	144,764㎡
	용도	아파트
	규모	지하1층~지상21층 12개동 999세대 및 생활편의시설
	계약금액	미정
	공사기간	27개월
현황	인허가	사업승인 득

	시공 및 공정율	2014년 착공 검토 중
진행 예정 사항		2011.7.28 사업승인
		2011.12월 지구단위 변경승인
		2012.7.26 변경사업승인
		2014년 착공 및 분양 검토중
지분현황		(주)포유젠 100%
Project Financing 관련	PF 승인금액	130,000백만원
	PF 잔액	117,000백만원
	PF 기준금리	CD+3.5%
	PF 만기	2014년 11월 30일
	상환방법	분할상환
	대주단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4. 용인삼가APT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용인삼가 아파트 프로젝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내에 아파트 개발을 위하여 시행사인 (주)레이스이앤디가 사업시행권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로 분양성 검토 중입니다. 토지는 651억원에 매입계약을 하여 소유권이전 및 사업시행권과 함께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전환 관리중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공개요	프로젝트명	용인삼가APT
	발주처(시행사)	아시아신탁(주)
		(주)레이스이앤디
	대지면적	29,137.00㎡
	건물연면적	50,095.00㎡
	용도	아파트
	규모	지하2층~지상15층 9개동/ 427세대
	계약금액	70,051백만원
공사기간	24개월	
현황	인허가	사업승인 득
	시공 및 공정율	분양성 검토 중
진행 예정 사항		분양성 검토 중
지분현황		(주)레이스이앤디 100%
Project Financing 관련	PF 승인금액	100,000백만원
	PF 잔액	100,000백만원
	PF 기준금리	전단채 9%
	PF 만기	2014년 09월 30일
	상환방법	만기일시
	대주단	메리츠증권증권

5. 오송두산위브센티움 2차 PF사업장 관련 세부내용

오송두산센티움 프로젝트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으로 시행사인 (주)하나온개발이 사업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401억원), 대지중 일부를 개발하여 1,515실의 오피스텔을 '14.06월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분양률은 91%이며 28% 입주가 진행 중). 본 사업은 해당지역 내 20평형대의 공급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20평형대로 계획하여 1차사업과 차별화를 두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업 증가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양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외 잔여부지 토지 가치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공개요	프로젝트명	오송두산위브센티움 2차
	발주처(시행사)	(주)하나온개발
	대지면적	19,834㎡(6,000평)
	건물연면적	19,422평
	용도	오피스텔
	규모	B2~21F, 7개동 720세대
	계약금액	1,084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개월
현황	인허가	인허가 접수 준비
진행 예정 사항		인허가 진행 예정
지분현황(당 사업)		(주)하나온개발 100%
Project Financing 관련	PF 승인금액	50,000백만원
	PF 잔액	50,000백만원
	PF 기준금리	9.00%
	PF 만기	2015년 09월 30일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주단	KTB증권

주1) 상기 오송두산위브센티움 2차 PF사업장의 보증은 7월 말 현재 잔액으로 당사의 6월 말 기준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이외에 당사는 주택건설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주)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중요 약정사항

당사는 시공사로서 일산제니스 및 해운대제니스 건설형 공사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아이엔티디씨 및 (주)대원플러스건설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하는 주택분양매매계약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보장기간인 2년~3년 이후 당사에 매매보장을 신청한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매매보장기간 경과 후 수분양자가 매매보장을 신청한 경우, 당사는 신규 입주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금을 충당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보증을 제공 중인 금액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의 지급과 신규 매매대금의 유입 간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보증 제공 금액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부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4년 6월 말 현재 계약자가 매매보장을 신청할 가능성 및 보증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익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8)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DVH는 베트남 현지 생산 및 판매법인으로 신인도가 당사 대비 열위하여 당사가 모기업으로서 아래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액은 2014년 6월 말 기준 1,794억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7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내 용	2014년 6월		2013년		지급보증처
		보증건수	보증액	보증건수	보증액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대출 보증	3	115,665,862	3	132,182,098	한국증권금융 등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DVH)	차입금 보증	3	13,187,200	-	-	우리은행
	공사 보증	1	50,517,120	-	-	JGCS
	차입금 보증	1	16,432	-	-	Asia Commercial Bank
합계		8	179,386,614	3	132,182,098	

(9) 담보제공내역

당사가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4년 6월 말 기준 담보로 제공 중인 자산의 총 설정금액은 8,791억원 입니다.

(단위: 천원)

담보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보증금액	설정금액
우리은행	종속회사및관계회사투자	236,903,019	31,776,194
	투자부동산		30,912,000
외환은행	유형자산	75,707,725	71,000,000
한국산업은행	유형자산	60,672,753	67,500,000
	종속회사및관계회사투자		47,038,543
국민은행	유형자산	505,088	2,772,000
대한주택보증	장기투자증권	7,266,666	9,294,974

라유니온유한회사	투자부동산	35,000,000	45,500,000
그랜드제팔차주식회사	유형자산	20,000,000	26,000,000
두산이엔씨제일차	유형자산	110,000,000	140,300,000
하나은행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77,343,120	153,000,000
파인트리시티제일차	유형자산	100,000,000	130,000,000
디에스솔밭제일차	유형자산	19,148,300	104,000,000
디에스창원제일차	유형자산	10,000,000	13,000,000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매출채권	5,400,000	6,974,000
합계		757,946,671	879,067,711

주1) 당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를 우리투자증권(주)에 신탁하고 그랜드제팔차주식회사 및 디에스창원제일차로부터 각각 20,000백만원 및 1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신탁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은 244,793백만원 입니다.

주2) 당사의 장기투자증권 중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등(장부금액 38,113,966천원)의 주식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 해당 PF 대주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3) 당사의 관계회사투자 중 신분당선(주)(장부금액 62,551,617천원), 함안산업단지(주)(장부금액 1,200,000천원) 주식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 해당 PF 대주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에는 매출 등 거래 각각 2,106억원, 1,606억원, 2,173억원, 948억원과 매입 등 거래 각각 1463억원, 1466억원, 1591억원, 5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들로 2014년 6월 말 현재 당사가 인식 중인 매출채권, 기타채권, 대여금은 총 509억원 입니다. 당해 채권의 경우 당사의 외형 대비 금액적 중요성은 낮으나, 회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2011~2014.6) 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에는 매출 등 거래 각각 2,106억원, 1,606억원, 2,173억원, 948억원과 매입 등 거래 각각 1463억원, 1466억원, 1591억원, 5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등 거래는 대부분 당사가 영위 중인 건설사업 중 토목사업의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수익을 인식한 것이며, 매입 등 거래는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물품대 지급, 당사의 지배회사에 대한 정보자원용역비 지급, 임차료 등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들로 2014년 6월 말 현재 당사가 인식 중인 매출채권, 기타채권, 대여금은 총 509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철도 117억원, 신분당선 110억원, 두산인프라코어 95억원, 함안산업단지 64억원 입니다. 이들 특수관계인 중 신분당선 및 경기철도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 간 순손실을 보이고 있어 당해 채권의 경우 당사의 외형 대비 금액적 중요성은 낮으나, 회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이밖에 당사는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등과 유동화를 통한 차입거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매입거래]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의 명칭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사의 지배회사	(주)두산	250	2,101	-	-	399	460	4,846	10,657
	두산중공업(주)	5,596	11,714	1,246	1,441	764	1,489	1,633	2,041
당사의 종속회사	(주)렉스콘 (주1)	-	-	-	-	-	2,512	-	3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	-	-	-	929	6,130	-	-
	두산큐백스(주)	-	-	-	-	0.05	2	131	240
당사의 관계회사	Doosan Vina	-	-	-	-	6,785	8,249	-	-
	네오투랜스(주)	-	-	-	3	142	247	-	-
	경기철도(주)	30,204	30,204	-	-	0.172	0.172	-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두산베어스	10,757	19,916	-	-	-	-	-	-
	(주)오리콤	180	477	5	9	6	9	145	363
	Doosan Power System	-	-	-	-	79	304	-	-
	두산동아(주)	-	-	-	-	360	360	-	23
	두산엔진(주)	42	88	-	-	888	1,581	-	-
	두산인프라코어(주)	8,598	13,125	-	-	-	-	-	-
	(재)연강재단	-	-	-	-	-	-	17	31
	중앙대학교	15,182	15,182	-	-	-	3	-	-
	중앙대학교병원	-	-	-	-	0.007	0.007	33	58
	두산타워(주)	475	475	-	-	-	-	91	183
비연결구조조리기업	두산큐백스제일자유한회사	-	-	-	-	-	-	1,535	3,084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	-	-	-	-	-	803	3,275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	-	-	-	-	-	1,672	3,836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	-	-	-	-	-	1,626	2,751
	두산이앤씨제일차주식회사	-	-	-	-	-	-	2,215	4,423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	-	-	-	-	-	15	15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	-	-	-	-	-	-	1,064	1,064
합계	71,284	93,282	1,250	1,453	10,352	21,346	15,826	32,047	

(주1) 당사와 당반기 중 합병하였으며, 합병 전 당사와의 거래 내역입니다.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의 명칭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최상위지배회사	(주)두산	1,202	9	7,704	26,338
차상위지배회사	두산중공업(주)	38,130	3,031	7,812	370
당사의 종속회사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	-	12,327	-
	(주)렉스콘	-	-	44,876	803
	두산큐백스(주)	-	-	8	471
당사의 관계회사	Doosan Vina	-	-	15,045	-
	경기철도(주)	97,221	-	231	-
	네오투랜스(주)	-	-	1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Doosan Power System	-	-	22	-
	두산동아(주)	10	-	643	702
	(주)두산베어스	18,840	-	-	-

	두산산업차량(주)	-	-	-	32
	(주)두산엔진	182	-	2,915	-
	두산인프라코어(주)	56,120	-	-	-
	두산타워(주)	1,883	-	-	357
	(주)엔세이퍼	25	-	10	895
	오리콤(주)	629	18	318	973
	네오밸류(주)	-	-	-	600
비연결구조화기업	알씨유동화1호유한회사	-	-	-	1,412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	-	-	7,206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	-	-	2,543
	디유와이제일차유한회사	-	-	-	2,978
	디에스청주제일차유한회사	-	-	-	2,852
	포세이돈위브제일차유한회사	-	-	-	1,530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	-	-	7,891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	-	-	6,081
	아이제니스제이차주식회사	-	-	-	3,017
	두산이엔씨제일차주식회사	-	-	-	197
합계	214,240	3,058	91,912	67,248	

- 2011년 말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사	27,082	52,280	23,593	41,143
중속회사	-	42,923	8,190	50,668
연결제외중속회사	-	37,916	-	35,740
관계회사	113,800	2,514	80,232	9,567
기타특수관계자	69,745	10,661	48,604	9,485
합계	210,628	146,294	160,618	146,602

[채권/채무 잔액]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의 명칭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대여금	매입채무	기타채무	차입금
당사의 지배회사	(주)두산 (주1)	95	2	-	15,249	10,168	-
	두산중공업(주) (주1)	7,556	788	-	1,616	39,546	-
당사의 중속회사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	-	-	5,859	3,595	-
	두산큐백스(주)	-	3,073	-	-	21	-
당사의 관계회사	Doosan Vina	-	-	-	22,885	-	-

	네오트랜스(주)	-	-	-	156	-	-
	새서울철도(주)	-	-	300	-	-	-
	신로당선(주)	11,023	-	-	-	-	-
	함안산업단지(주)	6,448	-	-	-	-	-
	경기철도(주)	11,691	9	-	-	-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두산베어스	-	-	-	0.367	-	-
	(주)오리콤	13	10	-	1,135	539	-
	Doosan Power System	-	-	-	50	-	-
	두산동아(주)	-	-	-	528	-	-
	두산엔진(주)	-	2	-	-	8,068	-
	두산인프라코어(주)	9,454	117	-	-	30,493	-
	(재)연강재단	-	35	-	-	6	-
	중앙대학교병원	-	-	-	-	33	-
	두산타워(주)	-	244	-	-	114	-
비연결구조화기업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	-	-	-	-	90,000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	-	-	-	-	20,000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	-	-	-	-	19,148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	-	-	-	-	79,505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	-	-	-	-	80,000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	-	-	-	-	-	100,000
	두산이앤씨제일차주식회사	-	-	-	-	-	110,000
합계	46,281	4,281	300	47,478	92,582	498,653	

[자금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대여거래		차입 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당사의 관계회사	새서울철도(주)	300	-	-	-
	Doosan do BPL	-	261	-	-
비연결구조화기업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	-	90,000	95,000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	-	40,000	65,000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	-	143,000	215,316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	-	80,000	495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	-	80,000	-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	-	-	100,000	-
합계		300	261	533,000	375,811

카. 당사는 2014년 4월 정기평정 결과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직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하락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어음 역시 동일자로 A3+에서 A30로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4월 정기평정 결과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직전 BBB+ 에서 BBB0로 한

단계 하락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어음 역시 동일자로 A3+ 에서 A3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탓에 저조한 영업수익성 대비 과도한 차입규모가 지속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건설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의 당사가 영위하는 각 건설 부문 관련 사업장 및 기타 사업부문에서의 뚜렷한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 건전성 회복 또한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어 등급 회복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년 간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14.06.26	회사채	BBB0	NICE신용평가 (AAA~D)	정기평정
14.04.17	회사채	BBB0	한국기업평가 (AAA~D)	정기평정
14.02.18	담보부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9.04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9.04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7.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7.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6.28	회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본평정
13.05.13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5.13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2.27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2.27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9.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9.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6.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6.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3.02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2.2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11.17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11.17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10.13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10.13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08.22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08.2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05.09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정기평정
11.05.0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정기평정
10.12.16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0.12.16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0.11.10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수시평정
10.11.04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수시평정
10.04.29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0.04.2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12.11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09.12.10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8.06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8.03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09.04.2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4.21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상환 불능상태임.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최근 5년 간 기업어음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14.06.26	기업어음	A30	NICE신용평가(A1~D)	정기평정
14.04.17	기업어음	A30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3.12.27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3.05.13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2.12.27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2.06.11	기업어음	A3+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12.06.11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1.10.13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11.11.17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1.05.11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10.12.16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10.12.16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0.04.29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0.04.28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09.12.24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09.12.10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09.06.30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09.04.22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기업어음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	-----------	-----------	-------------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전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여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상환불능 상태임.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타. 당사는 지난 7월 27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으며, 과징금 추정액인 144억원을 2014년 6월 기준 실적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2013년 7월 25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일)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1년 이내에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천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부과될 과징금 추정액인 144억원을 2014년 6월 기준 실적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다고 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사는 이러한 처분이 있더라도 공공사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는 2012년 6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이러한 제재의 재발 가능성과 이 경우 당사의 수주경쟁력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2013년 7월 25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일)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1년 이내에 계열사인 네오펀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분	일자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대책	비고
두산건설(주)	'13.11.19	두산건설(주)	과징금 1백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1년 이내에 법 위반상태 해소 예정	과징금 전액 납부

※ 상기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발송일자 기준임.

파.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 두산메카텍(주)를 합병하였으며, 2013년 4월 HRSG 사업부를 양수, 2014년 1월 (주)렉스콘을 합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현재 영업권 총 2,675억원을 인식 중입니다. CPE와 HRSG부문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실적 감소 외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비용을 추가로 인식하게 되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 두산메카텍(주)를 합병하였으며, 2013년 4월 HRSG 사업부를 양수, 2014년 1월 (주)렉스콘을 합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0년 중 영업권이 44억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2,630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 6월 현재 영업권 총 2,675억원을 인식 중입니다. 해당 영업권은 44억원은 CPE로, 2,630억원은 HRSG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IFRS 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매년 상각하진 않지만, 영업권과 같이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E와 HRSG부문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실적 감소 외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비용을 추가로 인식하게 되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기준 무형자산 변동내역]

- 2014년 6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67,452,019	19,380,525	-	46,445,825	333,278,369
취득/자본적지출	-	1,887,359	-	1,721,189	3,608,548
합병으로 인한 증감(주)	-	-	5,409	718,044	723,453
처분	-	-	-	(518,399)	(518,399)
상각	-	(994,245)	(279)	(4,536,663)	(5,531,187)
기말장부금액	267,452,019	20,273,639	5,130	43,829,996	331,560,784
- 취득원가	267,452,019	21,433,592	11,574	71,261,339	360,158,524

-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포함)	-	(1,159,953)	(6,444)	(27,431,343)	(28,597,740)
-------------------------	---	-------------	---------	--------------	--------------

주) 당사는 2014년 1월 (주)렉스콘을 합병하였으며, 상기 무형자산은 동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4,441,180	-	19,124,137	23,565,317
취득/자본적지출	-	856,232	1,575,140	2,431,372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주1)	263,010,839	18,690,000	34,865,758	316,566,597
처분	-	-	(1,672,680)	(1,672,680)
상각	-	(165,707)	(7,307,376)	(7,473,083)
손상	-	-	(139,154)	(139,154)
기말장부금액	267,452,019	19,380,525	46,445,825	333,278,369
- 취득원가	267,452,019	19,546,232	69,289,008	356,287,259
-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포함)	-	(165,707)	(22,843,183)	(23,008,890)

주1) 당사는 2013년 4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HRSG 사업부를 양수하였으며, 상기 무형자산은 동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영업권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4,441,180	23,420,133	27,861,313
취득/자본적지출	-	3,748,812	3,748,812
처분	-	(2,530,581)	(2,530,581)
상각	-	(5,048,831)	(5,048,831)
손상	-	(465,396)	(465,396)
기말장부금액	4,441,180	19,124,137	23,565,317
- 취득원가	4,441,180	34,520,790	38,961,970
-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포함)	-	(15,396,653)	(15,396,653)

[별도기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배분 내역]

- 2014년 6월 말 기준 -

구분	부문	영업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합계
영업권	CPE	4,441,180	-	4,441,180

	HRSG	263,010,839	-	263,010,839
회원권	골프회원권	-	4,617,820	4,617,820
	콘도회원권	-	1,917,129	1,917,129
	기타	-	292,665	292,665
합 계		267,452,019	6,827,614	274,279,633

하. 당사가 속해있는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된 기업집단 중 하나로 2013년 12월말 기준 총 25개의 계열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당사의 최대 주주로서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 동사의 영업 불황이나 재무구조 악화 시에는 이러한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당사 자체적으로 재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된 기업집단 중 하나로 2013년 12월말 기준 총 25개의 계열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동 그룹은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동사의 지분 44.8%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어 두산중공업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은 주류, 외식, 의류, 출판 등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그룹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의 주력사업부문이던 맥주사업을 벨기에 Interbrew사에 양도하고, 두산중공업(舊 한국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舊 대우중합기계), 당사(舊 두산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하여 당사와 합병) 등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 사업이 중공업 관련 부문으로 급속하게 변모하였습니다. 동 그룹의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기계제조 및 기타제조 등 중공업 부문이 그룹 전체 자산, 매출 중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생활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저수익 사업의 매각 등을 통한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설비, 플랜트, 건설기계, 저속엔진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동 그룹의 중공업 부문은 국내에서 준독점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을 정점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메카텍, DII(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 - 舊 Bobcat) 등이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효율성 개선에 따른 사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룹의 주요 사업인 발전설비, 플랜트 및 저속엔진 제조사업은 수주사업으로 수주실적에 따른 매출가변성이 존재하며, 운전자금 부담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작기계 등 기계사업부문은 경기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안정성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발전설비, 플랜트, 저속엔진 및 건설장비 등 다종의 사업 영위로 전방산업이 다각화되고 있음에 따라 그룹전반의 사업안정성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은 1962년 9월, 발전 및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

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 사업부문을 양수받아 국내 발전설비 제작/판매 사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001년 2월 두산그룹의 지분 취득으로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두산그룹 중공업 분야의 주력계열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별도 기준 매출액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주단, 건설 등 각 부문의 양호한 시장지위와 수주 경쟁력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부문은 국내 발전 주기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기존 한국전력에 대한 물량 이외에도 국내 민자발전사업, 열병합 발전, 발전소 성능개선 및 기기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 확대와 두산 Bobcock, Skoda Power, A&E 렌체스, 인도 첸나이웍스 등 인수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담수설비를 포함한 산업부문이 수주부진, 저가수주, 원자재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저조하나, 주 수익원인 발전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연결기준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총자산	13,589,169	13,524,414	27,725,480	28,224,468
총부채	8,792,241	9,014,834	19,813,685	20,595,693
총차입금	3,572,288	3,981,548	11,381,364	12,352,020
자기자본	4,796,928	4,509,580	7,911,795	7,628,775
부채비율	183.3%	199.9%	250.4%	270.0%
차입금의존도	26.3%	29.4%	41.1%	43.8%
매출	8,495,506	9,627,184	19,208,174	8,837,270
영업이익	502,458	594,839	958,072	489,187
영업이익율	5.9%	6.2%	5.0%	5.5%
EBITDA	681,761	802,057	1,494,479	769,702
EBITDA마진	8.0%	8.3%	7.8%	8.7%
순이익	261,695	14,732	18,663	21,375
순이익율	3.1%	0.2%	0.1%	0.2%

[두산중공업 별도기준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6
총자산	10,435,858	10,549,906	10,767,958	10,992,704
총부채	6,791,176	7,260,454	6,291,189	6,526,880
총차입금	2,878,313	3,218,331	2,586,433	3,389,299
자기자본	3,644,682	3,289,452	4,476,769	4,465,824

부채비율	186.3%	220.7%	140.5%	146.2%
차입금의존도	27.6%	30.5%	24.0%	30.8%
매출	6,669,497	7,856,769	6,675,222	2,610,998
영업이익	391,351	554,914	454,508	228,269
영업이익율	5.9%	7.1%	6.8%	8.7%
EBITDA	512,865	697,284	596,756	306,052
EBITDA마진	7.7%	8.9%	8.9%	11.7%
순이익	171,582	(205,979)	438,037	44,278
순이익율	2.6%	-2.6%	6.6%	1.7%

다만 당사는 2005년 상반기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취득 이후 두산 Bobcock 및 두산IMGB 인수, 두산엔진 출자, Skoda Power 인수 등의 투자자금 소요, 자체적인 신규 설비 투자, 사업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당사를 포함한 주요 자회사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며 당사의 재무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 불황이나 재무구조 악화 시에는 이러한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당사 자체적으로 재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전환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본 전환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전환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BBB0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BBB0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BBB0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Stable(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BBB0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Stable(안정적)

바.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84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4년 9월 4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발행되는 두산건설(주)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자본금 : 399,562백만원 ('14년 상반기말 기준)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84회 : 2,000억원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제84회 : 2,000억원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등록채권

본 전환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겠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전환사채는 각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월이 경과한날(2014년 10월 4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5월 24일 제64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및 제65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각각 1,000억원 씩 발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16일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로 발행하였습니다. 2011년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 완료되어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2013년 12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 및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서, 2016년 12월 16일 및 2015년 12월 16일에 당사가 상환권을 행사하여 총발행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2017년 03월 16일부터 2018년 03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당사 또는 우선주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2015년 12월 16일에 우선주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가 부여되며, 이러한 전환비율은 전환 전에 합병,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주요 발행조건]

구분		내용
발행방식		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일		2013년 12월 16일
총발행금액		4,000억원
발행가액		17,600원
발행주식수		22,727,272주
배당율		6.5%
상환	상환권	당사가 가집니다.
	조기상환시점	2015년 12월 16일
	상환시점	2016년 12월 16일
전환	전환권	우선주 주주 또는 당사가 가지나, 조기전환 시에는 주주만이 전환권을 가집니다.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합니다. 우선주 발행 이후로서 전환 전에 합병,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그에 따라 조정합니다.

	조기전환시점	2015년 12월 16일
	전환기간	2017년 3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의결권		의결권은 없으며,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는 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인 해피투모로우제십차(주)와 아래와 같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p>1. 주주간계약 개요</p> <p>- 두산중공업(주)(이하 "두산중공업")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이하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정산 및 당사의 Call Option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p> <p>2. 정산</p> <p>가. 정산일 : 두산중공업과 투자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부에 대해 2016년 12월 16일에 정산금액을 해당 지급의 주체가 현금 지급함.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에게,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함</p> <p>나. 정산금액 : 상환전환우선주의 순매도금액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p> <p>3. 조기정산 : 투자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정산일 전에도 두산중공업에 정산을 청구할 수 있음. 정산금액의 산정방식은 위와 동일함.</p> <p>4. 두산중공업의 Call Option</p> <p>가. 행사시점 : 정산 Call Option: 정산일 또는 조기정산일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음</p> <p>- 조기 Call Option: 2015년 12월 16일 (3개월전 통지, 최대 30% 한도)</p> <p>나. 행사금액 : 정산 Call Option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으로, 조기 Call Option은 발행금액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청구함.</p> <p>5. 투자자의 조기전환권 제한: 인수대금 총액 기준 최대 30%까지</p>
------	--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금번 전환사채 및 우선주 발행으로 인해 보통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채 및 우선주로 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 (38,727,272주)는 전환후 주식수(93,912,503주)의 4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본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청구 시,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추가변동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금번 전환사채 및 우선주 발행으로 인해 보통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채 및 우선주로 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39,821,289주)는 전환후 주식수(95,006,520주)의 41.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본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청구 시,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가변동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900,000,000	정관상 수권주식수
② 발행주식수	55,185,231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③ 기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22,727,272	상환전환우선주 - 조기전환기간 : 2015년 12월 16일 및 직전 2영업일 동안 전환청구 가능 - 전환기간 2017년 03월 16일부터 2018년 03월 15일까지 - 전환가액 : 17,600원
④ 금번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17,094,017	발행예정금액 : 2,000억원 전환가액 : 11,700원 기준
⑤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01,320,482	감자 599,320,482주 이익소각 2,000,000주
미발행 주식 총수	203,672,998	①-(②+③+④+⑤)

자.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주관회사와 체결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NH농협증권(주), SK증권(주)(이하 "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두산건설(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본 사채의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신영증권(주)	00136721
	동양증권(주)	00117601
	NH농협증권(주)	00116860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SK증권(주)	00131850

2. 분석의 개요

(1) 실사일정

공모절차	일자
기업실사 기간	2014년 08월 06일 ~ 2014년 08월 14일
방문실사	2014년 08월 06일 ~ 08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14년 08월 18일
증권신고서 제출	2014년 08월 19일

(2)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두산건설(주)	재무관리부문	채재욱	차장	재무관리	재무관리 9년
두산건설(주)	재무관리부문	김영욱	과장	재무관리	재무관리 5년
신영증권(주)	기업금융부	김민수	부장	기업실사 책임자	기업금융업무 18년
신영증권(주)	기업금융부	최근서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공인회계사 5년 기업금융업무 3년
신영증권(주)	기업금융부	오창현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7년
동양증권(주)	Coverage 1팀	권용복	팀장	기업실사 책임자	IB업무 16년
동양증권(주)	Corporate Finance팀	강명숙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IB업무 7년
동양증권(주)	Corporate Finance팀	이재인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IB업무 7년
유진투자증권(주)	기업금융팀	강명진	이사	기업실사 책임자	IB관련 업무12년
유진투자증권(주)	기업금융팀	최형석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IB관련 업무2년
유진투자증권(주)	기업금융팀	황진희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IB관련 업무5년
NH농협증권(주)	기업금융팀	김홍섭	부장	기업실사 책임자	기업금융 9년
NH농협증권(주)	기업금융팀	안수용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구조화 4년, 기업금융 2년
NH농협증권(주)	기업금융팀	김상훈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 1년
SK증권(주)	기업금융팀	배성환	이사	기업실사 책임자	기업금융업무 23년
SK증권(주)	기업금융팀	원중훈	팀장	기업실사 책임자	기업금융업무 4년
SK증권(주)	기업금융팀	김경민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14년
SK증권(주)	기업금융팀	신동재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6년

(3)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종합의견

동사는 1976년 4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1월 30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동사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의 종합건설업체로 별도기준

으로 2011년 수주액(신규수주+ 기타증감) 2조 2,226억원, 2012년 1조 5,238억원, 2013년 -305억원, 2014년 상반기 3,6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의 경우 건설경기 장기간 미회복에 따른 위험관리차원에서 각종 개발 형 사업 계약(용산복합, 판교복합 등)이 수주잔 고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주감소를 보였습니다.

동사는 2008년 이후 국내 주택 및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로 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자금 회 수 지연으로 부채비율의 상승, 현금흐름의 악화 추이를 보였으나 2013년 상반기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HRSG사업부문 양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으며, 부실 사업장 상각 및 분 양 촉진 정책 등의 자구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12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민간 건축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두산 위브, 제니스 등의 브랜드를 앞세 워 신규주택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기 이후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플랜트 역량 강화 및 두산중공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해 외 사업 진출 등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건축/주택 사업부문은 2010년 71.7%에서 2013년 47.0%으 로 낮아졌으나 지속적으로 부문 내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시공능 력평가액 기준 10위 이내의 상위 주요 건설사의 건축/주택사업비중 중간값인 30.6%대비로 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별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외에도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동사가 사업구조 다변화 목적으로 추 진중인 메카텍 및 HRSG사업 비중 확대의 경우, 사업구조 개선으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 효과 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최근 4년(2010~2013년) 간 별도 및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및 EBITDA 기준으로 급 격한 변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부문 중 주택사업장에서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 채권 및 대여금 등 영업용유동자산의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반영한 데 기인합 니다. 또한 동일기간 현금흐름 상 영업현금흐름 역시 2012년을 제외하고(-)현금흐름과 연도 별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였으며, 공사 사업장 관련 대여금 지출, 차입금상환 등으로 인한 투 자 및 재무현금흐름 상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순현금흐름은 최근4년 간 누적 -712억원의 순현금흐름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만 선제적으로 반영한 대손상각비와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감축, 공사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선별적 수주노력으로 2014년 들어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으로 2014년 7월 동사의 총차입금은 15,519억원이며, 이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 는 총차입금의 비중이 76.1%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세부 기간 별로는 2014년 8월부터 12월 간 만기도래하는 금액이 5,161억원이며, 2015년은 9,163억원, 2016년은 1,114억원으로 이상의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차입금은 동사의 영업이익 및 EBITDA 대비로는, 2010년 총차입금/영업이익, 총차입 금/EBITDA 33.21x, 22.19x에서 2013년 26.37x, 18.77로, 해당지표가 개선된 양상을 보이 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익 대비 차입금이 과도한 수준입 니다. 동사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해 만기연장 및 차환과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성 및 현금흐름 개선 시 잉여현금흐름으로 감축을 계획 중이나, 영업 및 금융환경 악화 로 상환계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차입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 및 현금흐름과 차

입금 감축 여부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금번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2,000억원을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관회사는 동사의 자금사용목적에 대해 사용처와 사용시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면담 및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관회사는 두산건설(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종 석 (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명 석 (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창 수 (인)
	NH농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병 호 (인)
	SK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신 (인)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84회 전환사채]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0
발행제비용(2)	4,239,400,000
순수입금 [(1)-(2)]	195,760,60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84회 전환사채]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대표주관수수료	600,000,000	발행금액*0.30%
기본인수수료	3,400,000,000	인수금액*1.70%
사채관리수수료	5,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91,000,000	VAT 별도
발행분담금	140,000,000	발행금액*0.07%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1년당 100,000원, 3년
채권등록수수료	500,000	100억당 10만원(한도50만원)
등기비용	1,000,000	-
합계	4,239,400,000	-

주1) 금번 제8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사채 발행과 관련 발행제비용(원)은 당사 자체 여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표주관수수료: 발행사와 대표주관사 협의
- 인수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 채권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주3) 상기 외 성과인수수료는 청약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제84회 전환사채]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계
-	165,000,000,000	35,000,000,000	-	200,000,000,000

■ 세부사용계획

(단위 : 원)

제84회 무보증 전환사채 조달 자금 총 200,000,000,000원은 차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차환자금 세부 내역

종목	사채발행일	금액(억원)	표면이자율	만기일	비고
제72-3회 무보증사채	2012-09-21	350	8.00%	2014-09-21	-

나. 운영자금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거래기관	지급일	금액(억원)	비고
운영자금	지급어음 결제	자재공급 등 거래업체	'14년 9월~12월	1,650	
합계				1,650	

주) 지급어음 결제 예정 내역 : 동극건설(주) 120억, (주)넵스 104억, 한국제강(주) 95억, 현대제철(주) 95억, (주)이생테크 84억, (주)대우건설 79억 등 거래업체 대상 지급어음 결제

- * 상기 사용시기에 따라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금 사용하는 시점까지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회사 등)에 예치 운용할 예정입니다.
- * 본 건 전환사채 발행 완료시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충당 등 유동성 관리에 부족자금 Issue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보유한 주택사업 매출채권, SOC사업장 등 미래공사채권 등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를 통해 추가 유동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상기 자금사용처 중 회사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자금집행 예정이며, 지급어음 등 운영자금은 당사 영업현금흐름 창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배율

(단위 : 백만원, 배)

항 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반기
영업이익	(309,581)	(453,521)	55,584	55,633
EBITDA	(287,954)	(434,851)	78,103	69,782
순이자비용	109,654	161,522	154,590	63,876
이자비용	163,045	209,931	170,810	66,806
이자수익	53,391	48,409	16,220	2,930
영업이익/순이자비용	-2.82x	-2.81x	0.36x	0.87x
EBITDA/순이자비용	-2.63x	-2.69x	0.51x	1.09x

주) K-IFRS 적용 별도재무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영업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차입금을 보유하고있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2012년 영업이익 적자로 영업이익 기준 -2.82x, -2.81x, EBITDA 기준 -2.63x, -2.69x를 보였으나, 2013년~2014년 6월에는 영업이익 기준 0.36x, 0.87x, EBITDA 기준 0.51x, 1.09x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자비용을 지급하기에 이익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본 회사채 투자시 당사의 차입금 규모 및 이자비용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상환채무증권의 현황

1) 미상환사채의 현황

[2014년 08월 18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미상환금액
제82회 사모사채	2014-05-29	2014-08-29	8.00	10,000
제72-3회 공모사채	2012-09-21	2014-09-21	7.80	35,000
제79회 사모사채	2013-10-21	2015-03-02	7.70	30,000
제74회 공모사채	2013-03-12	2015-03-12	7.80	63,780
제77-2회 공모사채	2013-05-24	2015-05-24	7.08	20,000
제83회 사모사채	2014-05-29	2015-05-29	7.80	10,000
제78회 공모사채	2013-07-23	2015-07-23	8.50	60,024
제80회 공모사채	2013-09-16	2015-09-16	6.90	45,000

외화표시 사모사채	2013-10-24	2015-10-26	7.80	27,389
제81회 사모사채	2014-05-08	2016-05-15	7.49	50,000
합계				351,193

2)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36,000	-	-	-	-	-	36,000
	합계	-	36,000	-	-	-	-	-	36,000

3)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현황 : 해당 없음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가일	회차	등급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14년 08월 18일	제84회	BBB0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14년 08월 18일	제84회	BBB0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4회 무보증전환사채 권면금액 2,000억원에 대하여 2개 이상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의 전환사채 등급평정은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NICE신용평가(주)	BBB0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지급 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Stable(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	BBB0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Stable(안정적)
-----------	------	--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두산건설(주)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 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18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전환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전환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두산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 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두산큐백스(주)	2006.12.26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	247,2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해당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1995.10.23	Km 92, Highway 5, Sodau ward, Hongbang district, Haiphong city, Vietnam	제조업	40,7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해당사항 없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3년말 기준입니다.

※ (주)렉스콘은 2014년 1월 14일 지배회사인 당사와 합병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는 "두산건설 주식회사"라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입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6년 4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1월 30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전화번호 : 02-510-3114

홈페이지 : <http://www.doosanenc.com>

5.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 항만건설, 도로건설, 포장, 삭도 설치, 조경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전기, 정보통신(선로, 기계, 전송)공사업, 특정연료사용 기자재시공업, 소방설비 및 기타 제건설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및 최종 처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기계설계제작 및 기계설치시공 감독

5. 전문기술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산업설비용역업
6.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조경업 등)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7.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
8. 해외종합건설업
9. 수출입업
10. 국내외업체에의 투자
11. 군납업
12. 시장 및 유통에 관한 사업
13.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
14.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15. 관광객 이용시설 및 운영업
16. 주택건설업 등 주택사업
17. 목철재 제조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공유수면 매립사업
20. 가스시설시공업
21. PLANT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22. COMPUTER SOFTWARE 개발업
23. 전력 및 열공급사업
24. 공동주택 시설관리업
25. 시공감리전문업, 전면 책임감리전문업
26. 일반측량업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28. 폐기물처리시설(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업
29. 종말처리장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1.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2. 재활용시설 운영업
33. 도시계획사업
34. 도심지 재개발사업
35. 관광단지 개발사업
36. 화물터미널사업
37. 항만운송사업
38. 연수 및 교육 시설업
39.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관련사업
40. 건설사업관리업(CM업)
41. 리모델링 사업
42.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43. 창호공사업 및 해외건설 창호공사업
44.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
45.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46. 부동산 관리업
47. 부동산 개발업
48. 레저산업(마리나,눈썰매,미니골프장 위탁운영업)
49. 주택 분양 및 매매업

50. 주택조성 분양업
51.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
52. 관광기념판매업 및 외식판매
53.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 운영업 (위탁운영업)
54.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55. 신재생에너지 사업
56.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57. 화학기계 제작 및 설치
58. 화학공업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
59. 보일러 제작
60. 철구물 제작
61. 금속구조창호공사업
62. 공장자동화시설 및 전장품 제작 설치
63. 식품기계 제작 및 설치
64. 운반하조기계 제작 및 설치
65. 기계기구설치공사
66.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
67. 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68.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
69. 기계설비공사업
70. 토공사업
71. 발전설비, 제철, 제강설비, 시멘트 제조설비, 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 담수설비, 기타 산업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72. 철강재 및 철강구조물 제작, 설치공사업
73. 전력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
74. 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1. 관광객 이용시설업 (골프장업,수영장업,음식업,운수업)
2. 토산품 판매업
3. 부동산 관리업
4. 부동산 개발업
5. 레저산업(마리나,눈썰매,미니골프장 운영업)
6. 조립사업 및 육림사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농작물 재배업
9. 주택분양 및 매매업
10. 주택조성 분양업
11. 건축자재 판매업
12. 숙박업
13.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호텔위탁운영업
14.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15. 관광기념판매업 및 외식판매
16. 운동설비, 유키장 및 부대설비 운영업(스포츠 용구점)
17. 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접객업
18. 주차장 관리업

19.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 및 운영업
20.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21. 유흥음식점업
22. 헬스클럽경영업
23. 당구장,노래방,오락시설경영업
24. 슈퍼마켓 운영업
25. 볼링장업
26. 이발소 및 미장업
27. 기숙사 위탁운영업
28. 단체급식 운영업
29. 조경사업 및 조경관련 위탁관리업
30. 광고업
31. 교육지도업
32. 제빵제조업
33. 통신판매업
3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5. 기타 서비스업
36.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 상세한 내용은 II.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가. 계열회사의 총수 : 당사 포함 총 23개사
 나. 기업집단의 명칭 : 두산그룹
 다.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분	회사명	영위업종
상장	(주)두산	비금융지주회사
	두산중공업(주)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두산인프라코어(주)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두산건설(주)	주거용 건물 건설업
	두산엔진(주)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주)오리콤	광고대행업
비상장	(주)두산베어스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두산생물자원(주)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두산동아(주)	서적 출판업
	두산타워(주)	부동산 임대업
	디아이피홀딩스(주)	비금융지주회사
	에스알에스코리아(주)	기타 음식점업
	두산디에스티(주)	전투용차량제조업
	(주)빅앤티	전문서비스업
	두산큐백스(주)	골프장및 스키장 운영업
	네오트랜스(주)	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주)두산에이엠씨	부동산개발및공급업
(주)네오플릭스	투자기관
네오플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기관
(주)두산캐피탈	여신금융업
비엔지증권(주)	증권및선물중개업
네오희딩스(주)	그외 기타 금융업
두산인프라코어팍캐트홀딩스(주)	비금융지주회사

※ 2014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편입 기준

7.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업어음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14.06.26	기업어음	A30	NICE신용평가(A1~D)	정기평정
14.04.17	기업어음	A30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3.12.27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3.05.13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2.12.27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2.06.11	기업어음	A3+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12.06.11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1.10.13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11.11.17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1.05.11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10.12.16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10.12.16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10.04.29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10.04.28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09.12.24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09.12.10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09.06.30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09.04.22	기업어음	A2-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 각 신용평가사별 기업어음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 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 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 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 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 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 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 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전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여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상환불능 상태임.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나. 회사채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14.06.26	회사채	BBB0	NICE신용평가 (AAA~D)	정기평정
14.04.17	회사채	BBB0	한국기업평가 (AAA~D)	정기평정
14.02.18	담보부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9.04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9.04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7.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7.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6.28	회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본평정
13.05.13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5.13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3.02.27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3.02.27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9.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9.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6.11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6.11	회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2.03.02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2.02.2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11.17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11.17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10.13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10.13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08.22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1.08.2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1.05.09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정기평정
11.05.0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정기평정
10.12.16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0.12.16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10.11.10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수시평정
10.11.04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수시평정
10.04.29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10.04.2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12.11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09.12.10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8.06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8.03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09.04.2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09.04.21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 각 신용평가사별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상환 불능상태임.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2. 회사의 연혁

1.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양희선, 송정호 각자 대표이사 (2014.06.30 현재)

2010년 8월 17일 회사합병 결정 및 합병계약서에 의거 2010년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두산메카텍(주)와의 합병을 승인하고, 동 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합병법인 두산메카텍(주)의 대표이사인 김영식 이사를 당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일 김영식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사내이사직 포함)하였고, 2011년 3월 25일 주주총회 종결시 임기가 종료되는 송정호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후 동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김기동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사내이사직 포함)하였고, 2012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일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 후 동 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송정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사내이사직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9일 박정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동 일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송정호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된 이후 동 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일 최종일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사내이사직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희선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된 이후 동 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최대주주명	최대주주 변동일/지분변동일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두산중공업(주)	2004.05.06 / 2014.01.14	46,515,572	59.70%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77,912,503주) 기준 지분율입니다.

※ 2011년 5월 24일 납입 완료된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및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행사 140주, 전환사채 31,000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2년 11월에 64,751백만원, 2013년 5월에 10,432백만원, 2013년 11월에 9,654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3년 5월에 71,806백만원, 2013년 11월에 14,38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잔여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및 잔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가능기간은 2014년 4월 24일부로 만료되어 전환 및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가 2011년 5월 3일 두산중공업 보유의 당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환 요청에 의거 교환되는 주식수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3년 3월 29일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한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4월 17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16일(납입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따라 지분율이 84.29%에서 80.9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지분율이 80.96%에서 59.70%(발행주식총수 기준)로 변동되었습니다.

4. 상호의 변경

변 경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07.03.16	두산산업개발(주)	두산건설(주)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는 해당사항 없음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지배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모두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가. 지배회사

2010. 11. 04 두산메카텍(주)을 흡수합병

2013. 04. 17 두산중공업(주)의 HRSG사업부문을 양수(영업양수)

2014. 01. 14 (주)렉스콘을 흡수합병

나.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는 해당사항 없음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가. 지배회사

2012. 0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의 목적사업의 삭제 및 변경을 승인

(미영위 사업 삭제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13. 0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의 목적사업의 변경을 승인

(두산중공업의 HRSG사업부문 양수에 따른 목적 추가)

2013. 12. 13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의 목적사업의 변경을 승인

(렉스콘 흡수합병에 따른 목적 추가)

나.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는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가. 지배회사

2009. 03. 27 영문상호 변경 (국문상호는 변경 없음)

- 변경 전 : Doosan Construction & Engineering Co.,Ltd.

- 변경 후 :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자본감소 결의(임의/무상 소각) - 자기주식: 9,071,742 주

2009. 12. 03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 2,000,000주

2010. 04. 30 자기주식 3,179,523주 소각

2010. 11. 04 두산메카텍(주) 흡수합병

2011. 05. 03 유상증자(3,000억원), 전환사채(1,0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 발행 결정

2013. 02. 04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166,666,667주) 결정
두산중공업(주)의 HRSG사업부문 양수 및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5,716억원) 결정

2013. 03. 12 판매후리스를 통해 본사사옥 매각완료

매각가액: 1,380억원

2013. 12. 16 상환전환우선주 22,727,272주 발행

2014. 01. 14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액의 보통주 1주로 병합(자본금 감소)

나.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는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비고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2008.04.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82,300	5,000	5,400	-
2008.06.0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100	5,000	6,600	-
2009.05.06	무상감자	보통주	9,071,742	5,000	-	주주가치 증대 목적 자기주식 소각
2009.09.18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600	5,000	6,600	-
2009.09.18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6,300	5,000	5,400	-
2010.04.03	무상감자	보통주	3,179,523	5,000	-	주주가치 증대 목적 자기주식 소각
2010.11.04	-	보통주	45,339,147	5,000	4,620	두산메카텍 합병

2011.06.30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0,000,000	5,000	5,000	-
2011.07.2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0	5,000	5,000	-
2011.07.25	전환권행사	보통주	21,000	5,000	5,000	-
2013.04.18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66,666,667	5,000	2,340	-
2013.04.18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11,708,624	5,000	2,700	HRSG사업부문 양수
2013.10.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	5,000	5,000	-
2013.12.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	22,727,272	5,000	17,600	-
2014.01.14	무상감자	보통주	496,667,079	5,000	-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제고 목적 주식병합

※ 2011년 5월 24일 납입 완료된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및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행사 140주, 전환사채 31,000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2년 11월에 64,751백만원, 2013년 5월에 10,432백만원, 2013년 11월에 9,654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3년 5월에 71,806백만원, 2013년 11월에 14,38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3년 3월 29일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한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4월 17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6일 이사회 결의하고 2013년 12월 16일 세부사항이 확정된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12월 16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당사의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백만원, 천주)

종류 \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4회 무보증 전환사채	2011.05.24	2014.05.24	100,000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2011.06.24~2014.04. 24	-	-	-	-	-
합 계	-	-	100,000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	-	-

※ 전환가액 단위 : 원

※ 상기 전환사채는 2011년 8월 16일에 상장하였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 중 105,000,000원(21,000주)의 전환 청구가 2011년 7월 25일에, 50,000,000원(10,000주)의 전환 청구가 2013년 10월 23일에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2년 11월에 64,751백만원, 2013년 5월에 10,432백만원, 2013년 11월에 9,654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만료되어 전환조건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는 만기일(영업일 기준 5월 26일)에 상환되어 6월 30일 현재 미상환사채 권면총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백만원, 천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계6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1.05.24	2014.05.24	100,000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2011.06.24~2014.04.24	-	-	-	-	-
합 계	-	-	100,000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	-	-

※ 행사가액 단위 : 원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1년 8월 16일에 상장하였습니다.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700,000원(140주)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청구가 2011년 7월 20일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3년 5월에 71,806백만원, 2013년 11월에 14,38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이 만료되어 행사조건 및 행사가능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일(영업일 기준 5월 26일)에 상환되어 6월 30일 현재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900,000,000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의미함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656,505,713	22,727,272	679,232,985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01,320,482	-	601,320,482	-	
	1. 감자	599,320,482	-	599,320,482	-
	2. 이익소각	2,000,000	-	2,000,000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55,185,231	22,727,272	77,912,503	-
V. 자기주식수	278,067	-	278,067	-
VI. 유통주식수 (IV-V)	54,907,164	22,727,272	77,634,436	-

※ 2011년 5월 24일 납입 완료된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및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행사 140주, 전환사채 31,000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2년 11월에 64,751백만원, 2013년 5월에 10,432백만원, 2013년 11월에 9,654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풋옵션 행사로 2013년 5월에 71,806백만원, 2013년 11월에 14,38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2013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00주에서 900,000,000주로 결의하였습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3년 3월 29일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한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4월 17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6일 이사회 결의하고 2013년 12월 16일 세부사항이 확정된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12월 16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두산중공업(주)의 HRSG사업부문 양수와 관련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2013년 5월 16일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수 및 유통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또한 상기 HRSG사업부문 양수 관련 취득한 자기주식 395,829주(주식병합 전 3,958,292주)에 대해 2013년 10월 24일 매수청구권(콜옵션) 부여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행사가격 : 41,800주(주식병합 전 418,000주)는 거래시점 기준 최근 종가의 5% 할인
잔여 354,029주(주식병합 전 3,540,292주)는 거래시점 기준 최근 종가의 10% 할인 금액
- 행사방법 : 1회당 최소 21,500주(주식병합 전 215,000주) 이상 행사 가능
단, 최종 잔량이 21,500주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 행사
7일전 통보 / 1일전까지 취소 가능

매수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된 자기주식 중 120,200주의 옵션이 행사됨에 따라 각각 2014년 2월 17일(41,800주), 3월 14일(35,400주), 6월 13일(43,000주)에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상기 옵션계약에 대해 옵션권자의 옵션행사 여부에 따라 잔여 자기주식 전량이 처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보통주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및 유통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액면가액은 변동 없음)

※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에 따른 단수주 2,438주를 2014년 2월 6일 취득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직접 취득	장내	-	-	-	-	-	-	-
		직접 취득	-	-	-	-	-	-	-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3,958,292	2,438	120,200	3,562,463	278,067	-	
		-	-	-	-	-	-	-	
총 계(a+b+c)		보통주	3,958,292	2,438	120,200	3,562,463	278,067	-	
		-	-	-	-	-	-	-	

※ 2013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두산중공업(주)의 HRSG사업부문 양수와 관련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2013년 5월 16일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395,829주(주식병합 전 3,958,292주)에 대해 2013년 10월 24일 매수청구권(콜옵션) 부여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행사가격 : 41,800주(주식병합 전 418,000주)는 거래시점 기준 최근 종가의 5% 할인
잔여 354,029주(주식병합 전 3,540,292주)는 거래시점 기준 최근 종가의 10% 할인 금액
- 행사방법 : 1회당 최소 21,500주(주식병합 전 215,000주) 이상 행사 가능
단, 최종 잔량이 21,500주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 행사
7일전 통보 / 1일전까지 취소 가능

매수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된 자기주식 중 120,200주의 옵션이 행사됨에 따라 각각 2014년 2월 17일(41,800주), 3월 14일(35,400주), 6월 13일(43,000주)에 이를 처분하였습니다.상기 옵션계약에 대해 옵션권자의 옵션행사 여부에 따라 잔여 자기주식 전량이 처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자기주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 당사는 3년 이내의 적정 시점에 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자기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액면가액은 변동 없음)

※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에 따른 단수주 2,438주를 2014년 2월 6일 취득하였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	--------	-----	----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5,185,231	-
	상환전환우선주	22,727,272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278,067	-
	상환전환우선주	22,727,272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4,907,164	-
	-	-	-

※ 2013년 2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3년 3월 29일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한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4월 17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6일 이사회 결의하고 2013년 12월 16일 세부사항이 확정된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12월 16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두산중공업(주)의 HRSG사업부문 양수와 관련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2013년 5월 16일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자기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또한 상기 자기주식 395,829주(주식병합 전 3,958,292주)에 대해 2013년 10월 24일 매수청구권(콜옵션) 부여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된 자기주식 중 120,200주의 옵션이 행사됨에 따라 각각 2014년 2월 17일(41,800주), 3월 14일(35,400주), 6월 13일(43,000주)에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보통주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없는 주식수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10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액면가액은 변동 없음)

※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에 따른 단수주 2,438주를 2014년 2월 6일 취득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중시 경영 이념으로 적정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임.

나. 정관상의 배당 관련 사항

-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8조의3 전환주식, 제8조의4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6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사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전의 합계액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38기	제37기	제36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33,676	-614,847	-293,452
주당순이익 (원)		-76	-3,477	-2,04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건설(토목, 건축, 주택) 및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 화공 기자재 및 HRSG(배열회수보일러)를 제작하는 플랜트 기자재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두산큐백스(주)와 HRSG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이하 "DVH"라 한다)가 있습니다.

※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렉스콘은 2014년 1월 14일 지배회사인 당사와 합병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업계의 현황

[지배회사]

가.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3차 산업으로서,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건설에서부터 도로, 철도, 항만, 국토개발, 에너지자원 등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전 지역을 사업의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단순 도급 형태의 시공사업에서 최근 다양한 금융기법이 접목된 개발사업,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한 민자사업의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공기자재 제조 사업은 Oil & Gas를 원료로 하는 사업의 Process Equipment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석유화학/가스 산업의 설비투자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 및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il & Gas 투자 증대로 인하여 관련 설비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 및 Heavy Oil Upgrading 공정의 중요성 부각으로 Hydrocracking 및 FCC(Fluid Catalytic Cracking) Upgrading 관련 기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RSG(배열회수보일러) 제조사업은 가스복합화력발전의 핵심기기 중 하나인 HRSG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발전수요와 가스가격 및 생산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HRSG는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주문자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장기간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미콘 제조사업은 운송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품 특성 상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초 교착자재로서 제품의 응결이 빨라 출하지(레미콘공장)에서 사용처(건설현장)까지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 등 제품 특성 상 운송 시간과 사용 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업권이 국한됩니다. 또한, 통상 원가중에서 운송비용이 10~15%를 차지하므로 레미콘 트럭 수송능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성수기에 운송능력의 한계로 인해 적기 공급의 문제가 상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권의 교통 환경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낮아지고 물적 유통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건설산업 경기는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지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

적으로 침체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함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및 유관 산업도 저성장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내 동종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기회를 활용한 업계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공기자재와 관련하여 세계 Oil & Gas 시장은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BRICs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몇년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Oil 시장의 성장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위주로 화공기자재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Gas Plant 및 대체에너지 관련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RSG의 수요처가 되는 세계 발전시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World Energy Outlook 2013'에 따르면 가스발전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2.3%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근래 북미의 Shale gas 생산의 본격화와 더불어 Gas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인정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콘 산업은 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집행 감소에 따른 공공수주 위축으로 건설경기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비주거용 건축물 개발사업이 차질을 보이면서 공공수주 및 토목건설 수주감소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 화공기자재 및 HRSG 제작 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 역시 산업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변동과 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석유화학 및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집약적이고 경기변동에 지극히 민감하며 원자재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 산업정책에 따른 수급 조정상의 변동 및 경기, 석유화학 관련업체의 경기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산업은 건설산업 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에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수요가 급락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등록된 업체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성 한계로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미분양 해소가 지연되고 있으며, 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 등 Risk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이 안정적인 공공사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isk Management 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에 의한 수익성 확보 모색을 최우선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시공 및 제작 등 직접적이고 Hardware적인 요소가 산업의 주요 특성이었으나 점차 사업개발 및 기획, Project Management, 운영 및 유지보수 등 Software적인 요소가 중요한 기업가치 창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분야로의 경쟁력 및 사업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공기자재 제작 사업의 경우 주요 수요처는 글로벌 Oil & Gas Company로 해외 고객사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해외 경쟁사들의 증가 및 저가 공세에 따라 생산 효율성 제고 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HRSG 제작 사업은 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근래 기술 제후를 통한 다수의 단순생산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는 기존 독자 기술모델인 D-top HRSG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공기자재 제작 사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강화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은 거래처 다변화 등 영업력 강화 및 고강도 레미콘 연구 개발과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매·운송에서의 원가절감 활동으로 수익성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의 특성

주요 원자재는 철강재, 특수소재, 시멘트, 목재, 석재 등으로 국내수급 자원의 비율이 낮아지고,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원자재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산 원자재가 국내 자재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자재의 계절별, 지역별 수요 편차가 심한 편이며, 여타 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자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간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자재 제조사업은 발주자가 주문한 제품의 형태나 성능에 따라 재료가 상이하고 제품별표준화가 어려워 자원조달 경쟁력이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른 영향도 존재합니다.

레미콘의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 공급업체의 단가인상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레미콘의 주요 사용처(건설사)는 통상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레미콘 단가인상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공급업체와 공급단가 협상 및 안정적 시멘트 수급을 위한 전략적 제후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멘트 대체재료의 배합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원가상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각종 제도나 법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타 산업에 비해 법이나 제도에 크게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 제조사업은 근래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 강화와 더불어 특수소재로부터 제작 공정중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등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 처리시설 마련 등 대응이 진행 중임

니다.

발전 기자재 사업인 **HRSG 사업**은 각 국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나 시장 에너지 공급이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확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사업은 200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레미콘 납품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어 중소레미콘 조합 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현재 생산 수준 이상의 사업확장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가. 산업의 특성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클럽의 경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콘도미니엄의 경우 1994년 사치성 건축물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후 지속적인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실내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골프 관련 여가 부대시설과 펜션, 오토캠핑 등 새로운 숙박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최근 골프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골프장 수의 증가로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높은 투자비와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부의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으나 각종 제도와 법률의 완화로 신규 골프장이 급속도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5일제 시행 및 레저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로 콘도부문 잠재고객 창출이 기대되며, 골프 대중화와 인식변화에 따른 각종 골프관련 매체가 발전하면서 잠재고객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져 향후 매출증대가 예상됩니다.

콘도미니엄 사업부문은 과거 사치성 건축물로 분류된 규제가 풀리면서 현재까지 전문 휴양업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현실화된 등록규정에 의해 콘도미니엄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스포츠, 레저산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문화를 즐기려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하락시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외 골프인구 증가, 스크린골프/실내연습장 등의 대체 여가활동 및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일부 국내 잠재 고객들의 유출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홍천 지역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 경쟁요소

2009년 7월 경춘고속도로 완공, 2010년 하반기 경춘복선전철 완공, 2011년말 경춘고속전철(ITX)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근접해지면서 거리상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및 풀 캐디제 도입, 코스 리뉴얼, 27개홀 좌우그린의 최신잔디 교체, GPS관제 시스템, 가든 및 레이크 코스 카트도로 리뉴얼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품

질수준의 코스관리상태, 예약신뢰도, 고객서비스 등은 타 골프장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콘도부문은 객실 및 각종 위락시설 부족이라는 핸디캡, 인근에 신설되는 대형리조트 등의 영업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당사 콘도미니엄은 고품격 Prestige 추구로 새로운 콘도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접근성 개선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어 주 5일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보다 많은 숙박인원과 관광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최근 강원도로의 중국 관광객 등 해외고객 유입의 증가로 객실이용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의 특성

원재료 조달 및 제공측면에서 당사는 골프장, 콘도 등의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식자재 등을 최상 수준의 원재료를 조달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원재료 등의 저장, 포장, 보관 등에 있어 적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위생점검 및 외부위생점을 통하여 철저한 재고자산 관리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재료가 해외의존도가 매우 낮은 종류이므로 조달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정부방침 면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2년 한시적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이 2010년말 일몰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경쟁우위요소가 일부 제한되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건물, 구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취득세 증가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 회사의 현황

[지배회사]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2014년 이후 세계경제가 일부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으며 최근들어 LTV, DTI 규제완화 등 정부는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건설 시장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Risk management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설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2010년 계열사(두산메카텍)와 합병을 통해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 플랜트 화공기자재 제작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HRSG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국내시장 성장 한계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확보했으며, 기자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사업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자회사인 (주)렉스콘과 소규모 합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Risk 관리 강화, 수익성 개선활동 지속, 역량/경영 인프라 극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 극복을 위한 내실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및 요약 재무현황

당사는 건설사업(토목, 건축, 주택), 화공 기자재 / HRSG(배열회수보일러)를 제작하는 플랜트 기자재 제조사업 및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주요제품명
건설사업	인프라BG	· 공공 및 민자 토목 · 환경 플랜트	· 도로, 철도, 지하철 등 - 신분당선 철도 건설 및 운영 · 하수처리시설 및 토양정화
	건축BG	· 건축, 주택	· APT, 상가, 주상복합, 병원, 오피스 빌딩, 교육시설 등
플랜트 기자재 제조사업	메카텍BG	·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제작 · 해양 플랜트 기자재 제작	· Reactor, Pressure Vessel, Tower, Heat Exchanger · 강교, 해양 구조물
	HRSG BG	· 발전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레미콘 제조사업	렉스콘BU	· 레미콘 제조 및 판매 · 레미콘 기술 용역	· 레미콘
기타	기타	· 임대업 등	-

(단위 : 억원)

사업부문	매출액	매출비율	영업이익	유형자산	총자산	비고
인프라BG	2,939	27.31%	265	68	4,840	
건축BG	4,209	39.12%	281	1,164	22,599	
메카텍BG	2,037	18.93%	-55	5,101	8,358	
HRSG BG	988	9.18%	64	84	4,286	
렉스콘 BU	649	6.04%	39	1,500	1,863	
기타	-62	-0.58%	-37	166	7,147	
계	10,759	100%	556	8,084	49,093	

나. 시장점유율

2014년 상반기 수주액은 6,816억원(DVH 포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산업의 특성상 합리적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시장의 특성

건설부문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 당년 수주가 향후 매출을 좌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공공부문은 크게 일반 공공도급, 턴키/대안공사, 민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공도급사업은 정부 발주공사 중 단순도급 형태로 PQ공사, 실적제한, 최저가 입찰 등의 형태로 발주되고 불특정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영역으로 최근 최저가 입찰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 턴키/대안 공사는 설계심의에 의한 시공사 선정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시공(일괄) 입찰, 대안입찰의 형태로 발주되며 상위 20여개 회사가 경쟁하는 영역으로 우수한 설계 역량이 필요한 사업영역입니다.
 -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안 및 고시에 의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자본여력 및 Financing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사업영역입니다.

② 민간부문은 크게 주택사업부문과 건축사업부문에 나뉘며 정부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입니다. 특히, 주택사업부문에 있어 투기억제, 부동산 안정대책과 개발이라는 양 측면의 정책이 맞물려 많은 변화가 있는 영역입니다.

- 민간도급사업은 특정 수요자에 의한 단순도급 형태의 사업으로 최저가, 지명입찰 등의 형태로 발주되며 불특정 대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영역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은 노후주택 및 지역을 개발/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업체별로 사업제안 후 조합원의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영역으로 상위 20여개 회사가 경쟁하는 영역입니다.
- 자체/개발형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기획하여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 복합개발사업은 주거/상업/레저시설 등이 동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민간합동 개발사업으로 현재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 및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 중장기 경쟁력 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의 강화, 사업분야의 다각화, 추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신규사업 확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토건사업은 시장여건을 고려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자재 제조 분야의 성장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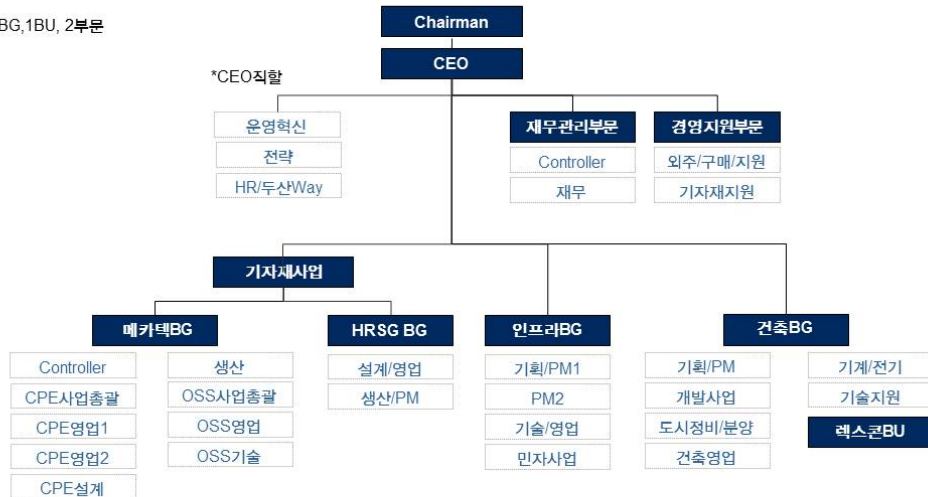
① 플랜트 화공기자재 제작분야에서는 소재 handling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작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만이 제작할 수 있는 High-end 제품과 핵심 기자재의 종류와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연관 기자재 제작 사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HRSG(배열회수보일러)사업은 과거 강점을 보여왔던 국내 및 중동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북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 조직도

4BG, 1BU, 2부문



* CPE: Chemical Process Equipment (화학 플랜트 설비)
 * OSS: Offshore Structures & Subsea (해양플랜트 기자재/ 구조물 및 해저 기자재)
 *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 회수 보일러)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두산큐백스는 2006년 두산건설(주)의 레저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한 종합레저회사입니다. 두산큐백스는 강원도 춘천에서 총 27홀 규모의 라데나골프클럽과 총 125실 규모의 라데나콘도미니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부대사업장으로 17타석 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콘도내 수상 레저시설과 야외수영장, 풀사이드 바베큐 뷔페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및 요약 재무현황

사업 부문	주요제품명	비고
전체	27홀회원제골프장, 콘도미니엄, 위탁운영	

(단위 : 억원)

사업부문	매출액	매출비율	영업이익	유형자산	총자산	비고
전체	160	100%	-	2,283	2,346	-

나. 시장점유율

2014년 6월말 현재 골프장 누계 내장객은 28,704명 (전년동기 30,4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콘도 객실점유율은 54.4% (전년동기 53.2%) 입니다.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산업의 특성상 합리적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시장의 특성

골프인구 증가추이에 비해 신설 골프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2013년말 전국 골프장의 수가 500여 개로 증가되는 등 경쟁심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문화에 대한 시간투자 증대로 콘도부 문 잠재고객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골프대중화와골프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각종 골프관련 매체가 발전하면서 잠재고객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져 향후 매출증대가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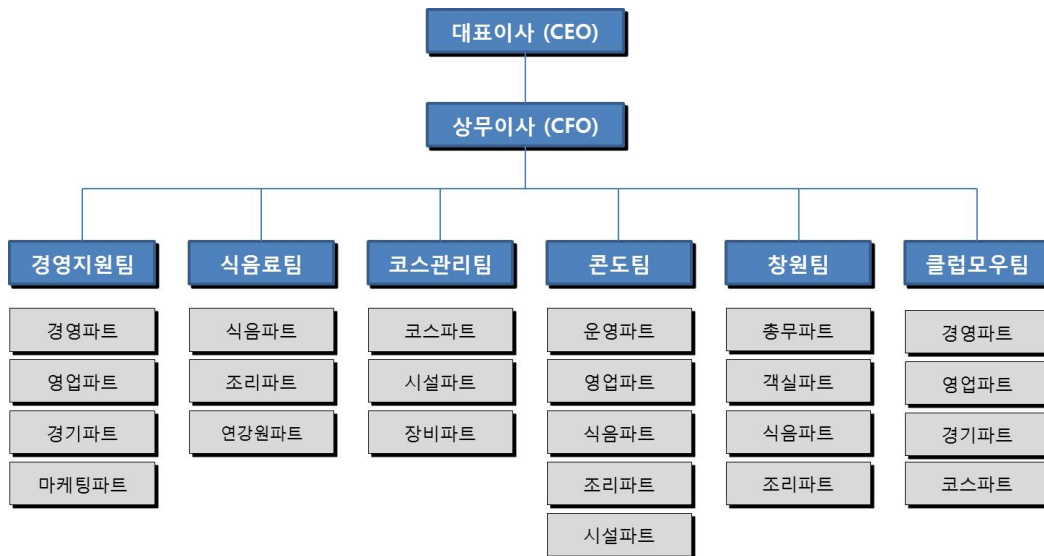
성장단계로 보면 성장기 초반을 지나 최고 성숙기 상태에 있으며, 각종 제도와 법률의 완화와 수요초 과로 인한 수익모델의 매력으로 급속도로 신규 골프장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쟁이 최고조에 이 른 상태입니다.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두산큐백스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기회 확대, 중장기 경쟁 력 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의 강화, 사업분야의 다각화, 추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신규사 업 확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위탁운영(두산중공업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위 탁운영, 두산그룹 연수원 연강원식당 위탁운영, 흥천 클럽모우 골프장 위탁운영)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 조직도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1. 주요매출 현황 (종속회사 포함)

(단위 : 억원, %)

구 분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 (지배회사)	국내	건축	관급	522	4.7%	1,404	5.8%	1,262	5.2%		
			민간	3,676	32.8%	8,880	36.8%	10,044	41.2%		
		토목	관급	1,609	14.4%	3,550	14.7%	3,018	12.4%		
			민간	1,326	11.8%	1,910	7.9%	1,746	7.2%		
		플랜트	관급	184	1.6%	172	0.7%	294	1.2%		
			민간	-	-	27	0.1%	239	1.0%		
	해외	화공기기 등	민간	156	1.4%	451	1.9%	514	2.1%		
		HRSG	민간	87	0.8%	178	0.7%	-	-		
		렉스콘	민간	589	5.3%	-	-	-	-		
			화공기기 등	민간	1,675	14.9%	4,166	17.3%	4,858	19.9%	
			플랜트	민간	-	-	7	0.1%	-	-	
			HRSG	민간	901	8.0%	1,074	4.4%	-	-	
			자체사업		-	-	-	-	78	0.3%	
			기타		35	0.3%	62	0.3%	238	1.0%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두산큐백스)		160	1.4%	306	1.3%	301	1.2%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 (렉스콘)		54	0.5%	1,739	7.2%	1,769	7.3%	제39기 반기는 합병 이전 집계 수치임	
		HRSG (DVH)		235	2.1%	204	0.8%	-	-		
		단순 합계		11,208	100%	24,131	100%	24,361	100%		
		연결조정		89	-	579	-	589	-		
		합 계		11,120	-	23,552	-	23,772	-		

2.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지배회사만 해당)

가. 건축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관 급	21	522	1,404	1,262	2,682	5,953	283
민 간	31	3,676	8,880	10,044	38,350	49,409	1,594
해 외	-	-	3	124	-	-	-
기 타	-	-	-	-	-	-	-
합 계	52	4,198	10,288	11,430	41,032	55,639	1,070

나. 토 목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관 급	52	1,609	3,550	3,018	6,378	18,095	348
민 간	18	1,326	1,910	1,746	9,594	12,508	695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70	2,935	5,460	4,764	15,972	30,603	437

다. 플랜트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 내	2	184	199	533	556	1,120	560
해 외	-	-	7	48	-	-	-
기 타	-	-	-	-	-	-	-
합 계	2	184	205	581	556	1,120	560

라. 화공기기 등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 내	9	156	446	514	559	1,194	133
해 외	249	1,675	4,167	4,686	2,833	11,546	46
기 타	-	-	-	-	-	-	-
합 계	258	1,831	4,613	5,200	3,392	12,740	49

마. HRSG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 내	5	87	178	-	567	1,109	222
해 외	72	901	1,074	-	3,783	19,116	265
기 타	-	-	-	-	-	-	-
합 계	77	988	1,252	-	4,349	20,225	263

바. 자체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금액	평균도금액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 내	-	-	-	78	-	-	-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	-	78	-	-	-

사. 렉스콘

(단위 : 억원)

구분	건수	수익인식액(매출)			매출원가	공급지역	비고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내	-	589	-	-	587	전국	-
해외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589	-	-	587	-	-

아. 기타(건물임대수입 등)

(단위 : 억원)

구분	건수	수익인식액(매출)			매출원가	공급지역	비고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국내	13	35	62	238	24	전국	-
해외	-	-	-	-	-	-	-
기타	-	-	-	-	-	-	-
합계	13	35	62	238	24	-	-

3. 주요 원재료

[지배회사]

1. 주요 원재료 매입 단가 ('14.1~6월)

- 철근 : 690,785원/TON
- 레미콘 : 63,075원/m³

2.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구체적 용도	매입액	비율	비고
철근	건설공사	423	16.6%	TON
레미콘	건설공사	322	12.6%	m ³
H-BEAM	건설공사	13	0.5%	TON
복공판	건설공사	3	0.1%	장
동관	건설공사	3	0.1%	M
시멘트	건설공사	239	9.4%	TON
아스콘	건설공사	3	0.1%	TON
골재	건설공사	179	7.0%	m ³
Plate	CPE공사 외	259	10.2%	TON
기타	건설공사 외	1,108	43.4%	-

총 합계	-	2,552	100%	-
------	---	-------	------	---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1.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구체적 용도	매입액	비율	비 고
식자재	식음료업장 판매	11	88.0%	-
주류	식음료업장 판매	1	12.0%	-
총 합계	-	12	100.0%	-

4. 생산 및 설비

[지배회사]

1.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m²,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전국	자가보유	전국	666,491	523,055	134,549	-	-	657,604	
합 계			666,491	523,055	134,549	-	-	657,604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채,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전국	자가보유	전국	224	62,590	6,082	-	1,404	67,268	
합 계			224	62,590	6,082	-	1,404	67,268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개,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전국	자가보유	전국	468	30,001	5,535	18	1,146	34,372	
합 계			468	30,001	5,535	18	1,146	34,372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당기증감	당기	기말	비고
-----	-------	-----	----	----	------	----	----	----

	형태		(수량)	장부가액	증가	감소	상각	장부가액	
각현장 및 공장	자가보유	전국	2,260	37,427	7,691	217	4,419	40,482	
합 계			2,260	37,427	7,691	217	4,419	40,482	

[자산항목 : 차량]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각현장 및 공장	자가보유	전국	51	128	-	29	-	99	
합 계			51	128	-	29	-	99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각현장 및 공장	자가보유	전국	5,511	1,119	173	-	229	1,063	
합 계			5,511	1,119	173	-	229	1,063	

[자산항목 : 비품]

(단위 : 개,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각현장 및 공장	자가보유	전국	16,766	3,063	261	3	839	2,482	
합 계			16,766	3,063	261	3	839	2,482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채,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분당빌딩 외	자가보유	성남 / 창원	3	4,391	675	-	-	5,066	
합 계			3	4,391	675	-	-	5,066	

2.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 해당사항 없음

나. 향후 투자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사 관악공장 일부(토지 30,132㎡, 건물 1,520㎡ 외)의 수용재결에 따라 관악공장 재배치(토지3,073㎡, 건물2,74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영업용부동산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1.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m²,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1,580,388	198,702	-	9,496	-	189,206	
합 계			1,580,388	198,702	-	9,496	-	189,206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채,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21	32,237	-	-	599	31,638	
합 계			21	32,237	-	-	599	31,638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개,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60	5,164	849	-	297	5,716	
합 계			60	5,164	849	-	297	5,716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195	488	409	-	137	760	
합 계			195	488	409	-	137	760	

[자산항목 : 차량]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204	194	104	-	82	216	
합 계			204	194	104	-	82	216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단위 : 대,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28	-	-	-	-	-	-
합 계			28	-	-	-	-	-	-

[자산항목 : 비품]

(단위 : 개,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골프장, 콘도	자가보유	춘천	4,910	767	26	-	102	691	
합 계			4,892	767	26	-	102	691	

[자산항목 : 선박]

(단위 : 척,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콘도	자가보유	춘천	7	73	-	-	4	69	
합 계			7	73	-	-	4	69	

2.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 라데나GC 네이처 코스 카트도로 포장공사 (14년 9월 완공예정)

나. 향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영업용부동산

해당사항 없음

5. 매출

1. 매출실적(중속회사 포함)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종류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배회사	국내	건축	4,198	37.5%	10,285	42.6%	11,306	46.4%	
		토목	2,935	26.2%	5,460	22.6%	4,764	19.6%	
		플랜트	184	1.6%	199	0.8%	533	2.2%	
		화공기기 등	156	1.4%	451	1.9%	514	2.1%	
		HRSG	87	0.8%	178	0.7%	-	-	
		렉스콘	589	5.3%	-	-	-	-	
	해외	건축	-	-	-	-	124	0.5%	
		토목	-	-	-	-	-	-	
		플랜트	-	-	7	0.1%	48	0.2%	
		화공기기 등	1,675	14.9%	4,163	17.3%	4,686	19.2%	

	HRSG	901	8.0%	1,074	4.4%	-	-
	자체사업	0	0.0%	-	-	78	0.3%
	기 타	35	0.3%	62	0.3%	238	1.0%
두산큐백스		160	1.4%	306	1.3%	301	1.2%
렉스콘		54	0.5%	1,739	7.2%	1,769	7.3%
DVH		235	2.1%	204	0.8%	-	-
단순 합계		11,208	100.0%	24,131	100.0%	24,361	100.0%
연결조정		89	-	579	-	589	-
합 계		11,120	-	23,552	-	23,772	-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총매출액	내부매출액	순매출액
국내	1,105,424,557	(8,100,802)	1,097,323,755
아시아	23,466,871	-	23,466,871
소계	1,128,891,428	(8,100,802)	1,120,790,626
연결조정	(8,820,404)	-	(8,820,404)
연결후 금액	1,120,071,024	(8,100,802)	1,111,970,222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총매출액	내부매출액	순매출액
국내	1,205,322,409	(4,085,949)	1,201,236,460
아시아	6,177,085	-	6,177,085
소계	1,211,499,494	(4,085,949)	1,207,413,545
연결조정	(21,833,485)	-	(21,833,485)
연결후 금액	1,189,666,009	(4,085,949)	1,185,580,060

2. 수주 및 판매전략 등

[지배회사]

가. 판매조직

(1) 인프라BG

- (가) 수주영업팀 : 국내 공공 토목, 건축공사
- (나) 민자사업팀 : SOC민자사업

(2) 건축BG

- (가) 건축영업팀 : 건축터키, 대안입찰공사, 민간도급건축, 리모델링
- (나) 개발사업1,2팀 : 도급형 개발사업, 자체 개발사업, 공모형(제안형) 복합개발사업, 민간도급사업(레저/실버 포함)
- (다) 전기팀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 (라) 주택사업팀 : 자체 주택사업, 도급형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 (마) 도시정비사업팀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 (바) 영남사업소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영남 지역 담당]
- (사) 분양1,2팀 : 건축, 주택사업의 분양/입주 관리

(3) 메카텍BG

- (가) CPE영업1,2팀 : CPE(Chemical Process Equipment)
- (나) OSS영업팀 : 국내외 특수교량, 해양플랜트 기자재/구조물 및 해저 기자재

(4) HRSG BG

- (가) HRSG영업팀: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5) 렉스콘BU

- (가) 영업팀 : 본사 발주분 수주
- (나) 공 장 : 현장 발주분 수주 및 레미콘 판매

나. 수주전략

(1) 관급공사

- (가) 수익성 기준 선별 수주
- (나) 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주참여 및 공동도급 추진
- (다) SOC사업의 신규 재무적투자자 발굴 등 Financing 능력 강화

(2) 민간공사

- (가) 환경변화(제도, 시장 등) 분석능력 강화 및 사전 대응방안 수립
- (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집중
- (다) Risk 최소화를 위한 내부 Risk Management System 활성화
- (라) Brand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영업력 확대
- (마) 상품기획력 강화를 통한 고객 Needs 충족

(3) 플랜트 기자재

- (가) 기존 주요 수주 시장(중동) 입지 강화 및 신규 유망 시장(동남아, 북미 등) 개척
- (나)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수주 기회 확대

(4) 레미콘

- 관수레미콘
 - (가) 분리발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기업)현장 레미콘 총량의 20%를 대기업에 배정가능
 - (나) 당사 공장 권역내 공공기관 현장 정보수집을 통해 현장 개설 시점에 영업역량 집중
- 민수레미콘
 - (가) 영업환경 변화(건설업체 동향, 분양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 배양으로

수주량 극대화

- (나) 건설업체 구조조정 대비 재무상황 모니터링 능력 강화를 통한 부실 Risk 최소화
- (다) 우량 신규업체 발굴을 통한 납품기회 확대

다. 판매전략 및 판매조건

- (가) 지역별, Life Style별 상품개발로 고객중심의 상품경쟁력 강화
- (나) OAD(Open-air Architecture Design)을 통한 외부환경 및 인테리어 특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
- (다) 기능개선을 통한 하자보수 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마감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
- (라) 레미콘
 - 관수레미콘
 - (가) 관수 및 공기업 기수주분 잔량 지속 납품
 - (나) 수도권 공공기관 발주 현장 레미콘물량 적극수주 및 판매
 - 민수레미콘
 - (가) 1군 대형 거래처 투입물 지속적 확대를 통한 판매 실적 극대화 추구
 - (나) 기존 판매권역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
 - (다) 우량 고객 중점관리를 통한 고정 고객 이탈 방지
 - (라) 거래처별 맞춤 영업을 통한 고객 Needs 충족
 - (마) 양질의 제품 공급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 및 신규 거래처 창출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6. 수주상황

[지배회사]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완공예정일	기본도금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비고
민	㈜신영대농개발	청주지웰2차	2012-03-30	2015-06-30	421,383	235,349	186,034	
민	한유주택 주식회사	울산대현APT	2007-05-31	2019-12-31	133,617	18,566	115,051	
민	강남순환도로(주)	강남순환5공구	2007-05-31	2016-05-19	289,312	185,422	103,890	
민	㈜알파돔시티	관교복합개발	2013-04-13	2016-07-31	117,781	15,554	102,227	
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김포도로	2011-10-01	2014-07-31	126,401	28,756	97,645	
민	영천상주고속도로(주)	상주영천도로9공구	2009-12-15	2017-06-28	110,194	19,938	90,256	
민	중앙대학교	중앙대310관	2013-09-02	2016-07-31	100,000	12,058	87,942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14공구	2013-11-29	2016-05-24	80,265	12,039	68,226	
민	경기철도(주)	신분당연장5공구	2011-02-08	2016-02-07	167,460	101,684	65,776	
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철도5공구	2013-04-23	2017-01-20	78,417	21,778	56,639	
민	안산조지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조지APT	2012-12-31	2015-05-31	115,141	58,965	56,176	
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평창정선3공구	2008-03-21	2015-05-05	103,084	47,071	56,013	
관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7공구	2011-11-11	2015-12-19	66,359	13,915	52,444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봉천터널	2010-10-05	2017-12-31	54,206	3,818	50,388	
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본사신축	2013-09-23	2014-12-22	52,137	3,526	48,611	
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도로	2011-01-01	2016-04-28	77,016	32,097	44,919	

관	한국도로공사	화도양평2공구	2014-05-19	2020-02-17	48,569	3,664	44,905	
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부산신항도로	2012-07-13	2017-01-12	52,086	8,881	43,205	
민	경기철도(주)	신분당연장1공구	2011-02-08	2016-02-07	125,585	84,438	41,147	
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철도2공구	2014-01-27	2017-12-30	41,225	1,946	39,279	
민	평택에너지서비스㈜	평택플랜트	2011-04-22	2014-12-31	48,960	12,343	36,617	
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평택고철2공구	2012-01-03	2014-12-20	75,619	40,452	35,167	
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1공구	2011-07-29	2016-07-28	51,456	19,417	32,039	
관	조달청	설악청평도로	2011-05-30	2016-05-02	37,233	6,885	30,348	
관	조달청	동대구고가교	2011-08-17	2014-12-06	42,789	15,579	27,210	
민	경기철도(주)	신분당-광교	2011-02-08	2016-02-07	60,534	33,687	26,847	
민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운대센텀위브	2012-05-01	2014-10-31	110,357	85,070	25,287	
관	경상북도청	왜관가산2공구	2011-04-29	2018-04-26	43,567	18,662	24,905	
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920	2009-12-31	2015-12-29	45,965	22,755	23,210	
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설통합본부기술제안	2013-12-16	2016-02-07	23,462	1,254	22,208	
관	경상북도 영주시청	한국문화테마파크	2013-10-31	2017-10-29	21,269	166	21,103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특전사령부	2010-09-20	2014-07-31	112,612	91,807	20,805	
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암IT	2009-04-03	2014-10-06	51,407	32,130	19,277	
관	한국서부발전㈜	ASU태안	2012-08-01	2020-02-17	63,082	44,096	18,986	
민	중앙대학교	중대기숙사2차	2012-10-04	2014-12-31	47,259	28,457	18,802	
민	강남순환도로(주)	강남순환확폭	2014-06-12	2016-05-19	26,219	8,624	17,595	
민	엠에이치과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	Tung Hsiao_MHPS	2014-02-24	2026-08-15	111,294	44,847	104,835	
민	MAPNA(0205350)	Mapna Add Project	2012-05-01	2021-07-13	43,001	18,850	37,579	
민	GE Energy Products France SNC(0205348)	Kirikkale HRSG	2013-12-01	2026-12-31	46,293	9,242	37,051	
		대구지하1-1 외			8,610,038	4,058,748	4,499,475	
합계					12,032,655	5,502,538	6,530,117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활동은 주로 Treasury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 식별, 평가, 헷지 등의 실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무위험 관리정책의 재정비, 재무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무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①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관리는 환위험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기적 목적의 외환관리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우선적으로 수출과 수입통화 대응을 통한 Natural Hedge로 환율변동 노출금액을 우선적으로 상쇄하여 외환위험을 축소하고, 잔여 환율변동노출금액에 대해서는 환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선물환 등 파생상품을 통해 헷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USD	EUR	JPY	기타(주1)	합계	USD	EUR	JPY	기타(주1)	합계
I. 외화 금융자산	68,844,954	6,948,661	7,590,000	7,827,461	91,211,076	79,710,068	6,304,664	7,625,369	5,600,946	99,241,047
II. 외화 금융부채	67,059,560	20,189,902	8,266,649	2,036,389	97,552,500	61,651,947	26,877,555	6,932,535	5,073,298	100,535,335
차감 계(I - II)	1,785,394	(13,241,241)	(676,649)	5,791,072	(6,341,424)	18,058,121	(20,572,891)	692,834	527,648	(1,294,288)

(주1) 기타 통화는 USD, EUR, JPY를 제외한 기타 외화로서 원화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말환율	
	당반기말	전기말
USD	1,014.40	1,055.30
EUR	1,384.15	1,456.26
JPY	10.00	10.05

당반기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은 1,290,409천원(전기 : (-)317,736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10% 환율 인상시	10% 환율 인하시	10% 환율 인상시	10% 환율 인하시
세전 순이익(손실)	(634,142)	634,142	(129,429)	129,42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금리 차입조건 차입금 적정비율 유지, 정기적인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I. 금융자산	86,070,370	97,444,600
II. 금융부채	449,924,672	543,736,742
차감 계(I - II)	(363,854,302)	(446,292,14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연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100bp상승시	100bp하락시	100bp상승시	100bp하락시
세전 순이익(손실)	(3,638,543)	3,638,543	(4,462,921)	4,462,921

③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중요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취득 및 매각 결정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신용위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 파생금융상품 및 지급보증한도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정보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주석 3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연결회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138,763,312	158,086,573
	단기금융상품	-	304,296
	매출채권	583,546,886	601,825,664
	미수금	159,180,861	165,941,146
	단기대여금	577,054,794	591,950,626
	미수수익(주2)	98,734,210	97,623,251
	장기금융상품	53,672	56,672
	장기대여금(주3)	488,712,455	443,238,104
	장기매출채권(주3)	-	34,329
	보증금(주3)	27,030,807	25,533,602
	소계	2,073,076,997	2,084,594,263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1,700,045	12,196,573
파생상품평가자산		20,479,627	11,383,927
합계		2,095,256,669	2,108,174,763

(주1)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채무상대표상 기타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채무상대표상 기타비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외에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으로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해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증의 최대금액은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34와 같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중 주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116,173,619	41,223,859	29,925,632	1,372,746,838	1,560,069,948
단기대여금	29,414,192	20,579,900	95,394,926	431,665,776	577,054,794
미수금	55,860,792	7,515,815	22,177,471	112,419,250	197,973,328
장기대여금	133,223,485	9,416,869	15,788,860	540,813,068	699,242,282
장기매출채권	-	-	-	80,180	80,180
합계	334,672,088	78,736,443	163,286,889	2,457,725,112	3,034,420,532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122,190,382	35,670,117	255,693,713	1,180,855,998	1,594,410,210
단기대여금	67,900,254	29,674,858	117,324,073	377,054,849	591,954,034
미수금	51,026,362	20,109,241	11,478,218	112,938,842	195,552,663
장기대여금	107,771,313	5,118,212	38,641,536	501,596,040	653,127,101
장기매출채권	-	-	-	71,493	71,493
합 계	348,888,311	90,572,428	423,137,540	2,172,517,222	3,035,115,501

부도 및 파산 등 손상 징후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거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반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연령분석 및 대손경험률에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 개별적으로 손상평가하는 채권과 관련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228,130백만원(전기 1,231,093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정기적인 자금수지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해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급보증등과 관련된 내용은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32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32과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한은행 등 16개 금융기관과의 당좌차월, 어음할인 및 차입한도 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동 한도의합계액은 861,961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유지하여 유동성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파생금융상품 중 장·단기 차입금, 사채 및 유동화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과 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주1)				
		합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금융부채	1,627,464,164	1,710,866,120	1,396,877,900	305,917,773	670,989	7,399,458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여만기 구간별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지급이자포함)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과 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주1)				
		합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금융부채	1,541,210,936	1,607,991,366	1,201,038,677	398,791,847	725,349	7,435,493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여만기 구간별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지급이자포함)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상기 금융부채와 별도로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으로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보증의 최대금액은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32와 같습니다.

(4) 자본위험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적 자본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연결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3,042,100,093	2,934,973,165
자본총계	1,966,229,498	2,015,442,744
부채비율	154.72%	145.62%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연결 기준)

1.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파생상품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선도계약

① 당반기말

(단위: USD, EUR, JPY, 천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419,373,529	USD	390,746,277	17,987,175	7,306,885	-	(6,802,456)
	KRW	51,026,599	EUR	34,770,000	2,472,300	2,472,300	-	(1,133,989)
	USD	55,967,625	KRW	59,553,934	(2,237,361)	(2,237,361)	(1,228,792)	-
	EUR	30,316,686	KRW	33,226,355	(1,728,915)	(1,728,915)	(1,764)	-
	JPY	393,300,000	KRW	4,556,970	(596,630)	(596,630)	(156,973)	-
	합계					15,896,569	5,216,279	(1,387,529)

연결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한다면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USD, 천원)

구분	매입		매도		파생상품 평가 자산(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확정계약 자산(부채)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통화선도	KRW	287,242,438	USD	257,910,000	11,349,937	2,869,827	-	(3,591,684)
	KRW	44,626,337	EUR	30,510,000	(307,431)	(307,431)	-	78,017
	USD	37,002,600	KRW	40,590,340	(665,555)	(665,555)	(134,057)	-
	EUR	2,080,000	KRW	3,044,815	95	95	(902)	-
	JPY	314,640,000	KRW	3,645,576	(434,623)	(434,623)	(200,352)	-
	합계					9,942,423	1,462,313	(335,311)

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1,100백만원입니다.

2.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연결회사는 전기이전에 SOC 사업인 신분당선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출자자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옵션계약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옵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파생상품평가손실(당반기 518백만원, 전반기 잔액 없음)로 인식하였습니다.

프로젝트명	옵션종류	행사권자	행사가능기간	행사가격
신분당민간 투자사업	풋옵션	① 한국산업은행 ② 농협 ③ 한국인프라인프라투자회사	2014.06.28 ~ 2015.06.27	주식매입단가+ 약정금액

3.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 현황

사업명	SPC 법인	시공사	당사 출자지분	재무적투자자(FI)			FI에 부여한 옵션			옵션 조건 및 내용
				FI 명	출자지분	출자금 (억원)	종류	시작일 (약정체결일)	만료일 (운영완료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경기남부도로㈜	두산건설 외	8.7%	KIF II	70.0%	467	콜옵션	2009-09-29	2041-12-31	○ 아래 조건 해당시 FI에게 주식양도 - 운영개시 10년후 2년 연속 통행료수입이 360억(불변가) 초과시 - 매매가 : 360억 초과시 5,000원/주, 365억 초과시 6,000원/주, 370억 초과시 6,500원/주
마산하수관거 BTL	마산아랫물길㈜	두산건설 외	8.1%	한반도BTL	39.7%	54	풋옵션	2006-11-20	2031-03-20	○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연 5%(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이 위 소 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 재무출자자들이 재무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호						
				MKIF	26.4%	36				
계		66.1%	90							
대구4차순환선 (상인-별문) 도로	대구남부순환도로 ㈜	두산건설 외	5.5%	한국BTL인프라투융	37%	262	풋옵션	2007-09-19	2017-12-24 (운영개시 5년후)	○ 운영개시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느 해 실제통행량이 협약교통량 대비 50% 미만 인 경우 FI는 CI에 전체지분 액면가 매수청구 가능
				대구은행	14%	98				
				부산은행	9%	66				
				산업은행	9%	66				
				계	70%	491				
강남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두산건설 외	2.9%	KIF II	76.5%	1,346	콜옵션	2008-09-18	2016-05-20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 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결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산업은행	13.5%	237				
				계	90.0%	1,583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경기철도㈜	두산건설 외	공사중: 6.28% → 준공후: 31.41%	산업은행	57.8%	650	풋옵션	2010-12-23	2014-03-08 (최초인출)	○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장기대출 I 최종인출일에 FI 보유 수익 증권 CI 의무인수 * 실시협약 해지시 FI보유 주식 전액 인수
				정책금융공사	22.2%	250				
				계	80.0%	900				
수원-광명도로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두산건설 외	공사중: 3.88% → 준공후: 7.52%	산업은행	31.5%	768	풋옵션	2010-12-15	2016-04-30 (최종기성일)	○ 준공전 FI 보유주식 액면가로 매수 - 6개월전 or 기성율 85%시 40% 매수 - 기성율 90%시 40% 매수 - 3개월전 or 기성율 100%시 20% 매수 *조건 없음
				한국정책금융공사	13.5%	330				
				한국도로공사	5.0%	122				
				계	50.0%	1,220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지배회사]

- 2013. 02. 04 두산중공업(주)와 HRSG사업부문 양수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
- 2013. 03. 11 판매후리스를 통해 본사사옥 매각계약 체결(매각가액 1,380억원) 후 익일 (2013.03.12) 매각완료
- 2013. 11. 06 (주)렉스콘과의 흡수합병 계약 체결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활동

[지배회사]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Global 기술경쟁력을 갖춘 적용(Implementation)중심의 신기술, 신재료 개발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신공법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당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시장 확대, 열위 기술력 중 필요 기술 능력 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 및 습득을 위해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 개발 담당 조직 현황

기업부설연구소는 당사 CEO직할로 기술연구소가 있으며, HRSG BG 소속의 HRSG 제품개발팀이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비 고
원 재 료 비		1,843	388	281	
인 건 비		1,142	1,963	2,062	
감 가 상 각 비		149	-	1	
위 탁 용 역 비		9,443	26,045	29,440	
기 타		211	3,727	4,485	
연구개발비용 계		13,696	32,122	36,270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455	12,148	13,248	
	제조경비	9,333	19,118	23,022	
	개발비(무형자산)	909	856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1.27%	1.47%	1.63%	

3. 연구개발 실적

가. 지적재산권

(1) 출원건수

(단위 : 수)

구분	특허	실용	의장	상표	저작권	합계
국내	83	4	18	184	-	289
해외	-	-	-	-	-	-

(2) 등록건수

(단위 : 수)

구분	특허	실용	의장	상표	저작권	합계
국내	76	4	18	120	33	251
해외	-	-	-	-	-	-

나. 주요실적

- (1)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 제0624075호(2007.08.09)
 - 신기술등록번호 : 건설신기술 제548호(2008.01.08)
 - 연구결과 : 기둥 하부에 STM을 이용한 기초보강재를 설치하여 국부적인 보강으로 전체 매트기초의 두께가 감소됨
 - 기대효과 : 매트기초 두께의 감소로 인해 콘크리트 및 철근량 감소,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 적용사례: 대구위브더제니스, 해운대위브더제니스, 일산위브더제니스

- (2)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 제1072084호(2011.10.04)
 - 연구결과 : 나사산과 나사골의 측면이 밀착하는 방식의 대구경 철근이음공법을 채택하여 기존 나사식 커플러의 미끌림 현상을 해결함.
 - 기대효과 :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D41 이상의 대구경 철근 이음공법에 적용함으로써 특수 건축물의 대구경 철근 이음 공사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3)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 제0921406호(2009.10.06)
 - 신기술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617호(2010.12.31)
 - 연구결과 :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 기대효과 :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화재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 적용사례: 해운대위브더제니스, 일산위브더제니스

- (4) 슬래브-기둥 접합부용 전단보강체 및 그를 이용한 전단보강구조 (특허등록)
 - 특허등록번호 : 제1104541호(2012.01.03)

- 연구결과 : 구조적으로 콤팩트화된 전단보강체로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발생하는 편칭전단파괴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대
 - 기대효과 : 무량판구조에서 보조철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궁극적으로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 적용사례 : 해운대위브더제니스, 일산위브더제니스
- (5)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 지정)
- 특허등록번호: 제10-0993879호(2010.11.05), 제10-0993880호(2010.11.05)
 - 신기술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649호(2012.3.27)
 - 연구결과 :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공이 없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가 가능하여 단열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 기대효과 : 시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 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 적용사례 : 중앙대 약대, 일산위브더제니스
- (6)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슛크리트 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특허 제10-1000258호(2010.12.03), 특허 제10-1323238호(2013.10.23)
 - 신기술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685호(2013.01.25)
 - 연구결과: 실리카흙에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1MPa이상, 28일 압축강도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 슛크리트 공법
 - 기대효과: 높은 조기강도 발현, 장기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가진 고성능 습식 슛크리트
 - 적용사례: 강남순환도로5공구 일부 구간
- (7)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 공법 (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특허 제10-1042386호
 - 신기술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710호(2013.09.27)
 - 연구결과: 연질형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 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의 시트-도막2중 복합 방근·방수 공법
 - 기대효과: FRP도막 공정 단축(시공효율성, 공기단축), 작업자 시공안전성 확보, 대규모 공간에서의 시공성 증대, 시공품질 확보
- (8) 각도철탑에서 신형 런닝보드를 이용한 더블블록 통과 연선공법 (특허등록 및 전력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 제10-1275236(2013.06.10)
 - 신기술지정번호 : 전력신기술 제96호(2013.11.07.)
 - 연구결과 : 별도의 추가적업 없이 통과 가능한 런닝보드를 개발하고 메신저 와이어의 탈선을 방지하는 와이어 가이드 장치를 추가 개발

- 기대효과: 작업의 효율성
- (9) 가설 철틀기등과 가설 철틀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틀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흠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특허등록 및 건설신기술지정)
- 특허등록번호 : 특허 제10-0967496호, 특허 제10-0967497호
 - 신기술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727호(2014.02.28)
 - 연구결과 : 가설 임시철틀기등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틀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본 구조물인 이중격자 철틀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흠막이를 버팀하는 공법
 - 기대효과 :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 및 일반 가설철틀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달원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행	494,462	142,100	42,090	594,472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71,000			71,000	
여신전문금융회사	-			-	
상호저축은행	-			-	
기타금융기관	-			-	
금융기관 합계	565,462	142,100	42,090	665,472	
회사채 (공모)	416,768	0	192,964	223,804	
회사채 (사모)	108,493	70,000	51,104	127,389	
자산유동화 (공모)	-	-	-	-	
자산유동화 (사모)	231,464	437,000	279,811	388,653	
기타	142,914	7,175	8,185	141,904	
자본시장 합계	899,639	514,175	532,064	881,750	
주주·임원·계열회사차입금	-	-	-	-	
기타	-	-	-	-	
총계	1,465,100	656,275	574,154	1,547,221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백만원

사모 : 70,000 백만원

[해외조달]

(단위 : 백만원)

조달원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융기관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자산유동화	-	-	-	-	
기타	-	-	-	-	
총계	-	-	-	-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제36기	제3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2014년 6월말)	(2013년 12월말)	(2012년 12월말)	(2011년 12월말)	(2010년 12월말)
[유동자산]	2,597,993	2,534,636	2,427,888	3,592,796	3,840,450
· 당좌자산	2,559,141	2,502,539	2,389,940	3,513,208	3,737,544
· 채고자산	38,851	32,097	37,948	67,087	89,68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0	12,500	13,226
[비유동자산]	2,410,337	2,415,780	1,637,855	1,495,402	1,537,724
· 투자자산	214,189	682,082	394,202	429,524	458,544
· 유형자산	1,052,108	1,066,221	878,559	872,209	916,181
· 무형자산	330,080	332,617	21,304	25,898	31,760
· 투자부동산	69,279	69,834	66,903	67,130	105,166
· 기타비유동자산	744,681	265,026	276,887	100,641	26,073
자산총계	5,008,330	4,950,416	4,065,743	5,088,198	5,378,174
[유동부채]	2,441,354	2,308,227	2,795,129	2,581,406	3,078,265
[비유동부채]	600,746	626,746	662,826	1,240,611	960,989
부채총계	3,042,100	2,934,973	3,457,955	3,822,017	4,039,255
[자본금]	399,563	2,882,898	877,335	877,335	577,229
[연결자본잉여금]	599,446	614	145,288	145,171	144,455
[연결기타자본항목]	-9,089	-676,395	1,704	1,235	1,44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8,651	160,800	25,505	29,173	91,406
[연결이익잉여금]	817,659	-352,474	-442,045	213,267	524,385
[소수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966,229	2,015,443	607,788	1,266,181	1,338,920
	(2014.01.01 ~ 2014.06.30)	(2013.01.01 ~ 2013.12.31)	(2012.01.01 ~ 2012.12.31)	(2011.01.01 ~ 2011.12.31)	(2010.01.01 ~ 2010.12.31)
매출액	1,111,970	2,355,215	2,377,208	2,783,315	2,453,110
영업이익	55,781	57,370	-449,136	-308,685	78,554
연결총당기순이익	-48,667	-60,325	-654,077	-294,202	14,483
지배회사지분순이익	-48,667	-60,325	-654,077	-294,202	14,483
· 기본주당이익	-949원	-137원	-3,699원	-2,045원	192원
· 희석주당이익	-949원	-137원	-3,699원	-2,045원	192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3	2	2	2

※ 상기 제35기 연결 재무제표는 K-IFRS로 작성되었으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상기 제35기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출자자에게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의 회계처리 변경(담보부차입거래 → 파생금융상품) 및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연결조정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기 제출된 제36기 1분기보고서, 제36기 반기보고서 및 제36기 3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제35기 연결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 및 연결회사는 투자자산에 대한 요약작성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36기 및 제35기의 투자자산의 금액을 조정하였고, 동 금액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 및 연결회사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영업이익 표시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및 연결회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내용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DVH)는 2013년 4월 17일자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 양수시 지배력 획득하여 연결대상회사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4일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이자 연결회사인 (주)렉스콘을 흡수합병하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분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제36기	제3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연결대상회사	두산큐백스,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두산큐백스, 렉스콘, Doosan Heavy Industries Vietnam Haiphong Co., Ltd.	두산큐백스, 렉스콘	두산큐백스, 렉스콘	두산큐백스, 렉스콘

2. 연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첨부된 제39기 반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IFRS) 주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유의적 회계정책, 주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반기부터 시행되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영업권 및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대한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율에 따른 수익인식
- 영업권 손상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상각방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하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2. 회계처리방법 변경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3. 합병, 분할

당사는 영업경쟁력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04년 4월 30일을 합병기일로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건설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 합병회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4년에 100%출자회사인 두산기업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절차에 의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6년 12월 21일자로 주력사업인 건설업으로의 역량 집중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배회사의 레저사업부문과 레미콘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두산큐백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렉스콘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회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두산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배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두산건설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메카텍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17일자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재무안정성 증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2014년 1월 14일자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렉스콘을 소규모합병절차에 의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연결회사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결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결연차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1)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

연결회사가 선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간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연결회사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결합: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②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전환일에 토지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 및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을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2)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하였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또는 염가

매수차익을 최초 발생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상각 또는 환입하지 않으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손 상검사를 수행하고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양도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 준에 따라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관 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 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 등에 대한투자자산의 장부 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차이의 소멸방법에 따 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2) 연결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2010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3,167,740,188	2,294,777,801	872,962,387
조정사항:			
건설계약의 재무제표 표시	100,176,665	100,176,665	-
금융보증계약인식	82,783,731	60,809,640	21,974,091
도급계약 진행률 조정	15,597,306	13,524,583	2,072,723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차입거래 인식	8,613,455	8,552,494	60,961
부의 영업권 환입	29,359,213	-	29,359,21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35,747)	(2,434,187)	2,398,440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23,262,477	5,117,745	18,144,732
GAAP 조정 이연법인세 효과	(19,999,485)	(24,646,089)	4,646,604
지분법 추가 인식	70,695,376	15,552,983	55,142,393
기타기준차이	(25,492,296)	(5,402,388)	(20,089,908)
조정액 합계	284,960,695	171,251,446	113,709,24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452,700,883	2,466,029,247	986,671,636

2)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포괄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5,117,569,207	3,861,441,441	1,256,127,766	41,315,107
조정사항:				
건설계약의 재무제표 표시	75,352,949	76,215,594	(862,645)	28,285
금융보증계약인식	76,331,209	52,593,481	23,737,728	1,470,810
도급계약 진행률 조정	10,182,939	9,420,274	762,665	(1,343,252)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차입거래 인식	20,071,130	19,954,391	116,739	55,779
부의 영업권 환입	28,925,075	(95,510)	29,020,585	(338,627)
GAAP 조정 이연법인세 효과	(39,202,998)	(43,849,602)	4,646,604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138,053)	721,662	(859,715)	(2,910,162)
지분법 추가 인식	82,001,658	18,040,365	63,961,293	(7,292,560)
파생상품(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31,643,702)	(31,643,702)	-	-
기타기준차이	38,724,984	76,456,322	(37,731,338)	(17,780,322)
조정액 합계	260,605,191	177,813,275	82,791,916	(28,110,04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378,174,398	4,039,254,716	1,338,919,682	13,205,058

3) 2010년 현금흐름 조정내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수입,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5.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 파생금융상품 및 지급보증한도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정보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주석 32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연결회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138,763,312	158,086,573
	단기금융상품	-	304,296
	매출채권	583,546,886	601,825,664
	미수금	159,180,861	165,941,146
	단기대여금	577,054,794	591,950,626
	미수수익(주2)	98,734,210	97,623,251
	장기금융상품	53,672	56,672
	장기대여금(주3)	488,712,455	443,238,104
	장기매출채권(주3)	-	34,329
	보증금(주3)	27,030,807	25,533,602
	소계	2,073,076,997	2,084,594,263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1,700,045	12,196,573
파생상품평가자산		20,479,627	11,383,927
합 계		2,095,256,669	2,108,174,763

(주1)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외에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으로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해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증의 최대금액은 주석 32와 같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중 주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116,173,619	41,223,859	29,925,632	1,372,746,838	1,560,069,948
단기대여금	29,414,192	20,579,900	95,394,926	431,665,776	577,054,794
미수금	55,860,792	7,515,815	22,177,471	112,419,250	197,973,328
장기대여금	133,223,485	9,416,869	15,788,860	540,813,068	699,242,282
장기매출채권	-	-	-	80,180	80,180
합계	334,672,088	78,736,443	163,286,889	2,457,725,112	3,034,420,532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	----------	-------------------	------------------	-------	-----

매출채권	122,190,382	35,670,117	255,693,713	1,180,855,998	1,594,410,210
단기대여금	67,900,254	29,674,858	117,324,073	377,054,849	591,954,034
미수금	51,026,362	20,109,241	11,478,218	112,938,842	195,552,663
장기대여금	107,771,313	5,118,212	38,641,536	501,596,040	653,127,101
장기매출채권	-	-	-	71,493	71,493
합계	348,888,311	90,572,428	423,137,540	2,172,517,222	3,035,115,501

부도 및 파산 등 손상 징후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거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반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연령분석 및 대손경험률에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 개별적으로 손상평가하는 채권과 관련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228,130백만원(전기 1,231,093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없습니다.

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648,334)	(6,754,548)	(9,882,615)	(555,591)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174,437,098	325,209,046	150,230,285	283,921,706
인건비	46,948,358	95,472,441	49,917,099	103,416,84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8,227,235	16,368,080	7,243,879	13,027,470
기타비용	332,158,429	625,894,141	384,369,264	735,879,601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561,122,786	1,056,189,160	581,877,912	1,135,690,032

7.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3,430,428	28,557,532	14,410,200	33,833,235
퇴직급여	1,346,138	2,846,214	1,367,757	2,704,689
지급수수료	4,002,811	8,170,798	8,962,300	14,239,334
감가상각비	375,548	791,970	760,420	1,469,293
무형자산상각비	1,971,288	3,991,329	1,463,035	1,803,950
광고선전비	1,018,630	1,695,873	1,026,275	1,929,461
복리후생비	2,518,374	4,587,738	2,803,715	5,370,003

대손상각비	(3,636,480)	(12,159,248)	(6,413,888)	(7,216,276)
경상개발비	1,400,272	3,487,011	1,995,685	7,208,357
판매촉진비	3,372,345	6,267,678	2,688,032	5,127,936
세금과공과	187,113	945,649	258,649	1,044,137
임차료	3,001,943	6,158,176	2,812,175	4,039,715
여비교통비	1,044,799	2,438,134	1,480,769	2,328,847
기타	4,589,452	5,616,822	5,225,303	9,548,018
합 계	34,622,661	63,395,676	38,840,427	83,430,699

8. 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I. 금융수익:				
이자수익	1,399,016	3,144,397	4,549,232	10,696,340
배당금수익	82,082	82,800	82,273	123,025
외환차익	1,433,092	3,383,414	2,358,076	3,673,670
외화환산이익	2,205,186	3,474,103	2,695,913	4,357,849
파생상품평가이익	8,494,154	11,422,551	(376,963)	2,553,381
파생상품거래이익	924,397	1,144,689	12,603	5,651,770
확정계약평가이익	(1,561,406)	840,976	2,450,214	8,447,425
금융보증수익	184,673	389,146	1,043,853	3,183,571
금융수익 합계	13,161,194	23,882,076	12,815,201	38,687,031
II. 금융비용:				
이자비용	32,918,336	67,979,704	41,170,166	88,975,995
외환차손	4,563,843	5,560,576	902,845	1,422,724
외화환산손실	(332,044)	2,183,694	2,924,781	4,517,375
파생상품평가손실	903,767	6,724,653	2,774,412	12,009,897
파생상품거래손실	(66,853)	-	624,277	3,425,571
확정계약평가손실	5,233,002	5,233,002	617	865,935
사채상환손실	-	-	2,326,552	2,326,552
지급보증료	561,870	1,188,096	9,950	9,950
금융비용 합계	43,781,921	88,869,725	50,733,600	113,553,999
III. 순금융손익(I-II)	(30,620,727)	(64,987,649)	(37,918,399)	(74,866,968)

9.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I. 기타영업외수익:				
무형자산처분이익	-	-	17,000	169,19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3,489,750	18,038,061
유형자산처분이익	88,848	95,454	3,927,235	41,337,179
위약금수익	4,663	7,083	-	8,313
연체료수익	460	782	-	1,074
잡이익	13,885,289	16,326,958	1,884,809	3,479,075
소계	13,979,260	16,430,277	9,318,794	63,032,894
II. 기타영업외비용:				
매출채권처분손실	412,560	828,576	630,712	814,930
무형자산처분손실	-	18,400	-	25,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98,053	641,294	97,039	308,559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25,873	25,873
기타의대손상각비	5,670,808	6,899,273	(214,460)	738,561
기부금	6,676	12,461	2,500	4,500
단기투자증권손상차손	500,000	1,250,000	-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554,060	557,951	-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764,757	1,392,977	14,673,560	18,963,636
잡손실	23,055,338	28,290,557	7,160,250	11,624,824
소계	31,562,252	39,891,489	22,375,474	32,505,883
차 감 계	(17,582,992)	(23,461,212)	(13,056,680)	30,527,011

3. 요약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제36기	제35기
	(2014년 6월말)	(2013년 12월말)	(2012년 12월말)	(2011년 12월말)	(2010년 12월말)
[유동자산]	2,518,967	2,421,651	2,369,704	3,472,648	3,696,383
· 당좌자산	2,488,765	2,398,696	2,332,997	3,394,389	3,594,988
· 재고자산	30,202	22,955	36,706	65,759	88,16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0	12,500	13,226
[비유동자산]	2,390,323	2,324,134	1,540,136	1,358,616	1,343,968
· 투자자산	926,362	996,078	649,569	630,797	654,427
· 유형자산	808,404	661,775	519,878	519,696	528,634
· 무형자산	331,561	333,278	23,565	27,861	33,988
· 투자부동산	69,279	67,681	64,622	63,990	102,099

· 기타비유동자산	254,717	265,322	282,501	116,272	24,820
자산총계	4,909,290	4,745,786	3,909,840	4,831,264	5,040,352
[유동부채]	2,357,292	2,201,433	2,726,129	2,454,114	2,885,334
[비유동부채]	535,992	534,978	578,668	1,156,220	861,797
부채총계	2,893,284	2,736,410	3,304,796	3,610,334	3,747,131
[자본금]	399,563	2,882,898	877,335	877,335	577,229
[자본잉여금]	613,659	614	150,339	150,222	149,506
[기타자본항목]	-9,089	-676,395	1,704	1,235	1,4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2,376	132,165	26,654	27,288	90,155
[이익잉여금]	859,497	-329,907	-450,988	164,850	474,887
자본총계	2,016,006	2,009,375	605,043	1,220,930	1,293,221
	(2014.01.01 ~ 2014.06.30)	(2013.01.01 ~ 2013.12.31)	(2012.01.01 ~ 2012.12.31)	(2011.01.01 ~ 2011.12.31)	(2010.01.01 ~ 2010.12.31)
매출액	1,075,945	2,188,154	2,229,066	2,633,993	2,302,809
영업이익	55,633	55,584	-453,521	-309,581	66,790
당기순이익	-29,397	-33,676	-614,847	-293,452	2,283
· 기본주당이익	-573원	-76원	-3,477원	-2,040원	30원
· 희석주당이익	-573원	-76원	-3,477원	-2,040원	30원

※ 상기 제35기 재무제표는 K-IFRS로 작성되었으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상기 제35기 재무제표는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의 회계처리를 제36기 3분기보고서부터 변경(담보부차입거래→과생금융상품)함에 따라, 기 제출된 제36기 1분기보고서 및 제36기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제35기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투자자산에 대한 요약작성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36기 및 제35기의 투자자산의 금액을 조정하였고, 동 금액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영업이익 표시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및 연결회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4.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첨부된 제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IFRS) 주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주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회사, 관계회사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회사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당반기부터 시행되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영업권 및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대한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율에 따른 수익인식
- 영업권 손상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상각방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하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2. 회계처리방법 변경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3. 합병, 분할

당사는 영업경쟁력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04년 4월 30일을 합병기일로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건설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 합병회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4년에 100%출자회사인 두산기업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절차에 의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6년 12월 21일자로 주력사업인 건설업으로의 역량 집중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당사의 레저사업부문과 레미콘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두산큐백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렉스콘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상호를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두산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두산건설주식회사를 법률상 존속회사로 하고 두산메카텍주식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17일자로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의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재무안정성 증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2014년 1월 14일자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렉스콘을 소규모합병절차에 의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당사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1)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

당사가 선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간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당사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결합: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②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당사는 전환일에 토지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 및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을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 ③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함

2) 종업원급여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하였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최초 발생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상각 또는 환입하지 않으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양도

당사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이연법인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차이의 소멸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2)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2010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2,986,223,388	2,113,481,351	872,742,037
조정사항:			
건설계약의 재무제표 표시	100,176,665	100,176,665	-
금융보증계약인식	82,783,731	60,809,640	21,974,091
도급계약 진행률 조정	15,597,306	13,524,583	2,072,723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차입거래 인식	8,613,455	8,552,494	60,961
부의 영업권 환입	2,596,916	-	2,596,916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35,747)	(2,186,812)	2,151,065
지분법 적용주식의 원가법 환원	(239,455)	(7,565,831)	7,326,376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23,262,477	5,117,745	18,144,732
GAAP 조정 이연법인세 효과	(19,658,380)	(43,267,814)	23,609,434
기타기준차이	(1,234,746)	787,807	(2,022,553)
조정액 합계	211,862,222	135,948,477	75,913,74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198,085,610	2,249,429,828	948,655,782

2)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포괄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4,947,658,639	3,691,530,873	1,256,127,766	41,535,458
조정사항:				
건설계약의 재무제표 표시	75,352,949	76,215,594	(862,645)	28,285
금융보증계약인식	76,331,209	52,593,481	23,737,728	1,470,810
도급계약 진행률 조정	10,182,939	9,420,274	762,665	(1,343,252)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차입거래 인식	20,071,130	19,954,391	116,739	55,779
부의 영업권 환입	2,374,438	(48,945)	2,423,383	(173,53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138,053)	609,153	(747,206)	(2,550,277)
지분법 적용주식의 원가법 환원	2,340,142	(5,933,116)	8,273,258	(19,700,797)
파생상품(채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31,643,702)	(31,643,702)	-	-
GAAP 조정 이연법인세 효과	(38,934,695)	(62,544,129)	23,609,434	-
기타기준차이	(23,243,360)	(3,022,945)	(20,220,415)	(18,851,676)
조정액 합계	92,692,997	55,600,056	37,092,941	(41,064,66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040,351,636	3,747,130,929	1,293,220,707	470,798

3) 2010년 현금흐름 조정내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수입,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5.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채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뿐 아니라, 지분증권 성격

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 파생금융상품 및 지급보증한도액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주석 3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88,411,727	110,685,853
	매출채권	576,141,314	560,651,047
	미수금	157,751,242	165,245,817
	단기대여금	577,054,794	591,783,768
	미수수익(주2)	98,734,210	97,510,614
	장기금융상품	52,172	49,172
	장기대여금(주3)	488,712,455	443,238,104
	보증금(주3)	25,917,577	23,673,215
	소계	2,012,775,491	1,992,837,590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1,700,045	2,558,013
파생상품평가자산		20,479,627	11,383,927
합 계		2,034,955,163	2,006,779,530

(주1) 당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외에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으로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해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증의 최대금액은 주석 31와 같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중 주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연령별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1년 초과	합계
------	----------	---------	---------	-------	----

		6개월 이하	1년 이하		
매출채권	108,727,120	41,219,288	29,925,632	1,372,595,246	1,552,467,286
단기대여금	29,414,192	20,579,900	95,394,926	431,665,776	577,054,794
미수금	55,811,877	7,515,815	20,797,511	112,418,506	196,543,709
장기대여금	133,223,485	9,416,869	15,788,860	540,813,068	699,242,282
장기매출채권	-	-	-	80,180	80,180
합계	327,176,674	78,731,872	161,906,929	2,457,572,776	3,025,388,251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계정과목	0~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82,372,902	33,703,183	255,636,993	1,180,463,844	1,552,176,922
단기대여금	67,729,988	29,674,858	117,324,073	377,054,849	591,783,768
미수금	50,331,551	20,109,241	11,478,218	112,938,099	194,857,109
장기대여금	107,771,313	5,118,212	38,641,536	501,596,041	653,127,102
장기매출채권	-	-	-	27,470	27,470
합계	308,205,754	88,605,494	423,080,820	2,172,080,303	2,991,972,371

부도 및 파산 등 손상 징후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거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반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연령분석 및 대손경험률에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상기 개별적으로 손상평가하는 채권과 관련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227,933백만원(전기 1,231,054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없습니다.

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232,086	(7,247,287)	(7,138,066)	2,263,128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165,841,271	309,815,271	149,435,481	276,545,863
인건비	42,249,401	86,122,232	43,927,529	92,699,570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7,202,033	14,148,994	5,759,724	10,312,081
기타비용	324,263,009	617,472,803	345,541,985	677,599,657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539,787,800	1,020,312,013	537,526,653	1,059,420,299

7.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3,006,722	27,572,040	13,417,458	31,922,966
퇴직급여	1,318,972	2,791,803	1,286,399	2,542,528
지급수수료	3,833,849	7,835,387	8,550,084	13,613,130
무형자산상각비	1,966,738	3,982,173	1,458,339	1,794,603
광고선전비	1,126,798	1,907,048	1,129,564	2,136,370
복리후생비	2,427,110	4,402,330	2,564,853	4,950,600
여비교통비	1,029,310	2,402,625	1,444,969	2,265,953
임차료	2,997,817	6,136,558	2,759,250	3,905,793
대손상각비	(3,636,480)	(12,159,248)	(6,335,227)	(7,089,725)
판매촉진비	3,372,345	6,267,678	2,688,032	5,127,936
경상개발비	1,401,076	3,454,503	1,835,517	6,881,565
미분양자산관리비	300,067	1,226,374	620,176	1,552,933
사무실관리비	501,312	1,012,562	527,664	992,490
기타	3,589,024	3,837,470	4,497,876	8,554,161
합계	33,234,660	60,669,303	36,444,954	79,151,303

8. 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I. 금융수익:				
이자수익	1,370,053	2,930,182	4,222,868	9,829,603
배당금수익	82,082	82,800	82,273	123,025
외환차익	1,409,482	3,345,857	2,352,349	3,667,943
외화환산이익	2,205,185	3,474,103	2,695,913	4,357,849
파생상품평가이익	8,494,153	11,422,551	(376,963)	2,553,381
파생상품거래이익	924,398	1,144,689	12,603	5,651,770
확정계약평가이익	(1,561,406)	840,976	2,450,213	8,447,425
금융보증수익	184,673	389,146	1,043,854	3,183,571
금융수익 합계	13,108,620	23,630,304	12,483,110	37,814,567
II. 금융비용:				

이자비용	32,516,060	66,806,201	40,742,024	88,086,661
외환차손	4,489,336	5,482,211	898,410	1,418,290
외화환산손실	(332,045)	2,183,694	2,924,781	4,517,375
파생상품평가손실	903,766	6,724,653	2,774,412	12,009,897
파생상품거래손실	(66,853)	-	624,277	3,425,571
확정계약평가손실	5,233,002	5,233,002	619	865,935
사채상환손실	-	-	2,326,552	2,326,552
지급보증료	501,754	1,117,699	-	-
금융비용 합계	43,245,020	87,547,460	50,291,075	112,650,281
III. 순금융손익(I-II)	(30,136,400)	(63,917,156)	(37,807,965)	(74,835,714)

9.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I. 기타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4,198	10,804	3,886,297	41,296,241
무형자산처분이익	-	-	17,000	169,19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3,489,750	18,038,061
위약금수익	4,663	7,083	-	8,313
연체료수익	460	782	-	1,074
잡이익	13,219,688	15,660,407	1,879,822	3,457,254
소계	13,229,009	15,679,076	9,272,869	62,970,135
II. 기타영업외비용:				
매출채권처분손실	412,559	790,822	602,319	740,497
유형자산처분손실	178,326	221,566	70,938	282,458
무형자산처분손실	-	18,400	-	25,000
기타의대손상각비	5,670,808	6,899,273	(214,621)	738,591
기부금	5,126	8,911	2,500	2,500
단기투자증권손상차손	500,000	1,250,000	-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554,060	557,951	-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764,757	1,392,977	14,668,039	18,958,115
잡손실	21,671,853	26,709,895	7,159,473	11,616,466
소계	29,757,489	37,849,795	22,288,648	32,363,627
차 감 계	(16,528,480)	(22,170,719)	(13,015,779)	30,606,508

5.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검토)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39기 반기	-	해당사항 없음
제38기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37기	적정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검토)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39기 반기	-	해당사항 없음
제38기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37기	적정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원, VAT별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9기 반기	삼정회계법인	개별, 연결, 영문재무제표	460,000,000	2,300 시간
제38기	삼정회계법인	개별, 연결, 영문재무제표	430,000,000	6,100 시간
제37기	삼정회계법인	개별, 연결, 영문재무제표	430,000,000	6,000 시간

2.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원, VAT별도)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제39기 반기	'14.05.28	세무조정검토 업무	'14.04.01 ~ '15.03.31	30,000,000	
	'14.01.21	조세불복 수행용역 업무	'14.01.21 ~	52,000,000	부과취소가 결정되는 날까지 용역 진행
제38기	'13.04.11	세무조정검토 업무	'13.04.12 ~ '14.03.31	27,500,000	실비변상비 확정으로 인한 금액 변경
제37기	'12.05.31	세무조정검토 업무	'12.05.31 ~ '13.03.31	25,000,000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당사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당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회계감사법인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회계감사법인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법인의 검토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법인의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권한 내용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자본금의 증감,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신규 사업의 결정, 사채의 모집, 이사회 규정의 개정,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1) 제34기 정기주주총회(2010.03.26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0.03.11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0.03.11
- 2) 2010년 임시주주총회(2010.09.28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0.09.13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0.09.13
- 3) 제35기 정기주주총회(2011.03.25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1.03.10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1.03.10
- 4)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12.03.30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2.03.15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2.03.15
- 5) 제37기 정기주주총회(2013.03.29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3.03.14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3.03.14
- 5) 2013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013.06.21 개최)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 2013.06.05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제출일 : 2013.06.05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기준일 : 2014.06.30)

성명	사외이사 여부	비고
이종백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김창섭	○	
최종원	○	

(4) 사외이사 현황 (기준일 : 2014.06.30)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고

이종백	서울대 법학 석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없음	없음	
김창섭	육군사관학교 제34기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現) 예일세무법인 대표	없음	없음	
함상문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前)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現)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없음	없음	
최종원	미시간대학교대학원 박사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없음	없음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IR팀 (☎02-510-3772)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이사회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3)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부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과 종합운영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신규사업 및 관계회사 주식(자사주포함) 투자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부사장 이상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7) 이사회운영 규정 및 중요사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개정
- 9)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10)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2)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 합병의 결정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
 - 2)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 3) 사채의 발행 및 모집에 관한 사항
 -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5) 준비금의 자본전입
 - 6) 신주의 발행 또는 주식의 소각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 겸임
 - 3)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집행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제·개정
- 5. 기타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4.01.14	[보고안건] 1. 2013년 하반기 CP 운영실적 및 2014년 운영계획 보고 [결의안건] 1. (주)텍스콘과의 합병 종료 보고총회의 공고 갈음의 건 2. 두산중공업(주)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3. 두산비나 하이풍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4.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조정 승인의 건	가결	

2	2014.02.13	<p>[보고안건]</p> <p>1.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13년 경영실적 보고</p> <p>[결의안건]</p> <p>1. 2013년(제3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14년 및 중기경영계획 승인의 건 3. 춘천연수원 건립을 위한 계약 체결 승인의 건 4. 두산중공업(주)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5. 두산밥콕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6. 두산비나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8. 2014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의 건</p>	가결	
3	2014.03.05	<p>[보고안건]</p> <p>1.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감사보고</p> <p>[결의안건]</p> <p>1.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2. 두산밥콕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3. 두산비나하이퐁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4. 두산비나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p>	가결	
4	2014.03.28	<p>[보고안건]</p> <p>1. 2013년 이사보수 지급 실적 변동 보고</p> <p>[결의안건]</p> <p>1. 두산비나하이퐁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p>	가결	
5	2014.04.25	<p>[보고안건]</p> <p>1. 201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p> <p>[결의안건]</p> <p>1. 대만 고정사업장 설치의 건 2. 두산중공업(주)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3. 두산비나하이퐁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4. 두산비나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p>	가결	
6	2014.05.12	<p>[결의안건]</p> <p>1. 집행 임원(사장) 선임의 건</p>	가결	
7	2014.05.29	<p>[결의안건]</p> <p>1. 두산비나하이퐁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p>	가결	

8	2014.06.26	<p>[결의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법지원인 해임 및 선임의 건 2. 상업 지배인 해임의 건 3. 두산중공업(주)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4. 두산비나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제관 제작 계약 체결 승인의 건 4-2. HRSG 기자재 제작 계약 체결 승인의 건 5. 두산비나하이풍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설계 외주 계약 체결 승인의 건 5-2. HRSG 비압력부 제작 계약 체결 승인의 건 6. 두산밥콕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7. 해외 지점 설립의 건 8. 이란 테헤란 사무소 설치의 건 	가결	
9	2014.07.25	<p>[보고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4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2. 2014년 상반기 CP운영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p>[결의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4.01.14	4/4	
2	2014.02.13	4/4	
3	2014.03.05	4/4	
4	2014.03.28	3/4	
5	2014.04.25	3/4	
6	2014.05.12	4/4	
7	2014.05.29	3/4	
8	2014.06.26	4/4	
9	2014.07.25	4/4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기준일 : 2014.06.30)

위원회명	구성	성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내부거래 위원회	사외이사 3명	이종백 최종원 함상문	<p>설치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p> <p>권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 승인함</p>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3명	이종백 김창섭 최종원	설치목적: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함 권한사항: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	
감사 위원회	사외이사 3명	김창섭 함상문 최종원	설치목적: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기 위함 권한사항: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락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김창섭	함상문	최종원
				찬반여부		
감사 위원회	2014.02.13	[보고사항] 1. 2013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주요사항 보고 2.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14.03.05	[결의사항] 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14.04.25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14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가결	찬성	찬성	불참
	2014.07.25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14년 2분기 검토 결과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설치여부: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2009년도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 구성방법: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김창섭 사외이사)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다) 감사위원회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비고
----	------	----

김창섭	육군사관학교 제34기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現) 예일세무법인 대표	
함상문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前)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現)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최종원	미시간대학교대학원 박사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1	2014.02.13	[보고사항] 1. 2013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주요사항 보고 2.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2	2014.03.05	[결의사항] 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3	2014.04.25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14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가결	
4	2014.07.25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14년 2분기 검토 결과 보고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정관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내용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기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정관 제28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1. 회사가 속해있는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 두산그룹

2.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기준일 : 2014.06.30일 현재)

출자사 피출자사		(주)두산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건설	오리콤	디아이피 홀딩스	두산 캐피탈	네오 홀딩스
(주)두산	보통주	22.46%							
	우선주	12.47%							
	합계	20.41%							
두산중공업(주)	보통주	41.40%	6.89%						
두산인프라코어(주)	보통주		36.40%						
두산건설(주)	보통주		84.29%		0.50%				
	우선주								
	합계		59.70%		0.36%				
두산엔진(주)	보통주		42.66%						
(주)오리콤	보통주	67.47%				3.43%			
(주)두산베어스	보통주	100.00%							
두산생물자원(주)	보통주	100.00%							
두산동아(주)	보통주	100.00%							
두산타워(주)	보통주	100.00%							
디아이피홀딩스(주)	보통주	100.00%							
에스알에스코리아(주)	보통주						100.00%		
두산디에스티(주)	보통주						50.91%		
(주)빅앤티	보통주								
두산큐백스(주)	보통주				100.00%				
네오트랜스(주)	보통주				42.86%				
(주)두산에이엠씨	보통주		100.00%						
(주)네오플릭스	보통주							66.71%	
(주)두산캐피탈	보통주							14.24%	
	우선주								
	합계							10.85%	
비엔지증권(주)	보통주						97.82%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주)	보통주			100.00%					
(주)네오홀딩스	보통주								

※네오플릭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합자회사로 제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임

4.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 (기준일 : 2014.06.30 현재)

성명	회사명	직책
송정호	두산큐백스(주)	감사

5.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하나금융지주 (상장)	-	투자	334.1	4	0.00%	173.1	0	0.0	-25.2	4	0.00%	147.9	295,188,639	992,968
쌍용자동차 (상장)	-	투자	483.1	32	0.03%	243.2	0	0.0	38.6	32	0.03%	281.8	2,117,625	-2,398
두산큐백스(주) (비상장)	2006.12.21	물적분할	142,743.0	6,000	100.00%	158,881.0	0	0.0	-0.0	6,000	100.00%	158,881.0	247,246	-1,694
㈜텍스콘 (비상장)	2006.12.21	물적분할	82,292.0	2,000	100.00%	111,969.3	-2,000	-111,969.3	0.0	0	0.00%	0.0	240,297	3,241
네오트랜스(주) (비상장)	2005.05.30	SOC	42.9	9	42.86%	42.9	0	0.0	0.0	9	42.86%	42.9	30,069	11,430
㈜삼우엔엘에스 (비상장)	-	투자	700.0	184	3.57%	0.0	0	0.0	0.0	184	3.57%	0.0	0	0
부산물류터미널(주) (비상장)	-	투자	1,500.0	20	7.58%	960.0	0	0.0	0.0	20	7.58%	960.0	81,380	418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비상장)	-	PFV	4,000.0	800	0.40%	0.0	0	0.0	0.0	800	0.40%	0.0	9,303,837	-45,624
청라국제업무타운(주) (비상장)	2008.01.17	PFV	2,046.0	1,703	6.99%	0.0	0	0.0	0.0	1,703	6.99%	0.0	133,860	6,755
㈜알파돔시티 (비상장)	-	PFV	19,668.0	3,934	4.00%	15,754.1	0	0.0	0.0	3,934	4.00%	15,754.1	1,989,416	-105,676
엘시티피에프비(주) (비상장)	-	PFV	1,050.0	0	0.00%	0.0	0	0.0	0.0	0	0.00%	0.0	523,728	-17,781
천안해르메카개발(주) (비상장)	2008.06.09	PFV	3,000.0	600	6.00%	0.0	0	0.0	0.0	600	6.00%	0.0	33,789	-716
서울라이트타워(주) (비상장)	2009.06.23	PFV	4,620.0	699	3.03%	574.4	0	0.0	0.0	699	3.03%	574.4	18,824	-490
에콘월(주) (비상장)	2009.03.27	PFV	9,577.0	2,916	8.41%	0.0	0	0.0	0.0	2,916	8.41%	0.0	44,113	-55,252
에콘월자산관리(주) (비상장)	2009.03.27	PFV	79.0	16	15.70%	0.0	0	0.0	0.0	16	15.70%	0.0	1,806	226
한국경우에이엘씨(주) (비상장)	2009.12.01	PFV	1,000.0	200	14.06%	934.0	0	0.0	0.0	200	14.06%	934.0	0	0
대전원변도시고속화도로(주) (비상장)	2001.06.29	SOC	2,044.0	205	33.33%	0.0	0	0.0	0.0	205	33.33%	0.0	92,782	26,536
장남순환도로(주) (비상장)	2002.07.12	SOC	660.0	1,033	4.37%	5,232.1	0	0.0	0.0	1,033	4.37%	5,232.1	362,660	-1,748
지케이에상도로(주) (비상장)	2003.03.18	SOC	360.0	0	0.00%	0.0	0	0.0	0.0	0	0.00%	0.0	1,667,321	-50,530
포항영일신항만(주) (비상장)	2004.05.28	SOC	12.0	1,689	10.83%	7,337.4	0	0.0	0.0	1,689	10.83%	7,337.4	168,074	-8,982
신분당선(주) (비상장)	2005.05.30	SOC	8,970.0	12,325	29.03%	62,551.6	0	0.0	0.0	12,325	29.03%	62,551.6	1,082,671	-82,617
마산아젯물길(주) (비상장)	2006.11.20	SOC	52.9	221	8.14%	1,104.5	0	0.0	0.0	221	8.14%	1,104.5	129,108	-261
청주권환경(주) (비상장)	2006.05.16	SOC	52.0	62	8.83%	312.4	0	0.0	0.0	62	8.83%	312.4	27,430	-189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비상장)	2006.12.13	SOC	4.7	2,515	9.44%	12,573.0	614	3,068.0	0.0	3,128	9.44%	15,641.0	159,253	-1,473
영월상주고속도로(주) (비상장)	2006.12.15	SOC	3.8	2,588	7.50%	12,940.9	278	1,391.6	0.0	2,867	7.50%	14,332.5	173,630	-1,153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비상장)	2006.12.15	SOC	3.8	1,835	7.52%	9,174.4	0	0.0	0.0	1,835	7.52%	9,174.4	310,956	860
대구남부순환도로(주) (비상장)	2007.09.13	SOC	810.0	769	5.45%	4,013.2	0	0.0	0.0	769	5.45%	4,013.2	317,764	-15,887
㈜우이트랜스 (비상장)	2007.11.21	SOC	4.8	1,077	10.47%	5,386.8	0	0.0	0.0	1,077	10.47%	5,386.8	160,634	-919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비상장)	2007.12.21	SOC	7.2	167	14.40%	834.4	0	0.0	0.0	167	14.40%	834.4	1,002	-1,539
장흥권환경(주) (비상장)	2008.01.14	SOC	25.0	200	13.77%	999.1	-200	-999.1	0.0	0	0.00%	0.0	51,581	-645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비상장)	2008.02.29	SOC	504.0	906	12.60%	4,531.6	0	0.0	0.0	906	12.60%	4,531.6	44,250	-866
함안산업단지(주) (비상장)	2008.05.14	SOC	1,200.0	240	26.67%	1,200.0	0	0.0	0.0	240	26.67%	1,200.0	50,816	1,382
청정파주(주) (비상장)	2008.02.24	SOC	16.0	137	7.44%	684.5	0	0.0	0.0	137	7.44%	684.5	86,241	-71
경기남부도로(주) (비상장)	2008.08.04	SOC	14.5	1,241	9.30%	4,229.3	0	0.0	0.0	1,241	9.30%	4,229.3	371,970	-12,637
경기철도(주) (비상장)	2009.11.26	SOC	14.6	1,410	31.33%	7,048.9	0	0.0	0.0	1,410	31.33%	7,048.9	68,008	-2,678
에스피(주) (비상장)	2008.01.02	SOC	25.0	5	49.00%	24.5	0	0.0	0.0	5	49.00%	24.5	-	-
푸른길포(주) (비상장)	2009.04.03	SOC	336.0	113	6.39%	545.8	0	0.0	0.0	113	6.39%	545.8	41,002	-1,569
㈜국민씨아이 (비상장)	-	투자	695.0	28	14.96%	695.0	0	0.0	-695.0	28	14.96%	0.0	-	-
새서울철도(주) (비상장)	2010.12.22	투자	2.6	225	29.66%	1,122.6	18	90.0	0.0	243	29.99%	1,212.6	5,338	-1,169
양천고양동일동산(주) (비상장)	2012.12.31	SOC	113.3	23	4.51%	113.3	-4	-19.7	0.0	19	3.72%	93.6	-	-

중앙개발㈜ (비상장)	2013.03.31	투자	319.5	4	0.41%	0.0	0	0.0	0.0	4	0.41%	0.0	20,939	-44,678
한라산업개발㈜ (비상장)	2013.07.12	투자	992.2	3	0.56%	0.0	0	0.0	0.0	3	0.56%	0.0	135,910	5,416
가평양주강군㈜ (비상장)	2014.02.25	SOC	63.2	0	0.00%	0.0	13	63.2	0.0	13	1.71%	63.2	-	-
대한주택보증㈜ (비상장)	-	투자	27,826.5	1,352	0.21%	9,295.0	0	0.0	0.0	1,352	0.21%	9,295.0	5,768,671	199,170
합 계			49,488	-	-	441,482.1	-1,281	-108,375.2	-681.6	48,207	-	332,425.3	-	-

- ※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출자비율 5.0% 이하, 장부가액 1억원 이하인 법인 기재 제외
- ※ 청라국제업무타운, 서울라이트타워, 에콘힐 풋옵션 제외한 금액임
- ※ 상기 최초취득금액 및 기초잔액은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의 회계처리를 제36기 3분기보고서부터 변경(담보부차입거래→과생금융상품)함에 따라, 기 제출된 제36기 1분기보고서 및 제36기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최초취득금액 및 기초잔액과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두산중공업	본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465,155,728	80.96	46,515,572	59.70	주식병합
박용곤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22	0.00	2	0.00	주식병합
박용성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88,431	0.02	8,843	0.01	주식병합
박용현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26,754	0.02	12,675	0.02	주식병합
박용만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69,916	0.03	16,991	0.02	주식병합
강신애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3,780	0.00	378	0.00	주식병합
박정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2,818,740	0.49	281,873	0.36	주식병합
김소영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09,568	0.02	10,956	0.01	주식병합
박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039,285	0.18	103,928	0.13	주식병합
박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869,225	0.33	186,922	0.24	주식병합
서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66,378	0.01	6,637	0.01	주식병합
박진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2,184,250	0.38	218,424	0.28	주식병합
박상효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313	0.00	531	0.00	주식병합
박상인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312	0.00	531	0.00	주식병합
박석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681,385	0.29	168,138	0.22	주식병합
정현주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9,737	0.01	5,973	0.01	주식병합
박상현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313	0.00	531	0.00	주식병합
박상은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312	0.00	531	0.00	주식병합
박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494,598	0.26	149,459	0.19	주식병합
원보연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3,100	0.01	5,310	0.01	주식병합
박윤서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5,550	0.00	555	0.00	주식병합
박형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121,024	0.20	112,102	0.14	주식병합
최윤희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39,825	0.01	3,982	0.01	주식병합
박상아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4,140	0.00	414	0.00	주식병합
박인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121,024	0.20	112,102	0.14	주식병합
박상정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4,140	0.00	414	0.00	주식병합
박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1,171,529	0.20	117,152	0.15	주식병합
박재원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961,228	0.17	96,122	0.12	주식병합
연강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의결권 있음)	989,165	0.17	98,916	0.13	주식병합
양희선	계열회사임원	보통주(의결권 있음)	50,000	0.01	5,000	0.01	주식병합
송정호	계열회사임원	보통주(의결권 있음)	84,327	0.01	8,432	0.01	주식병합
계		보통주(의결권 있음)	482,494,099	83.97	48,249,396	61.93	-
		의결권 없음	-	-	-	-	-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77,912,503주) 기준 지분율입니다.

- ※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가 2011년 5월 3일 두산중공업 보유의 당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환 요청에 의거 교환되는주식수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1. 최대주주의 개요

가. 회사의 연혁

회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는 1962년 9월 20일에 현대양행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 10월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에 귀속되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산그룹에 인수되어 2001년 3월 23일 상호를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서 두산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6월말 현재 총 존속기간은 53년째입니다.

(1)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 전화번호 : 055) 278-6114 (대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oosanheavy.com>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09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0.03.26)
 - ① 박용성 회장, 박용만 회장이 2009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 ② 사외이사 이부식, 이건용, 김종상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2009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 서 김상열, 이종열, 윤건영이 주주총회 결의로 사외이사로 선임(2010.03.26)
- 2010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1.03.25)
 - ① 정지택 부회장, 박지원 사장이 2010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 ② 대표이사 심규상과 최종일(관계사 진출)이 사임하고, 2010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 서 선임된 한기선 이사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형희 이사가 대표이사 전무로 이사회 에서 선임
 - ③ 2010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형주가 주주총회 결의로 사외이사로 선임
- 2011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2.03.30)
 - ① 이재경 이사는 2011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박용만 이사, 정지택 대표이사, 최형희 이사는 중도 퇴임
- 2012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3.03.29)
 - ① 사내이사인 박용성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사외이사 윤건영, 이종열, 김상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2012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동민, 송경순, 백복현이 주주총회 결의로 사외이사로 선임
- 2013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4.03.28)
 - ① 대표이사인 박지원 부회장, 한기선 사장이 2013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 ② 사외이사인 김형주 이사는 2013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차동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나. 주요주주

두산중공업(주)의 2014년 06월 30일 현재 최대주주는 (주)두산이며 총 41.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주요주주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두산	본인	보통주	43,945,896	41.40	43,945,896	41.40	-
연강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200	0.00	1,200	0.00	-
박용만	특수관계인	보통주	9,768	0.01	9,768	0.01	-
박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5,734	0.01	5,734	0.01	-
박정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6,920	0.01	6,920	0.01	-
박진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906	0.00	1,906	0.00	-
박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683	0.00	1,683	0.00	-
박상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1,590	0.00	1,590	0.00	-
박상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1,586	0.00	1,586	0.00	-
박석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559	0.00	1,559	0.00	-
박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386	0.00	1,386	0.00	-
박인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039	0.00	1,039	0.00	-
박형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039	0.00	1,039	0.00	-
박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663	0.00	663	0.00	-
박재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542	0.00	542	0.00	-
강신애	특수관계인	보통주	3,163	0.00	3,163	0.00	-
한기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7,000	0.00	7,000	0.00	-
김소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	0.00	1,000	0.00	-
계		보통주	43,993,674	41.44	43,993,674	41.44	-
		기 타	-	-	-	-	-

(2) 주식분포현황

두산중공업(주)의 지분을 2014년 08월 18일 현재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인 (주)두산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두산	43,945,896	41.40	-
	국민연금공단	6,500,296	6.12	-
우리사주조합		-	-	-

※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는 '13.12.31일 기준 소유주식수로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식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86,373	99.99	49,084,482	46.24	-

※ 위 현황은 '13. 12. 31일자 주주명부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재무현황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2기 반기	제51기	제50기	제49기	제48기
	2014년 06월말	2013년 12월말	2012년 12월말	2011년 12월말	2010년 12월말
[유동자산]	11,949,062	11,174,223	12,627,551	14,037,096	13,513,790
· 당좌자산	9,619,330	8,968,429	10,170,204	11,491,113	11,216,415
· 재고자산	2,329,732	2,205,794	2,457,347	2,545,983	2,297,375
[비유동자산]	16,275,406	16,551,257	15,286,736	15,078,072	14,533,801
· 투자자산	1,167,172	1,189,454	814,136	1,064,255	998,482
· 유형자산	7,127,982	7,231,824	6,155,697	6,028,148	5,896,925
· 무형자산	6,722,559	6,924,583	6,874,439	7,105,838	6,943,163
· 기타비유동자산	1,257,693	1,205,396	1,442,464	879,831	695,231
자산총계	28,224,468	27,725,480	27,914,287	29,115,168	28,047,591
[유동부채]	11,854,506	10,572,274	12,318,359	14,309,904	13,510,144
[비유동부채]	8,741,187	9,241,412	9,609,468	9,042,547	9,267,915
부채총계	20,595,693	19,813,686	21,927,827	23,352,451	22,778,059
[자본금]	530,791	530,791	529,281	529,217	529,082
[연결자본잉여금]	1,523,079	1,521,655	1,388,235	1,394,725	1,338,170
[연결기타자본항목]	(14,910)	(13,188)	(130,899)	(140,843)	(168,24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1,404	324,557	(275,358)	(106,006)	(80,566)
[연결이익잉여금]	2,261,412	2,362,821	2,307,484	2,341,744	2,301,734
[비지배지분]	3,086,999	3,185,158	2,167,717	1,743,880	1,349,356
자본총계	7,628,775	7,911,794	5,986,460	5,762,717	5,269,532
	(2014.01.01~2014.06.30)	(2013.1.1~2013.12.31)	(2012.1.1~2012.12.31)	(2011.1.1~2011.12.31)	(2010.1.1~2010.12.31)
매출액	8,837,270	19,208,174	21,274,063	21,411,935	19,710,346
영업이익	489,187	958,072	586,152	1,178,407	1,660,655
계속사업이익	21,375	18,663	97,476	388,497	476,529
중단사업이익	-	-	-	51,273	30,905
연결총당순이익	21,375	18,663	97,476	439,770	507,434
지배회사지분순이익	(15,527)	69,224	42,573	232,164	344,436
비지배지분순이익	36,902	(50,561)	54,903	207,606	162,998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원)	(157)	772	478	2,656	5,306
기본주당순이익(원)	(157)	772	478	2,588	3,835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원)	(157)	772	478	2,655	5,304
희석주당순이익(원)	(157)	772	478	2,587	3,833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1	94	97	103	107

※ 비교표시된 상기 제48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K-GAAP 기준으로 작성된 제 48기 사업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50기, 제49기 및 제48기 연결재무정보는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해 소급 재작성된 것으로 공시된 제50기, 제49기 및 제48기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정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라. 임원현황 (등기임원)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직명	성명	성별	상근 여부	출생년월	주요경력		담당업무	제직기간	임기만료일	소유주식수		비고
					약력	학력				보통주	우선주	
대표이사	박지원	남	상근	1965년 03월	원) 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부회 장 현) (주)두산 부회장 전) 두산중공업(주) 사장	뉴욕대 경영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학사	CEO	13년 6개월	2017년 3월 28일	5,734	-	-
대표이사	한기선	남	상근	1951년 08월	원) 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전) 두산인프라코어(주) ME 사장	서울대 사회교육과 학사	COO	3년 4개월	2017년 3월 28일	7,000	-	-
사외이사	송경순	남	비상근	1951년 01월	원) 한국전문가건설링그룹 대표전문위원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 박사 미국 켈리포니아대 와튼경영대학 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감사위원	1년 4개월	2016년 3월 28일	-	-	-
사외이사	차동민	남	비상근	1959년 11월	원) 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대 법학과 학사	감사위원	1년 4개월	2016년 3월 28일	-	-	-
사외이사	백복현	남	비상근	1968년 08월	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부교수 전) 미국플로리다주립대학교 조교 수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미국 미시간대(엔아버) 경제학 석 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감사위원	1년 4개월	2016년 3월 28일	-	-	-

마. 사업현황

두산중공업(주)는 산업의 기초소재인 주단조에서부터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설비, 해수 담수화플랜트, 환경설비, 운반설비 등을 제작하여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 공급하고,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및 유럽, 아시아, 미주에 90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중속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원자력, 화력등의 발전설비를 제작하는 발전부문, 해수 담수화 플랜트 및 수처리 설비를 제작하는 Water부문, 운반설비 및 환경설비등을 제작·납품하는 산업부문, 조선용 기자재와 발전/제철/화공/시멘트 플랜트 등의 핵심소재 등을 공급 하는 주단부문, 토목·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부문 및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및 엔진 등을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 부문, 선박 및 발전소용 엔진을 생산하는 두산엔진부문, 토목·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두산건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사업부문	주요 제품
발전	원자력,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보일러, 터빈/발전기, BOP 등
Water	담수/수처리 설비
산업	운반, 환경설비 등
주단	주조품, 단조품, 금형공구강, 워크롤, Crankshaft
건설	Plant, 토목, 건축, 감리용역, APT건설 등
도소매업 등	원자재구매대행, 장비임대업 등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등

두산엔진	선박엔진 및 디젤, 원자력발전소용 저/중속엔진 등
두산건설	아파트, 주상복합, 상업용, 주거용건축물, 도로, 교량, 철도, CPE, 강교, 플랜트, 배열회수보일러 등

기타 상세사항은 두산중공업(주)의 2014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04.05.06	두산중공업(주)	46,515,572	59.70	-

※ 2004년 5월 6일 이후 최대주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77,912,503주) 기준 지분율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가 2011년 5월 3일 두산중공업 보유의 당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환 요청에 의거 교환되는 주식수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 2013년 2월 4일 이사회 결의 및 2013년 3월 29일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한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제3자배정방식)가 2013년 4월 17일 납입 완료되어 당사의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16일(납입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따라 지분율이 84.29%에서 80.96%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 1월 14일 효력 발생한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이 완료되어 지분율이 80.96%에서 59.70%로 변동되었습니다.

3.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두산중공업(주)	46,515,572	84.72%	-
	-	-	-	-
우리사주조합		3,966,837	7.22%	2011년 유상증자 취득 2013년 유상증자 취득

※ 상기 지분율은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55,185,231주에서 자기주식 278,067주를 제외한 54,907,164주로 「상법」 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임

2.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6,928	99.81%	65,399,919	19.23%	-

※ 사업연도 중에는 정확한 주주명부의 파악이 불가하여 2013년말 기준 현황을 기재하였으므로 상기 기재된 주주수 및 보유주식수 등의 내용은 현재 기준과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에 의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주주 우선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의결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p> <p>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인, 제휴회사, 국내의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당사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명부 폐쇄기간 조항을 삭제함 (단, 기준일은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임)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화번호 02-368-5800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oosanenc.com)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류	'14.01월	'14.02월	'14.03월	'14.04월	'14.05월	'14.06월
----	---------	---------	---------	---------	---------	---------

보통주	주 가	최 고	1,755	15,550	18,000	17,350	14,950	15,900
		최 저	1,685	13,600	13,800	14,650	13,500	13,400
		평 균	1,710	14,418	15,357	15,795	14,116	14,492
	거래량	최 고	398,182	117,537	60,904	50,758	23,123	48,378
		최 저	194,308	11,117	10,204	3,713	4,100	2,887
		월간거래량	1,816,664	696,448	646,040	263,600	208,256	306,251

※ 상기 기재된 내용 중 '14.02월 이후 기재분은 주식병합 완료된 사항이 반영됨.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		
양희선	남	1954.07	사장	등기임원	상근	CEO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전) (주)엔세이피 부사장	5,000	-	1년 2개월	2016.03.30
송정호	남	1960.01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CFO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현) 두산건설(주) 부사장	8,432	-	28년 6개월	2016.03.30
이종백	남	1950.08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4년 3개월	2016.03.30
함상문	남	1954.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 장	-	-	1년 3개월	2016.03.30
김창섭	남	1956.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전) 국제공무원교육원 원장 현) 예일세무법인 대표	-	-	2년 3개월	2015.03.30
최종원	남	1958.10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1년 3개월	2016.03.30
박용현	남	1943.09	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	12,675	-	-	-
박정원	남	1962.03	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	281,873	-	-	-
박태원	남	1969.01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기자재 사업 COO	-	149,459	-	-	-
정민철	남	1957.04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텍스콘BU 담당	-	5,000	-	-	-
이병화	남	1954.08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BG 담당	-	5,900	-	-	-
이동규	남	1957.08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HRSG BG 담당	-	2,600	-	-	-
오병삼	남	1960.03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인프라BG 담당	-	5,912	-	-	-
신호선	남	1962.07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메카텍BG 담당	-	5,900	-	-	-
김진호	남	1958.03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도시정비/분양담당	-	5,900	-	-	-
조성준	남	1959.08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지원 담당	-	5,900	-	-	-
김용만	남	1960.1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CPE사업총괄 담당	-	5,900	-	-	-
오창석	남	1962.09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부문 담당	-	5,900	-	-	-
김진철	남	1965.1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담당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6,300	-	3년 1개월	-
박용대	남	1956.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OSS PM담당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700	-	1년 7개월	-
최갑수	남	1961.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RSG PM/생산 담당	-	2,650	-	-	-
박홍재	남	1963.0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BG 기획/PM담당	-	3,600	-	-	-
이태규	남	1963.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프라BG PM2담당	-	5,900	-	-	-
장영호	남	1963.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사업담당	-	5,900	-	-	-
주영철	남	1968.0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자재 지원담당	경성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100	-	2년 3개월	-
안상한	남	1958.1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영업담당	-	5,900	-	-	-
김학규	남	1959.04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영업담당	-	5,918	-	-	-
김갑일	남	1962.05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RSG 영업/설계 담당	-	1,700	-	-	-
김경인	남	1962.05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PE영업1담당	-	3,500	-	-	-
윤혁	남	1963.09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PE영업2담당	-	5,970	-	-	-
유용진	남	1963.1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외주/구매/지원담당	-	4,500	-	-	-
오상현	남	1964.0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OSS설계/PM담당	KAIST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	-	-	1년	-

박광조	남	1964.08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PE설계/PM담당	-	4,100	-	-	-
조우성	남	1964.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민자사업담당	-	4,670	-	-	-
곽승환	남	1965.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ontroller담당	-	5,975	-	-	-
이대석	남	1967.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프라BG 기획/PM1담당	-	3,500	-	-	-
이재용	남	1968.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략담당	-	5,900	-	-	-
김동철	남	1969.06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R/두산Way 담당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5,900	-	2년 3개월	-

2. 직원 현황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타	합계				
건축BG	남	300	31	-	331	11.7	12,858,525	38,848	-
건축BG	여	18	-	-	18	8.2	510,977	28,388	-
인프라BG	남	248	120	-	368	8.9	13,698,307	37,224	-
인프라BG	여	9	-	-	9	10.8	252,220	28,024	-
메카텍BG	남	370	5	-	375	8.4	11,393,838	30,384	-
메카텍BG	여	15	-	-	15	3.7	372,533	24,836	-
HRSG BG	남	218	14	-	232	12.8	10,011,706	43,154	-
HRSG BG	여	22	-	-	22	3.4	461,398	20,973	-
렉스콘BU	남	102	-	-	102	12.6	3,272,662	32,085	-
렉스콘BU	여	7	-	-	7	7.9	95,326	13,618	-
공통부문	남	249	19	-	268	10.0	11,417,649	42,603	-
공통부문	여	46	5	-	51	6.8	1,377,811	27,016	-
합계		1,604	194	-	1,798	10.0	65,722,951	36,553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사외이사 포함)	6	15,000	-

※ 201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승인 금액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임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보수한도는 없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	-----	------	-----------	----

등기이사	2	355,958	177,979	-
사외이사	1	31,500	31,5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3	94,500	31,500	-
계	6	481,958	80,326	-

※ 2014년 6월 30일 현재 이사회는 총 6명(등기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산정기준 및 방법
-	보수총액 : 해당사항 없음 보수산정 기준 및 방법 급여, 성과급, 퇴직금: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개요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2	11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계	2	11	-

당사는 수차에 걸쳐 임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자기 주식교부 및 차액보상방법 중 행사시점의 이사회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하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해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임, 퇴직한 경우 행사가능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②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는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는 바, 동 보상원가 산정시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무위험이자율(%(주1))	기대행사기간	예상주가변동성(%)	기대배당수익율(%)
2006.02.27(7차)	3.94	3년	0.6	-
2007.03.16(8차)	4.95	3년	0.7	-
2008.03.21(9차)	5.20	3년	0.6	-
2009.03.27(10차)	3.71	3년	0.7	3.3
2010.03.26(11차)	3.82	3년	0.6	4.3
2011.03.25(12-1차)	3.66	3년	0.6	2.7
2011.03.25(12-2차)	3.66	3년	0.6	2.7
2012.03.30(13차)	3.59	3년	0.4	1.7
2014.03.28(14차)	2.89	3년	0.4	-

(주1) 무위험이자율은 부여일 현재 3년만기 국공채의 유통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상세현황

(기준일 : 2014년 08월 18일)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송정호	등기입원	2006.02.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570	-	-	570	'09.02.27 ~ '16.02.26	90,000
이병화	미등기입원	2006.02.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460	-	-	460	'09.02.27 ~ '16.02.26	90,000
김진호	미등기입원	2007.03.16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0.03.16 ~ '17.03.15	125,000
송정호	등기입원	2007.03.16	신주교부 외	보통주	1,600	-	-	1,600	'10.03.16 ~ '17.03.15	125,000
오병삼	미등기입원	2007.03.16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0.03.16 ~ '17.03.15	125,000
이병화	미등기입원	2007.03.16	신주교부 외	보통주	370	-	-	370	'10.03.16 ~ '17.03.15	125,000
김진호	미등기입원	2008.03.21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1.03.21 ~ '18.03.20	128,000
송정호	등기입원	2008.03.21	신주교부 외	보통주	1,490	-	-	1,490	'11.03.21 ~ '18.03.20	128,000
안상한	미등기입원	2008.03.21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1.03.21 ~ '18.03.20	128,000
오병삼	미등기입원	2008.03.21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1.03.21 ~ '18.03.20	128,000
이병화	미등기입원	2008.03.21	신주교부 외	보통주	360	-	-	360	'11.03.21 ~ '18.03.20	128,000
김학규	미등기입원	2009.03.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265	-	-	265	'12.03.27 ~ '19.03.26	62,000
송정호	등기입원	2009.03.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2,005	-	-	2,005	'12.03.27 ~ '19.03.26	62,000
오병삼	미등기입원	2009.03.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270	-	-	270	'12.03.27 ~ '19.03.26	62,000
오창석	미등기입원	2009.03.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265	-	-	265	'12.03.27 ~ '19.03.26	62,000
이병화	미등기입원	2009.03.27	신주교부 외	보통주	275	-	-	275	'12.03.27 ~ '19.03.26	62,000
송정호	등기입원	2010.03.26	신주교부 외	보통주	3,330	-	-	3,330	'13.03.26 ~ '20.03.25	64,000
오병삼	미등기입원	2010.03.26	신주교부 외	보통주	1,480	-	-	1,480	'13.03.26 ~ '20.03.25	64,000
김학규	미등기입원	2010.03.26	신주교부 외	보통주	1,470	-	-	1,470	'13.03.26 ~ '20.03.25	64,000
조성준	미등기입원	2010.03.26	신주교부 외	보통주	740	-	-	740	'13.03.26 ~ '20.03.25	64,000
송정호	등기입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2,000	-	-	2,000	'14.03.25 ~ '21.03.24	55,000
오병삼	미등기입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2,240	-	-	2,240	'14.03.25 ~ '21.03.24	55,000
정민혁	-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2,480	-	-	2,480	'14.03.25 ~ '14.06.24	55,000
곽승환	미등기입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21.03.24	55,000

김학규	미등기임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21.03.24	55,000
민병소	-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14.06.24	55,000
이재용	미등기임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21.03.24	55,000
이제두	-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14.06.24	55,000
전병훈	-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1,090	-	-	1,090	'14.03.25 ~ '14.06.24	55,000
한상조	계열회사 임원	2011.03.25	신주교부 외	보통주	710	-	-	710	'14.03.25 ~ '14.06.24	55,000
이병화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6,660	-	-	6,660	'15.03.30 ~ '22.03.29	50,000
김진철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6,030	-	-	6,030	'15.03.30 ~ '22.03.29	50,000
송정호	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8,470	-	-	8,470	'15.03.30 ~ '22.03.29	50,000
신호선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8,870	-	-	8,870	'15.03.30 ~ '22.03.29	50,000
오병삼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9,740	-	-	9,740	'15.03.30 ~ '22.03.29	50,000
곽승환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940	-	-	2,940	'15.03.30 ~ '22.03.29	50,000
김용만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김진호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720	-	-	2,720	'15.03.30 ~ '22.03.29	50,000
김학규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서정일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안상환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오창석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윤혁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이기철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장영호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조계성	미등기임원	2012.03.30	신주교부 외	보통주	2,860	-	-	2,860	'15.03.30 ~ '22.03.29	50,000
양희선	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8,900	-	-	8,900	'17.03.28 ~ '24.03.27	17,000
정민철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1,700	-	-	1,700	'17.03.28 ~ '24.03.27	17,000
오창석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이동규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1,500	-	-	1,500	'17.03.28 ~ '24.03.27	17,000
김갑일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김경인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김동철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김지수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박광조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서정일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엄지봉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오상현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유용진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이대식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조우성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최종성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황승찬	미등기임원	2014.03.28	신주교부 외	보통주	900	-	-	900	'17.03.28 ~ '24.03.27	17,000

※ 신주교부 외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중 선택

VI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 변경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1.11.3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11.12.13~2012.6.12까지 6개월) 동안 제한	※ 2011.12.1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2011.12.1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2012.11.1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한유주택 보증금액: 850억원	
2012.12.05	조회공시 요구(품문 또는 보도)	요구내용: 네오트랜스(주) 지분매각 추진설 답변: 미확정	2013.01.04 미확정 제공시 2013.07.03 미확정 제공시 2014.01.02 미확정 제공시
2012.12.1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계약자 보증금액: 571억원	
2012.12.2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거래상대방: (주)두산 거래금액: 1분기 82억원, 2분기 99억원, 3분기 94억원, 4분기 75억원 거래내역: 정보자원 용역계약, IT투자, SW유지 보수, 물류 운송/하역 등 아웃소싱 계약 등	
2013.08.0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일산제니스 분양 계약자 보증금액: 7,101억원	
2013.09.2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해운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보증금액: 405억원	
2013.10.24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결정)	처분예정주식수: 3,958,292주 목적: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 참여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매수청구권(콜옵션) 부여	
2013.10.24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처분예정주식수: 3,958,292주 목적: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 참여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매수청구권(콜옵션) 부여	주식병합으로 395,829주로 변경 2014.02.17 41,800주 처분 2014.03.14 35,400주 처분 2014.06.12 43,000주 처분
2013.11.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아이엔티디씨 보증금액: 1,273억원	
2013.12.1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아이엔티디씨 보증금액: 2,703억원	
2013.12.30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청암프로젝트(주) 보증금액: 500억원	

2014.01.13	전환가액 ·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보통주 주식병합(자본감소)에 따른 조정 전환가액 : 5,000원 → 50,000원 행사가액 : 5,000원 → 50,000원 행사비율 : 100% → 10%	2014.02.24 정정공시 내용 일부 정정
2014.01.1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2013년 하반기 운영현황 - 2014년 운영계획	
2014.01.15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변경원인 : 주식병합에 따른 수량 변경	
2014.01.15	합병등 종료보고서	(주)텍스콘과의 합병 종료	
2014.01.15	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탈퇴	(주)텍스콘을 흡수합병하여 주요종속회사에서 탈퇴	
2014.02.0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일산제니스 분양계약자 보증금액: 3,448억원	
2014.02.06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013년 영업(잠정)실적 - 매출액 : 2,355,215백만원 - 영업이익 : 57,370백만원 - 세전이익 : -71,935백만원 - 순이익 : -60,325백만원	
2014.02.13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레이스이앤디 보증금액: 1,000억원	
2014.02.13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거래상대방: (주)두산 사유: 2013년도 일괄공시 중 4분기 계획 대비 거래금액 20% 이상 감소(기존 75억원에서 56억원으로 감소)	
2014.02.24	전환가액 ·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전환가액 : 50,000원 → 35,000원 행사가액 : 50,000원 → 35,000원 행사비율 : 10% → 14.28571%	
2014.02.25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대만 Tung Hsiao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용 HRSG NTP 접수 계약금액 : 약 1,402억원	
2014.02.28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계약명 : 춘천연수원 설계 및 신축공사(T/K) 계약금액 : 630억원	
2014.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일시: 3/28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지하강당	
201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입시)	제3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관련 설명자료 -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경영참고사항	
2014.03.20	감사보고서제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 감사의견: 적정	
2014.03.21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일시: 2014.03.24~26 (3일간) 장소: 국내(서울 여의도)	
2014.03.28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2014.03.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양희선 사장 등 총 17명, 24,700주 (행사가액 17,000 원/주) 부여	

2014.03.2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포유젠 보증금액: 1,300억원	
2014.03.2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이리스제일차(주) 보증금액: 500억원	
2014.04.02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계약명: 대만 Tung Hsiao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용 HRSG 계약금액 : 약 1,106억원	
2014.04.04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아이앤티디씨 보증금액: 4,103억원	
2014.04.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진행사항 : 공정율 15.02%	
2014.04.2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2014.05.02~2016.05.01까지 2년) 동안 제한	※ 2014.05.0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2014.04.24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결산실적 공시예정일 : 2014.04.28	
2014.04.28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4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 매출액 : 518,450백만원 - 영업이익: 23,383백만원 - 세전이익: -27,479백만원 - 순이익 : -24,745백만원	
2014.05.0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2014.05.0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말레이시아 Prai CCGT Project 진행사항 : 공정율 77.9%	
2014.05.13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레이스이앤디 보증금액: 1,000억원	
2014.06.12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일시: 2014.06.17~19 장소: 해외(홍콩, 싱가포르)	
2014.06.30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계약명 :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금액 : 650억원	
2014.06.30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주)레이스이앤디 보증금액: 1,000억원	
2014.07.0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네오트렌스(주) 지분 매각과 관련 확정된 사항 없으나, 주요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	※ 2012.12.05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4.07.21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결산실적 공시예정일 : 2014.07.23	
2014.07.23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4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 - 매출액 : 593,520백만원 - 영업이익: 32,398백만원 - 세전이익: -26,173백만원 - 순이익 : -23,922백만원	
2014.07.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2014년 상반기 운영현황 - 2014년 하반기 운영계획	
2014.07.3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요구내용: 전환사채 발행 추진설 답변: 미확정	
2014.08.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관련사항(자율공시)	2013 두산건설 CSR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38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1.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감사차익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8기 재무제표 승인 감사차익 중 1,883,992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정관일부변경 : 상법 개정 반영 등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양희선 사장 등 총 17명, 24,700주 (행사가액 17,000 원/주) 부여 승인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2013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2013.12.13)	1.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대상 : 기명식 보통주 496,667,079주 - 방법: 주식병합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액의 보통주 1주로 병합) 정관일부변경 : 렉스콘 합병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등	
2013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2013.06.21)	1.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양희선	
2013년 임시주주총회 (2013.03.29)	1. 영업양수의 건 2. 액면미달 신주발행 승인의 건	두산중공업(주) HRSG 사업 양수 최저발행가: 2,130원 / 발행기간 : 3개월	
제37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9)	1.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액면미달 신주 발행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7기 재무제표 승인 최저발행가: 2,130원 / 발행기간 : 3개월 정관일부변경 : 목적사업 변경 외 사내이사 : 송정호 / 사외이사 : 이종백, 함상문, 최종원 감사위원 : 함상문, 최종원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제36기 정기주주총회 (2012.03.30)	1.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승인의 건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변경 : 목적사업 변경 외 사내이사 : 박용현, 사외이사 : 김창섭 감사위원 : 김창섭, 최정수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한상조 상무 7,100주(행사가 5,500원) 최종일 사장 등 총 30명, 1,440,100주 (행사가액 5,000 원/주) 부여 승인	

제35기 정기주주총회 (2011.03.25)	1.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배당 : 100 원/주) 정관일부변경 : 부사장 선임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외 사내이사 : 송정호 감사위원 : 백창훈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김기동 등 총 16명, 216,900주 (행사가액 5,500 원/주) 부여 승인	
2010년 임시주주총회 (2010.09.28)	1. 합병계약 승인의 건 2. 정관개정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두산건설(주)가 두산메카텍(주)를 흡수 합병 정관 제2조(목적) 의 개정(목적사업추가) 사내이사: 김영식, 사외이사: 백창훈 선임	
제34기 정기주주총회 (2010.03.26)	1.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5. 자본 감소의 건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배당 : 150 원/주) 사내이사 : 박정원, 김기동 사외이사 : 이종백, 최정수 이사보수한도 : 150억원 승인 김기동 등 총 17명, 225,960주 (행사가액 6,400 원/주) 부여 승인 자기주식 3,179,523주 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승인	

3. 우발채무 등

1.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 당사가 피고인 사건 >					
대구고등법원	박장원의외283	당사의외 1	박장원의외283 분양대금반환 소송 청구	13,300,000	2심 계류 중
대법원	설천농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설천농장 손해배상 청구	15,861,717	3심 계류 중
중앙지방법원	김진만의외19	당사의외 1	김진만의외19 손해배상 청구	9,569,000	1심 계류 중
대구고등법원	김영희외41	당사의외 3	김영희외41 분양대금반환 청구	3,300,000	2심 계류 중
창원지방법원	대동기업외2	당사	4대 보험료 등 청구	300,000	1심 계류 중
합 계				42,330,717	
< 당사가 원고인 사건 >					
서울고등법원	당사	서울시	서울시 토지수용보상금	16,983,000	2심 계류 중
부산지방법원	당사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산서부버스터미널 공사대금 청구소송	9,037,764	1심 계류 중
장흥지방법원	장흥친환경	장흥군	장흥군 부당이득금 반환	4,319,892	2심 계류 중
창원지방법원	당사	현대단조	현대단조(주) 손해배상(기)	3,169,000	1심 계류 중
인천지방법원	HKC	펜테크, 벽산페인트	HKC 하자보수	100,000	1심 계류 중
서울행정법원	당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공장이전승인거부 처분취소	20,000	1심 계류 중
합 계				33,629,656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지배회사]

(기준일 : 2014.06.30)

(단위 : 백만원)

제출처	매수	금액	비고
은행	15	0	백지 15장
금융기관(은행제외)	8	6,049	백지 6장, 49백만원 1장, 60억원 1장
법인	17	30,000	백지 16장, 300억원 1장
기타	2	46	서울지방조달청 32백만원 1장, 인천지방조달청 14백만원 1장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연결 기준)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지급보증처
		보증건수	보증액	보증건수	보증액	
시행사 등	PF관련보증(주2)	4	397,150,000	5	408,590,000	국민은행 등
	담보대출	1	10,000,000	1	9,500,000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 등(주1)	15	1,129,088,629	16	896,019,889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비대출 보증 등(주1)	6	180,948,224	6	137,560,092	
	PF관련보증(주2)	2	11,434,000	2	15,614,000	
SOC 사업	자금보증의무(주1)	12	239,793,700	12	233,493,700	
동부건설(주) 등	공사이행 상호보증	6	751,093,665	6	752,141,587	건설공제조합 등
강남순환도로(주) 등	사업이행 보증	17	201,371,824	8	415,964,555	

(주1)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2,799,838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회사의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상기의 보증 내역 중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시행사 등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사업지역	채권기관 종류	대출잔액	보증한도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비고
울산광역시	KTB증권	32,000,000	41,600,000	연대보증	2014.04.10~2014.07.10	전기단기사채	울산대현동

충청남도	신영증권 외	50,000,000	65,000,000	연대보증	2014.06.20~2014.09.19	전기단기사채	천안청당동
경기도	우리은행 외	123,500,000	160,550,000	연대보증	2008.03.31~2014.11.30	기타 Loan	화성반월
경기도	메리츠증권증권	100,000,000	130,000,000	연대보증	2014.06.30~2014.09.30	전기단기사채	용인삼가
포항시	신한은행 외	7,447,000	7,447,000	연대보증	2010.03.26~2025.12.31	기타 Loan	포항신항
대전시	하나은행	3,987,000	3,987,000	연대보증	2004.05.06~2024.05.06	기타 Loan	대전천변
합 계		316,934,000	408,584,000				

이외에 연결회사는 주택건설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주)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각 단위)

보증회사	피보증회사	보증액		내용
건설공제조합	연결회사	KRW	1,816,454,065	공사이행보증 등
대한주택보증(주)	연결회사	KRW	716,429,370	분양이행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연결회사	KRW	139,023,285	하자보수이행보증 등
동부건설(주) 등	연결회사	KRW	474,608,383	공사이행 상호연대보증
외환은행	연결회사	USD	64,813,330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EUR	1,904,907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AUD	5,000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USD	2,832,109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EUR	818,542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JPY	1,013,350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USD	178,111	하자보증
우리은행	연결회사	USD	54,776,195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EUR	1,039,644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USD	3,123,286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EUR	1,200,558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JPY	723,470,000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AUD	110,000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USD	1,168,433	하자보증
하나은행	연결회사	USD	58,197,956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USD	17,262,940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EUR	1,331,713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JPY	8,486,950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GBP	270,000	수입신용장 발행
한국산업은행	연결회사	USD	29,051,564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EUR	665,769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USD	15,008,376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EUR	3,511,814	수입신용장 발행
	연결회사	JPY	5,883,300	수입신용장 발행
한국수출입은행	연결회사	USD	53,152,139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EUR	2,802,400	외화지급보증
	연결회사	SAR	9,000,000	외화지급보증
자본재공제조합	연결회사	KRW	111,383,164	원화지급보증
Asia Commercial Bank	연결회사	VND	209,518,560,000	수입신용장 발행
신한은행	연결회사	VND	52,418,724,148	수입신용장 발행

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금융기관등과의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구분	한도액	사용액	잔액
국민은행	차입 한도 약정	505,088	505,088	-
신한은행	당좌차월 한도 약정	7,000,000	-	7,000,000
	차입 한도 약정	10,819,422	10,819,422	-
	외화차입 한도	3,382,186	3,382,186	-
기업은행	당좌차월 한도 약정	10,000,000	10,000,000	-
	차입 한도 약정	12,000,000	12,000,000	-
외환은행	당좌차월 한도 약정	10,300,000	5,300,000	5,000,000
	차입 한도 약정	77,300,000	77,300,000	-
	외화차입 한도	5,881,217	5,881,217	-
우리은행	차입 한도 약정	242,000,000	238,000,000	4,000,000
	당좌차월 한도 약정	-	477,247	(477,247)
	받을어음할인	323,087	323,087	-
	외화차입 한도	17,813,136	17,813,136	-
하나은행	차입 한도 약정	70,000,000	70,000,000	-
	외화차입 한도	7,343,120	7,343,120	-
광주은행	차입 한도 약정	30,000,000	30,000,000	-
한국산업은행	차입 한도 약정	50,000,000	50,000,000	-
	외화차입 한도	10,672,753	10,672,753	-
농협	당좌차월 한도 약정	4,000,000	1,933,408	2,066,592
	차입 한도 약정	30,000,000	30,000,000	-
건설공제조합	차입 한도 약정	24,214,555	24,214,555	-

NH농협증권	차입 한도 약정	30,000,000	30,000,000	-
우리종합금융	차입 한도 약정	6,000,000	6,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차입 한도 약정	48,110,687	48,110,687	-
	외화차입 한도	2,028,800	2,028,800	-
대한주택보증	차입 한도 약정	7,266,666	7,266,666	-
라유니온유한회사	차입 한도 약정	35,000,000	35,000,000	-
두산이엔씨제일차 주식회사	차입 한도 약정	110,000,000	110,000,000	-
합 계		861,960,717	844,371,372	17,589,345

라. 연결실체 내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지배회사, 주요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음 (연결실체 내 채무인수약정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연결 기준)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분양대금관련 28,261백만원, 공사대금관련 4,400백만원 및 하자보수관련 19,545백만원 등 총 74,255백만원의 재판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으나, 장기미지급금 등(4,975백만원)으로 채무제표에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동 소송으로부터 중요한 추가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어음 26매가 신분당선(주) 등에 백지수표 16매가 대한주택보증(주)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관련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 후 인식한금융부채는 323백만원입니다.

라. 연결회사는 전기 중 본사사옥을 매각한 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기간은 15년입니다. 리스료는 매 60개월 마다 해당 리스기간 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을 누적연복리로 적용하여 증액되며, 연결회사가 당반기에 인식한 리스료는 4,802,400천원(전반기 : 2,598,312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운용리스계약의 미래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년 미만	9,604,800	9,604,800
1년 이상~5년 이하	40,102,066	39,470,991
5년초과	101,320,262	106,753,737
합 계	151,027,128	155,829,528

연결회사는 리스기간개시일로부터 84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리스자산을 직접 혹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 의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리스계약이외에 연결회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계약의 기간은 3~5년이며, 대부분의 리스계약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시장가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약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재무적 지원의 내역 및 최대손실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조화기업명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계정명 또는 제공한 재무적 지원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최대노출액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주1)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90,000,000	90,000,000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주2)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20,000,000	20,000,000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 (주3)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63,000,000	63,000,000
두산이엔씨제일차주식회사(주4)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110,000,000	110,000,000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주5)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80,000,000	80,000,000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 (주6)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100,000,000	100,000,000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주7)	대출 원리금 등 자금보충의무	-	80,000,000	80,000,000

(주1)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는 지배회사가 보유하는 연결대상종속회사(두산큐백스(주)) 지분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90,000백만원입니다.

(주2)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SOC사업의 미래 공사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20,000백만원입니다.

(주3)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청주지웰2차의 미래 공사채권 지분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63,000백만원입니다. 디에스솔밭제일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일부 및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4) 두산이엔씨제일차주식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110,000백만원입니다..

- (주5)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해운대 AID 재건축 사업의 미래 공사채권을 유동화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 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80,000백만원입니다.
- (주6)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창원1, 2공장 후순위, 청주2차유동화 2중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100,000백만원입니다.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일부 및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7)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는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답십리16, 해운대센텀, 오송센티움 사업의 미래 공사채권 및 해운대AID 유동화 2중 수익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ABS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기초자산의 규모는 유동화회사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80,000백만원입니다.

마. 중요 약정사항

연결회사는 시공사로서 일산제니스 및 해운대제니스 건설형 공사에 대하여 시행사인(주)아이앤티디씨 및 (주)대원플러스건설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하는 주택분양매매계약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보장기간인 2년~3년 이후 연결회사에 매매보장을 신청한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자가 매매보장을 신청할 가능성 및 보장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익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내 용	당반기말		전기말		지급보증처
		보증건수	보증액	보증건수	보증액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대출 보증	3	115,665,862	3	132,182,098	한국증권금융 등

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각 단위)

보증회사(*)	피보증회사	보 증 액		내 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결회사	USD	3,374,450	공사이행보증
	연결회사	EUR	2,883,434	공사이행보증
농협중앙회	연결회사	EUR	6,708,800	공사이행보증
Union National Bank	연결회사	USD	439,800	공사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연결회사	USD	17,904,055	공사이행보증
외환은행	연결회사	USD	28,253,000	공사이행보증
	연결회사	EUR	2,099,000	공사이행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연결회사	USD	700,000	공사이행보증
	연결회사	EUR	15,337,323	공사이행보증

(*) 연결회사의 지배회사인 두산중공업(주)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사. 영업환경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 유동성 급락과 실업증대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회사의 영업기반인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제위기 및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행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일반기업보다 클 수 있으며,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 통상임금 판결 관련 사항

통상임금에 관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신의칙 위배에 대한 최선의 법률적 판단 결과 관련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이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담보제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보증금액	설정금액
우리은행	종속회사및관계회사투자	236,903,019	31,776,194
	투자부동산		30,912,000
외환은행	유형자산	85,707,725	90,500,000
한국산업은행	유형자산	60,672,753	67,500,000
	종속회사및관계회사투자		47,038,543
국민은행	유형자산	505,088	2,772,000
대한주택보증	장기투자증권	7,266,666	9,294,974
라유니온유한회사	투자부동산	35,000,000	45,500,000
그랜드제팔차주식회사	유형자산	20,000,000	26,000,000
두산이엔씨제일차	유형자산	110,000,000	140,300,000
하나은행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77,343,120	153,000,000
파인트리시티제일차	유형자산	100,000,000	130,000,000
디에스슬밭제일차	유형자산	63,000,000	104,000,000
디에스창원제일차	유형자산	10,000,000	13,000,000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매출채권	5,400,000	6,974,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를 우리투자증권(주)에 신탁하고 그랜드제팔차주식회사 및 디에스창원제일차로부터 각각 20,000백만원 및 1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신탁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은 244,793백만원 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장기투자증권 중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등(장부금액 38,113,966천원)의 주식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 해당 PF 대주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관계회사투자 중 신분당선(주)(장부금액 56,488,383천원), 함안산업단지(주)(장부금액 344,412천원) 주식은 해당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 해당 PF 대주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 유동화채무

(1) 연결회사는 장래에 회수할 공사대금 등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유동화회사는 양수자산을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하였는 바, 유동화채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잔액	270,000,000	306,800,000
발생액	533,000,000	620,000,000
지급액	(370,000,000)	(656,800,000)
기말잔액	433,000,000	270,000,000

(2) 상기 유동화채무와 관련한 주요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신탁원본액	기간	할인율(%)
두산큐백스제일차유한회사	90,000,000	2014.04.28 ~ 2016.04.26	7.50
디에스강남분당유한회사	40,000,000	2014.03.31 ~ 2014.09.30	8.97
디에스솔밭제일차주식회사(주1)	63,000,000	2014.04.09 ~ 2014.07.08	9.59
디에스해운대프로젝트유한회사	80,000,000	2014.01.27 ~ 2014.07.25	8.21
파인트리시티제일차주식회사(주1)	100,000,000	2014.05.28 ~ 2014.07.08	7.00
엠디에스프로젝트유한회사	80,000,000	2014.06.30 ~ 2015.03.30	8.99

상기 유동화채무의 신탁원본액은 유동화채무 최초 발생액으로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1) 상기 유동화채무는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카. 재무출자자에 부여한 주식매도선택권

연결회사는 전기이전에 SOC 사업인 신분당선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출자자의 일원으로 재무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무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옵션계약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옵션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파생상품평가손실(당반기 518백만원, 전반기 잔액 없음)로 인식하였습니다.

프로젝트명	옵션종류	행사권자	행사가능기간	행사가격
-------	------	------	--------	------

신분당민간 투자사업	뜻읍선	① 한국산업은행 ② 농협 ③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2014.06.28 ~ 2015.06.27	주식매입단가+ 약정금 액
---------------	-----	------------------------------------	-------------------------	------------------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1. 제재현황

[지배회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2013년 7월 25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일)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1년 이내에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분	일자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대책	비고
두산건설(주)	'13.11.19	두산건설(주)	과징금 1백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1년 이내에 법 위반상태 해소 예정	과징금 전액 납부

※ 상기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발송일자 기준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14.05.02~2016.05.01까지 2년) 동안 제한한다는 행정처분을 2014년 4월 24일 통보 받았으며, 직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5월 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공구분할)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여 2014년 7월 24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충당부채 기준에 따라 당반기에 144억원을 비용 처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가 접수되면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단,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년 8월 중순 경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예상됨

당사는 국제적인 수준의 준법경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두산큐백스]

해당사항 없음

2.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지배회사, 주요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음

3.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	-----	------	--------------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증권시장공모)	2013년 04월 17일	390,000	운영자금 155,640백만원 차환자금 234,360백만원	운영자금(일반대출분할상환 14,300백만원, 거래업체 지급여음 141,340백만원) 차환자금(회사채상환 234,360백만원)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증권시장공모)	2011년 06월 29일	300,000	운영자금 150,000백만원 차환자금 150,000백만원	운영자금(CP상환 150,000백만원) 차환자금(회사채 상환 150,000백만원)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11년 05월 24일	100,000	운영자금 100,000백만원	운영자금 (CP상환 62,700백만원, 지급여음결제 37,300백만원)	-
전환사채 발행	2011년 05월 24일	100,000	운영자금 100,000백만원	운영자금(CP상환 100,000백만원)	-

4.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2013년 12월 16일	400,000	운영자금 400,000백만원	운영자금 (회사채상환 100,000백만원, PF상환 100,000백만 원, 일반대출상환 200,000백만원)	-

5. 합병등의 사후정보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과리율	실적	과리율	
두산메카텍	매출액	553,617	745,821	474,097	14.4%	463,311	37.9%	-
	영업이익	36,301	67,817	1,085	97.0%	10,125	85.1%	-
	당기순이익	-10,442	29,290	52,419	602.0%	9,426	67.8%	-

상기 예측 및 1차연도 실적 금액은 현재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K-IFRS)으로 기재가 불가하여 K-GAAP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차연도 실적 금액은 K-IFRS 기준임)

※ 과리발생원인

- 매출액: 예측 대비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지연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 영업이익: 매출액 감소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예상치와 과리가 생겼으나, 1차연도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및 현금흐름 개선됨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과리율	실적	과리율	
두산중공업의 HRSG 사업부문	매출액	151,622	318,136	180,178	18.8%	-	-	-
	영업이익	8,750	33,854	19,975	128.3%	-	-	-
	당기순이익	-	-	-	-	-	-	-

당기순이익 제외사유 : 사업양수도 시 가치평가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요인으로 제외함
(1차연도 : 4월 17일 합병 전 중공업 실적 포함)

※ 괴리발생원인

- 매출액: '13년 당해 수주분 공정 진행 촉진을 통한 매출액 증가
-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와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한 원가율 개선

X. 재무제표 등

1.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39 기 반기말 2014.06.30 현재
 제 38 기말 2013.12.31 현재
 제 37 기말 2012.12.31 현재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말	제 38 기말	제 37 기말
자산			
유동자산	2,597,992,750,044	2,534,635,565,937	2,427,888,055,093
현금및현금성자산	138,785,756,623	158,121,376,531	135,831,512,033
단기금융상품	0	304,296,297	87,565,789,149
단기투자증권	7,000,045,000	11,907,211,767	227,089,980
매출채권	583,546,886,053	601,825,664,316	601,413,506,968
미청구공사	715,136,776,511	655,210,121,583	375,779,432,941
미수금	159,180,860,818	165,941,145,717	127,513,866,208
선급금	98,418,089,651	34,652,775,004	44,210,064,515
단기대여금	577,054,793,689	591,950,625,613	723,683,066,322
파생상품평가자산	18,525,586,075	10,486,785,189	9,803,861,307
확정계약평가자산	738,789,994	89,261,784	22,799,364
재고자산	38,851,305,419	32,096,757,719	37,948,408,669
기타유동자산	260,753,860,211	272,049,544,417	283,888,657,637
비유동자산	2,410,336,840,848	2,415,780,342,826	1,637,855,078,404
장기금융상품	53,671,760	56,671,760	60,671,760
장기투자증권	132,298,711,841	135,688,458,067	229,685,226,486
관계회사투자	81,836,807,037	103,099,130,075	133,481,442,554
유형자산	1,052,107,543,743	1,066,221,082,187	878,559,252,425
무형자산	330,080,095,191	332,617,312,970	21,304,205,105
투자부동산	69,279,377,510	69,833,664,772	66,902,921,366
파생상품평가자산	1,954,040,808	897,142,080	1,813,739,625
확정계약평가자산	212,698,421	36,810,678	22,970,884
이연법인세자산	224,600,894,729	236,183,985,604	253,685,507,175
기타비유동자산	517,912,999,808	471,146,084,633	52,339,141,024
자산총계	5,008,329,590,892	4,950,415,908,763	4,065,743,133,497
부채			
유동부채	2,441,353,784,364	2,308,227,193,964	2,795,128,920,944

매입채무	663,711,949,783	668,862,854,256	719,068,695,712
단기차입금	659,780,196,447	559,275,632,063	570,934,756,888
유동화채무	363,000,000,000	270,000,000,000	176,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235,499,517,844	323,096,707,828	824,306,327,727
선수금	14,203,800,888	14,985,331,675	67,109,736,918
초과청구공사	217,532,642,818	231,672,202,240	205,236,408,060
미지급금	97,971,733,956	97,537,559,859	48,354,938,751
미지급비용	52,808,173,496	56,564,420,597	72,981,077,689
미지급법인세	42,207,508	876,981,116	1,071,245,172
파생상품평가부채	2,868,084,372	1,151,878,271	34,856,907,241
확정계약평가부채	7,924,025,357	3,119,787,599	4,687,258,431
기타유동부채	126,011,451,895	81,083,838,460	70,521,568,355
비유동부채	600,746,308,315	626,745,971,288	662,826,422,316
사채	181,489,283,430	235,682,240,694	199,067,974,342
장기차입금	117,691,615,820	153,156,355,382	61,100,137,632
장기유동화채무	70,000,000,000	0	130,800,000,000
퇴직급여채무	61,903,291,096	57,019,355,275	60,651,076,360
장기미지급금	5,008,058,008	3,363,880,000	4,803,378,750
파생상품평가부채	1,718,524,392	289,625,264	3,695,540,383
확정계약평가부채	963,907,880	519,951,403	58,906,429
기타총당부채	69,170,081,614	74,560,944,262	74,321,248,592
이연법인세부채	13,630,397,365	30,423,980,552	22,621,894,896
장기예수보증금	46,004,870,175	51,316,421,321	50,718,500,493
기타비유동부채	33,166,278,535	20,413,217,135	54,987,764,439
부채총계	3,042,100,092,679	2,934,973,165,252	3,457,955,343,260
자본			
지배회사소유주지분	1,966,229,498,213	2,015,442,743,511	607,787,790,237
자본금	399,562,515,000	2,882,897,910,000	877,335,095,000
자본잉여금	599,446,408,601	614,202,904	145,288,109,494
기타자본항목	(9,088,825,518)	(676,395,285,331)	1,703,683,9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8,650,625,195	160,800,047,505	25,505,405,470
이익잉여금	817,658,774,935	(352,474,131,567)	(442,044,503,665)
비지배지분	0	0	0
자본총계	1,966,229,498,213	2,015,442,743,511	607,787,790,237
부채와자본총계	5,008,329,590,892	4,950,415,908,763	4,065,743,133,497

연결 손익계산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593,520,483,163	1,111,970,221,762	619,092,337,044	1,185,580,059,949	2,355,214,661,307	2,377,208,030,439
매출원가	526,500,124,822	992,793,483,542	543,037,484,785	1,052,259,333,343	2,107,411,245,340	2,112,459,359,920
매출총이익	67,020,358,341	119,176,738,220	76,054,852,259	133,320,726,606	247,803,415,967	264,748,670,519
판매비와관리비	34,622,661,176	63,395,676,261	38,840,427,109	83,430,698,747	190,433,797,874	713,884,419,437
영업이익(손실)	32,397,697,165	55,781,061,959	37,214,425,150	49,890,027,859	57,369,618,093	(449,135,748,918)
금융수익	13,161,194,189	23,882,076,328	12,815,201,074	38,687,030,896	49,752,463,711	90,252,677,236
금융비용	43,781,920,956	88,869,724,915	50,733,600,475	113,553,998,799	190,924,494,652	267,452,937,918
기타영업외수익	13,979,259,807	16,430,276,985	9,318,793,768	63,032,893,934	98,976,274,697	37,275,486,950
기타영업외비용	31,562,252,300	39,891,489,126	22,375,474,050	32,505,882,777	55,642,059,056	191,924,794,217
지분법적용투자이익(손실)	(10,366,733,043)	(20,983,724,625)	(4,922,966,122)	(13,534,846,773)	(31,466,793,370)	(51,671,996,8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172,755,138)	(53,651,523,394)	(18,683,620,655)	(7,984,775,660)	(71,934,990,577)	(832,657,313,710)
법인세비용(수익)	(2,250,594,155)	(4,984,081,643)	(5,397,169,214)	(1,167,727,198)	(11,609,507,007)	(178,580,222,027)
당기순이익(손실)	(23,922,160,983)	(48,667,441,751)	(13,286,451,441)	(6,817,048,462)	(60,325,483,570)	(654,077,091,68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회사소유주지분	(23,922,160,983)	(48,667,441,751)	(13,286,451,441)	(6,817,048,462)	(60,325,483,570)	(654,077,091,683)
비지배지분	0	0	0	0	0	0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손실)	(466)	(949)	(275)	(206)	(137)	(3,699)
희석주당순이익(손실)	(466)	(949)	(275)	(206)	(137)	(3,699)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순이익(손실)	(23,922,160,983)	(48,667,441,751)	(13,286,451,441)	(6,817,048,462)	(60,325,483,570)	(654,077,091,683)
기타포괄손익	(2,790,205,184)	(2,149,422,310)	1,137,594,175	2,872,497,419	139,902,388,209	(4,902,231,00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0,536,648	(28,127,964)	(964,588,780)	(318,117,928)	(20,274,353,985)	(2,768,678,510)
파생상품평가손익	(889,128,084)	(746,961,575)	304,853,059	296,035,662	(512,534,099)	1,525,433,333
관계기업투자관련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변동	(603,595,237)	(368,511,739)	883,054,902	1,980,304,691	(38,159,109)	(2,424,677,990)
해외사업환산손익	(1,318,018,511)	(1,005,821,032)	914,274,994	914,274,994	(1,385,036,940)	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4,607,746,174	(1,234,307,836)
자산재평가이익	0	0	0	0	157,504,726,168	0
총포괄이익(손실)	(26,712,366,167)	(50,816,864,061)	(12,148,857,266)	(3,944,551,043)	79,576,904,639	(658,979,322,686)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회사소유주지분	(26,712,366,167)	(50,816,864,061)	(12,148,857,266)	(3,944,551,043)	79,576,904,639	(658,979,322,686)
비지배지분	0	0	0	0	0	0

연결 자본변동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자본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기초자본	877,335,095,000	145,170,570,094	1,234,946,152	29,173,328,637	213,266,895,854	1,266,180,835,737	0	1,266,180,835,737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654,077,091,683)	(654,077,091,683)	0	(654,077,091,68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2,768,678,510)	0	(2,768,678,510)	0	(2,768,678,510)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1,525,433,333	0	1,525,433,333	0	1,525,433,333
재평가이익	0	0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0	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0	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0	0
무상감자	0	0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0	0	0	0	0	0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117,539,400	468,737,786	0	0	586,277,186	0	586,277,186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0	0
관계기업투자관련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변동	0	0	0	(2,424,677,990)	0	(2,424,677,990)	0	(2,424,677,990)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0	0	0	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1,234,307,836)	(1,234,307,836)	0	(1,234,307,836)
결손금처리	0	0	0	0	0	0	0	0
2012.12.31 (기말자본)	877,335,095,000	145,288,109,494	1,703,683,938	25,505,405,470	(442,044,503,665)	607,787,790,237	0	607,787,790,237
기초자본	877,335,095,000	145,288,109,494	1,703,683,938	25,505,405,470	(442,044,503,665)	607,787,790,237	0	607,787,790,237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60,325,483,570)	(60,325,483,570)	0	(60,325,483,57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20,274,353,985)	0	(20,274,353,985)	0	(20,274,353,985)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512,534,099)	0	(512,534,099)	0	(512,534,099)
재평가이익	0	0	0	157,504,726,168	0	157,504,726,168	0	157,504,726,168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833,333,335,000	0	(454,994,331,900)	0	0	378,339,003,100	0	378,339,003,10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1,058,543,120,000	0	(486,929,835,200)	0	0	571,613,284,800	0	571,613,284,800
우선주발행	113,636,360,000	0	276,113,245,113	0	0	389,749,605,113	0	389,749,605,113
무상감자	0	0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1,768,002,116)	0	0	(11,768,002,116)	0	(11,768,002,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614,202,904	(525,490,502)	0	0	88,712,402	0	88,712,402
전환사채의전환	50,000,000	0	5,445,336	0	0	55,445,336	0	55,445,336
관계기업투자관련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변동	0	0	0	(38,159,109)	0	(38,159,109)	0	(38,159,109)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1,385,036,940)	0	(1,385,036,940)	0	(1,385,036,94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4,607,746,174	4,607,746,174	0	4,607,746,174
결손금처리	0	(145,288,109,494)	0	0	145,288,109,494	0	0	0
2013.12.31 (기말자본)	2,882,897,910,000	614,202,904	(676,395,285,331)	160,800,047,505	(352,474,131,567)	2,015,442,743,511	0	2,015,442,743,511
기초자본	877,335,095,000	145,288,109,494	1,703,683,938	25,505,405,470	(442,044,503,665)	607,787,790,237	0	607,787,790,237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6,817,048,462)	(6,817,048,462)	0	(6,817,048,46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318,117,928)	0	(318,117,928)	0	(318,117,928)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296,035,662	0	296,035,662	0	296,035,662
재평가이익	0	0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833,333,335,000	0	(454,994,331,900)	0	0	378,339,003,100	0	378,339,003,10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1,058,543,120,000	0	(486,929,835,200)	0	0	571,613,284,800	0	571,613,284,80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0	0
무상감자	0	0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1,768,002,116)	0	0	(11,768,002,116)	0	(11,768,002,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383,956,235	(347,295,366)	0	0	36,660,869	0	36,660,869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0	0
관계기업투자관련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변동	0	0	0	1,980,304,691	0	1,980,304,691	0	1,980,304,691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914,274,994	0	914,274,994	0	914,274,994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0	0	0	0
결손금처리	0	(145,288,109,494)	0	0	145,288,109,494	0	0	0
2013.06.30 (기말자본)	2,769,211,550,000	383,956,235	(952,335,780,644)	28,377,902,889	(303,573,442,633)	1,542,064,185,847	0	1,542,064,185,847
기초자본	2,882,897,910,000	614,202,904	(676,395,285,331)	160,800,047,505	(352,474,131,567)	2,015,442,743,511	0	2,015,442,743,511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48,667,441,751)	(48,667,441,751)	0	(48,667,441,75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28,127,964)	0	(28,127,964)	0	(28,127,964)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746,961,575)	0	(746,961,575)	0	(746,961,575)
재평가이익	0	0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0	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0	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0	0
무상감자	(2,483,335,395,000)	2,483,335,395,000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547,553,350	0	0	1,547,553,350	0	1,547,553,350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102,635,601	(46,570,188)	0	0	56,065,413	0	56,065,413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0	0
관계기업투자관련기타포괄손익에대한지분변동	0	0	0	(368,511,739)	0	(368,511,739)	0	(368,511,739)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1,005,821,032)	0	(1,005,821,032)	0	(1,005,821,032)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0	0	0	0
결손금처리	0	(1,884,605,824,904)	665,805,476,651	0	1,218,800,348,253	0	0	0
2014.06.30 (기말자본)	399,562,515,000	599,446,408,601	(9,088,825,518)	158,650,625,195	817,658,774,935	1,966,229,498,213	0	1,966,229,498,213

연결 현금흐름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9,538,557,428)	(392,411,302,585)	(501,749,727,396)	31,022,812,321
당기순이익(손실)	(48,667,441,751)	(6,817,048,462)	(60,325,483,570)	(654,077,091,683)
조정	105,483,955,046	70,936,629,429	147,932,299,378	833,058,789,176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65,820,173,306)	(380,594,759,283)	(433,505,215,345)	45,856,496,597
이자의수취	1,926,921,998	8,145,248,950	12,023,498,587	19,115,756,304
이자의지급	(70,837,164,744)	(84,773,687,814)	(168,073,396,466)	(194,165,177,579)
배당금의수취	82,799,830	123,025,221	123,616,671	1,456,548,171
법인세의납부	(1,707,454,501)	569,289,374	74,953,349	(20,222,508,665)
투자활동현금흐름	(28,073,206,744)	460,131,006,828	400,686,547,859	(190,959,185,284)
단기금융상품의감소	309,876,561	44,465,360,768	71,465,059,714	0
단기투자증권의처분	47,308,227,897	37,716,355,723	46,598,949,754	652,800,000
단기대여금의감소	117,232,770,023	44,887,924,819	119,338,717,702	279,175,547,46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처분	0	0	0	12,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감소	3,000,000	4,000,000	4,000,000	0
장기투자증권의처분	700,214,581	3,660,000,000	89,446,554,000	5,853,997,550
장기대여금의 감소	10,850,000	0	19,750,590	0
유형자산의처분	9,181,151,327	136,164,390,830	99,199,326,375	2,939,689,189
무형자산의처분	500,000,000	453,363,637	1,656,686,548	2,839,754,546
투자부동산의처분	0	56,476,398,106	56,476,398,106	664,920,000
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	3,545,976,007	5,301,792,196	11,395,764,502	8,629,918,488
사업결합및연결대상범위변동으로인한증가	0	411,384,621,955	411,727,380,450	0
단기금융상품의증가	(5,580,264)	0	(890,367,294)	(87,565,789,149)
단기투자증권의취득	(36,625,863,015)	(20,981,315,624)	(39,282,339,734)	0
단기대여금의증가	(148,459,561,523)	(189,261,944,045)	(380,167,329,898)	(351,623,737,057)
장기투자증권의취득	(6,224,825,890)	(3,176,611,340)	(17,042,730,000)	(28,963,122,000)
장기대여금의증가	0	(2,975,880,231)	(18,370,213,381)	0
관계회사투자주식의취득	(90,000,000)	0	(297,660,000)	0
유형자산의취득	(6,765,922,966)	(49,886,597,683)	(33,123,755,612)	(26,935,981,526)
무형자산의취득	(3,608,547,803)	(619,937,048)	(2,434,061,238)	(3,536,494,692)
투자부동산의취득	0	(376,530,557)	(376,530,557)	0
기타비유동자산의증가	(5,084,971,679)	(13,104,384,678)	(14,657,052,168)	(5,590,688,102)
재무활동현금흐름	88,362,443,719	89,233,199,225	123,372,424,434	(208,463,738,168)
단기차입금의증가	678,029,619,317	294,590,740,741	1,301,915,142,233	2,948,616,175,896
유동화채무의차입	463,000,000,000	200,000,000,000	620,000,000,000	330,000,000,016
유동성사채의차입	30,000,000,000	115,500,000,000	117,000,000,000	158,944,700,000
사채의발행	50,000,000,000	199,002,800,000	445,949,800,000	278,527,800,000
장기차입금의증가	0	44,850,142,154	140,065,502,360	50,000,000,000
장기유동화채무의차입	70,000,000,000	0	0	0
유상증자	0	378,339,003,100	768,088,608,213	0
자기주식의처분	1,582,294,850	0	0	0

단기차입금의상환	(576,456,055,530)	(467,217,911,253)	(1,515,913,936,215)	(2,906,730,188,287)
유동화채무의상환	(370,000,000,000)	(119,000,000,000)	(656,800,000,000)	(388,559,277,489)
유동성사채의상환	(224,094,230,000)	(387,653,221,230)	(698,320,500,000)	(468,420,8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1,474,464,440)	(61,670,046,518)	(61,670,046,518)	(43,394,487,862)
사채의상환	0	(80,740,305,653)	(195,641,570,000)	(99,134,077,174)
장기차입금의상환	0	(15,000,000,000)	(15,000,000,000)	0
전환사채의상환	(16,813,662,200)	0	(21,730,263,036)	(68,313,583,26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15,376,316,778)	0	(92,802,310,487)	0
자기주식의취득	(34,741,500)	(11,768,002,116)	(11,768,002,116)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으로인한효과	(86,299,455)	370,203,824	(19,380,399)	(168,057,5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19,335,619,908)	157,323,107,292	22,289,864,498	(368,568,168,684)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158,121,376,531	135,831,512,033	135,831,512,033	504,399,680,717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138,785,756,623	293,154,619,325	158,121,376,531	135,831,512,033

2. 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9 기 반기말 2014.06.30 현재

제 38 기말 2013.12.31 현재

제 37 기말 2012.12.31 현재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말	제 38 기말	제 37 기말
자산			
유동자산	2,518,967,315,888	2,421,651,265,230	2,369,703,846,119
현금및현금성자산	88,419,726,892	110,693,852,531	132,848,211,616
단기금융상품	0	0	70,657,593,190
단기투자증권	7,000,045,000	2,322,261,355	227,089,980
매출채권	576,141,314,308	560,651,047,487	564,903,267,132
미청구공사	707,233,480,654	651,469,727,259	375,779,432,941
미수금	157,751,242,307	165,245,817,394	127,507,567,032
선급금	95,409,571,638	34,147,024,256	44,202,519,597
단기대여금	577,054,793,689	591,783,767,733	723,506,623,202
파생상품평가자산	18,525,586,075	10,486,785,189	9,803,861,307
확정계약평가자산	738,789,994	89,261,784	22,799,364
재고자산	30,202,121,649	22,954,834,558	36,706,436,057
기타유동자산	260,490,643,682	271,806,885,684	283,538,444,701
비유동자산	2,390,322,951,459	2,324,134,430,555	1,540,136,098,799
장기금융상품	52,171,760	49,171,760	53,171,760
장기투자증권	132,288,711,841	135,603,349,577	229,592,152,408
종속회사및관계회사투자	305,308,448,928	417,187,728,430	388,949,699,355
유형자산	808,403,850,501	661,774,547,728	519,878,187,147

무형자산	331,560,783,884	333,278,369,393	23,565,316,906
투자부동산	69,279,377,510	67,680,941,040	64,621,660,008
파생상품평가자산	1,954,040,808	897,142,080	1,813,739,625
확정계약평가자산	212,698,421	36,810,678	22,970,884
이연법인세자산	224,714,166,039	238,548,541,207	261,054,345,158
기타비유동자산	516,548,701,767	469,077,828,662	50,584,855,548
자산총계	4,909,290,267,347	4,745,785,695,785	3,909,839,944,918
부채			
유동부채	2,357,292,025,454	2,201,432,748,221	2,726,128,781,291
매입채무	668,181,033,753	639,433,278,605	688,117,578,068
단기차입금	622,685,601,195	522,209,218,336	541,412,704,596
유동화채무	318,653,289,105	231,463,984,574	176,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235,499,517,844	323,096,707,828	824,306,327,727
선수금	13,930,804,148	12,502,777,295	66,589,666,906
초과청구공사	211,960,560,051	229,699,500,547	205,236,408,060
미지급금	97,822,820,966	102,550,215,945	42,978,263,616
미지급비용	51,944,323,975	55,408,068,023	71,899,860,018
미지급법인세	0	0	0
파생상품평가부채	2,868,084,372	1,151,878,271	34,856,907,241
확정계약평가부채	7,924,025,357	3,119,787,599	4,687,258,431
기타유동부채	125,821,964,688	80,797,331,198	70,043,806,628
비유동부채	535,991,855,141	534,977,682,933	578,667,668,809
사채	181,489,283,430	235,682,240,694	199,067,974,342
장기차입금	117,691,615,820	153,156,355,382	61,100,137,632
장기유동화채무	70,000,000,000	0	130,800,000,000
퇴직급여채무	57,481,061,949	51,538,983,433	53,958,105,682
장기미지급금	5,008,058,008	3,363,880,000	4,803,378,750
파생상품평가부채	1,718,524,392	289,625,264	3,695,540,383
확정계약평가부채	963,907,880	519,951,403	58,906,429
기타총당부채	68,473,767,881	73,953,544,036	74,330,362,942
기타비유동부채	33,165,635,781	16,473,102,721	50,853,262,649
부채총계	2,893,283,880,595	2,736,410,431,154	3,304,796,450,100
자본			
자본금	399,562,515,000	2,882,897,910,000	877,335,095,000
자본잉여금	613,659,384,215	614,202,904	150,339,248,385
기타자본항목	(9,088,825,518)	(676,395,285,331)	1,703,683,9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2,376,412,068	132,165,111,474	26,653,624,381
이익잉여금	859,496,900,987	(329,906,674,416)	(450,988,156,886)
자본총계	2,016,006,386,752	2,009,375,264,631	605,043,494,818

부채와자본총계	4,909,290,267,347	4,745,785,695,785	3,909,839,944,918
---------	-------------------	-------------------	-------------------

손익계산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570,876,298,412	1,075,944,891,648	570,449,114,295	1,107,560,211,326	2,188,154,435,493	2,229,066,382,563
매출원가	506,553,140,128	959,642,709,553	501,081,699,039	980,268,995,717	1,952,054,882,668	1,976,842,097,178
매출총이익	64,323,158,284	116,302,182,095	69,367,415,256	127,291,215,609	236,099,552,825	252,224,285,385
판매비와관리비	33,234,660,332	60,669,303,045	36,444,953,929	79,151,303,125	180,515,513,957	705,745,437,710
영업이익(손실)	31,088,497,952	55,632,879,050	32,922,461,327	48,139,912,484	55,584,038,868	(453,521,152,325)
금융수익	13,108,620,003	23,630,304,153	12,483,109,709	37,814,566,673	48,509,585,474	88,182,339,136
금융비용	43,245,020,207	87,547,459,736	50,291,074,605	112,650,280,625	189,607,973,967	265,503,617,906
기타영업외수익	13,229,009,450	15,679,075,821	9,272,868,113	62,970,134,941	98,840,964,255	36,868,443,472
기타영업외비용	29,757,488,865	37,849,795,437	22,288,647,797	32,363,626,921	55,210,509,216	190,870,907,06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576,381,667)	(30,454,996,149)	(17,901,283,253)	3,910,706,552	(41,883,894,586)	(784,844,894,688)
법인세비용(수익)	165,930,661	(1,058,223,299)	(5,066,796,494)	583,380,835	(8,207,591,630)	(169,998,152,531)
당기순이익(손실)	(15,742,312,328)	(29,396,772,850)	(12,834,486,759)	3,327,325,717	(33,676,302,956)	(614,846,742,157)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07)	(573)	(265)	100	(76)	(3,477)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07)	(573)	(265)	100	(76)	(3,477)

포괄손익계산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순이익(손실)	(15,742,312,328)	(29,396,772,850)	(12,834,486,759)	3,327,325,717	(33,676,302,956)	(614,846,742,157)
기타포괄손익	(868,591,436)	(780,762,058)	(662,292,343)	(25,360,969)	109,930,024,134	(1,625,556,58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0,536,648	(33,800,483)	(967,145,402)	(321,396,631)	(20,273,969,180)	(2,159,892,815)
파생상품평가손익	(889,128,084)	(746,961,575)	304,853,059	296,035,662	(512,534,099)	1,525,433,333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4,418,537,041	(991,097,102)
자산재평가이익	0	0	0	0	126,297,990,372	0
총포괄이익(손실)	(16,610,903,764)	(30,177,534,908)	(13,496,779,102)	3,301,964,748	76,253,721,178	(616,472,298,741)

자본변동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기초자본	877,335,095,000	150,221,708,985	1,234,946,152	27,288,083,863	164,849,682,373	1,220,929,516,373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614,846,742,157)	(614,846,742,15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2,159,892,815)	0	(2,159,892,815)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1,525,433,333	0	1,525,433,333
재평가이익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무상감자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0	0	0	0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117,539,400	468,737,786	0	0	586,277,186
합병으로인한증감	0	0	0	0	0	0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991,097,102)	(991,097,102)
결손금처리	0	0	0	0	0	0
2012.12.31 (기말자본)	877,335,095,000	150,339,248,385	1,703,683,938	26,653,624,381	(450,988,156,886)	605,043,494,818
기초자본	877,335,095,000	150,339,248,385	1,703,683,938	26,653,624,381	(450,988,156,886)	605,043,494,818
당기손이익(손실)	0	0	0	0	(33,676,302,956)	(33,676,302,95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20,273,969,180)	0	(20,273,969,180)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512,534,099)	0	(512,534,099)
재평가이익	0	0	0	126,297,990,372	0	126,297,990,372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833,333,335,000	0	(454,994,331,900)	0	0	378,339,003,10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1,058,543,120,000	0	(486,929,835,200)	0	0	571,613,284,800
우선주발행	113,636,360,000	0	276,113,245,113	0	0	389,749,605,113
무상감자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1,768,002,116)	0	0	(11,768,002,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614,202,904	(525,490,502)	0	0	88,712,402
합병으로인한증감	0	0	0	0	0	0
전환사채의전환	50,000,000	0	5,445,336	0	0	55,445,336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0	0	0	0	4,418,537,041	4,418,537,041
결손금처리	0	(150,339,248,385)	0	0	150,339,248,385	0
2013.12.31 (기말자본)	2,882,897,910,000	614,202,904	(676,395,285,331)	132,165,111,474	(329,906,674,416)	2,009,375,264,631

기초자본	877,335,095,000	150,339,248,385	1,703,683,938	26,653,624,381	(450,988,156,886)	605,043,494,818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3,327,325,717	3,327,325,71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321,396,631)	0	(321,396,631)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296,035,662	0	296,035,662
재평가이익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833,333,335,000	0	(454,994,331,900)	0	0	378,339,003,10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1,058,543,120,000	0	(486,929,835,200)	0	0	571,613,284,80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무상감자	0	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1,768,002,116)	0	0	(11,768,002,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383,956,235	(347,295,366)	0	0	36,660,869
합병으로인한증감	0	0	0	0	0	0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 소	0	0	0	0	0	0
결손금처리	0	(150,339,248,385)	0	0	150,339,248,385	0
2013.06.30 (기말자본)	2,769,211,550,000	383,956,235	(952,335,780,644)	26,628,263,412	(297,321,582,784)	1,546,566,406,219
기초자본	2,882,897,910,000	614,202,904	(676,395,285,331)	132,165,111,474	(329,906,674,416)	2,009,375,264,631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29,396,772,850)	(29,396,772,85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33,800,483)	0	(33,800,483)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746,961,575)	0	(746,961,575)
재평가이익	0	0	0	0	0	0
유상증자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사업결합으로인한신주발행	0	0	0	0	0	0
우선주발행	0	0	0	0	0	0
무상감자	(2,483,335,395,000)	2,483,335,395,000	0	0	0	0
자기주식거래	0	0	1,547,553,350	0	0	1,547,553,350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0	102,635,601	(46,570,188)	0	0	56,065,413
합병으로인한증감	0	14,212,975,614	0	20,992,062,652	0	35,205,038,266
전환사채의전환	0	0	0	0	0	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 소	0	0	0	0	0	0
결손금처리	0	(1,884,605,824,904)	665,805,476,651	0	1,218,800,348,253	0
2014.06.30 (기말자본)	399,562,515,000	613,659,384,215	(9,088,825,518)	152,376,412,068	859,496,900,987	2,016,006,386,752

현금흐름표

제 39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제 38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39 기 반기	제 38 기 반기	제 38 기	제 37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8,656,949,769)	(392,221,359,575)	(482,899,600,728)	40,839,441,029
당기순이익(손실)	(29,396,772,850)	3,327,325,717	(33,676,302,956)	(614,846,742,157)
조정	84,301,771,190	55,640,495,793	111,791,594,824	782,979,400,257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58,159,295,216)	(377,687,072,844)	(405,510,686,179)	60,347,974,440
이자의수취	1,754,197,477	7,167,669,762	10,743,765,780	17,102,434,994
이자의지급	(65,561,263,207)	(82,688,808,276)	(166,698,297,345)	(192,242,890,994)
배당금의수취	82,799,830	123,025,221	123,616,671	1,456,548,171
법인세의납부	(1,678,386,993)	1,896,005,052	326,708,477	(13,957,283,682)
투자활동현금흐름	(15,496,268,594)	430,624,641,659	381,586,255,752	(164,354,822,607)
단기금융상품의감소	309,876,561	44,387,004,677	70,657,593,190	0
단기투자증권의처분	28,434,138,426	0	214,760,000	652,800,000
단기대여금의감소	117,232,770,023	44,875,916,819	119,322,909,702	279,099,865,46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0	0	0	12,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감소	3,000,000	4,000,000	4,000,000	0
장기투자증권의처분	700,214,581	3,660,000,000	89,446,554,000	5,853,997,550
장기대여금의 감소	10,850,000	0	19,750,590	0
유형자산의처분	8,092,253	98,999,285,969	99,018,136,524	2,827,434,642
무형자산의처분	500,000,000	453,363,637	1,656,686,548	2,839,754,546
투자부동산의처분	0	56,405,329,921	56,405,329,921	0
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	3,545,976,007	5,076,792,196	11,170,764,502	8,353,305,443
사업결합으로인한증가	2,524,229,788	397,338,272,250	397,681,030,745	0
단기금융상품의증가	0	0	0	(70,657,593,190)
단기대여금의증가	(148,459,161,523)	(189,257,514,045)	(380,284,319,378)	(351,617,957,057)
장기투자증권의취득	(6,224,825,890)	(3,176,611,340)	(17,042,730,000)	(28,963,122,000)
장기대여금의증가	0	(2,975,880,231)	(18,247,193,901)	0
관계회사투자주식의취득	(90,000,000)	0	(297,660,000)	0
유형자산의취득	(5,297,909,338)	(11,227,267,086)	(31,019,401,728)	(16,473,903,016)
무형자산의취득	(3,608,547,803)	(617,248,048)	(2,431,372,238)	(3,748,811,892)
투자부동산의취득	0	(376,530,557)	(376,530,557)	0
기타비유동자산의증가	(5,084,971,679)	(12,944,272,503)	(14,312,052,168)	(5,020,593,102)
재무활동현금흐름	61,965,392,179	27,637,058,700	79,178,366,290	(172,904,790,766)
단기차입금의증가	649,443,263,246	276,590,740,741	1,276,735,047,223	2,936,094,123,604
유동화채무의차입	463,000,000,000	200,000,000,000	620,000,000,000	330,000,000,016
유동성사채의발행	30,000,000,000	115,500,000,000	117,000,000,000	0
사채의발행	50,000,000,000	199,002,800,000	445,949,800,000	437,472,500,000
장기차입금의증가	0	44,850,142,154	140,065,502,360	50,000,000,000
장기유동화채무의차입	70,000,000,000	0	0	0
유상증자	0	378,339,003,100	768,088,608,213	0
자기주식의처분	1,582,294,850	0	0	0
단기차입금의상환	(568,456,055,530)	(442,695,858,961)	(1,496,391,883,923)	(2,901,730,188,287)
유동화채무의상환	(375,810,695,469)	(187,118,192,817)	(695,336,015,426)	(345,478,277,795)
유동성사채의상환	(224,094,230,000)	(299,360,000,000)	(698,320,500,000)	(468,420,8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1,474,464,440)	(61,670,046,518)	(61,670,046,518)	(43,394,487,862)

사채의상환	0	(80,740,305,653)	(195,641,570,000)	(99,134,077,174)
장기차입금의상환	0	(15,000,000,000)	(15,000,000,000)	0
전환사채의상환	(16,813,662,200)	(11,211,785,686)	(21,730,263,036)	(68,313,583,268)
신주인수권부사채의상환	(15,376,316,778)	(77,081,435,544)	(92,802,310,487)	0
자기주식의취득	(34,741,500)	(11,768,002,116)	(11,768,002,116)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으로인한효과	(86,299,455)	137,118,713	(19,380,399)	(168,057,5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22,274,125,639)	66,177,459,497	(22,154,359,085)	(296,588,229,897)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110,693,852,531	132,848,211,616	132,848,211,616	429,436,441,513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88,419,726,892	199,025,671,113	110,693,852,531	132,848,211,616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및 연결회사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영업이익 표시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및 연결회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 기준)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39기 반기	유동	매출채권	1,560,070	976,523	62.6%
		미청구공사	717,874	2,737	0.4%
		미수금	197,973	38,792	19.6%
		선급금	100,464	2,046	2.0%
		단기대여금	577,055	0	0.0%
		기타	233,864	17,856	7.6%
		소계	3,387,300	1,037,955	30.6%
	비유동	매출채권	80	80	100.0%
		장기대여금	699,242	210,530	30.1%
		기타	27,326	295	1.1%
소계		726,648	210,905	29.0%	
합 계		4,113,949	1,248,860	30.4%	
제38기	유동	매출채권	1,594,410	992,585	62.3%
		미청구공사	659,008	3,798	0.6%
		미수금	195,553	29,612	15.1%
		선급금	36,699	2,046	5.6%
		단기대여금	591,954	3	0.0%

		기타	253,106	16,752	6.6%	
		소계	3,330,730	1,044,796	31.4%	
	비유동	매출채권	71	37	52.1%	
		장기대여금	653,127	209,889	32.1%	
		기타	25,829	295	1.1%	
소계	679,027	210,221	31.0%			
합 계			4,009,757	1,255,017	31.3%	
제37기	유동	매출채권	1,690,835	1,089,421	64.4%	
		미청구공사	384,665	8,885	2.3%	
		미수금	151,146	23,632	15.6%	
		선급금	46,256	2,046	4.4%	
		단기대여금	934,698	211,015	22.6%	
		기타	248,800	16,306	6.6%	
		소계	3,456,399	1,351,305	39.1%	
	비유동	매출채권	112	91	81.5%	
		장기대여금	32,395	1,421	4.4%	
		기타	21,485	295	1.4%	
		소계	53,993	1,807	3.4%	
	합 계			3,510,392	1,353,112	38.6%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55,017	1,353,112	659,437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889	-93,414	-27,73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94,143	-27,796
② 상각채권회수액	-	-	-57
③ 기타증감액	889	729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7,046	-4,681	721,41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48,860	1,255,017	1,353,112

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손상징후가 식별가능한 채권은 개별법으로 적절한 대손설정율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초과	3년 초과	계
-----	-------	-------	-------	-------	---

			1년 이하	3년 이하		
금 액	일반	127,705	29,910	735,198	617,707	1,510,520
	특수관계자	29,693	16	17,584	2,338	49,630
	계	157,397	29,926	752,782	620,045	1,560,150
구성비율		10.09%	1.92%	48.25%	39.74%	100.00%

4.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연결 기준)

가.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39기 반기	제38기	제37기	비고
건 축	제품	0	0	0	
	완성주택	0	0	0	
	미완성주택	4,479	570	639	
	원재료	162	274	596	
	소 계	4,641	845	1,235	
인프라	원재료	4,078	4,018	3,864	
	소 계	4,078	4,018	3,864	
메카텍	원재료	11,848	13,391	27,743	
	재공품	28	0	0	
	미착품	4,798	2,205	3,866	
	소 계	16,675	15,597	31,609	
HRSG	재공품	0	28	-	
	원재료	2,086	2,044	-	
	미착품	1,469	424	-	
	소 계	3,555	2,496	-	
두산큐백스	상품	28	28	85	
	원재료	182	176	28	
	저장품	182	73	184	
	소 계	392	277	297	
렉스콘	원재료	1,076	862	704	
	저장품	178	139	239	
	소 계	1,254	1,002	943	
DVH	원재료	5,922	6,251	-	
	저장품	325	306	-	
	미착품	2,010	1,306	-	
	소 계	8,257	7,864	-	
합 계	상품	28	28	85	
	제품	0	0	0	

	원재료	25,354	27,017	32,935	
	저장품	685	518	423	
	재공품	28	28	0	
	미착품	8,277	3,936	3,866	
	완성주택	0	0	0	
	미완성주택	4,479	570	639	
	합 계	38,851	32,097	37,94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0.8%	0.6%	0.9%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56.0회	60.2회	40.2회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당사는 매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9기 반기에도 2014년 6월 30일 현재 마감 기준으로 각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 하에 각 현장 담당자의 실사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 재고실사시 감사인의 입회여부

연말의 경우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재고자산은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 등에 따라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를 고려하여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충당금	기말잔액	비고
제품	28	28	-	28	
원재료	28,385	28,385	-2,347	26,039	
재공품	28	28	-	28	
미착품	8,277	8,277	-	8,277	
완성주택	0	0	-	0	
미완성주택	4,479	4,479	-	4,479	
합계	41,198	41,198	-2,347	38,851	

(4)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5.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3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1.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3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1.31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3	12,900	8.64	A2- (한기평/한신정)	2011.01.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3	20,000	6.2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04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5	2,000	6.2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05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6	15,000	6.2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07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7	20,000	6.2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07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12	10,000	6.0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12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19	17,000	6.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20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4	50,000	6.55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6	5,000	6.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6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8	16,000	6.45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8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31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2.28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31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2.28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31	12,900	8.96	A2- (한기평/한신정)	2011.02.28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08	32,000	6.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08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14	10,000	6.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16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2	10,200	6.55	A2- (한기평/한신정)	2011.08.22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3	28,000	6.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23	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4	60,000	7.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5.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4	30,000	7.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5.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4	25,000	7.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5.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8	20,000	5.40	A2- (한기평/한신정)	2011.03.14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8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3.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8	12,900	9.10	A2- (한기평/한신정)	2011.03.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8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삼성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8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31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04	2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03	상환	아이비케이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4	20,000	5.60	A2- (한기평/한신정)	2011.03.28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5	11,508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15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6	5,000	6.60	A2- (한기평/한신정)	2011.09.16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7	10,000	6.35	A2- (한기평/한신정)	2011.06.17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7	10,000	6.35	A2- (한기평/한신정)	2011.06.20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17	1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0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8	20,000	5.6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11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1.03.30	10,000	4.68	A- (한기평/한신정)	2014.03.29	상환	대우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1.04.05	25,000	6.95	A- (한기평/한신정)	2012.04.05	상환	한국산업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31	14,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07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31	3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28	상환	우리은행본점업무팀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31	2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31	12,900	9.09	A2- (한기평/한신정)	2011.04.29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04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04	상환	솔로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11	20,000	5.6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25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5	20,000	5.60	A2- (한기평/한신정)	2011.04.28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8	3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0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9	12,900	9.26	A2- (한기평/한신정)	2011.05.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9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5.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1.04.29	50,000	7.62	A- (한기평/한신정)	2014.05.08	상환	한국산업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05.24	100,000	4.00	A- (한기평/한신정)	2014.05.24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05.24	100,000	2.00	A- (한기평/한신정)	2014.05.24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9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5.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29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5.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24	60,000	8.52	A2- (한기평/한신정)	2011.08.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24	30,000	8.52	A2- (한기평/한신정)	2011.08.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24	25,000	8.52	A2- (한기평/한신정)	2011.08.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1	12,900	8.8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31	20,000	6.77	A2- (한기평/한신정)	2012.05.30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3	2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아이비케이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8	10,000	6.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8.0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8	20,000	6.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9.0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22	7,000	8.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22	3,000	8.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6.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30	12,900	8.97	A2- (한기평/한신정)	2011.08.0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30	20,000	6.90	A2- (한기평/한신정)	2011.09.06	상환	아이비케이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0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2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01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2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22	1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7.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01	12,900	9.07	A2- (한기평/한신정)	2011.08.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0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01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8.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19	20,000	6.85	A2- (한기평/한신정)	2011.08.31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4	25,000	8.75	A2- (한기평/한신정)	2011.11.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4	30,000	8.75	A2- (한기평/한신정)	2011.11.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4	60,000	8.75	A2- (한기평/한신정)	2011.11.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08.30	60,000	7.50	A- (한기평/한신정)	2013.02.28	상환	KB투자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08.30	60,000	7.90	A- (한기평/한신정)	2013.08.30	상환	한국산업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31	12,900	8.83	A2- (한기평/한신정)	2011.09.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1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9.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09.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2	20,000	8.79	A2- (한기평/한신정)	2011.11.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6	20,000	6.90	A2- (한기평/한신정)	2011.10.06	상환	아이비케이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8	1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1.12.15	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12,900	8.88	A2- (한기평/한신정)	2011.10.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0.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0.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06	10,000	6.90	A2- (한기평/한신정)	2011.10.20	상환	아이비케이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20	30,000	8.52	A2- (한기평/한신정)	2011.10.21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10.21	40,000	7.30	A- (한기평/한신정)	2012.10.21	상환	KB투자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10.21	60,000	7.90	A- (한기평/한신정)	2013.10.21	상환	KB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31	12,900	8.93	A2- (한기평/한신정)	2011.11.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01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1.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0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1.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11	4,85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9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17	6,000	6.95	A2- (한기평/한신정)	2011.12.28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2	30,000	8.58	A2- (한기평/한신정)	2011.11.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60,000	8.84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30,000	8.84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25,000	8.84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20,000	8.84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1.11.25	50,000	7.90	A- (한기평/한신정)	2013.11.25	상환	SK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30	30,000	8.71	A2- (한기평/한신정)	2011.12.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30	12,900	8.84	A2- (한기평/한신정)	2011.12.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01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2.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01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1.12.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08	20,000	6.90	A2- (한기평/한신정)	2011.12.29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30	12,900	8.97	A2- (한기평/한신정)	2012.01.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30	10,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2.01.31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30	5,000	6.50	A2- (한기평/한신정)	2012.01.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30	30,000	8.71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18	20,000	7.00	A2- (한기평/한신정)	2012.02.03	상환	(주)두산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18	10,000	7.00	A2- (한기평/한신정)	2012.03.30	상환	(주)두산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31	12,900	8.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9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01	1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02	10,000	7.05	A2- (한기평/한신정)	2012.02.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02	5,25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02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06	20,000	7.00	A2- (한기평/한신정)	2012.03.30	상환	(주)두산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3	6,67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0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3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0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6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7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6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7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6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7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6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7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16	1,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7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4	6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3.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4	5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3.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4	3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3.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4	25,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3.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9	12,900	8.83	A2- (한기평/한신정)	2012.03.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9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3.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02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3.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09	10,51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1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3.14	70,000	7.30	A- (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3.14	30,000	7.50	A- (한기평/한신정)	2013.09.14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15	5,000	7.30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5	상환	한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3	6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4.2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3	5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4.2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3	30,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4.2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3	25,000	8.63	A2- (한기평/한신정)	2012.04.2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30	10,000	7.90	A2- (한기평/한신정)	2012.04.05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30	12,900	8.87	A2- (한기평/한신정)	2012.04.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05	10,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4.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2.04.10	25,000	6.80	A- (한기평/한신정)	2013.04.10	상환	한국산업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0	6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0	5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0	3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0	25,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5.1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30	12,900	8.76	A2- (한기평/한신정)	2012.05.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30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02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5.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8	6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8	5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8	30,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8	25,000	8.62	A2- (한기평/한신정)	2012.06.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23	5,000	7.50	A2- (한기평/한신정)	2012.06.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30	20,000	6.82	A2- (한기평/한신정)	2013.05.30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31	12,900	8.72	A2- (한기평/한신정)	2012.06.29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31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6.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01	5,000	6.80	A2- (한기평/한신정)	2012.06.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5	60,000	8.62	A3+ (한기평/한신정)	2012.07.1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5	50,000	8.62	A3+ (한기평/한신정)	2012.07.1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5	30,000	8.62	A3+ (한기평/한신정)	2012.07.1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5	25,000	8.62	A3+ (한기평/한신정)	2012.07.1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6.21	50,000	7.20	BBB+ (한기평/한신정)	2013.06.21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6.21	40,000	7.60	BBB+ (한기평/한신정)	2013.12.21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6.21	110,000	8.00	BBB+ (한기평/한신정)	2014.06.21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9	12,900	8.68	A3+ (한기평/한신정)	2012.07.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9	5,000	7.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7.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9	5,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9.28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02	5,000	7.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7.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3	60,000	8.53	A3+ (한기평/한신정)	2012.08.1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3	50,000	8.53	A3+ (한기평/한신정)	2012.08.1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3	30,000	8.53	A3+ (한기평/한신정)	2012.08.1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3	25,000	8.53	A3+ (한기평/한신정)	2012.08.1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31	12,900	8.13	A3+ (한기평/한신정)	2012.08.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31	6,500	7.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8.0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31	3,500	7.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8.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01	4,000	7.00	A3+ (한기평/한신정)	2012.08.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0	6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09.0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0	5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09.0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0	3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09.0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0	25,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09.0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29	5,000	7.20	A3+ (한기평/한신정)	2013.03.04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31	12,900	8.22	A3+ (한기평/한신정)	2012.09.28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31	4,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09.03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31	3,5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09.28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03	4,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09.28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07	6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0.0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07	5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0.0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07	3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0.0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07	25,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0.0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9.21	10,000	6.80	BBB+ (한기평/한신정)	2013.09.21	상환	미래에셋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9.21	55,000	7.60	BBB+ (한기평/한신정)	2014.03.21	상환	미래에셋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2.09.21	35,000	8.00	BBB+ (한기평/한신정)	2014.09.21	미상환	미래에셋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8	12,900	8.22	A3+ (한기평/한신정)	2012.10.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8	5,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2.12.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2	3,5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0.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2	4,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0.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5	6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0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5	5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0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5	3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0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5	25,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0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05	30,000	6.39	A3+ (한기평/한신정)	2012.12.31	상환	(주)두산캐피탈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1	12,900	8.1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31	2,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1	2,5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2	6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2	5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2	3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2	25,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1.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12,900	8.15	A3+ (한기평/한신정)	2012.12.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2,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2.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6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2.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5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2.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30,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2.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30	25,000	8.63	A3+ (한기평/한신정)	2012.12.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03	2,5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2.12.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8	60,000	8.36	A3+ (한기평/한신정)	2013.01.2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8	50,000	8.36	A3+ (한기평/한신정)	2013.01.2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8	30,000	8.36	A3+ (한기평/한신정)	2013.01.2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28	25,000	8.36	A3+ (한기평/한신정)	2013.01.2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31	12,900	8.18	A3+ (한기평/한신정)	2013.01.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31	5,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3.03.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02	2,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3.01.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02	2,5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3.01.31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6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2.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5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2.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3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2.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25	25,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2.15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31	12,900	8.10	A3+ (한기평/한신정)	2013.02.28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3.01.31	20,000	8.00	BBB+ (한기평/한신정)	2013.03.29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5	6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5	5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5	30,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15	25,000	8.34	A3+ (한기평/한신정)	2013.03.14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8	12,900	7.99	A3+ (한기평/한신정)	2013.03.29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04	5,000	6.90	A3+ (한기평/한신정)	2013.06.04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3.03.12	100,000	7.80	BBB+ (한기평/한신정)	2015.03.12	부분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14	6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4.1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14	3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4.1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14	25,000	8.19	A3+ (한기평/한신정)	2013.04.12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29	12,900	7.96	A3+ (한기평/한신정)	2013.04.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3.04.01	20,000	7.00	BBB+ (한기평/한신정)	2013.04.30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01	6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4.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01	3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4.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01	25,000	8.19	A3+ (한기평/한신정)	2013.04.30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3.04.10	25,000	6.32	BBB+ (한기평/한신정)	2014.04.10	상환	한국산업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30	12,900	8.02	A3+ (한기평/한신정)	2013.05.29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30	6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5.29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30	30,000	7.91	A3+ (한기평/한신정)	2013.05.29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30	25,000	8.19	A3+ (한기평/한신정)	2013.05.29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3.05.24	10,000	6.80	BBB+ (한기평/한신정)	2014.05.24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3.05.24	60,000	7.70	BBB+ (한기평/한신정)	2015.05.24	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9	60,000	7.72	A3+ (한기평/한신정)	2013.06.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9	30,000	7.72	A3+ (한기평/한신정)	2013.06.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9	25,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3.06.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9	12,900	8.22	A3+ (한기평/한신정)	2013.06.28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30	20,000	6.72	A3+ (한기평/한신정)	2014.05.29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04	5,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09.04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19	20,000	7.68	A3+ (한기평/한신정)	2013.06.28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8	60,000	7.72	A3+ (한기평/한신정)	2013.07.2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8	30,000	7.72	A3+ (한기평/한신정)	2013.07.2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8	25,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3.07.2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01	12,900	8.33	A3+ (한기평/한신정)	2013.07.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11	15,000	7.72	A3+ (한기평/한신정)	2013.07.31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3.07.23	100,000	7.80	BBB+ (한기평/한신정)	2015.07.23	부분상환	한화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26	6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8.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26	3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8.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26	25,000	7.98	A3+ (한기평/한신정)	2013.08.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31	12,900	8.25	A3+ (한기평/한신정)	2013.08.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31	15,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8.23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3	6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9.1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3	3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9.1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3	25,000	7.98	A3+ (한기평/한신정)	2013.09.1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23	15,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09.17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30	12,900	8.29	A3+ (한기평/한신정)	2013.09.30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3.09.02	60,000	7.08	BBB+ (한기평/한신정)	2015.03.04	부분상환	우리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04	5,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04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2	1,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04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회사채	공모	2013.09.16	100,000	7.80	BBB+ (한기평/한신정)	2015.09.16	부분상환	동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7	6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10.1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7	30,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10.1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7	25,000	7.98	A3+ (한기평/한신정)	2013.10.1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7	15,000	7.70	A3+ (한기평/한신정)	2013.10.16	상환	우리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30	12,900	8.29	A3+ (한기평/한신정)	2013.10.31	상환	신한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1.04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1.15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03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16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27	상환	신영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25	10,000	8.5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26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25	10,000	7.60	A3+ (한기평/한신정)	2014.02.24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04	3,51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3.05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04	2,49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3.05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0	10,000	6.00	A3+ (한기평/한신정)	2013.12.17	상환	유진투자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3.10.24	28,294	7.49	-	2015.10.26	미상환	-*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1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3.13	상환	하이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4	10,000	7.60	A3+ (한기평/한신정)	2014.04.24	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8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3.06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05	3,51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5.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05	2,49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5.29	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07	10,00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3.28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21,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4.06.30	상환	엔에이치농협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4.05.08	50,000	8.50	BBB+ (한기평/한신정)	2016.05.16	미상환	산업은행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16	9,000	8.20	A3+ (한기평/한신정)	2014.06.30	상환	엔에이치농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9	3,51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8.28	미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9	2,490	7.50	A3+ (한기평/한신정)	2014.08.28	미상환	우리종합금융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4.05.29	10,000	6.90	BBB+ (한기평/한신정)	2014.08.29	미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4.05.29	10,000	7.80	BBB+ (한기평/한신정)	2015.05.29	미상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30	21,000	8.00	A3+ (한기평/한신정)	2014.07.31	미상환	엔에이치농협증권
두산건설(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30	9,000	8.20	A3+ (한기평/한신정)	2014.07.31	미상환	엔에이치농협증권
합 계	-	-	-	7,442,382	-	-	-	-	-

※외화표시 사모사채 : 발행금액은 2,700만\$이며, '14년 6월말 기준 원화평가금액은 27,389백만원
입

2.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30,000	6,000	-	-	-	-	-	36,000
	합계	-	30,000	6,000	-	-	-	-	-	36,000

2.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18,780	105,024	-	-	-	-	-	223,804
	사모	50,000	77,389	-	-	-	-	-	127,389
	합계	168,780	182,413	-	-	-	-	-	351,193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초과	10년초과	15년초과	20년초과	30년초과	합 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30년이하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1. 금융상품의 평가방법 및 공정가치

가. 평가방법

(1)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조건 및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의 자산은 결제시기에 따라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④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되는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며, 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는 매매일(연결회사가 자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연결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화폐성 및 비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 평가합니다. 손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4)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가치 등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장부금액 합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138,785,757	-	-	138,785,757	138,785,757
단기투자증권	-	7,000,045	-	7,000,045	7,000,045
매출채권	583,546,886	-	-	583,546,886	583,546,886
미수금	159,180,861	-	-	159,180,861	159,180,861
단기대여금	577,054,794	-	-	577,054,794	577,054,794
파생상품평가자산	-	-	20,479,627	20,479,627	20,479,627
미수수익(주1)	98,734,210	-	-	98,734,210	98,734,210
장기금융상품	53,672	-	-	53,672	53,672
장기투자증권	-	132,298,712	-	132,298,712	132,298,712
장기대여금(주2)	488,712,455	-	-	488,712,455	488,712,455
보증금(주2)	27,030,807	-	-	27,030,807	27,030,807
합계	2,073,099,442	139,298,757	20,479,627	2,232,877,826	2,232,877,826

(주1)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금융보증부채	장부금액 합계	공정가치
매입채무	-	663,711,950	-	-	663,711,950	663,711,950
단기차입금	-	659,780,196	-	-	659,780,196	659,780,196
유동화채무	-	363,000,000	-	-	363,000,000	363,000,000
유동성장기부채	-	235,499,518	-	-	235,499,518	235,499,518
미지급금	-	97,971,734	-	-	97,971,734	97,971,734
미지급비용	-	52,808,173	-	-	52,808,173	52,808,173
예수보증금(주1)	-	4,300,062	-	-	4,300,062	4,300,062
임대보증금(주1)	-	29,803,063	-	-	29,803,063	29,803,063
사채	-	181,489,283	-	-	181,489,283	181,489,283
장기차입금	-	117,691,616	-	-	117,691,616	117,691,616
장기유동화채무	-	70,000,000	-	-	70,000,000	70,000,000
장기미지급금	-	5,008,058	-	-	5,008,058	5,008,058
파생상품평가부채	1,703,865	-	2,882,744	-	4,586,609	4,586,609
장기예수보증금	-	46,004,870	-	-	46,004,870	46,004,870
장기임대보증금(주2)	-	12,100,648	-	-	12,100,648	12,100,648
금융보증부채(주2)	-	-	-	21,064,988	21,064,988	21,064,988
합계	1,703,865	2,539,169,171	2,882,744	21,064,988	2,564,820,768	2,564,820,768

(주1)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부채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부채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장부금액 합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158,121,377	-	-	158,121,377	158,121,377
단기금융상품	304,296	-	-	304,296	304,296
단기투자증권	-	11,907,212	-	11,907,212	11,907,212
매출채권	601,825,664	-	-	601,825,664	601,825,664
미수금	165,941,146	-	-	165,941,146	165,941,146
단기대여금	591,950,626	-	-	591,950,626	591,950,626
파생상품평가자산	-	-	11,383,927	11,383,927	11,383,927
미수수익(주1)	97,623,251	-	-	97,623,251	97,623,251
장기금융상품	56,672	-	-	56,672	56,672
장기투자증권	-	135,688,458	-	135,688,458	135,688,458
장기매출채권(주2)	34,329	-	-	34,329	34,329
장기대여금(주2)	443,238,104	-	-	443,238,104	443,238,104
보증금(주2)	25,533,602	-	-	25,533,602	25,533,602
합계	2,084,629,067	147,595,670	11,383,927	2,243,608,664	2,243,608,664

(주1)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자산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금융보증부채	장부금액 합계	공정가치
매입채무	-	668,862,854	-	-	668,862,854	668,862,854
단기차입금	-	559,275,632	-	-	559,275,632	559,275,632
유동화채무	-	270,000,000	-	-	270,000,000	27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	323,096,708	-	-	323,096,708	323,096,708
미지급금	-	97,537,560	-	-	97,537,560	97,537,560
미지급비용	-	56,693,285	-	-	56,693,285	56,693,285
예수보증금(주1)	-	4,539,705	-	-	4,539,705	4,539,705
임대보증금(주1)	-	29,332,100	-	-	29,332,100	29,332,100
사채	-	235,682,241	-	-	235,682,241	235,682,241
장기차입금	-	153,156,355	-	-	153,156,355	153,156,355
장기미지급금	-	3,363,880	-	-	3,363,880	3,363,880
파생상품평가부채	285,569	-	1,155,935	-	1,441,504	1,441,504
장기예수보증금	-	51,316,421	-	-	51,316,421	51,316,421
장기임대보증금(주2)	-	11,485,984	-	-	11,485,984	11,485,984
금융보증부채(주2)	-	-	-	5,822,516	5,822,516	5,822,516
합계	285,569	2,464,342,725	1,155,935	5,822,516	2,471,606,745	2,471,606,745

(주1) 재무상태표상 기타유동부채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부채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431,172	-	127,420,698	127,851,87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20,479,627	-	20,479,627
합계	431,172	20,479,627	127,420,698	148,331,497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1,703,865	-	1,703,86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2,882,744	-	2,882,744
합계	-	4,586,609	-	4,586,609

(주1)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466,249	1,308,013	122,961,133	124,735,39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11,383,927	-	11,383,927
합계	466,249	12,691,940	122,961,133	136,119,322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85,569	-	285,56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1,155,935	-	1,155,935
합계	-	1,441,504	-	1,441,504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총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대체	기말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22,961,133	-	-	4,459,565	-	-	127,420,698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총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대체(주1)	기말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67,306,094	7,088,427	(26,130,352)	7,732,170	(85,200,907)	52,165,701	122,961,133

(주1)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4개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수준 3으로 분류하였습니다(장부금액 : 52,166백만원).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배당금수익	환입(손상)	처분손익	환변동손익	금융보증수익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2,506,127	-	6,073,408	(828,576)	(5,594,385)	-	-
매도가능금융자산	638,270	82,800	(2,642,977)	(557,951)	-	-	(28,128)
합계	3,144,397	82,800	3,430,431	(1,386,527)	(5,594,385)	-	(28,12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67,979,704)	-	-	-	4,707,632	-	-
금융보증부채	-	-	-	-	-	389,146	-
합계	(67,979,704)	-	-	-	4,707,632	389,146	-

② 전반기

(단위:천원)

구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배당금수익	환입(손상)	처분손익	환변동손익	금융보증수익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9,652,265	-	5,509,637	(814,930)	5,379,490	-	-
매도가능금융자산	1,044,075	123,025	(18,963,636)	-	-	-	(318,118)
합계	10,696,340	123,025	(13,453,999)	(814,930)	5,379,490	-	(318,11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88,975,995)	-	-	(2,326,552)	(3,288,070)	-	-
금융보증부채	-	-	-	-	-	3,183,571	-
합계	(88,975,995)	-	-	(2,326,552)	(3,288,070)	3,183,571	-

(5) 연결회사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매매목적 파생상품	(1,613,172)	254,781	-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6,829,451	889,909	-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	(746,962)
합계	5,216,279	1,144,690	(746,962)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매매목적 파생상품	(683,716)	2,820,490	-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8,772,800)	(594,291)	-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	296,036
합계	(9,456,516)	2,226,199	296,036

2. 유형자산 재평가

연결회사는 제38기 중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한해 후속측정방법으로 종전의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변경 전	변경효과	변경 후
토지(유형자산)	654,836,080	201,470,033	856,306,113
이연법인세부채	-	44,424,410	44,424,410

(*) 재평가로 인해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인 201,929백만원은 제38기 재무제표상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고,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재평가손실인 459백만원을 제38기 재무제표상 손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토지에 대해 후속측정을 재평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당반기말 현재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토지를 측정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은 646,689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전기말 재평가금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연결회사와 관계가 없는 독립된 평가기관인 두요감정평가법인에서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두요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평가방법
토지	비교표준지 공시시가 기준평가방식 및 거래사례비교법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